
[본서는\(World Assembly of Muslim Youth, WAMY\) 에서 출판되어 한글로 번역되었습니다](#)

이슬람의 실상



함무다 압달라티 박사 저

<http://www.quran.or.kr>

헌정사

진정으로 머리 숙여 당신의 도우심에 감사하나이다.

오, 하나님!

진실한 이슬람의 정신으로 당신의 은혜에 감사하나이다.

오, 하나님!

온 마음 다 받쳐 당신께 감사하나이다. 오, 하나님!

당신의 인도와 사랑이 없다면,

이 책이 나올 수 없었기에,

당신의 도우심과 대의가 없다면,

이 보잘 것 없는 글이 결코 빛을 볼 수 없었기에,

그리고 이 책이 바쳐질 만한 가치가 있다면

부디 가납하시어 이를 축복하여 주소서

삼가 당신께 이 책을 바치나이다.

오, 하나님!

-함무다 압달라티-

머리말

본서는 단지 일반독자에게 이슬람의 기본을 알려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분명해지겠지만, 본서에서 이슬람의 깊이와 폭을 드러내 보일 의도는 없다. 의도한 바는 단지 교양 있는 일반 독자로 하여금 문제를 올바르게 꿰뚫어 보게 하고 이슬람이 나타내는 제 원칙을 인식하게 하자는 것뿐이다. 일단 처음에 생긴 관심을 계속 발전시키면 스스로 보다 깊이 있는 지식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반구의 무슬림들, 그 중에서도 특히 외딴 지역에 거주하는 젊은 무슬림들은 복잡한 문제에 직면한다. 주위의 상황이 전부 이슬람에 관한 한 불리하다. 라디오논평, TV쇼, 잡지기사, 영화 그리고 심지어 학교 교과서까지 모두가 이슬람을 잘못 전하고 있는 바, 여기에 반드시 악의가 없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게다가 어떤 극성스러운 단체들은 무슬림이 이 교파나 혹은 저 종파로 개종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서, 이런 무슬림들의 상황을 이용하려고 든다. 한편, 살다 보면 사람들의 주의와 관심을 올바른 신앙의 길로부터 다른 데로 돌리게 하는 유혹을 많이 받게 된다. 이는 극히 해로운 것이다. 특히 젊은 무슬림들의 경우에는 더욱 해로우며, 세계의 이쪽에서 오해받고 있는 종교인 이슬람의 경우에는 더 한층 해롭다. 일부 무슬림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종교적으로 인도하고 가르치려고 애쓰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제한된 노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이와 같이 주위에서 자꾸 압력을 가해 오는데 어떻게 그것이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사정은 어떤가? 이처럼 어려운 상황이 가져 온 결과는 무엇인가? 사태가 암담해 보이기 는 하지만 절망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아주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일부 무슬림들은 주위에서 가해 오는 심한 압력에 무고한 피해를 입어 무관심해지고 말이 없는 사람이 되어 버린다. 이들은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거나 자기 주위를 의심한다. 결국 이들은 자기들이 속해 있는 사회에 아무런 가치 있는 기여도 할 수 없게 되며 그 사회로부터 아무런 실속 있는 혜택도 받지 못한다. 그런가 하면 유행에 뒤지지 않고 남의 마음에 들고 싶은 나머지 사회의 조류에 휩쓸려 버리는 무슬림들도 있다. 이들 역시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에 기여할 수 없거니와 그로 하여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실효성 있는 종교적 도덕이라는 것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무관심해지고 위축되거나 해이해진 무슬림 말고도, 어떻게 해봐도 개선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 무슬림들이 있다. 이들은 대개의 경우, 어떤 종교 집단의 고도로 능률적인 조직 같은 것이나 세속적인 종교 단체가 사회에 널리 유포시킨 것에 빠져 있는 수가 없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그저 가입하고 있을 뿐 실상은 주변인들에 불과하다. 이들은 현대 사회의 특징을 이루고 있

는 고독한 군중 속에서 방황하는 영혼들로도 볼 수 있다. 이 혹은 저 특수 집단의 신념이 철저히 주입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가입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들이 타집단에 가입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이슬람적 유산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데다가 비무슬림적 환경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무슬림으로 나서서 버텨 가는데 필요한 지식과 용기를 가질 수 없게 된다. 이런 “무슬림”들이 종교에 진정 어린 관심을 가진다면 이슬람의 길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슬람이야말로 그 종교적 발전과 인간적 열망의 수준에 있어 타의 추종을 불허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인류의 정신적□도덕적 복지에 진정한 관심이 있다면, 이슬람의 체제 내에서 가장 커다란 만족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집단에 가입해 봐야 항상 그 관심이 피상적(皮相的)일 수밖에 없으며 더 좋은 것을 찾다가 보다 못한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결국 이들은 같은 무슬림들과의 정신적 유대를 잃고 새로 들어간 집단의 주변에서 맴도는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상황 전체의 최종적인 결과를 분석해 보면 그 결과가 관련 당사자 모두에게도 애처롭고 유해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무슬림 강령에 의해 해가 되는 것은 다른 모든 훌륭한 강령에 대해서는 더 큰 해가 된다. 진정한 무슬림이야말로 책임질 줄 아는 시민 정신과 세계의 평화□상호 이해와 인류의 형제애, 양심의 자유와 인간 존엄성 보존의 실현에 가장 보람있는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원칙들은 이슬람의 중요한 부분을 이룬다. 바로 이런 원칙들이 무슬림에게 부과, 위임되어 있다. 만일 이런 원칙들을 지킨다고 하는 무슬림들이 방황하거나 무관심해져 버리면 인류 일반이 그의 가치 있는 기여를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니 이는 이만저만한 손실이 아니다.

무슬림들이 자신들의 성서(聖書)인 영광의 꾸란이 최고의 계시서이며 종교적 진리의 기준이라 믿을 만한 이유는 충분하다. 이들도 또한 이슬람이 영원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재확인하고 과거의 종교적 분쟁을 해결하여 인간이 각계 각층에서 건설적인 창조 활동을 할 수 있게 해 주었다고 믿는다. 그렇다고 무슬림들이 나머지 인류와 다르게 혹은 그들보다 우월하게 선별된다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이슬람을 강요하려 하지 않으며 인류를 열등 계급과 우수 계급으로 나누려 하지도 않는다. 어떤 민족은 은총을 받고 어떤 민족은 저주를 받는다는 개념을 달가워하지 않으며, 선민이니 이방인이니 하는 교리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오히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인류에게 전하고 필요 불가결한 공헌을 할 임무가 부과되어 있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무슬림들에게는 무관심해지거나 배타적이 되거나 오만을 부릴 여지가 있을 수 없다. 실생활의 모든 면으로 마음을 활짝 열고 신분과 교의(教義)와 인종과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에게 팔을 내밀어 환대하는 것이 그들의 엄숙한 의무이

다. 이들이 이슬람을 실천하고 친절하고 진정 어린 이슬람의 정신으로 다른 사람들과 화합해야만이 비로소 이들이 베풀 수 있는 선행과 바칠 수 있는 봉사가 그 의의를 갖게 될 것이다.

이런 모든 상황에 비추어 이슬람을 참신하게 소개해 보고자 한다. 무슬림들을 맹목적인 광신자나 편협한 사람들로 만들려는 것은 아니다. 이슬람이 이에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무슬림들과 그에 상당하는 사람들에게 이슬람의 진리를 재인식시키고 세계에 대한 영적인 통찰력과 인간 조건에 대한 윤리적 접근법을 갖게 해 주고 싶을 따름이다. 이러한 희망이 이루어진다면 무슬림들로 하여금 각기 자기네 나라의 책임감 있는 시민, 인류의 존경할 만한 일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염원하는 사람들이 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까지, 현대 세계에서 이슬람이 처한 미래에 대한 전망을 비관적으로 그려본 것일까? 아니면 무슬림들이 겪고 있는 절망감과 무력감을 허심탄회하게 고백한 것일까? 혹은 무슬림들이 신세계에서 종교적 싸움에 패할 것을 예상하고 그 결과를 반성해 볼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비관론과 절망감은 이슬람의 정신에 위배되며 무력감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양립할 수 없다. 이슬람의 미래가 곧 인류의 미래이며 인류에게 미래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나는 있다고 믿는다-이슬람의 앞에도 위대하고 밝은 미래가 가로 놓여 있다. 비록 그 진전이 더디어 보이기는 하지만 무슬림들은 지금 전개하고 있는 종교적 싸움에서 패배하지는 않는다. 어떤 이유에서건 무슬림들이 이 종교적 싸움에서 패배한다면 인류는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보게 될 것이다. 신세계의 무슬림들이 당면하고 있는 상황을 실감 있게 그려내는데 본 머리말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부모와 자녀에게 다 같이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과 손실을 방지해야 한다는 경고를 해 주자는 것이다. 또 인류의 영적인 복지에 진정한 관심을 가진 사람 모두로 하여금, 정신을 바짝 차려 인류와 인류가 당면한 문제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알라의 배려에 우리의 무슬림 형제들을 맡기는 바이다. 그 분을 무한히 신뢰하기에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오직 힘을 다하여 개혁(改革)을 바랄 뿐이니 나의 (과업의)성공은 오직 하나님께서 비롯됨이라. 그 분을 나는 신뢰하며 그 분을 나는 의지하노라.”(성꾸란 11:88)

함두다 압달라티

제 1장 이슬람의 이념적 기초

알라(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바로 이슬람의 기초를 이룬다. 주제가 매우 중요해서 철저하고도 이것은 명백한 논의가 요구된다. 명료를 기하기 위해서 몇 가지 간단한 논증을 하게 될 것이다.) 많은 세기 동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회의가 위인들의 정신을 사로잡아 오고 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유한한 인간의 지능이 무한한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이 일치한다. 인간의 지능은 인간의 호기심을 만족시켜 주기 위하여 그분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을 뿐이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은 과학이나 철학 혹은 특수한 인식론을 신뢰한다고 공언한다. 이들의 논법은 사리에 맞지 않거나 부적절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항상 복잡한데다, 이해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계발된 자유로운 정신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찾기 마련이다. 그 길을 찾지 못한다고 해서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다. 실체를 부인한다고 해서 그 실체가 실재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다. 흥미 있는 비교 견해론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Jacques Maritain, 하나님에의 제접근방법(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954); Muhammad Zafrulla Khan, 이슬람 : 현대인에 대한 의미. (New York: Harper & Row, 1962); John Hick, ed., 하나님의 존재(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964) 이것은 이 주제에 대해 사전 지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루하거나 너무 단순하게 들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도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참고 읽어 주기를 당부한다.

과학의 이름으로 혹은 경험과 이해가 부족한 탓으로 하나님의 개념에 의문을 던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의 태도는, 비록 이들이 박학한 지식인으로 자처하지만, 불안한 심리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다. 나는 그들의 주장에 관심을 두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관심을 두고자 하는 것은 그들이 처해 있는 정확한 입장이다. 이렇게 하자니, 논의의 상당 부분이 마치 성인이 아닌 아이를 주 대상으로 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꾸며지게 된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본서는 젊은 무슬림에게 이슬람에서의 하나님의 올바른 개념을 알려 주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고려해야 할 또 한가지 사실은 비무슬림으로서 소위 하나님을 믿고 종교를 옹호한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이 생각하는 이슬람에서의 하나님의 개념이 왜곡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제부터 몇 가지 단순하면서도 초보적인 논증을 하는 것은 이상의 이유들 때문이다. 그러나 논증의 단순성이 오히려 많은 성인들에게는 심오한 사색을

유도하는 결과가 될지도 모른다. 그렇게 된다면 이러한 단순성은 바람직하고 창의적인 단순성이 될 것이다. 이러한 단순성 단체가 이슬람의 뚜렷한 특징이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가정마다 가정이 있고, 학교마다 교장이 있으며, 도시마다 시장이 있고, 주마다 주지사가 있으며, 국가마다 국가의 원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모든 산물은 어떤 생산자의 작품이며, 모든 아름다운 예술품은 어떤 예술가의 창작품임을 우리는 의심 없이 안다. 이 모든 것이 명백하기는 하지만, 인간의 지식에 대한 갈구와 세계의 범상치 않는 사물에 대한 호기심을 만족시켜 주지는 못한다. 수려하고 절묘한 경치를 보여주는 자연의 미, 끝없는 하늘의 지평선, 그리고 그 지평선 멀리의 아스라함, 쉬지 않고 질서 정연하게 이루어지는 낮과 밤의 교대, 해와 달과 행성의 궤도, 생물계와 무생물계, 대대로 이어지는 인간의 부단한 과정과 진보, 이 모든 것을 보고 인간은 종종 경탄해 마지아니한다. 우리가 더불어 살고 있고, 무한히 향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도대체 누가 만들어 유지시켜 나가고 있는지 알고 싶어 자주 의문에 사로잡힌다.

거대한 우주를 설명해 낼 수 있는가? 존재의 신비가 납득할 수 있게 풀어져 있는가? 책임을 진 가정이 없이는 가정이 제 구실을 할 수 없고, 행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도시가 번창해 나갈 수 없으며 어떤 식으로든 수반이 있지 않고서는 국가가 존재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안다. 또 무엇이든지 스스로 생겨날 수 없다는 것도 안다. 게다가 우리는 우주가 존재하고 가장 질서 정연하게 운행되고 있으며 헤아릴 수 없이 오랫동안 존속해 오고 있음을 본다. 그런데도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산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인간과 인간의 존재를 단순한 우연에 맡겨 버릴 수 있는가?

인간이 단순히 우연에 생겨난 것이라면, 인간의 전 생애도 우연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고 그 전 존재가 무의미해질 것이다. 그러나 지각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인생을 무의미하게 여길 수 없으며,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든 가능한 한 자기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고 스스로 어떤 계획에 따라 행동의 모범을 설정하고자 한다. 개인이나 단체, 국가는 자기의 행동방침을 설정하고자 한다. 개인이나 단체, 국가는 자기의 행동방침을 계획하며, 용의 주도한 계획은 모든 어떤 원하는 결과를 낳는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인간이 어떤 종류로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훌륭한 계획의 가치는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거대한 우주의 조그만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인간이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세운 계획의 가치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인간 자신의 존재와 우주의 존립 역시 어떤 계획된 방침에 의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것은 우리의 물리적 존재의 배후에 계획하는 의지가 있으며 사물을 존재하게 하고 질서 있게 운용시키는 유일무이한 정신이 세계에 있음을 뜻한다. 우리의 세계가 보여 주는 경이로움과 생명의 신비는 단순한 우연의 산물이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세계에는 만물의 질서를 유지시키는 한 거대한 힘이 작용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는 가장 매력적인 예술 작품을 창조해 내고, 만들어 내되, 그 존재에 어떤 특수한 목적을 부여하는 위대한 예술가가 있음에 틀림없다. 이 힘은 모든 힘 중에서 가장 강한 힘이며 이 예술가는 모든 예술가 중에서 가장 위대한 예술가다. 진실한 신앙인들과 사리에 밝은 사람들은 그분을 알라 혹은 하나님이라 부른다.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은 그분이 창조자이며 세계 제일의 건축가이며, 생명의 창시자이며 만물의 존재를 유지시키는 부양자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다른 인간을 창조하거나 만들 수 없기에, 그분은 인간이 아니다. 그분은 어떤 동물이나 혹성이 아니며 우상이나 신검(身檢)같은 것도 아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스스로 생겨날 수도 다른 것들을 창조해 낼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 분은 기계도 아니다. 태양도 달도 아니며 그렇다고 별도 아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의 거대한 체계에 의해 통제되며 그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은 이 모든 것들을 만들고 유지시켜 주는 분이기에 이 모든 것들과 구별된다. 만든 자는 만들어진 것과는 다르며 그보다 위대하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우리는 또한 그 어느 것도 스스로 생겨날 수 없으며 경이로 가득찬 이 세계가 우연히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안다.

세계에서 생성되는 부단한 변화가 그것이 만들어진 것임을 증명하고 있는 바이며 만들어진 것이면 무엇이나 그것을 만든 자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세계를 창조하고 유지시키는 분, 인간을 창조하고 부양하시는 분, 자연 속에서 작용하는 효율적인 힘, 이 모두가 하나로서 동일한 바, 알라 혹은 하나님으로 알려져 있는 분이 바로 이에 해당한다. 이분이야말로 신비중의 신비이며, 만유 중에서 가장 지고한 분이다. 하나님의 진리의 책, 성꾸란은 이렇게 말한다.2)) 훌륭한 문학작품을 다른 언어로 완전하게 번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꾸란의 경우가 특히 그렇다. 꾸란은 자국의 아랍어와 문학의 대가들에게 도전을 제기하였던 바(지금도 도전하고 있다) 그 가장 짧은 장(章)을 놓고도 이와 근소하게 유사한 것조차도 이들이 만들어 낼 수 없음을 입증하였다. 그러므로 어떤 형태로든지 꾸란의 의미와 미와 매력을 재현하는 것은 불

가능하다. 그러므로 어떤 형태로든지 꾸란의 의미와 미와 매력을 재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여기에 나온 것은 꾸란의 완전 번역이 아니며, 설사 그것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본래의 꾸란은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다른 언어를 써서 내린 인간의 해석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해석은 하나님의 원전의 힘찬 문체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그러므로 여기에 제시된 번역에는 인용부호의 삽입이 엄격히 배제될 것이다.

너희에게 밤을 만들어 주어 쉬게 하시며, 낮을 만들어 주어 볼 수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진실로 하나님은 사람에게 대한 은혜와 자비로 총만하시거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적도다. 너희의 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신 것을. 그 분 외에 신은 없나니, 너희는 어찌하여 그분을 외면하느냐. 하나님의 표징을 부인하는 자들이 도리어 외면 당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땅을 만들어 너희의 안식처로 삼으셨고 하늘을 만들어 너희의 은신처로 삼으셨도다. 너희에게 형체를 주시되, 그 형체를 아름답게 하셨으며, 너희에게 맛나고 정결한 음식을 마련하여 주셨도다. 너희의 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니, 그분을 영예롭게 할지어다. 그분은 세계의 주이시도다! 그분은 살아있는 분이시며 그분 외에 신은 없나니 그분에게 요청하며 그분에게 진실하게 헌신할지니라. 세계의 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꾸란, 40:61-65) 너희에게 바다를 복종시켜, 그분의 명으로 배가 항해할 수 있게 하며, 너희가 그분의 선물을 구하게 하고 감사함을 보일 수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또 그분은 천지의 만물을 당신께로부터 너희에게 복종시키셨도다. 보라, 진실로 그 가운데 숙고하는 자들을 위한 표징이 있으리니:(꾸란, 45:12-13)

전세계의 최고주인이요, 만물의 창조자이신 분은 알라(하나님)이다. 그토록 위대하고 다른 존재들과 구별되는 분이시기에, 사람은 다만 성찰과 명상을 통해서만 그 분을 알 수 있다. 그분은 무소부재하시며 그분의 큰 힘은 세계 어디에서나 작용하고 있다. 세계의 만물이 그분의 존재를 증명하는 이상, 인간은 그분의 존재를 믿어야 한다. 하나님과 그분의 위대한 힘을 믿어야만 인류는 생명의 그 많은 신비를 가장 만족스럽게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올바른 지식과 종교적 통찰력을 얻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며, 실행과 건전한 윤리에 이르는 정로(正路)요, 행복과 번영으로 이끄는 가장 확실한 지침이다. 일단,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은 다음에는 그분의 속성과 명칭을 알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완전한 모든 것과 절대적 선은 그분에게 속하지만, 결점이나 악은 그 어느 것도 그분에게 해당이 없다. 특히 다음 사항을 알고 믿어야 한다.

1.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므로 동반자나 자식이 없으며 누구를 낳지도 누구에게서 태어나지도 않는다. 그분은 영원히 만인의 간구를 받으시며 시작도 끝도 없으며 그 무엇도 그분과 동등하지 못하다.(꾸란, 112:1-4)

2. 그분은 자비롭고 자애로우신 분이시며, 보호자요, 진실한 안내자이시며, 공평한 분이요 최고의 주이시며, 창조자요, 감시자이시며,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며, 전지(全知)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이시며, 듣고 아시는 분이시며, 증인이요, 영예로운 분이시며 유능하고 유력한 분이시다.(예, 꾸란, 57:1-6, 59:22-24)

3. 그분은 사랑하는 분이요 부양자이시며, 관대하고 자비로운 분이시며, 부유하고 독립 자존하는 분이시며, 용서해 주는 분이요, 온화한 분이시며, 인내심 있고 안식(眼識)있는 분이시며, 유일무이한 분이요 보호자이시며, 재판관이요 평화로운 분이시다. (예, 꾸란, 3:31, 11:6, 35:15, 65:2-3)

이러한 하나님의 명칭과 속성들 하나 하나가 성꾸란의 여러 곳에 언급되어 있다. 우리는 모두 당신의 창조물에게 지극한 사랑과 친절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배려와 자비 속에 살고 있다.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총은 헤아릴 길이 없으니, 이는 그분이 헤아릴 수 없는 분이기 때문이다. (꾸란, 14:32-34, 16:10-18)

하나님은 지고하시지만, 생각 깊은 경건한 사람들에게는 아주 가까운 분이시다. 그분은 이들의 기도에 응하여 도움을 베푸신다.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며, 이들이 지은 죄를 사하여 주신다. 그분은 당신과 화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환영하며, 결코 그 누구도 배척하지 않으신다. 사람에게에는 선량해지고, 옳은 일을 하며, 악을 멀리하라고 가르치신다. 그분은 선함과 사랑이 지극한지라, 선하고 옳은 일만을 권하고 또 이를 가납하신다. 그분의 자비의 문은 당신의 후원과 보호를 진지하게 구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항상 열려 있다.(꾸란, 2:186, 50:16)

하나님의 당신의 창조물에 대한 사랑은 무한하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다. 우리는 그분의 은총을 저울질 할 수 없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출생시 이후는 물론 그 오래 전부터도 우리를 잘 주신다. 그분은 우리를 만드시되, 창조물 중 가장 좋은 형체를 주셨고 또 우리가 성장하는데 필요한 온갖 감각과 능력을 부여하신다. 그분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와 우리의 가족을 부양하신다. 그분은 인간에게 지성을

창조하시어 이해할 수 있게 하시며, 영혼과 양심을 창조하시어 선량하고 정의롭게 하시며, 느낌과 감정을 창조하시어 친절하고 인정스럽게 해 주신다.

우리가 올바른 지식을 획득하고 빛다운 빛을 보는 것은 그분의 자비가 있음으로서이다. 그분은 자비로우시기에, 우리를 창조하시되, 그 형체를 가장 아름답게 하시며, 해와 달을, 육지와 바다를, 땅과 하늘을 식물과 동물을 우리에게 마련하여 주시는 것이다. 그분이야말로 이러한 모든 것들과 우리가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타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분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을 만드시며, 인간에게 존엄과 지능을, 명예와 존경을 부여하시니, 이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요,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부왕(副王)이기때문이다.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에게 희망과 평온을, 용기와 자신을 심어 준다. 하나님의 자비가 있으므로 해서 비탄과 슬픔을 치유하며, 고난을 딛고 일어서서 성공과 행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진실로 하나님의 자비는 고난에 빠진 자를 구제하며, 고통을 당하는 자의 기운을 북돋우며, 병든 자를 위로하며, 절망에 빠진 자를 일으켜 세우며, 궁핍한 자에게는 위안을 주는 것이다. 요컨대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 삶의 곳곳에서 항상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을 당연히 한 나머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는 실재하며, 우리는 그것을 마음으로 느낄 수 있으며 정신적으로 그것을 감지할 수 있다.

자비로우신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잊거나 저버리지 아니하며, 그분을 향한 우리의 진지한 요청을 무시하지 않으신다. 자비와 사랑이 있기에 그분은 우리에게 옳은 길을 보였으며, 사도와 성서와 계시를 보내 주셨다. 모두 우리에게 도움을 베풀고 우리를 인도하기 위한 배려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낸 마지막 사도는 무함만이며, 현존하는 가장 믿을 만한 하나님의 성서는 꾸란이다. 무함만이 세운 관습과 꾸란의 가르침으로부터 우리는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배운다. 만일 누가 죄를 짓거나 악행을 저지르게 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며, 그분을 크게 거역하는 것이요, 자기 자신의 존엄성과 존재를 훼손시키는 일이다. 그러나 진지하게 회개하고 자기가 지은 죄를 뉘우쳐 하나님에게 되돌아서고 싶어하며, 하나님에게 성실히 용서를 구하고 정직하게 그분께 나아간다면, 그분은 정녕코 그를 받아들여 용서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나 그분의 유일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이들이 자신의 잘못된 태도를 깨닫고, 하나님께 되돌아오기로 작정한다면 틀림없이 용서받을 것이다. 이에 대한 꾸란의 말씀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동반자를 세우는 것을 용납하시지 않으나, 이외에는 당신이 용서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용서를 베푸시나니, 하나님께 동반자를 세우는 것은 실로 가장 가증한 죄이니라.(꾸란, 4:48,116)

이같이 말하라 : 스스로 그 영혼을 욕되게 하는 나의 종들이여! 하나님의 자비를 단념하지 말지니, 그분은 지극히 관대하고 자비로우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이라. 너희의 주께로 (회개하여)돌아서, 그분께 복종할지니라. 형벌이 너희에게 내리기 전에, 형벌이 내리고 나면 도울 자 없으리라. 그런 즉 너희의 주께서 너희에게 계시한 최선의 길을 따를 지어다. 형벌이 너희에게 내리기 전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갑자기(꾸란, 39:53-54)

이렇게 커다란 은총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보답으로 우리에게 있는 그 무엇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모자라는 게 없으며, 독립자존하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우리에게 보답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그분에게 보답할 수 없거니와 그분의 헤아릴 수 없는 은총과 자비에 값을 매길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란 다만 선량하고,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할 줄 알며, 그분의 권고를 따르고, 그분의 법을 시행하며, 그분의 미덕과 속성들을 올바르게 나타내고, 지상에서 그분을 정직하게 대리하고 진실하게 대표하라는 것이다. 우리에게 존엄과 명예를 주시는 분이시기에, 그분은 우리를 노예로 삼고자 아니하신다. 두려움과 미신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분이시기에 우리를 복종시키고자 아니 하신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지위를 만물 위로 높이는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굴욕을 주고자 아니 하신다. 그러므로 그분이 어떤 규칙과 규정을 우리에게 보내 주시든 그것은 결국 우리를 이롭게 하려는 배려다. 우리를 도와, 서로 화목하고 친절하게, 형제애를 나누며,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삶을 누리게 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과 사귀어 큰 기쁨을 누리며, 영원한 행복에 이르는 가장 확실한 길을 찾게 해 주자는 의도인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그분에 대해 말할 것도 많다. 심오한 불가사의와 감동적인 경이로 가득 찬 이 세계는 마치 펼쳐놓은 책과 같아서,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읽어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친히 당신이 인간에게 보내 주신 많은 사도들과 계시들을 통하여 우리를 도우러 오신다. 이러한 사도들과 계시들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할 모든 것을 말해 준다. 그러므로 자연을 깊이 살펴보고 사도들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계시를 읽어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극히 확실한 지식을 얻을 수 있으며, 그분께 나아가는 정로(正路)

를 찾을 수 있게 된다. 몇 가지 대표적인 꾸란 구절들을 다음에 옮겨, 본 논의를 결론짓기로 한다:

알라께서는 자신 외에는 신이 없음을 증언하시나니 천사와 지식 있는 자들 역시 그러하도다-그분은 정의의 수호신이기도다. 그분 외에는 신이 없나니 그분은 강하고 지혜로운 분이시로다.(꾸란, 3:18) 알라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수호하시나니, 하늘과 땅의 열쇠들이 그분의 것이로다.(꾸란, 39:63-64) 알라는 창조를 시작하시고 또 창조를 거듭하시나니, 그분께로 그대가 돌아가리로다.(꾸란, 30:11) 하늘과 땅에 있는 무엇이나 다 그분의 것이니 만물이 그분께 복종하는도다. 창조를 시작하시고 또 창조를 거듭하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니, 그분께는 지극히 쉬운 일임이라, 하늘과 땅의 가장 높은 지위가 그분의 것이니, 그분은 강하고 지혜로우시도다.(꾸란, 30:26-27)

이슬람의 의미(意味)

이슬람의 어원은 아랍어 어근 **싸리마** 인데, 이 말은 특히 평화, 청결, 순종, 복종을 뜻한다. 종교적 의미에서의 이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법에 복종을 뜻한다. 이 말의 원래 의미와 종교적 의미 사이의 관계는 깊고 명백하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법에 복종하므로써만 진정한 평화를 실현하고 청결을 지속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국외자들은 우리의 종교를 **마호멧주의자(마호멧교도)** 라고 부른다. 무슬림들은 이런 말의 사용을 거부하며 이에 항의한다. 우리의 신앙이 마호멧주의로 유별(類別)되고, 우리가 마호멧주의자로 불리울 경우, 심히 그릇된 의미가 내포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잘못된 명칭은 이 종교가 일개 인간, 곧 무함만의 이름을 따서 명명(命名)되고, 이슬람 역시 유태주의(유태교), 힌두주의(힌두교), 마르크스주의 등과 다를 바 없는 또 하나의 주의에 불과하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이 잘못된 명칭이 내포하는 또 하나의 오류는 국외자들이 자기네가 마호멧주의자라고 부르는 무슬림들이 실례로 마치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함만을 숭배하거나 믿는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러한 오류를 하나 더 보면, 마호멧주의자라는 말이 국외자들을 오도하여 그로 하여금 이 종교가 무함만에 의해 창시되었고, 그 때문에 이 창시자의 이름을 따서 이름이 붙여졌다고 생각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틀린 명칭에 내포된 의미는 모두 심히 잘못된 것이다. 고작해야 오해를 일으킬 뿐인 것이다. 이슬람은 또 하나의 주의(ism)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무슬림들은 무함만을 숭배하지도, 기독교인, 유태인, 힌두인, 마르크스주의자 등이 각자 자기네 지도자를 생각하듯 그를 생각하지도 아니다. 무슬림들은 하나님만을 숭배한다. 무함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

르치고 모범적으로 생활할 임무를 하나님께 부여받은 일개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 그는 인간에 대한 경건성과 완전성의 가장 훌륭한 본보기로서 역사 속에 서 있다. 그는 인간으로서 가능한 사람됨 그리고 미점과 미덕의 면에서 인간이 성취할 수 있는 경지의 산 증거다. 또한 무슬림들은 이슬람이 종교적 발전의 마지막 단계에서 무함만에 의해 회복되기는 하였지만, 그가 창시했다고는 믿지 않는다. 이슬람의 원 창시자는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이다. 이슬람의 창시 년대는 아담시대까지 소급한다. 이슬람은 어떤 형태로든 태초부터 존재해 왔으며, 마지막 때까지 존속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종교의 올바른 명칭은 이슬람이며, 이를 신봉하는 자들이 무슬림인 것이다. 일반의 오해와는 달리 이슬람, 혹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그분의 법에 복종하는 것과 더불어, 결코 개인의 자유의 상실이나 운명론에의 굴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거나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이슬람의 올바른 의미와 이슬람에서의 하나님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음이 확실하다. 이슬람에서의 하나님의 개념은 그분을 가장 자비롭고 자애로우시며, 가장 사랑이 많고 인간의 안녕에 가장 관심이 많으신 분, 지혜로 총만하고 당신의 피조물을 보살펴 주는 분으로 평한다. 따라서 그분의 뜻은 자비롭고 선한 뜻이며, 그분이 규정하는 법은 무엇이나 인류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것임이 틀림없다.

문화인들은 자기네 나라 법을 준수할 때, 건전한 시민으로, 그들이 속한 각 사회의 정직한 성원으로 간주된다.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들이 법에 복종함으로써 자유를 잃게 된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이와 같이 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이 운명론자들이요, 무력한 자들이라고 단 한시도 생각지 않을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선한 뜻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최선의 법인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는 사람은 건전하고 정직한 사람인 것이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는 한편, 타인의 권리를 진심으로 존중하며, 책임을 다하는 창조적인 고차원의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의에 순종한다고 해서 개인의 자유가 줄어들거나, 박탈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고차원의 자유가 풍부하게 주어진다. 이러한 순종은 정신을 미신으로부터 해방시켜 그것을 진리로 가득 채운다. 영혼을 죄와 악에서 해방시켜 선과 청결로 그것을 자극한다. 자아를 허용과 탐욕에서, 질투와 긴장에서, 두려움과 불안에서 해방시킨다. 사이버신들과 저급한 욕망에서 해방시켜, 선과 미덕의 아름다운 지평을 인간 앞에 펼쳐 놓는다.

하나님의 선의에 순종하고 그분의 유익한 법에 복종하는 것은 평화와 조화를 보존하는 최선의 수단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인간은 한편으로 같은 인간

들 사이에서 다른 한편으로 인간 사회와 하나님 사이에 평화를 실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자연의 제 구성요소들 간에 조화를 창출해 낸다. 이슬람에 의하면, 세상만물, 혹은 인간을 제외한 모든 현상은 하나님께서 정한 법칙에 지배된다. 그러므로 전 물질계가 이슬람의 상태에 있다는 것, 혹은 그것이 무슬림임을 뜻한다. 물질계는 스스로 선택할 여지를 갖지 않는다. 자의적으로 자기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 즉 복종의 법인 창조주의 법에 복종하는 것이다. 유독 인간에게만 지성과 선택 능력이 부여되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지능과 선택의 자질이 있기에, 하나님의 선의에 복종하고, 그분의 법에 순종하라고 권유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는 길을 택해야만, 인간은 자기 자신과 하나님에게 필연적으로 복종하는 기타 자연의 모든 구성요소 사이에 조화를 구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불순종의 길을 걷는다면, 정로(正路)에서 이탈하여 일관성을 잃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입법자의 노여움과 처벌을 받게 된다.

이슬람이 하나님의 선의에 순종하고, 그분의 유익한 법에 복종하는 것을 뜻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사도들의 메시지의 정수를 이루는 것이므로, 무슬림이라면 무함만 이전의 모든 예언자들을 차별 없이 받아들인다. 그는 하나님의 모든 예언자들과 이들의 추종자들 모두가 무슬림이었으며, 그들이 믿는 종교는 유일하고 참된, 하나님의 세계 종교인 이슬람이었다는 것을 믿는다.(꾸란, 2:128-140, 3:78-85, 17:42-44, 31:22, 42:13) 1972년 12월 4일자 Observer Dispatch(O.D)지에 실린 나의 성명을 여기에 전재하는 것이 이제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성명은 이제까지 논의된 문제와 관련하여, 얼마나 많은 왜곡과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지를 지적하고 있다. 부분적으로 중복되고, 되풀이되는 점도 없지 않지만 쟁점이 극히 미묘하고 이슬람의 관점을 재론할 필요가 있어서인 만큼, 양해해 주기 바란다.

특종 뉴스 하나(O.D.11월 25일자)가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다. 미처 모르고 있던 대중에게 동정을, 많은 학교 교사와 종교계 인사에게 연민의 정을 불러 일으키고, 선의와 양식을 가진 사람 모두에게 자신의 도의적 책임을 외면하지 말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마르커스 일리아슨(Marcus Eliason)이 요르단의 이스라엘 점령지역에서 무슬렘들이 하필이면 아브라함을 이브라힘으로 숭배하고 있다고 보고해 왔다.

요즘 세상에, 우리가 사는 이 조그만 세계에서 무슬림들이 이브라힘을 숭배하고 있다는, 생생한 보도에 접하다니,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더욱 믿어지지 않는 것은 이 뉴스가 짐작하건대 정통한 소식통에서 흘러나와 알 권리가 있는 대중에게 보고되었다고 하는 사실이다.

수세기에 걸쳐 많은 서양인들은 무슬림들이 무함만을 숭배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생각을 널리 퍼뜨렸다. 무함만의 종교가 마호멧교로 통하고 그 추종자들이 서양에서 마호멧교도들로 알려지게 되었다. 그 후 경위야 어쨌든 무슬림들이 일종의 신인 알라를 숭배한다는 것이 서양인들에게 분명해지게 되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이들이 아브라함을 이브라힘으로 숭배하고 있음이 밝혀진 것이다.

무슬림들은 무함만이나 그 외 어떤 인간도 숭배한 사실이 없다. 이들이 항상 믿어 오고 있는 바는, 무함만은 그 보다 앞서왔던 수많은 예언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인간이며, 한 인간으로써 예언자 지위라고 하는 최고의 지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 인류에게는 최대의 찬사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다.

무슬림들은 무함만이 마지막 예언자이긴 하지만 유일한 예언자는 아니라고 믿는다. 그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보낸 영원한 메시지를 보강하여 영원히 전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지를 시대와 민족에 따라서 많은 예언자들에게 계시하였으니, 이들 예언자 가운데 아브라함, 이스마엘, 이삭, 다윗, 모세, 예수 그리고 무함만(이분들께, 평화와 깃들기를)이 포함되는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무슬림들이 이들을 믿되, 그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무슬림들은 자신들의 우주적 소망과 세계주의적 정향(定向) 때문에 자기들을 마호멧교도라 부르고 자기들의 신앙을 마호멧교라 부르는 것을 불행한 오칭(誤稱)이라고 보아 이를 유감스러워 한다. 거기에 내포된 의미가 불쾌함에서다. 까닭 없이 그런 게 아니다. 무슬림들은 자기들이 배타적인 독점권을 가진 이름을 따서 명명되는 게 아니다. 그것은 초월적이고 영원한 종교이기 때문이다.

이 종교의 올바른 명칭은 이슬람이며, 그 신봉자는 무슬림이라고 불러야 타당하다. 종교적인 맥락에서 본 이슬람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에 복종함을 뜻한다. 꾸란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자비로운 것으로, 그분의 법을 가장 이롭고 공정한 것을 규정한다. 따라서 이렇

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슬람의 윤리적 상태에 있는 한 사람의 무슬림인 것이다. 꾸란이 아브라함을 비롯한 모든 믿을 만한 예언자들을 무슬림이라 칭하고, 이들의 종교를 오직 하나의 동일한 명칭 즉 이슬람으로 부르는 것은 이러한 의미로서이다. 따라서 무슬림이라고 해서 전적으로 무함만의 추종자인 것만은 아니다. 그는 아브라함, 모세, 예수 그리고 나머지 사도들도 마찬가지로 추종하기 때문이다.

끝으로, 이슬람에서 알라라는 말은 간단하나 지극히 단호하게, 온 세계의 창조자, 주종의 주, 왕 중의 왕이신 유일무이하고 영원한 하나님을 가리킨다. 이슬람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유일한 죄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는 것이다. 무슬림들이 일상예배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을 다음에 들어둔다:

참으로 자비로우시고 참으로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슬람의 기본신조(基本信條)

진실하고 충실한 무슬림들은 다음에 제시하는 주요 신조들을 믿는다.

1. 그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분은 지고하고 영원한 분이며, 무한하고 강하신 분이며, 자비롭고 자애로운 분이요, 창조주이며, 부양자이시다. 이런 신념이 힘을 발휘하는데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그분만을 바랄 것이 요청된다. 그분의 뜻에 복종하고 그분의 도움에 의지해야 한다. 이러한 신념에 의해서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고 공포와 절망, 죄의식과 혼란에서 인간이 해방된다. 독자에게 앞에서 설명한 이슬람의 의미를 살펴 볼 것을 권한다.

2.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를 모두 믿되, 이들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

우리가 아는 민족마다 하나님께서 보낸 경고자, 혹은 사도가 있었다. 이 사도들은 선을 가르친 위대한 교사였으며, 정의를 수호한 진정한 투사였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택하여 인류를 가르치고 당신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다. 이들은 역사의 여러 시대를 통하여 보내졌으며, 민족마다 하나 이상의 사도가 있었다. 시대에 따라서는 한 민족에게 두 명 이상의 사도들을 동시에 보내시기도 하였다. 성꾸란은 이들 중 25명의 이름을 들고 받아들인다. 이들은 무함만을 제외하고는 민족적, 지역적 사도로서 알려졌다. 그러나 그들의 메시지, 그들의 종교는 근본적으로 같았으며, 이슬람으로 일컬어졌던 것이니, 이는 그것이 하나의 동일한 근원, 즉 하나님에게서 비롯하여, 하나님 정로

(正路)로 인류를 인도한다는 한 가지의 동일한 목적에 봉사하였기 때문이다. 모든 사도들은 예외 없이, 결국에는 죽어야 하는 인간이었던 바, 바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내리고, 이들을 임명하여 어떤 과업을 수행하게 하셨다. 이들 중 무함만은 최후의 사도로서 예언자 지위의 초석이라는 최고의 영예를 누린다. 우리 멋대로 하는 생각이 아니요, 편의상의 신념도 아니다. 다른 모든 이슬람의 신념이 그렇듯이 그것은 근거 있는 논리적 진리인 것이다. 참고로 여기에 위대한 사도 몇 분 곧 노아와 아브라함, 이스마엘과 모세, 예수와 무함만-이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있기를-제위의 이름을 언급해 둔다. 꾸란은 무슬림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한다 :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와 아브라함과 이스마엘, 이삭, 야곱과 그 12지파에게 내려진 계시를 믿나이다. 그리고 모세와 예수에게 내려진 계시와, 주께서 당신의 모든 예언자들에게 내리신 계시를 믿나이다. 우리는 그들 사이에 서로 차별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나이다.(꾸란, 2:136, 비교 3:84, 4:163-165, 6:84-87)

3. 진실한 무슬림은 제 2조의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경전과 계시를 믿는다.

이들은 인도의 불빛으로서 사도들은 이를 통하여 제각기 자기 민족에게 하나님의 정로(正路)를 보였다. 꾸란은 특히 아브라함, 모세, 다윗과 예수의 경전들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꾸란이 계시되기 오래 전에 이런 경전과 계시의 일부가 소실되거나, 왜곡되었으며 또 일부는 망각되고 등한시되거나, 혹은 감추어져 버렸다. 현존하는 하나님의 경전으로서, 완전히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꾸란뿐이다. 무슬림들은 꾸란 이전의 경전과 계시를 믿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그 완전한 원본이 어디 있는가? 사해(死海)밑에 아직 가라앉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앞으로 두루마리들이 더 발견될 지도 모른다. 또는 기독교인이나 유대인 고고학자들이 성지에서 발굴을 계속하여 찾아낸 것들을 전부, 일반에게 공개하게 되면 이에 대한 정보를 더 입수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무슬림들에게는 이런 문제가 없다. 완전하고 믿을 수 있는 꾸란이 그의 수중에 있는 것이다. 소실된 부분이 없으며, 더 첨가될리도 없다. 그 신빙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신중한 학자나 사상가 가운데 그 누구도 그것이 진본(眞本)이라는데 감히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꾸란의 이런 특성은 하나님이 개입하신 결과인 바, 하나님께서는 꾸란을 계시하시어, 친히 책임을 지시고, 그 첨삭과 왜곡을 철저히 막으셨던 것이다. 따라서 꾸란은 여타의 모든 경전의 판단 기준으로서 무슬림에게 주어진다. 그러므로 꾸란과 일치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진리로 인정되지만, 꾸란과 어긋나는 것

은 다 배제되거나 보류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음과 같다 :

진실로 우리가 꾸란을 보내었노니, 또 정녕코 이를 보존하리라. (꾸란, 15:9
비교 2:75-79, 5:13-14,41,45, 6:91, 41:43)

4. 진실한 무슬림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믿는다.

이들은 순수한, 빛나는 영적 존재들이며, 본질적으로 먹고 마시거나 자야 할 필요가 없다. 이들에게는 아무런 육체적 욕망이나 물질적 욕구가 없다. 이들은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이런 천사들은 많이 있으며 천사마다 어떤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 육안으로 천사를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실존이 필연적으로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세상에는 눈으로 볼 수 없고 감각되지 않는 것이 많지만, 우리는 이러한 것의 존재를 믿고 있다. 우리가 가보지 못한 장소들이 있는가 하면, 기체나 에테르처럼 육안으로 보거나 냄새를 맡거나, 만져 보거나, 맛을 보거나, 들을 수 없는 것들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천사를 믿는 것은 지식이나 진리를 오로지 감각적 지식이나 감각적 인식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슬람의 원칙에서 연원한다. (꾸란, 16:49-50, 21:9-20, 제 2조 참고)

5. 진실한 무슬림은 최후 심판일을 믿는다.

이 세상에 언젠가는 종말이 오며, 사자가 부활하여 공정한 최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쌓은 행적, 우리가 가지는 의향, 우리가 하는 거동, 우리가 마음에 품는 생각, 우리가 입으로 하는 말 하나 하나가 모두 헤아려져 정확히 기록, 보존된다. 심판일에 이 모든 것이 심리(審理)될 것이다. 기록이 좋은 사람은 푸짐한 보상을 받고, 하나님의 천국으로 따듯한 영접을 받을 것이다. 기록이 나쁜 사람은 형벌을 받아 지옥으로 던져질 것이다. 천국과 지옥의 진짜 성격과 그 정확한 모습은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무함만이 말한 대로라면, 천당에는 눈으로 본 적이 없고 귀로 들어 본 적이 없으며, 마음속에 생각해 보지 못한 것들이 있다. 그러나 무슬림들은 선행에는 보상이, 악행에는 형벌이 어김없이 따르리라는 것을 믿는다. 이 날은 정의의 날이요, 마지막 총결산의 날이다.

인간이 만든 법의 처벌을 면할 수도 있듯이, 약삭 바르기만 하면 죄를 짓고도 벌을 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심판일에는 그것이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런 대비 태세도 갖추지 못한 채 입장을 대변해 줄 변호사도 없이 현장에서 체포되는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들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보실 수 있으며, 또한 그분의 대리자들이 일일이 헤아리

고 있는 것이다. 또한 경건한 사람이 있어, 선행을 베풀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도, 잠시 어울렸다가는 이 세상에서 아무런 사례나 찬사를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날에는 결국 응분의 보상을 받을 것이며 널리 사례를 받게 될 것이다. 절대적 정의가 모두에게 구현될 것이기 때문이다.

심판일을 믿는 것이 지금 세계가 당면한 복잡 다단한 많은 문제들을 풀어 주는 종교적인 해답이다.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부도덕한 행위에 있으면서도 겉으로 보기에는 사업에 성공하고 생활이 부유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가 하면 덕망 있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진지한 노력에 응분의 대가가 따르지는커녕, 피해만 더 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있다. 이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도 대립하는 상황인 것이다. 죄진 사람이 세상법망을 피해 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게다가 더 부유해진다고 한다면 덕망 있는 사람에게 남아 있는 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어떻게 선의 대의를 증진시킬 것인가? 선에는 보상을 하고, 악은 저지시키는 무슨 방법이 있어야만 한다. 비록 지금 세상에서는 이렇게 되고 있지만-주지하는 바와 같이 된다 하더라도 제때에 즉시 그렇게 되지 않는다-어느 날엔가는, 반드시 그렇게 되고 말 것이니, 이날이 바로 심판날이다. 이 세상에서 자행되는 불의를 용납하고 해악을 묵인하려고 심판일이 있는게 아니다. 착취당하는 자를 회유하거나 착취하는 자를 안심시키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정로에서 벗어나는 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정의가 조만간 완전히 구현되리라는 것을 다짐해 두려는 것이다.(예, 전기의 논급 참조)

6. 진실한 무슬림은 초시간적인 하나님의 지식과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그분의 능력을 믿는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무관심하시지 않으며 수수방관 하시지도 않는다. 그분의 지식과 힘은 수시로 작용하여 그분의 관대한 영역에 질서를 유지하며 그분의 피조물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그분은 지혜롭고 사랑하는 분이시며, 그분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나 반드시 선한 동기와 의미심장한 목적을 수반한다. 일단 이런 생각이 마음에 새겨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비록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그것이 틀리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굳은 신앙심으로서 받아 들여야 한다. 우리는 그분을 굳게 믿고 그분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나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의 지식이 한정되어 있고, 우리의 생각이 개인적인 차원에 바탕을 두고 있는 반면에 그분의 지식은 무한하고 그분의 계획은 우주적인 차원에서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인간이 운명론자가 되거나 무력해지는 것은 결코 아니

다. 하나님의 관심사와 인간의 책임 사이에 경계선을 그어줄 뿐이다. 우리는 날 때부터 유한하고 한정되어 있기에 우리의 능력과 자유도 그 정도에 있어 유한하고 한정적이다. 우리는 만능이 아니기에 그분은 인자하시게도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으신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거나 우리에게 유한한 능력을 주시어, 우리의 유한성 및 책임한계와 균형을 이루게 하셨다. 한편 하나님의 초시간적인 지식과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가 자신의 한정된 능력 범위 안에서, 스스로 생각하고 계획을 세울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며, 올바른 선택을 하라고 권유하신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거나 계획한대로 되지 않더라도 신앙심을 잃어버린다면, 정신적 긴장이나 건강을 해치는 근심, 걱정,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한번해서 안되면 다시 해 보아야 하며 그래도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엔, 최선을 다 했으니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의 능력과 책임의 한계밖에 있는 것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무슬림은 이런 신조를 가리켜 **까다와 와 까다르** 를 믿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초시간적인 지식은 사건을 예견하며, 사건은 하나님의 정확한 지식에 따라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 꾸란, 18:29, 41:26, 53:33-62, 54:49, 65:3, 76:30-31)

7. 진실한 무슬림은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무의미하게 창조하시지 않았으며 인생에는 인간의 육체적 필요와 물리적 활동을 초월하는 웅대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

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다. 완전한 은둔과 철저한 명상 속에 전 생애를 보내라는 말은 결코 아니다. 하나님을 숭배한다는 것은 곧 그분을 안다는 것이요,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이며, 그분의 계율에 복종하고 삶의 곳곳에서 그분의 법을 시행하며, 옳은 일을 하고, 악을 피함으로써 그분의 대의를 세운다는 것을 것이며, 그분과, 우리 자신과, 같은 인간들을 공정하게 대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숭배한다는 것은 삶에서 도피하지 않고 삶을 사는 것이다. 요컨대 하나님을 숭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고한 속성을 우리 몸에 배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결코 소박한 언명이 아니며,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화시킨 것도 아니다. 지극히 포괄적이고 결정적인 언명인 것이다. 그러므로 생애 목적이 있고, 인간이 그 목적에 이바지하도록 창조된 것이라면,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책임을 부과하실 때는, 이 책임을 수행해 나가는데 필요한 도움도 함께 베풀어주신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스스로 행동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지능과 능력을 부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전력을 다하여 자신의 존재 목적을 철저히 추구하라고 강권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못하거나 생을 헛되이 보내거나 혹은 자기의 소임

을 등한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악행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다. (참조, 꾸란, 21:17-18, 51:56-58, 75:37)

8. 진실한 무슬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유의 위계 질서 속에서 인간은 특별히 높은 지위를 누린다고 믿는다.

인간이 이처럼 뛰어난 지위를 차지하는 것은 오직 인간에게만 행동 능력을 비롯하여 합리적 기능과 영적 열망이 부여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위가 뛰어날수록 그만큼 책임도 무거워지는 것이다. 인간은 지상에서 하나님의 부왕(副王)의 지위를 차지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대리자로 임명하여 활동하게 한 사람은 반드시 어떤 권력과 권위를 가지게 마련이며, 적어도 잠정적으로는 명예와 고결성이 부여된다. 바로 이것이 이슬람에서의 인간의 지위인 것이다.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저주받은 종족이 아니다. 훌륭하고 고귀한 업적을 성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잠재된 존엄한 존재이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가운데서 사도를 택하신 사실로 미루어 알 수 있듯이, 인간은 신뢰할 수 있고 유능하며 선의 엄청난 보물을 자기 것으로 할 수 있다. (꾸란, 2:30-34, 6:165, 7:11, 17:70-72, 90-95)

9. 진실한 무슬림은 사람은 누구나 다 무슬림 으로 태어난다고 믿는다.

이것은 출생의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의 계획을 실현하고 그분의 명예 복종하여 일어나는 것임을 뜻한다. 이것은 또한 사람에게서는 누구나 영적인 잠재력과 지적인 성향이 있어, 이슬람에 올바르게 접하고 그 천성이 향상되어 나가도록 놓아두기만 한다면, 이러한 잠재력과 성향을 통하여 그가 훌륭한 무슬림이 될 수 있음을 뜻한다. 이슬람을 올바르게 전해 주기만 하면, 쉽사리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도 많다. 왜냐하면, 이슬람은 자손들의 천부의 열망을 비롯하여 윤리적 영적 욕구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과 개인적□사회적□국가적□세계적 차원에 걸쳐 건설적이고 건전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신성한 신조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슬람은 인간성을 창조하셨기에 어떻게 해야 인간성이 가장 유익한가를 아시는 하나님의 세계 종교이기 때문이다. (꾸란, 3:30, 64:1-3, 82:6-8)

10. 진실한 무슬림은,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에는 죄가 없으며 덕을 유전 받았다고 주장할 권리도 전혀 없다는 사실을 믿는다.

사람은 마치 아무 것도 써 있지 않은 책과 같은 존재다.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정신이 온전할 경우, 성인의 연령에 달하면 자신의 행위와 의사에 책임을 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인간은 죄를 짓지 않는 한 죄에 구속되지 아니하며, 자신의 계획에 따라 스스로 책임을 지고 행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누

린다. 이 두 가지의 자유 곧 죄에 구속되지 아니하는 자유와 효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는 유전 받은 죄라는 무거운 짐에서 무슬림의 양심은 해방시켜 준다. 원죄의 교리가 야기하는 불필요한 긴장을 인간의 영혼과 정신에 제거시켜 주는 것이다.

이슬람에 있어서의 이러한 자유의 개념은 하나님의 정의의 원칙과 개개인이 하나님께 직접 책임을 진다는 원칙에 그 바탕을 둔다. 각 개인은 자기 자신의 짐을 져야 하며,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 누구도 타인의 죄는 대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슬림이라면 누구나 아담이 원죄라는 것을 범했다고 한다면, 거기에 속죄하는 것은 바로 그 자신의 책임이라고 믿는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용서하실 수 없었고, 다른 누구에 의해 그 죄를 대속 시켜야 했든지, 아담이 용서를 빌지 않았거나, 용서를 빌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것은 그 가능성이 극히 희박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해 주시는 속성과 용서의 권능은 물론이려니와, 그분의 자비와 정의에 어긋나는 처사일 것이다. 이와 같은 가정은 상식을 철면피하게 무시하는 것이며, 바로 하나님의 개념을 무모하게 범하는 것이 될 것이다.(제 9 조 참조, 꾸란, 41:46, 45:15, 53:31-42, 아래의 죄의 개념 참조)

이러한 합리적 생각과 꾸란의 권위를 바탕으로 하여 무슬림은 아담이, 여느 지각 있는 범죄자가 그러하듯이,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다고 믿는다. 또 마찬가지로 근거에서 자비로우사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용서를 베푸셨다고 무슬림은 믿는다.(꾸란, 2:35-37, 20:117-122) 그러므로 무슬림은 아담을 비롯한 전 인류에게 유죄선고가 내려져 예수가 그 죄를 대속 하러 올 때까지 용서받지 못하였다는 교리를 추호도 용납할 수 없다. 결국 무슬림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전 인류의 죄를 단번에 제거하였다는 극적인 이야기를 환영할 수 없는 것이다.

여기서 독자가 그릇된 결론을 내리지 않도록 주의해 둘 게 있다. 무슬림은 예수가 그 적들에 의해 십자가에서 처형되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십자가형의 교리는 그 바탕에 있어 그것이 인간의 논리와 존엄에 어긋나는 만큼이나 무슬림의 예수에 대한 존경심이 흐려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또한 이슬람에서 예수가 차지하는 높은 지위가 깎아내려진단든지, 하나님의 뛰어난 예언자로서 예수를 받드는 무슬림의 신념이 흔들리게 되는 것도 결코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교리를 배척함으로써 무슬림은 보다 더한 경애와 존경으로써 예수를 받아들이며 예수께서 원래 가져온 메시지를 이슬람의 불가결한 부분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무슬림이 되려면 하나님의 예언자 모두를 차별 없이 받아 드리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해 둔다. 이슬람에서 예수가 차지하는 일반적 지위는 뒷장에

가서 더 논의될 것이다.

11. 진실한 무슬림은 인간은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것은, 구원을 얻으려면 신앙과 행동, 신념과 실천이 겸비되어야 함을 뜻한다. 행동을 수반하지 않는 신앙은, 신앙이 없는 행동만큼이나 불충분하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생활 속에 살아 움직이고 그 신념이 현실화되어야 비로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본조는 이슬람이 여타 신조들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다. 하나님께서는 말뿐인 봉사를 받아들이지 않으시며, 진실한 신자라면 신앙의 실천적 요건에 관한 한 무관심할 수 없다는 것을 본조는 지적한다. 또한 그 누구도 타인을 대신하거나 그와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한다.(예, 꾸란, 10:9-10, 18:30, 103:1-3 참조)

12. 진실한 무슬림은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에게든 먼저 그에게 올바른 길을 보이지 않고서는,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많은 사도와 계시를 보내시고, 인도를 베풀고 경고를 발하기 전에는 징벌하시지 않으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신 소이(所以)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나 사도에 접해 본 일이 없는 사람이나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가르침에 복종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러한 사람은 자신의 건전한 상식에 따라 행동하지 않은데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그러나 알면서도 고의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거나 그분의 정로(正路)에서 이탈한 사람은 자신이 저지른 악행으로 해서 처벌될 것이다.(꾸란, 4:165, 5:16 & 21, 17:15)

이 점이 무슬림 각자에게 매우 중요하다. 세상에는 이슬람에 대해 들어보지 못하고 이슬람을 알 길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런 사람들도 이슬람을 애써 찾는다면 진실해질 수 있고 훌륭한 무슬림이 될 수도 있다. 알지도 못하고, 알 길이 없는 사람들은 무슬림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책임을 지게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 대신 이슬람은 이런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무슬림들이, 이들을 이슬람으로 초대하여, 이슬람의 참모습을 보여 주지 못한데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이것은 전세계의 모든 무슬림들에게 말로써 이슬람을 전파할 뿐 아니라-더욱 중요한 것으로서-생활 속에 이슬람을 액면 그대로 실현하라고 촉구하는 것이다.(예, 꾸란, 3:104, 16:125)

13. 진실한 무슬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성에는 악보다는 선이, 절망적으로 실패할 가능성보다는 선도에 성공할 가망성이 더 많다는 것을 믿는다.

다.

이런 신념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떤 과업을 부과하시고, 사도들에게 그를 인도하기 위한 계시를 보내셨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인간이 날 때부터 가망 없는 존재이고, 선도의 여지가 없는 존재라고 한다면, 어떻게 절대적인 지혜를 가진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에게 책임을 과하고, 이것은 하고, 저것은 하지 말라는 식의 권고를 하실 수 있다는 말인가? 그 모든 것이 허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살피고 관심을 쏟고 계시다는 사실이 인간은 무력하거나 가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선을 식별하고 선택하려고 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는 것을 입증한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굳건하고 인간을 합당하게 신뢰한다면, 정녕 우리 세대에서도 기적을 이룰 수 있다. 이를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꾸란의 관련 구절을 면밀히 연구하고 그 뜻을 음미해 보아야 한다.

14. 진실한 무슬림은 신앙이란, 이치를 따져 만족하지 않고 그것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거나 아무 의심 없이 무조건 받아들여서는 완전하지 못한다고 믿는다.

신앙이 행동을 자극하고, 신앙과 행동이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기만이나 강요도 당함이 없이, 확고한 신념 위에 신앙이 세워져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가문의 전통 때문에 무슬림으로 자처하는 사람이나 강요를 받거나 맹목적으로 모방해서 이슬람을 받아들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무슬림으로 보시지 않는다. 무슬림이라면 누구나 충분한 근거를 가진 신념 위에 자신의 신앙을 구축해야 하는 것이다.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심이 남아 있거나 반신반의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신앙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자연의 펼쳐진 책 속을 살펴보고, 추리력을 발휘하고, 꾸란의 가르침을 음미해 보라고 권유하신다. 이런 사람은 더 이상 논의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진리를 찾을 때까지 그것을 추구해야 한다. 능력과 성의에 부족함이 없다면 틀림없이 그러한 진리를 찾게 될 것이다. (예, 꾸란, 2:170, 43:22-24 참조)

이슬람이 건전한 확신을 요구하고 맹목적 모방에 반대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이슬람은 진실하고 진지한 사상가로 정평이 나 있는 모두에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남김 없이 발휘하라고 명한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거나 자신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한계에 다다를 때까지 생각을 추구해야 한다. 이런 사람들의 경우, 믿을 만한 종교 경전만을 의지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이러한 경전은 그 자체로서 충분할 뿐 아니라 그로서는 여기에 비판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요는 신앙이 건전한 확신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마음속에서는 의심이 말끔히 가서 버리지 않는 한

누구든지 진정한 무슬림으로 자처할 수 없다는 것이다. 건전한 확신과 선택의 자유가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경우에만 이슬람이 완전한 것이기에, 그 누구에게도 그것이 강요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강요당한 신앙을 받아들이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분은 속에서 우러나오지 않거나, 자유롭게 건전한 확신에서 비롯되지 않는 이슬람은 진정한 이슬람으로 여기시지 않을 것이다. 이슬람은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는 고로, 무슬림 국가에서 많은 비무슬림 집단이 완전한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누리면서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다. 무슬림들이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이슬람이 종교의 강요를 금하기 때문이다. 이슬람은 내부에서 비쳐 나와야 하는 빛이다. 선택의 자유가 책임의 초석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은, 최선을 다해서 이들에게 강한 신앙심을 고취시켜야 한다.

건전한 바탕 위에 신앙을 확립하는 길은 여러 갈래가 있다. 영적인 접근법이 있는 바, 이것은 주로 꾸란과 무함만의 전승에 근거하는 것이다. 또한 합리적 접근법이 있는데, 이 방법에 의하면 결국, 지고한 존재에 대한 신앙으로 유도된다. 이렇다고 영적인 접근법에 확실한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거나 합리적 접근법이 영성을 고취시켜 주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다. 사실 양자는 상호 보완관계에 있으며 따라서 당연히, 활발한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합리적 지식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으면, 합리적 접근법이나 영적인 접근법 혹은 두 가지 방법에 다 의지할 수 있으며, 자신이 내린 결론의 타당성에 자신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깊이 연구할 능력이 없거나, 자기의 추리력에 자신이 없으면 영적인 접근법에만 국한해도, 믿을 만한 종교원전에서 얻을 수 있는 지식에 만족할 수 있다. 요컨대, 영적인 접근법에 의하든, 합리적 접근법에 의하든, 혹은 이 두 가지 방법에 의하든 결국 하나님을 신앙하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 모든 길은 그 중요성에 차이가 없으며 이슬람에서 똑같이 취급되고 있다. 올바른 경로만 밟는다면 같은 목적, 즉 지고한 분에 대한 신앙으로 이끌어지게 된다. (꾸란, 5:16-17, 12:109, 18:30, 56:80)

15. 진실한 무슬림은 꾸란이 천사 가브리엘을 매개하여 무함만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

꾸란은 하나님으로부터 때에 따라 조금씩 계시되었으니, 이는 어떤 의문에 답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논쟁을 종결지으며, 하나님의 진리와 영원한 행복으로 인간을 이끄는 최선의 길잡이가 되기 위함이었다. 꾸란의 글자 하나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속에서 울리는 소리 하나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다. 꾸란은 이슬람 제일의 가장 믿을 만한 원전이다. 이것이 아랍어로 계시되었던 바, 지금도 여전히 완전한 아랍어 원전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관심을 두시어 꾸란을 보

존하시고, 그것이 언제 어디서나 인류에게 최선의 길잡이가 되도록 하시며, 그 왜곡을 방지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비교, 꾸란, 4:82, 15:9, 17:9, 41:41-44, 42:7,52-52)

꾸란이 그 문제에 조금의 변화도 없이 심지어 점하나 바뀌지 않고 완전한 원전으로 보존된 역사상 유일한 경전이라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존하셨음을 증명하고 있는 바이다. 꾸란을 기록하고, 그 장절을 짜고, 그 본문을 보존한 역사는 무슬림들 뿐만 아니라 성실하고, 진지한 학자들의 마음속에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로서, 어떤 신앙을 가진 학자-자신의 지식과 정직성을 존중하는-든지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사실 온 인류가 나선다 해도 꾸란의 장 하나도 흉내낼 수 없으리라는 것이 무함만이 이룬 불멸의 기적이다.(꾸란, 2:22-24, 11:13-14, 17:88-89)

16. 진실한 무슬림은 꾸란과 무함만의 전승은 확연히 구분된다고 믿는다.

꾸란은 하나님의 말씀인 반면, 무함만의 전승은 꾸란의 실천적 해석이다. 꾸란은 받은 그대로 전하고,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철저하게 실천하는 것이 무함만이 맡은 역할이었다. 그가 내린 해석과 그 실천이 소위 무함만의 관습(전통)이라는 것을 만들어 내었다. 이것이 이슬람 제이의 원전인 바, 제일의 원전이요, 판단의 기준인 꾸란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안 된다. 관습(전통)과 꾸란 사이에 조금이라도 모순되거나 불일치 하는 점이 있으면, 무슬림은 꾸란만을 고수하고, 꾸란 이외의 것을 전부 의문시할 수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무함만의 진짜 관습이 꾸란에 어긋나거나 상반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일러두기

이제까지 이슬람의 주요 신조들을 논하면서, 일부러 전통적인 방법에 따르지 않았다. 이 주요 신조들을 5개조 내지 6개조에 국한시키지 않고, 가급적 많은 원칙들을 포함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전술한 모든 신조는 꾸란의 가르침과 무함만의 관습(전통)에 근거하여 유도해 낸 것임을 여기에 지적해 둔다. 꾸란의 구절을 더 많이 인용하고 관습을 많이 들어서 본 신조들의 근거를 제시할 수도 있었지만, 지면 관계상 이를 생략하였다. 하지만 꾸란과 무함만의 전승을 참고로 하여 자세히 연구해 볼 수 있다.

또한 운명 예정설이니 숙명론이니 자유의지니 하는 등의 서구식 술어와 전문용어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았다. 혼란과 전문성을 피하고 싶어서 일부러 이렇게 했다. 아랍어를 쓰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종교용어는 대부분의 경우, 이를 이슬람에 적용시키면 오해의 소지를 낳을 뿐 아니라 그릇된 인상을 주게 된다. 따라서 외래 종교용어를 가져다가 이슬람에 대입시키게 되면 본서

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을 것이다. 또 외래 종교용어를 본서에서 사용할 경우, 이슬람의 실상을 밝히자면 많은 단서와 주석의 첨가가 불가피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면을 늘려야 하는데 형편상 도저히 그럴만한 여유가 없었다. 그래서 되도록 평이하고 단순한 말로 설명을 가하려고 했다. 앞으로도 본서의 설명은 이에 준할 것이다.

제 2장 이슬람의 기본개념

신앙(이만)의 개념

참 하나님의 유일성을 믿고 무함만을 그분의 마지막 사도로 믿는다고 고백하면 무슬림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이 신앙의 완전한 의미는 결코 아니다. 이슬람에서의 신앙이란 행복한 상태를 말하며, 이러한 행복은 적극적 행동과 건설적 개념 그리고 역동하는 효과적 수단에 의해 획득된다.

성꾸란과 무함만의 관습(전통)이 이러한 요구 수단을 규정하고 의미 있는 신앙을 구축하는 기준을 확립한다. 따라서 진실한 신자는 :

1. 하나님과 그분의 천사들과 꾸란으로 완결되는 경전들과 무함만을 마지막으로 하는 사도들과 최후 심판일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식과 지혜를 믿는다.
2.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확고부동하게 신뢰한다.
3.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부와 생명과 건강과 지식과 경험 등을 하나님을 위해 베푼다.
4. 주집회(週集會)와 일상 예배를 제 때에 준행(準行)한다.
5. 종교세(자선 혹은 자카)를 정당한 수혜자(개인이나 기관)에게 지불한다. 종교세의 최소한도는 연 순수입 혹은 투자한 경우 증권 총가액에서 모든 비용과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2.5%이다.
6. 의와 선을 명하고 불의와 악에 대하여는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자기 마음대로 맞서 싸운다.
7.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 무함만에게 복종하여, 꾸란이 낭송되면 신앙심이 고조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들리면 마음이 겸손해짐을 느낀다.
8.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를 극진히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동료 인간을 진정으로 사랑한다.
9. 원근(遠近)의 이웃을 사랑하고, 손님 특히 낯선 사람에게 진심 어린 친절을 베푼다.
10. 진실을 말하고, 건전한 대화에 끼거나, 아니면 말을 삼간다.

분명히 신앙의 이런 의미에 의한다면, 이슬람은 생활의 모든 측면으로 깊숙이 그리고 건설적으로 스며들어야 하는 것이다. 이슬람에 의하면 진실한 신앙은 인간의 정신적, 물질적 운명과 개인적, 사회적 행동 그리고 정치행위와 재정생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다음에 몇 가지 실례를 들어 꾸란이 진실한 신자를 가리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보기로 한다. 꾸란에는 이런 종류의 언급이 많다:

진실한 신자는 이러하니 곧 하나님 얘기가 나오면 복종심이 우러나오고, 마음이 겸손해지며, 하나님의 계시가 낭송되면 신앙심이 고조되고 굳세어 지느니라.

또 주를 신뢰하고 (명을 받은 대로)예배를 준행하며, 우리가 부여해 준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베푸나니 이들이야말로 진실한 신자이니라.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높은 명예와 풍성한 마련이 있느니라. (꾸란8:2-4)

진실한 신자는 남녀를 불문하고 서로를 보호해 주는 (결연한)친구들이니라. 저들은 의를 명하고 악을 금하며 예배를 준행하고 가난한 자에게 베풀 것을 베풀며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에게 복종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리니 진실로 하나님은 강하고 지혜로우시도다. 하나님께서는 남녀 신자 모두에게 아래로 강이 흐르는 동산의 거처와 영원한 행복의 동산 속의 아름다운 저택을 약속하시느니라.

그러나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의 선한 기뻐하심이니, 그것이야말로 지고한 행복이니라(꾸란, 9:71-72)

진실한 신자는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무함만)를 믿되, 돌아서서 의심하지 않고 자기의 재산과 생명을 바쳐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나니 이러한 사람이라야 진실하다 할 수 있느니라(꾸란, 49:15)

이러한 꾸란의 언급 말고도 여기에 관련된 무함만의 전승도 적지 않다. 무함만의 말씀을 예로 들어본다.

너희 중 누구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동료신자에게 생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면 진실한 신자가 될 수 없느니라

세 가지 성품이 건전한 신앙의 징표를 이루는데, 이러한 성품을 가진 사람만이 신앙의 진수를 맛볼 수 있다. 이 세 가지는 (1)하나님과 그분의 사도를 무엇보다 사랑하는 것이며 (2)같은 인간을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사랑하며 (3)마치 불 속에 던져지기로 하듯 발분(發憤)하여 불신으로 돌아서는 것에 저항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최후 심판일을 믿는 사람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는 것이 금지되며, 손님 특히 낮선 사람에게 친절해야 하며, 진실을 말하든지 아니면 말을 삼가야 한다.

위의 인용 예와 유사한 꾸란의 구절과 관습은 많이 있다. 그러나 위의 인용은 아랍어 원전에 나오는 꾸란과 무함만의 말씀 그대로는 아니며, 또 그럴 수도 없는 것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아무리 학식과 재능을 갖춘 사람이

해석을 내린다 하더라도, 다른 언어로 꾸란의 영적인 힘과 마음을 끄는 활력은 결코 재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꾸란은-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흥내낼 수 없으며 인간의 상상력과 재현능력을 초월한다.

이 점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까지 무함만의 관습도 꾸란과 마찬가지로다. 꾸란 다음으로 무함만의 말씀은 가장 결정적이고 웅변적이기 때문이다.¹⁾

정의(正義:비르)의 개념

이슬람은 항상 피상적 개념과 겉치레만의 의식을 경계하며, 무미건조한 정식 절차와 효력 없는 신념을 경계한다. 꾸란의 대표적인 한 구절에서 하나님은 정의의 진정한 의미를 설명하신다.

(예배 중에)고개를 동쪽이나 서쪽으로 돌리는 것은 의가 아니니라. 의는 곧 이것이니 하나님과 마지막 날과 천사들과 경전과 사도들을 믿는 것이요, 너의 재물-비록 아끼는 것이라 하더라도-을 친척과 고아와 궁핍한 자와 나그네와 간청하는 사람과 노예의 속전(贖錢)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며 예배를 착실히 보고 때맞추어 자선을 하는 것이요, 계약을 이행하며, 고통과 역경 속에서 그리고 공포가 밀려와도 내내 동요하지 않고 인내하는 것이니라, 이러한 사람이 진실하고 하나님을 염원하는 사람이니라(꾸란, 2:177)

여기 인용한 꾸란 구절에 의로운 사람이 아름답고 선명하게 묘사되어 있다. 정의로운 사람은 모두 유익한 규칙에 복종하고, 진지한 동기에서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여 동료 인간을 사랑해야 한다. 다음에 4개 강령을 제시한다 : (1) 우리의 신앙은 진실하고 진지해야 하며, (2) 같은 인간에게 자선과 친절을 베풀어 우리의 신앙심을 보일 각오가 서 있어야 하며, (3) 자선단체와 사회기관을 후원하여 선량한 시민이 되어야 하며 (4) 어떤 상황에 처해서는 태연자약해야 한다.

그러므로 분명히 정의는 결코 실속 없는 말만으로는 서지 않는다. 정의는 굳센 신앙과 실천 위에 구축되어야 하는 것이다. 인간의 사고와 행동을 지배하고 생활의 내면과 외면으로, 공사의 모든 문제로 확대되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슬람의 정의와 원칙이 서게 되면, 개인에게는 항상 평온이 깃들고, 사회는 각 방면에서 안정을 누리며 국가는 결속되고 국제 사회에는 희망과 조화가 넘칠 것이다.

사람들의 개념에 맞게 정의를 실천한다면 산다는 것이 얼마나 평화롭고 대의명분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마음 든든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피지배자의 깊은 관심을 덜고 착취당하는 자의 고통을 줄이며 의지할 데 없

는 사람의 궁핍한 처지를 돌보는 것보다 더 인도적인 일은 무엇인가?
약속을 이행하고 양심을 깨끗이 보존하며, 성실성을 지키는 것보다 더 정연
(整然)하고 정직한 일은 무엇인가? 당연한 일이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이 모
든 일을 어김없이 행하는 것보다 더 정신적인 기쁨을 주는 일이 또 있겠는
가?

경건(敬虔:따고와)의 개념

신앙과 정의에 대해 말한 내용이 대개는 경건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경건 역시 편의상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입으로 고백한다고 해서 끝날 문제
도 아니다. 이보다 한층 더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꾸란이 우리의 최선의 전거(典據)인 바, 꾸란은 경건
한 사람을 가리켜 이렇게 말한다 :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바)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며 예배에 철
저하며 우리가 마련해 준 것을 베풀면서 무함만에게 보낸 계시와 네 이전에
보낸 계시를 믿고, (마음속으로)내세를 확신하느니라, 이들은 주님의 올바른
인도를 따르나니 바로 이들이 번영을 누릴 자들이니라.(꾸란, 2:3-5)

경건한 사람은 유복할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을 위하여 아낌없이)베풀며
분노를 참고(모든)사람을 용서하여 주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는 사
람과-부끄러운 일을 했거나 스스로 그 영혼을 욕되게 했을지라도-진정으로
하나님을 염원하고, 용서를 빌며-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으리
요?-결코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자기가 저지른 (악)을 고의로 되풀이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심이라, 이들에게 주께서는 용서로 보상하시며, 아래에
강이 흐르는 동산을 상으로 주어 영원히 거하게 하느니라.

힘써 (노력하는)사람들에게 정녕 훌륭한 보상이 아닌가! (꾸란, 3:134-136)

여기 인용한 꾸란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경건하려면 하나님과 생의 진리를
파악함으로써 지성을 선용하며,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베풀어
줌으로써 부를 선용하며, 예배를 준행함으로써 인간의 정신적□신체적 능력
을 선용해야 한다.

경건은 또한 분노와 감정에 대한 고도의 자제력과 용서하고 인내할 수 있는
도덕적 능력과 그리고 죄인을 회개시켜 하나님께 돌아서게 해야겠다는 의지
적 행동을 요청한다. 경건하다는 것은 곧 올바르게 훌륭한 확신을 보지(保
持)하고 결단력과 인격을 갖추며 의지와 용기를 겸비한 사람이 됨을 뜻하며
특히 하나님의 사람이 됨을 뜻한다. 경건과 정의와 의미 있는 신앙은 상호관
련 되어 하나의 길로 통하게 된다.

즉 이들 모두는 이슬람으로 인도하여 진정한 무슬림을 만들어 낸다.

예언자 지위의 개념

자비로운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여러 시대에 걸쳐 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셨다.

민족마다 하나 이상의 예언자가 있었으며 하나님의 예언자 모두는 훌륭한 인격과 드높은 명예(위엄)를 갖춘 사람들이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고 예비시켜 당신의 메시지를 인류에게 전하게 하셨다. 그들의 정직성과 진실성 그리고 지성과 성실성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죄를 짓거나 하나님의 법을 범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이들에게는 과오가 없었다. 그러나 이들 역시 인간이었기에 인간사를 해결하고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본의 아니게 실책을 범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들의 개인적 판단이 반드시 옳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들 예언자들을 보내신 것은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강한 유대가 있음을 명백히 시현(示顯)하는 것이다. 인간에게 개선의 의지가 있고, 선한 기질이 다분히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예언자 지위를 둔 목적은 인간이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것을 확인시키고, 그 스스로 알지 못하거나 알 수 없는 것을 가르쳐 주려는 데 있다. 또한 인간에게 도움을 베풀어 하나님의 정로를 찾고, 의를 행하고 악을 피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예언자 지위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대한 사랑과 그 피조물을 올바른 신념과 행동으로 이끌고자 하는 그 분의 의지를 웅변적으로 말해 준다. 그것은 또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정의를 부가시킨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인간에게 올바른 인도를 베풀고, 다음에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경고를 발하고 있는 데도 사람이 자기 악행의 위험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그의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그리고 인간이 주님께 책임을 질만한 가치와 능력에 완전히 부합한다.

예언자직의 근원과 모든 예언자들의 후원자는 하나로서 동일하니 곧 하나님이 이에 해당한다. 하나님을 섬기고, 인간에게 하나님과 그분의 신성한 가르침을 알게 하여 진리와 선을 확립하고 도움을 베풀어, 자기 존재의 진정한 목적을 실현하게 하며, 목적이 있는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이 이들 예언자의 목적이다. 무슬림이 예언자들을 차별하지 않고 이들의 가르침을 일관성 있고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이러한 바탕에서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이유에서 무슬림은 하나님의 모든 경전을 믿고 앞서 말한 모든 예언자들을 받아들인다.

생명(生命)²⁾의 개념

생명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찬란한 전시이며 그분의 기술과 능력의 생생한 반영이다. 그분은 생명의 수여자요, 창조자이시다. 그 무엇도 우연히 존재하게 된 것은 없으며 그 누구도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창조해 내지 못한다. 생명은 귀하고 소중한 재산이며, 제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쪽을 택하고 싶어하지는 않을 것이다. 절망에 빠진 나머지, 서서히 자신을 죽여, 생명을 버리는 사람들도 마지막 순간에 가서는 다시 살아 날려고 애쓰며 재생의 기회를 잡고 싶어한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것이므로, 그것을 도로 찾을 정당한 권리를 가진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다. 그 누구에게도 살생의 권리가 없는 것이다. 이것이 이슬람이 자살과 자멸을 어떤 경우에도 금하며 귀중한 영혼이 떠날 때, 인내와 강한 신앙을 권하는 소이(所以)이다. 살인자가 처형을 당할 때는, 하나님의 권리와 그분의 법에 따라 그의 생명이 제거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명을 주면서 공연히 독특한 자질과 뛰어난 능력을 부여한 것이 아니며, 부질없이 어떤 의무를 부과한 것도 아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생의 목적을 이루고 존재의 목적을 실현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창조적 삶의 기술을 터득하여 삶의 진미를 맛보게 하려는 것이다. 생명은 하나님의 신탁물이며 인간은 그 신탁자로서 하나님을 염두해 두고 그 분에 대한 책임을 의식하여 그 신탁물을 정직하고 요령 있게 다루어야 한다.

생명은 어떤 지점에서 출발하여 어떤 목적에서 끝나는 여행에 비유해 볼 수 있다. 생명은 일종의 과도계단(過渡階段)이며 내세의 영생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인간은 이 여행을 하는 여행자이며, 오직 내세의 생명에 이로운 일에만 관심을 두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하여 충분히 준비를 갖추고 순간 순간을 영원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이 지상에서의 생명을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로 삼아 될 수 있는 한 생을 가장 보람있게 보내야 하는 것이다. 떠날 때가 오면 단 한 시도 지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수명이 다하면 때는 이미 늦어 어떻게 하더라도 그것을 늘리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생을 가장 보람있게 보낸다 함은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삶을 사는 것이며, 그 생이 미래의 영생에 이르는 안전한 통로가 되게 한다는 것이다. 생명은 궁극적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하므로 이슬람은 규정과 원칙의 완전한 체계를 세워 인간에게 살아가는 방식을 제시해 주고 취할 것과 버릴 것 그리고 해야 할 일과 피해야 할 일 등이 무엇인지를 보여 준다. 사람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왔으니, 그분께로 돌아갈 것은 뻔하다. 예언자 무함마트는 현명하게도 자신의 포괄적인 언명 가운데 하나에서, 사람에게

스스로 인생의 객이요, 세상을 스쳐 가는 나그네로 하라고 충고한다.

종교의 개념

종교는 역사의 전개 속에서 악용되었으며 오해를 받아 왔다. 종교가 착취와 압제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편견과 박해의 구실이 되는가 하면 엘리트와 대중에 대한 권력과 지배의 근원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종교라는 미명하에 부당한 전쟁이 펼쳐졌고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억압되었으며 과학이 박해를 당하고 개인의 자아 완성의 권리가 박탈되는가 하면 개인의 존엄과 명예가 무자비하게 짓밟혔다. 또 종교라는 미명하에 인류에게 불의를 강요하여 종교 자체가 많은 타격을 받기에 이른 것이다. 이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의 현실이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종교 본연의 기능이며 종교를 다루는 올바른 방법인가?

이것이 종교의 목적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대답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단연코 “아니다”이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고, 저마다 유일한 참종교라고 자처한다. 종교마다 사람을 올바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서로 모순하여, 한 분이신 자애로운 세계의 하나님 아래 인류를 범세계적인 형제애로 결속시키기는커녕, 사람들 사이에 불화를 일으키고 종교에 대한 거센 반발만을 초래하였다. 국외자의 입장에서 이런 상황을 주시해 본 사람은 누구나 당황하게 마련이며, 필시 종교라면 어디서나 다 염증을 느끼게 될 것이다.

최광의로 본 이슬람의 종교의 개념은 독특하다. 참종교는 인류를 올바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인간성과 인간의 기본적 욕구가 고금을 막론하고 근본적으로 동일하다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개념은 한가지 결론을 유도하니 곧 한 분이신 같은 하나님에게서 비롯하여 향존(恒存)하는 미해결의 인간 문제를 처리하는 참종교는 오직 하나라는 것이다. 이 종교가 바로 이슬람이다. 그러나 이슬람은 예언자 무함만만이 가르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와는 달리 무함만 이전의 모든 예언자들도 모두 이슬람을 가르쳤으며 아브라함과 모세를 비롯하여 예수와 나머지 예언자들의 진실한 추종자들은 무슬림으로 일컬어졌다. 그러므로 이슬람은 하나님의 범세계적인 참종교로서 존재해 왔고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한 분으로 변함없으며, 시간과 공간, 종족과 언어 그리고 그 밖에 어떤 다른 요인이 작용하더라도 이에 관계없이 인간성과 인간의 기본 욕구가 근본적으로 같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전제로 하여 이슬람의 개념은, 종교는 영적, 지적, 필요물일 뿐 아니

라, 사회적으로 보편적으로 요구되는 것임을 단언한다. 인간을 미혹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인도하려는 것이며 인간을 격하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도덕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이다. 인간에게 이로운 것을 박탈하고 그에게 짐을 지우거나 그 자질을 억누르려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사고와 올바른 행동의 무진장한 보물을 그 앞에 펼쳐 보이려는 것이다. 좁은 테두리에 그를 가두려 함이 아니요, 진리와 선의 광활한 지평으로 나아가게 하려는 것이다. 요컨대, 참종교는 인간에게 하나님과 자기자신과 세계를 알게 하는데 그 참뜻이 있는 것이다. 종교의 기능을 지나치게 단순화시켜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 의미를 풀어 보면 이렇다.

참종교의 목적을 자세히 살펴보면, 종교가 인간의 정신적 요구와 적당한 육체적 요구를 만족시켜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종교는 인간의 심리적 매듭과 강박관념을 풀어 주며 본능과 열망을 순화시키고 욕망과 인생 행로로 전체를 훈련한다. 세계 최상의 진리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을 향상시켜 준다.

인간에게 생명의 신비와 인간성과 이들을 다루는 방법과 선과 악 그리고 의와 불의에 대해 가르쳐 주는 것이 종교다. 악을 제거하여 영혼을 정좌시키며 마음에서 의혹을 말끔히 가시게 하며 인격을 강화시키고 인간의 사고와 인품을 바로 잡아 준다.

이 모든 것의 실현은 사람이 종교가 제시하는 정신적 의무와 육체적 규정을 충실히 지킬 때만 가능하다.

한편 참종교는 인간을 교육하고 단련시켜, 희망과 인내심을 가지게 하며, 진실과 정직을 지키게 하고 의와 선을 사랑하게 하며, 용기와 참을성을 배양시킨다. 이 모든 것이 우수한 삶의 기술을 터득하는데 필요한 것이다. 또한 참종교는 두려움과 영적인 피해로부터 인간을 보호해 주며, 하나님의 도움과 끊을 수 없는 유대를 인간에게 보장해 준다. 인간에게 평온과 안정을 주고 그의 생애 의미를 부여한다.

그것이 참종교가 인류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며 또한 이슬람에서의 종교의 개념이다. 이런 결실을 거두지 못하는 종교는 어느 것이든 이슬람이 아니다. 아니 아예 종교도 아니다.

또 종교로부터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심도 하나님을 염원하는 마음도 없는 것이다. 다음에 제시하는 성 꾸란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옳다:

진실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종교는 이슬람이니 성서의 백성들도 지식이 저들에게 이른 이후로는 서로 시기하지 않는 한 거기에 반대하지 않느니라,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표징을 부인한다면, 하나님께서 속히 책임을 물으시리라, (꾸란, 3:19)

그리고 누구든 이슬람 외에 다른 종교를 원한다면, 그것이 결코 그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려니와 내세에서는 (모든 영적 유익을) 상실한 자들의 대열에 서게 되리라 (꾸란, 3:85)

죄의 개념

인간 존재를 괴롭히는 근본 문제 중의 하나는 세상의 죄와 악이다. 에덴 동산에서 살던 아담과 이브에게서 죄가 시작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믿음이다. 그 사건의 결과 타락하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 인류는 죄와 치욕의 낙인이 찍히고 혼란을 겪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문제 전반에 대해 이슬람이 취하고 있는 입장은 독특하다. 우리가 아는 어떤 종교도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다. 꾸란에 의하면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에덴 동산에 거하며, 에덴에서 나는 것을 마음껏 즐겼으며, 풍부한 양식과 안락이 보장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해악과 불의에 빠지지 않으려면 한 특정한 나무에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받았다. 그런데 사탄이 간계로 이들을 유혹하여 이들이 누리던 즐거운 상태를 앗아가 버렸다. 에덴에서 쫓겨난 이들은 땅으로 유배당하여, 이 땅에서 살다가 이 땅에서 죽어 마침내는 땅에서 다시 일으켜져 최후의 심판을 받을 운명에 놓이게 되었다. 이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잘못을 깨닫고 수치와 죄의식과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이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베푸셨다. (꾸란 2:35-38, 7:19-25, 20:117-123)

이 상징적 사건이 계시하고 있는 바는 의미심장하다. 이 사건은 인간이 낙원에서 산다고 하더라도 불완전하며 미흡한 데가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러나 아담과 이브처럼 죄를 짓거나 과오를 범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인간의 마음이 무디어져 영적인 개선이 안 되고, 도덕적 성장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인간에게는 충분한 감수성이 있어 자기의 죄와 결점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인간이 어디로 돌아가야 하며 누구에게 인도를 구해야 하는 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점이다. 더 한층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의 진지한 요청에 언제라도 기꺼이 응하신다는 사실이다. 그분은 워낙 자비롭고 자애로우신 분이시기에 용서하시되 여지를 남기지 않으며 자비를 베푸시되 빠짐이 없게 하신다. (꾸란, 7:156) 이 사건이 마지막으로 계시하는 한 가지는 성(性)에 의한 차별과 유전죄라는 것이 이슬람의 정신에 맞지 않다는 사실이다.

원죄 혹은 유전죄의 개념은 이슬람의 가르침에서 발붙일 곳이 없다. 꾸란 (30:30)과 예언자에 의하면 인간은 피뜨르, 혹은 순수의 자연상태, 곧 하나님의 뜻과 법에 복종한다는 의미의 이슬람의 상태에서 태어난다. 사람이 출

생 후에 어떻게 되든 그것은 외부의 영향을 받고 여러 요인이 간섭해서 생긴 결과이다. 현대적 사고 방식을 빌어 말한다면 인간성이 순응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사회화 과정이 인성의 형성과 도덕성의 발달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한다. 그렇다고 개인의 선택과 자유가 부인되거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유전적 혹은 본능적 죄의 무거운 짐을 제거해 주는 것이다.

하나님은 정의(定議)에 의하면 공정하고 자비롭고 자애로우시며 완전하시다. 그 분은 자신의 영을 인간에게 불어넣어 인간을 창조하셨다. (꾸란, 15:29, 32:9, 66:12) 하나님은 절대적인 무한의 선이시며, 그분의 영은 절대로 완전한 것이므로, 또한 인간은 창조되면서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므로 인간에게는 적어도 창조주의 이러한 선한 영의 일부나마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인간의 선한 기질과 영적 열망이 설명된다. 그러나 한편,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당신을 숭배하도록 창조하셨지, 그분과 대등한 경쟁자로, 그분의 선의 완전한 화신, 절대적 권화(權化)가 되도록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인간이 창조한 힘으로 아무리 선하고 완전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과 완전성에는 미칠 수 없음을 뜻한다. 과연 인간에게 이런 특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들은 한정되어 있으며 인간의 유한성과 능력과 책임에 맞춰 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인간은 불완전하며 과오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불완전하고 과오를 범한다는 것이 곧 죄에 상당하거나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적어도 이슬람에서는 그렇다-인간이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결점의 제물이 되도록 도움 없이 방치해 두시지는 않는다. 인간은 계시에 의해 권능을 받고 이성의 후원을 받으며, 선택의 자유에 의해 강화되고 상대적 완전성을 추구□성취할 수 있는 갖가지의 사회적, 심리적 성향의 인도를 받는다. 선과 악의 힘 사이에 작용하는 부단한 인력(引力), 곧 삶의 투쟁이다. 이러한 인력(引力)은 인간으로 하여금 무엇을 기대하고 이상을 추구하며 업적을 이루고 역할을 수정해 나가게 한다. 생을 단조롭게 정체시키는 것이 아니라 흥미진진하고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인력이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이 영적, 도덕적 승리를 쟁취해 나가는 것을 보고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슬람의 윤리적 범주에 의하면 인간이 불완전하거나 잘못을 범하는 것은 죄에 들지 않는다. 이것은 유한하고 한정된 피조물로서의 인간성의 일부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완전해질 수 있는 길과 방법이 있는데도 그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다. 죄는 행위와 사고와 의지로 나타나는데, 그것을 (1) 고의적이며, (2) 하나님의 명백한 법을 무시하며 (3) 하나님의 권리와 인간의 권리를 침해하며 (4) 영혼과 육체에 유해하며, (5) 되풀이 저질러지며 (6) 정상 상태에서는 피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범죄의 구성요건인 바, 타고나거나 유전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범죄 능력이 잠

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능력이 경건과 선의 능력보다 더 크지는 않다. 선의 잠재력이 아니라 죄의 잠재력을 행사하게 되면, 자신의 순수성에 새로운 외부적 요인이 더해지게 될 것이다. 인간은 오직 이렇게 더해진 외부적 요인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슬람에서는 크고 작은 죄들이 있어 하나님에 대한 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인간을 동시에 범하는 죄도 있다. 하나님에 대한 모든 죄는 하나만 빼놓고, 죄를 진 사람이 진지하게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 꾸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정녕코 쉬르크의 죄(다신론, 범신론, 삼위일체설 등)는 용서하시지 않는다. 그러나 그분은 나머지 다른 죄는 용서하시며 당신이 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사하여 주신다. 그러나 다신론자와 무신론자도 하나님께로 돌아선다면 그의 죄는 용서될 것이다. 사람에게 대한 죄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거나 응분의 보상과 처벌, 혹은 둘 중의 어느 하나가 이루어져야 용서가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죄는 생득적(生得的)인 것이 아니며, 어쩌다 저질러지는 것이지 천성적으로 몸에 밴 게 아니며 피할 수 있는 것이지 불가피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명백한 법을 의식하면서 고의적으로 어기는 것이 곧 죄인 것이다. 타고난 본능이나 억제가 절대 불가능한 욕구와 제어할 수 없는 충동 때문에 어떤 일을 저지를 것이 분명하다면 이러한 행위는 이슬람에서는 죄가 아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목적은 무의미해지고 인간의 책임은 무위로 끝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실현성이 있고 힘이 미치는 범위 내에 있는 것만을 요구하신다.

자유의 개념

자유는 하나의 개념과 가치로서 많은 개인과 집단과 민족에게 그 권리가 부여되었다. 오해와 악용의 사례도 자주 있었다. 사실은 사람이 사는 사회라면 어느 곳이나 절대적인 의미에서의 자유를 누릴 수는 없다. 사회가 일단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어떤 식으로든지 어느 정도의 제한이 가해져야 한다. 이러한 일반적인 개념은 논외로 하더라도, 이슬람은 자유를 가르치고 자유를 소중히 여기며 비무슬림은 물론 무슬림에게도 자유를 보장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슬람의 자유 개념은 각계 각층에서 사람이 하는 모든 자발적 활동에 적용된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사람은 누구나 피뜨라 혹은 순수한 자연상태에서 자유롭게 태어난다. 이것은 예속과 죄와 유전적 열등함과 인습적 장애가 없는 상태에서 인간이 태어남을 뜻한다. 인간의 자유권은 그가 하나님의 법을 고의적으로 범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모독하지 않는 한 신성하다.

이슬람이 이런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명한 생활지침 속에는 심

오한 지적 노력과 부단히 지켜야 할 영적 관습과 구속력 있는 도덕적 원칙 그리고 음식에 관한 금기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인간이 이런 생활지침을 독실하게 따른다면, 자유와 해방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기필코 달성하게 될 것이다. 신앙과 양심과 숭배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꾸란의 하나님의 말씀은 다음과 같다 :

종교를 강요하지 말지니라, 진리는 오류와 뚜렷이 구별되나니, 누구든지 악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 가장 튼튼한 끈을 잡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들으심이라.(꾸란, 2:256)

이슬람이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종교란 신념과 의지와 참여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은 힘으로 강제하면 무의미해진다. 더욱이 이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기회의 형태로 제시하며, 사람이 스스로 길을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의 자유를 준다. 꾸란의 말씀은 이러하다 :

진리는 너의 주께로부터 비롯하는 것이니, 믿기 원하면 믿게 하고 믿기를 원치 않으면 믿지 않게 버려 두라.(꾸란, 18:29)

이슬람의 자유개념은 신조의 하나이며 최고의 창조주께서 내린 엄한 명령이다. 이 자유개념은 다음의 제 기본원칙 위에 세워진다. 첫째, 인간의 양심은 오직 하나님께만 복종한다. 모든 사람은 제각기 하나님께 직접 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둘째, 모든 사람의 자신의 행위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며, 그 자신만이 자기가 이룬 업적을 거두어들이 권리를 가진다. 셋째, 인간에게는 충분한 영적 인도가 베풀어지며, 책임을 지고 건전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합리적 자질이 부여된다. 이러한 것이 이슬람의 자유개념의 기초요, 이슬람의 자유의 가치다. 그것은 천부인권이요 영적인 특권이며 도덕적 특권인 동시에 무엇보다도 종교적인 의무이다. 이러한 이슬람의 자유 개념의 체계 속에는 종교적 박해와 계급 투쟁 혹은 인종적 편견의 여지가 없다. 개인의 자유권은 그의 생존권만큼이나 신성하다. 자유는 생명 그 자체에 상당하기 때문이다.

평등의 개념

이슬람의 가치 체계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 하나는 평등의 원칙이다. 형평의 원칙이라는 말이 더 나올지도 모르겠다. 이러한 평등의 가치를 획일성이나 스테레오 타이프로 오인하거나 혼동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지만 반드시 똑같지 만은 않다는 것이 이슬람의 가르침이다. 능력, 잠재력, 의욕 그리고 재산 등에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 자체만으로 한 사람이나 종족이 다른 사람이나 종족보다 우월한 지위를 점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혈족, 피부색, 가지고 있는 재산의 양, 그리고 누리는 특권의 정도는 하나님에 관한 한, 개인의 인격과 사람됨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유일한 기준은 영적 우수성의 기준이다. 꾸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

오 인류여! 진실로 우리가 너희를 한 쌍의 남자와 여자에게서 창조하여 너희로 민족과 부족이 되게 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서로 알게 하려함이라. 정녕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희 가운데 가장 존귀한 자는 가장 의로운 자이니라.(꾸란, 49:13)

인종과 피부색과 사회적 지위의 차이는 우연적인 것일 뿐이다. 이러한 차이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람됨의 진정한 크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더욱이 평등의 가치는 단순 헌법상의 권리나 신사협정 혹은 생색내는 자선으로 실현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무슬림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고수해야 하는 신조다. 이러한 이슬람의 평등의 가치 토대는 이슬람의 체계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평등의 가치는 다음의 기본 원칙에서 나온다. (1) 모든 사람은 만유의 최고 주이신, 유일한 영원불변의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 (2) 모든 사람은 인류로서 같은 종(種)에 속하며 똑같이 한 부모, 아담과 이브의 후손들이다. (3)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피조물에게 공정하시고 친절하시다. 그분은 특정 종족이나 연령 혹은 종교에 치우치지 않는다. 우주 전체가 그분의 지배 영역이며 모든 사람이 그분의 피조물이다. (4)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빈손으로 온다는 의미에서 평등하며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간다는 의미에서 평등하다. (5) 하나님은 각 사람들 그 자신의 공과를 근거로 그 자신의 행위를 따라 심판하신다. (6) 하나님은 인간에게 인간으로서의 명예와 존엄을 누릴 권리를 부여하신다.

이러한 것은 이슬람의 평등의 가치 배후에 있는 원칙의 일부다. 이러한 개념을 충분히 구체화시키게 되면 편견이나 박해의 여지가 없어질 것이다. 또 이런 하나님의 법이 제대로 시행되면, 압박이나 억압의 소지가 사라질 것이다. 선민이니 이방인이니 하는 식의 개념, 특권 받은 민족이나 저주받은 민족이나 하는 말들 그리고 사회적 특권층이나 이등 시민이니 하는 표현들이 모두 의미를 잃고 사장되어 버릴 것이다.

형제애의 개념

이슬람의 가치 체계를 구성하는 또 하나의 기본 요소는 인간은 모두 한 형

제라는 형제애의 가치다. 이 가치 역시 자유와 평등을 다룰 때 논한 것과 동일한 원칙에 입각한다. 전술한 바, 이러한 제 원칙뿐 아니라 이슬람의 형제애는 숭배 받으시는 분인 하나님의 유일성과 보편성 숭배자인 인류의 통일성 그리고 숭배의 매개체인 종교의 통일성에 대한 확고부동한 신념에 기초한다. 무슬림에게 있어 하나님은 유일하고 영원하고 보편적인 분이시다. 그분은 만인의 창조주요 만인의 부양자이시며, 만인의 재판관이고 만인의 주이시다. 사회적 지위와 민족적 우수성 그리고 어느 인종에 속하느냐 하는 것은 그분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분 앞에 만인은 평등하며 서로의 형제이다.

무슬림은 창조의 근원과 원래의 조상과 최종 운명이 같다는 의미에서 인류의 통일성을 믿는다. 창조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다. 첫 조상은 하나로서 같으니 곧 아담과 이브이다. 모든 인간은 이 첫 조상의 후손으로서 같은 부모를 가진다. 무슬림은 최종운명이, 모든 인간이 결국은 돌아가야 할 창조주이신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무슬림은 하나님의 종교의 통일성을 믿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교를 한정시키거나 특정 민족이나 종족 혹은 연령을 편애하시지 않음을 뜻한다. 이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해석하면 우월한 체한다든지 주제를 모르고 남을 배척하는 일이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정신 속에 자리잡을 때 사람은 모두 한 형제라는 형제애의 개념이 선명하게 부각되고 그 형제애의 바탕이 튼튼하게 될 것이다. 무슬림은 하나님의 유일성과 인류의 통일성 그리고 종교의 통일성을 믿기에 하나님의 모든 사도와 계시를 차별 없이 믿는다.³⁾

평화의 개념

이슬람의 몇 가지 기본적 사항을 살펴보게 되면, 이슬람이 평화의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평화와 이슬람은 같은 어근에서 파생하며 동의어로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명칭 가운데 하나가 평화다. 모든 무슬림이 일상 예배를 끝내며 하는 말은 평화의 말이다. 무슬림이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는 인사는 평화다. 무슬림들이 일상적으로 주고받는 인사도 평화라는 말이다. 형용사로서의 “무슬림”은 어떤 의미에서는 평화롭다는 것을 뜻한다. 이슬람에서의 천국의 평화의 거처다.

이처럼 이슬람에서는 평화의 주제가 근본적이고 지배적인 것이다. 이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자기자신, 그리고 같은 인간들과 평화를 이루게 된다. 이런 모든 가치를 받아들이고 우주 속의 인간에게 합당한 위치를 부여함으로써, 훌륭한 신앙과 원칙을 고수하는 사람들은 정녕 우리의 세계를 개선시키고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시키며, 평등을 이루고

세계적 형제애를 누리며 지속적인 평화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⁴⁾

공동체의 개념

공동체라는 말은 몇 가지 의미를 내포하는데 그 중의 어떤 것은 낭만적이고 고향 같은 느낌을 주는 반면, 또 어떤 것은 경멸하는, 시대에 역행하는 듯한 기분이 들게 한다. 그러나 근본을 따져보려는 것인 만큼, 공동체라는 말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를 논하는데 그치기로 한다.

한 가지 기본적 의미에서 본 공동체의 개념은 “고도의 대인적 친밀감, 감정적 깊이, 도덕적 약속, 사회적 결속, 그리고 시간적 계속성을 그 특징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관계를 뜻한다. …이러한 공동체는 자연, 종교, 민족, 종족, 직업 혹은(공통의 목적을 가진 집단)속에서 발견된다. 그 원형이 …가족이다.”(Nisbet 47-8면)⁵⁾

또 다른 기본적 의미에서의 공동체는 다음의 두 가지 특징을 주로 하는 포괄적 집단이다: (1) 공동체는 개인이 그 안에서 자기에게 중요한 활동의 대부분을 전개하고 경험을 획득하는 집단이다. (2) 이 집단은 공유된 귀속감과 일체감에 의해 결속된다.(Broom & Selznick, 31면)⁶⁾

공동체라는 친밀하고 깊은 도덕적 관계로부터 대중사회라는 물인간적(沒人間的)이고 형식적인 공리주의 관계로 전이(轉移)해 나아가는 것이 역사의 주된 흐름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갖가지 양상 속에서 드러나고 있으며 파급적 결과를 그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역사의 흐름을 보고, 몇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이러한 역사적 진전은 전혀 부정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며 또한 오로지 긍정적이고 건설적이기만 한 것도 아니다. 부정적인 동시에 긍정적인 결과는 사람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다르다. 둘째, 현대사회는 결코 완전하지 못하며, 헤쳐 나가야 할 커다란 과업이 가로 놓여 있다. 셋째, 인간조건은 목적이 상실된 것도, 희망이 사라진 것도 아니다. 위기와 진통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전혀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다. 끝으로, 인류의 상호 의존도는 더욱 높아졌으며, 인간사회는 더욱 더 복잡하게 얽혀졌다. 한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반드시 나머지 다른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이슬람의 공동체 개념을 논한다.

이슬람의 공동체 개념이 고유의 특징을 가진다는 말은 대체로 보아 틀림이 없다. 이러한 고유의 특징은 공동체의 기반, 그것이 역사적 목적, 다른 공동체 사이에서 그것이 차지하는 위치, 그 주체성과 계속성을 가리켜 하는 말이다.

이슬람에서의 공동체는 인종, 국적, 자연, 직업, 친족 관계 혹은 특별한 이해 관계를 터전으로 하여 세워지는 게 아니다. 어떤 지도자나 창설자 혹은

사건의 이름을 따서 명칭이 부여되지도 않는다. 국경이나 정치적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이슬람의 공동체다. 이슬람에서의 공동체의 기초는 하나의 원칙으로서 이러한 원칙은 알라의 뜻에 복종하고, 그분의 법에 순종하며 그분의 대의에 기여함을 그 내용으로 한다. 요컨대, 이슬람의 공동체는 그것이 이슬람에 의해 육성 촉진될 경우에만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이슬람의 공동체는 단순한 생존이나 권력지향, 종족번식이나 생리적 연속성을 초월하는 역사적 사명을 지닌다. 이러한 사명을 성 꾸란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너희 가운데 공동체(혹은 움마)를 두어 선을 널리 퍼며, 의를 내세우고, 악을 근절시킬지니라, 이리하여야 형통하리라(꾸란, 3:104)

일찍이 너희보다 더 훌륭한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았나니 너희는 의를 시행하고 악과 싸우며 알라를 믿을지니라(꾸란, 3:110)

이슬람 공동체의 역사적 소임은 미덕과 건전성과 고결성의 진정한 구현체가 되는 것이다. 이슬람다운 공동체는 선의 빈틈없는 수호자요 악의 철저한 적이다. 공동체 일반에 요구되는 것이 그 공동체의 구성원 개개인에게도 똑같이 요구된다. 이것은 공동체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이며 각 개인은 저마다 알라에게 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무슬림 개개인의 소임은 예언자의 다음과 같은 말씀 속에 가장 잘 드러나 있다.

그대 중 누구든지 악한 일을 보거든 행동으로 그것을 바로잡아 나가야 하느니라. 그래도 안 되면 말로 고쳐야 하며, 그래도 안 되면 거부와 비난의 감정을 격하게 할지니, 이것이 신앙의 최소 한도이니라.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규정은 매우 의미 심장하고 포괄적인 것이다. (대중)매체가 혁명을 일으키는 이 시대에, 정신이 올바르게 박힌 사람이라면, 일치된 행동의 힘이나 의사소통을 가능케 하는 말의 힘, 혹은 감정의 힘을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이슬람 공동체의 역사적 소임은 꾸란 구절에 다음 같이 부연되고 있다.

우리가 너희를 중앙의 민족, 뭉쳐진 공동체, 균형 잡힌 움마로 만들었나니, 이는 너희가 다른 민족에게 증인이 되고 사도가 너희에게 증인이 되게 하려 함이다. (꾸란, 2:143)

이러한 증거의 소임은 지극히 의미 심장한 동시에 그 요청하는 바가 자못 심각하다. 그것은 이슬람의 공동체가 모범이 되어야 함을 뜻한다. 이슬람의 공동체는 행위의 최고 기준을 설정하고 타의 준거가 되어야 한다. 극단과 사치와 정체적 경직성과 즉각적인 증발을 피해야 한다. 행동에 중용을 취하고,

확고부동하게 일관성을 유지하고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버려야 할 것인지
를 알며 원칙을 세우되, 융통성을 견지하는 것이 아마 인간성과 사회의 생
존력을 판가름하는 가장 어려운 시험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슬람 공동
체의 소임이며 무슬림의 역사적 사명이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평가 기준에
의해서 무슬림의 공동체가 인간이 지금까지 발전시킨 최선의 공동체로 간주
되는 것이다.

이슬람 공동체의 정체성(正體性)은 일관성 있는 균형, 모범적 행위, 목적의
통일성, 감정의 상호성 결속과 형평의 제원칙을 그 중심내용으로 한다. 꾸란
과 순나에는 이런 취지의 언급이 많다.(예 꾸란, 4:135, 21:92, 25:52)

이슬람 공동체의 계속성에 관하여는 몇 가지 점이 주목된다. 자기가 가진 수
단을 다 동원하여 이런 계속성을 보장하는 것이 무슬림의 의무이다. 혼인과
상속에 관한 규정, 자카와 핫즈의 의무, 친족의 상호권리와 의무, 개인의 양
심, 사회적 귀속, 이 모든 것이 이슬람 공동체의 건전한 계속성을 지향한다.
한편 알라께서는 몇 가지 방법에 의해 이러한 계속성을 보호해 줄 것을 약
속하셨다.

첫째, 그분은 꾸란을 보존하고 그 순수성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셨다.(꾸란
15:9) 이것은 꾸란을 신봉하는 공동체가 항존(恒存)할 것임을 뜻한다. 다른
경전의 신봉자들은 있는데 꾸란의 신봉자가 없는 경우는 생기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둘째, 이슬람 자체가 하나의 연속체다. 한민족이 알라의 길에서 이탈할 때마
다 그분은 당신의 말씀을 재다짐하고, 당신의 진리를 재확인하였으며 새로운
예언자나 개혁자를 임명하여 이를 계속하게 하였다.

셋째, 알라께서는 만약 무슬림들이 정로를 버린다면 실패하게 될 것이며, 실패
한 무슬림들은 이들과는 다른 사람들로 대체하실 것이라는 취지로 엄히
경고하셨다.(꾸란, 47:38)

또 신자들에게는 경고하시되 만약 신자들 중 누구라도 자신의 신앙을 등진
다면 하나님께서는 속히 저들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당신께서 사랑하시
는-신자들에게 겸손하고 불신자들에 대해 깨끗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고
수치를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사람들을 만들어 내겠다고 하셨다.(꾸란,
5:57)

윤리(倫理)의 개념

이슬람에서의 윤리의 개념은 몇 가지 기본적 신념과 그 핵으로 한다. 이런
신념과 원칙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1) 하나님은 모든 선과 진리와 미의 창조주로 근원이시다.

- (2) 인간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존엄하고 명예로운 창조주의 대리자이다.
- (3)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만물이 인류에게 봉사하게 하셨다.
- (4)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지혜로우시기에 인간에게 불가능한 일을 기대하지 않으시며 인간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일에 대해 책임을 물으시지도 않는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생의 진미를 즐기는 것을 금하시지 않는다.
- (5) 중용과 실천성과 균형이, 드높은 고결성과 건전한 윤리성을 보증한다.
- (6) 원칙적으로 모든 것이 허용되나, 다만 의무로 규정된 것은 이를 지켜야 하며, 금기로 규정된 것은 이를 피해야 한다.
- (7) 인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책임을 지며, 인간 최고의 목적은 창조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슬람의 윤리의 차원은 다방면에 걸쳐,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다. 이슬람의 윤리는 인간과 하나님, 인간과 다른 인간, 그리고 인간과 우주를 이루는 제 요소와 피조물, 인간과 그 자신의 심층자아의 관계를 규율한다. 무슬림은 외부에 대한 행동을 경계하고, 분명히 드러나는 행위와 말과 생각과 의도를 경계해야 한다. 일반적 의미에서의 무슬림의 소임은 의를 옹호하고 악과 싸우며, 진리를 추구하고 거짓을 버리며, 아름다움과 건전성을 소중히 하고 무례를 피하는 것이다. 진리와 덕이 무슬림의 목적이다. 겸손하고 소박하고 예의바르며 동정심을 보이는 것은 그의 제이의 천성이다. 무슬림에게 있어 오만과 허영 그리고 매정함과 무관심은 불쾌하고 무례한 처사이며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일이다.

특히 무슬림과 하나님의 관계는 사랑과 순종, 철저한 신뢰와 깊은 사려, 평화와 감사, 불구의 의지와 적극적 봉사의 관계다. 이러한 고등한 윤리가 인간적 차원에서의 윤리를 육성, 강화시켜 줄 것임을 확실하다. 왜냐하면, 같은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 무슬림은 친족에게 다정하고, 이웃에 관심을 보이며, 연장자를 존중하고 젊은이를 감싸주며, 병자를 돌보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며,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하고 의기소침해진 사람을 격려하며, 남의 경사를 보면 기뻐하고 유혹에 빠진 자에게 참을성을 보이며, 무지한 사람에게 아량을 베풀고, 무력한 사람을 관용하며 악을 거부하고 사소한 일에 얽매이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나, 더욱이 무슬림은 자기 자신의 권리에 못지 않게 타인의 법적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그의 정신의 건설적인 생각과 진지한 탐구열로 가득 차야 한다. 그 마음은 동정심과 선의로 고동쳐야 하고, 그 영혼은 평화와 평온의 빛을 발해야 하며, 충고는 하되 진심을 깃들여 정중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정직과 완전의 산 본보기가 되고 약속을 이행하며, 자기의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더하여 지식과 덕을 추구하고, 잘못을 고치고 죄를 회개하며, 사회의식을 보다 민감하게 하고 인간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성품을 기르며, 가족을 풍족하게 부양하되 사치를 피하고 가족의 정당한 요구를 만족시켜 주는 것, 이 모든 것이 무슬림의 윤리적 의무인 것이다. 자연과 세계는 무슬림의 탐구의 장(場)이요, 향락의 대상이다. 무슬림은 자연과 세계를 이루는 제요소를 활용하고 그 경이를 음미하며 그 경이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위대성을 간파하고 그 선을 보존하며, 그 경이를 탐구하고 그 속에 깃든 신비를 파헤쳐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활용을 하든, 즐기는데 그 치든 낭비와 무절제를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책임을 다하는 하나님의 대리자요, 양심적인 자로서 무슬림은 자기와 세계를 공유하며 앞으로 그 뒤를 이어갈 사람들을 항상 염두해 두고 있어야 한다.

이슬람의 윤리적 원칙은 일부는 이행의 의무가 따르는 긍정적 서약의 형식으로 되어 있고 또 일부는 금지의 일부가 따르는 부정적 명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긍정적인 형식이든 부정적인 형식이든 모두다 인간에게 건전한 정신과 평온이 깃든 영혼과 강한 인격 그리고 건강한 육체를 갖게 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것이 인류의 전체 복지와 번영의 필요 조건임은 재언을 요치 않는다. 인간에게 도움을 베풀어 이러한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이슬람은 다음의 규정을 두고 있다.

1. 하나님의 유일성과 무함만이 사도임을 증언하되, 의미심장한 서약의 방식을 취할 것.
2. 일상 예배를 규칙적으로 올릴 것.
3. 자선 혹은 빈자(貧者)의 몫(자카)이라고 하는 종교세를 바칠 것.
4. 성원(聖月)라마단의 단식(斷食)을 지킬 것.
5. 적어도 평생에 한 번 성도(聖都) 맥카를 순례할 것.

이런 규정에 내포된 윤리적□사회적 의미는 후에 자세히 논하기로 한다.

이러한 적극적 수단에 더하여, 예방적 수단이라고 할 만한 규정들도 있다. 사람은 광란과 퇴폐에서, 우유부단과 방종에서, 추잡과 유혹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이슬람은 음식과 음료와 성에 관한 금기 사항을 규정하였다. 이들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1. 포도주, 증류주, 독주(毒酒) 등 취하게 하는 술 전부(꾸란, 2:219, 4:43, 5:93-94)
2. 돼지고기와 그 제품(포오크, 베이컨, 햄, 돼지기름), 발톱이나 이빨로 먹이를 잡는 들짐승(호랑이, 늑대, 표범 등)의 고기와 그 제품, 설치류, 파충류, 벌레등을 먹이로 하는 모든 날짐승(매, 독수리, 까마귀 등)의 고기와 그 제품, 제대로 도살이 안 된 짐승과 새의 시체에서 나온 고기와 그 제품(꾸란, 2:172-173, 5:4-6)
3. 도박과 무익한 스포츠 전부(꾸란, 2:219, 5:93-94)

4. 모든 혼외 성관계와, 사람들 앞에서 말하거나, 걷거나, 쳐다보거나, 옷을 입을 때, 유혹을 부채질하거나 성욕을 자극하거나 은연중 음란 행위로 이끄는 모든 태도와 몸짓(꾸란, 23:5-7, 24:30-33, 70:29-31)

하나님께서 이런 금지의 법을 두신 것은 인간의 영적, 정신적 안녕과 인류의 윤리적, 물질적 이익을 위해서다. 하나님께서 마음내키는 대로 취한 조처가 아니요, 인간이 강요를 자청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복지에 관심이 있다는 증거이며, 그분이 인간을 잘 보살피고 있음을 지적하는 징표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금하시는 이유는 인간에게서 요긴하고 이로운 것을 박탈하고 싶어서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인간을 보호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훌륭한 식별력과 생의 보다 나은 것에 대한 세련된 취미와 보다 숭고한 윤리 가치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키우게 하려는데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간의 영과 정신, 영혼과 육체, 양심과 정서, 건강과 부, 체위와 사기(士氣)를 잘 보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금기는 박탈하려는 것이 아니라 풍요하게 하려는 것이며,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훈계하자는 것이며,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확장하려는 것이다.

모든 금기는 자비와 지혜의 법인 바, 이와 관련된 이슬람의 2가지 원칙을 지적하여 이점을 밝혀 보기로 한다.

첫째, 비상 사태나 위급한 상황, 불가피하고 긴급한 정황에 처한 무슬림은 정상 상태에서는 금지된 행위라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불가피하게 존속하는 한, 하나님의 윤리적 규정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다(꾸란, 2:173, 5:4참조)

둘째,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비의 법을 다짐하셨으니, 몰라서 죄를 지은 후 회개하여 자기의 행위를 고치는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것이다. 정녕 하나님은 자비롭고, 용서에 인색하지 않는 분이시다. (꾸란, 6:54)

전형적이고 두드러진 꾸란 구절에, 건전한 윤리적 행위의 바탕과 철학이 규정되어 있다. 그 구절을 다음에 옮겨 본다:

오 아담의 자손들이여! 언제 어디서 예배를 보든지 아름다운 옷을 입을 지니라. 먹고 마시되 지나치게 낭비하지 말지니, 하나님께서는 낭비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심이라. 이렇게 말하라: ‘누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마련해 준 아름다운 선물과 깨끗하고 정결한 음식을 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라: ‘그것은 이생에서 믿는 자들을 위하여 있는 것이며, 심판날에는 오직 이들을 위해서만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해하는 자들을 위해 그 징표를 자세히 설명하노라. 이렇게 말하라: ‘진실로 나의 주께서 금(禁)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누가 모든, 안 모든, 수치스런 짓을 하는 것과 진리와 도리를 거스르는 죄를 범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동반자를 붙이는 것, 그리고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꾸란, 7:31-33)

이슬람에서의 윤리적 범주는 포괄적口통합적인 것이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종교의식 영적인 관습, 사회적 행위, 의사결정, 지적탐구, 소비습관, 말씨와 예법, 그리고 기타 인간 생활의 모든 부면(部面)이 이러한 윤리적 범주 속에서 일체를 이룬다. 윤리는 이처럼 이슬람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이기에, 그 윤리적 색조가 꾸란의 전 구절에 깔려 있어, 성서전체를 통하여 여러 문맥에서 그 윤리적 가르침이 되풀이 강조되고 있다. 이래서 이러한 윤리적 가르침을 통하여 꾸란에 나오는 대로 정리하면 간결하나마 요령 있게 분류하려는 계획이 어려워진다. 각 원칙마다 여러 문맥 속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는데, 중요한 단일원칙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전체 윤리체계를 이루는 한 요소로서 나타나기도 하는 바, 이러한 요소는 또 다시 종교적인 상위(上位)체계 전체를 이루는 한 요소인 것이다.

그런 만큼, 다음에 제시하는 꾸란 구절은 꾸란에서 대표적으로 발췌해 낸 데다 인간이 번역과 해석을 가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인간의 번역과 해석은 아무리 해도 원전(原典)의 완전성에 미칠 수 없거니와 그 완전한 번역이 될 수도 없다.

하나님을 섬기되 그분에게 어떤 동반자도 붙이지 말라. 선을 행하되 네 부모와 친척과 고아와 가난한 자와 가까운 이웃과 낯모르는 이웃과 네 곁의 벗과(네가 만나는)나그네와 네 오른손의 소유(포로, 노예, 동물, 새 등)에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만한 자와 자기를 높이는 자를 사랑하지 않으심이라. 또 스스로 인색하거나 남에게 인색해 지기를 명하는 자들과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선물을 감추는 자들을 사랑하지 아니 하나니, 우리가 신앙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 저희로 수치를 당하게 할 형벌을 예비하여 두었음이라. 또 저의 재산을 베푸나(위선 되어)남에게 보이려고만 했지 하나님도 마지막 날도 믿지 않는 자들을 사랑하지 아니 하시니라. 만일 누가 악한 자를 저의 친구로 사귀다면 참으로 두려운 일일진저!(꾸란, 4:36-38)

이렇게 말하라(오 무함만이어): ‘오라, 내가 하나님께서(참으로) 네게 금하신 일을 자세히 보이리라? 그 무엇도 동등시하여 그 분께 붙이지 말라. 네 부모에게 효도하고 가난을 구실로 네 자녀를 죽이지 말라. 우리가 너와 네 자녀에게 식물(食物)을 마련하였음이라. 고아의 재산을 늘리려는 것이 아니라면 저가 자라서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거기에 가까이 말라. 자질과 저울질을 공정하게 하여 모자람이 없게 하라. 우리는 어느 영혼에게나 감당할 수 있는 짐 이외는 지우지 아니하느니라. 또 말할 때는 언제나 비록 가

까운 친척이 관련되어 있을 지라도 공정하게 하며 하나님과의 계약을 지키라. 이와 같이 그분이 너에게 명하시나니 이는 너로 기억하게 하려 하심이라. 진실로 이것이 곧게 뻗은 나의 길이니 그 길을 따르고 다른 길을 따르지 말라. 다른 길은 너희를 흠어 그분의 정로(正路)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이와 같이 그분에 네게 명하시나니 이는 너로 의롭게 하려 하심니라(꾸란, 6:151-153)

하나님께서 명하시나니 정의를 시행하고 선을 행하며 일가친척에게 친절히 대하라. 또 그분은 모든 부끄러운 행위와 불의와 배반을 금하시느니라. 그분께서 네게 가르치나니, 이는 너로 훈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으면 그 계약을 이행하며, 네게 맹세하고 그 맹세를 다짐한 후에는 그것을 깨지 말라. 진실로 너는 네 하나님을 보증으로 삼았나니 하나님께서는 네가 하는 일을 아심이라, 남녀를 가리지 않고, 의를 행하며 신앙을 가진 자는 누구에게나 정녕 우리가 새 생명을 주리니 곧, 선하고 순수한 생명이라, 우리가 이처럼 애쓰는 자들에게 저들의 최선의 행위에 따라 상을 내리리라 (꾸란, 16:90-91,97)

지혜를 다하고 아름다운 선교를 펴(모든 사람들)네 주의 길로 초대하라, 그리고 저들과 의논하되 최선을 다하며, 가장 정중하게 할지니라, 네 주께서 누가 당신의 길에서 빛나갔으며, 누가 올바른 인도를 따르는지 가장 잘 아심이라.(꾸란, 16:125)

누가 있어 이 사람보다 더 좋은 말을 할 수 있으리요. 저는(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초대하고 의를 행하여 이 같이 말하느니라: ‘나는 이슬람에서 경배하는 자 중의 하나라.’ 선과 악이 같을 수 없나니 최고의 선으로 악을 물리치라, 그리하면 말하건대 너와의 사이에 증오함이 있던 자가 너의 절친한 친구가 되리라!(꾸란, 41:33-34)

(세상에서)네가 받는 것은 무엇이나 이생을 편하게 할뿐이나 하나님에게 있는 그것은 보다 낫고 더 오래 가느니라. 그것은 이런 자들을 위하여 있는 것이니 곧 저들은 자기의 주를 믿고 신뢰하며, 더 큰 범죄와 부끄러운 행실을 피하고 분노가 치밀어도 용서하며, 주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예배를 거르지 않느니라. 또 저들은 서로 의논하여 일을 처리하고 우리가 식물로 준 것을 베풀며, 악에 억눌리면(겁에 질림이 없이) 스스로를 도와 지키느니라. 상해에 대한 보상은(정도에 있어) 그에게 상응하는 상해를 가하는 것이나, 용서를 베풀어 화해한다면 하나님께서 응분의 보상을 하시리니, 하나님께서는 악행 하는 자들을 사랑하지 않으심이라. 그러나 누가 위해를 가해와 스스로를 도와 지킨 것이 사실이라면 죄의 여지가 없는 것이니라. 죄는 오직 악행으로 사람을 억누르며 무모하게 땅의 경계를 범하고 공평과 정의를 무시하는 자들에게 돌려지느니라. 이러한 자들(압제자와 위반자)에게는 가혹한 형

벌을 내리리라, 그러나 진실로 인내하여 용서해 주는 것이야말로 일을 처리함에 있어 진정 담대한 의지와 결의를 보이는 것이니라.(꾸란, 42:36-43)

(이생의)덧없는 것을 누가 원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자들에게 주리라. 그러나 마지막에 우리가 저들에 대해 마련해 둔 것은 지옥이니, 저희는 지옥 속에서 타오르며, 수치를 당하고 버림을 받으리라.

그리고 내세의 것을 바라고 그를 위해 응분의 노력을 다하며 신앙을 가지는 사람들 저들이야말로 그 노력을 하나님께서 가상히 여기는 자들이니라.

네 주의 선물을 우리가 이 사람이나 저 사람 모두에게 아낌없이 베풀어주나니, 제 주의 선물은 (그 누구에게도)막힘이 없느니라...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숭배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사람들이여!)는 수치와 빈곤을 면치 못하리라.

너의 주께서 명하셨나니, 너는 그 분 외에 그 누구도 숭배하지 말며 네 부모를 상냥하게 대할 지리라.

네 생전에 그분들 중에 노령에 달한 분이 있거든 멸시하여 말하거나 반박하지 말고 공손히 말할지니라.

그리고 친절함 마음씨로 겸손의 날개를 그분들께 내려 이같이 말하라 ‘나의 주여! 어린 저를 저분들이 애지중지하셨듯이, 저분들께 자비를 베풀어주소서.’

너희 주께서 너희 마음속을 가장 잘 아시나니, 너희가(돌이켜) 의를 행한다면 정녕 그분께서는 몇 번이고 (회개하여)당신께 돌아서는 너희를 아주 관대하게 용서하시느니라.

그리고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에게 하듯 친족에게도 저들의 정당한 권리대로 해 줄지니라 그러나 방탕한 사람처럼(네 재산을) 탕진하지 말라. 진실로 방탕한 자들은 악인의 형제이니 악인은 저의 주를 감사할 줄 모르느니라.

그리고 네가 저들(앞에 말한 사람들)에게서 돌아서 네가 의지하는 주의 자비를 구하고자 하더라도 저들에게 거슬리지 말고 다정한 말을 해 줄지니라.

(인색한 사람처럼)네 손이 목에 매이게 말며(무책임한 탕자처럼)네 손을 쪽뺏지도 말라(어떻게 하든)너는 비난을 받고 곤궁케 되리라.

진실로 너희 주께서는 당신이 베풀고 싶어하는 자들에게 식물을 베풀시나니 그분은 또한 공평히 베풀시느니라, 그분은 당신의 모든 종들을 아시며 주시하고 계심이라.

가난이 두려워 네 자녀를 죽이지 말라. 우리가 너와 네 자녀에게 양식을 마련하여 주리라. 자녀를 죽임은 실로 큰 죄이니라.

간음을 멀리하라. 이는 수치스런 짓이요 최악이며 또 다른 최악의 길을 엮이리라. 정당한 이유 없이 살생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룩하게 하셨나니,

그리고 만약 누가 부당하게 살해당한다면, 우리가 저의 후계자에게 권한을 주었나니(저는 동등한 처벌을 요구하거나 용서를 베풀 수 있느니라.) 그러나 살생에 관해서는 한계를 넘지 못하게 할지니, 이는 저가(법(法)의) 도움을 받음이라.

고아의 재산을 늘려 주지 않으려면 저가 자라서 제 힘으로 살아 갈 때까지 거기에 가까이 말라. 그리고 (모든)약속을 이행하라. (심판날에)모든 약속이 조사 될 것임이라.

자질을 후하게 하여 저울을 곤은 것을 쓰지니라. 이것이 가장 온당하며 종래에 가장 이로움이라.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하는 것(부질없는 헛된 호기심)을 추구하지 말라.

듣거나 보거나 마음에 느끼는 행위 하나 하나가 (심판날에)조사될 것임이라. 땅 위에서 오만하게 행치 말라. 네가 땅을 갈라지게 못하며 높은 산에 이르지 못함이라.

그 무엇보다도 악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니라. 이러한 것들이 네 주께서 내게 나타내신 지혜의(가르침)가운데 드느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숭배하지 말지니 이는 네가 지옥에 던져져 질책과 버림을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꾸란, 17:18-39)

우리가 루끄만에게 지혜를 주었노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그렇게 하여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느니라. 혹 누가 감사하지 않더라도,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아무 것도 부족함이 없으시며 모든 찬미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라...그리고 우리가 사람에게 명하기를 자기 부모에게 친절하라 했느니라. 진통을 거듭하여 어머니가 저를 낳았으며, 두 해가 지나서야 저가 젖을 떼었느니라.(명을 들으라), 나와 네 부모에게 감사하라 나를 향하여 최고의 목표가 있느니라. 그러나 나 외에 네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애써 숭배시키려 한다면 부모에게 순종하지 말라. 그러나 이생에서 공평하고 (정중하게)부모님을 모시며(사랑하며)내게 향하는 자들의 길을 따르라. 너희 모두가 결국 나에게 돌아오리니. 내가 너희가 행한 모든 일의 진상과 의미를 너희에게 말하리라...오, 나의 아들아(루끄만의 말이다):예배를 거르지 말고, 공평과 의를 명하며 악을 금하라.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눌러 참으라, 이리하는 것이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 의지가 확고한 것임이라. 또 사람에게 네 볼을 불룩하게 하여(오만을 부리지)말며, 땅에서 오만하게 행치 말라, 하나님께서는 오만하게 뽐내는 자들을 사랑하지 않으심이라. 그리고 걸음걸이를 절도 있게 하며, 목소리를 낮출지니, 진정 소리 중 가장 거친 것은 나귀의 울음소리이니라(꾸란, 31:12-19)

오 너희 믿는 자들이여! 취하게 하는 것과 도박...은 가증한 것이요 사탄의 소행이라 이런 (가증한)짓을 피해야 너희가 형통하리라. 사탄의 술책은 오직

취하게 하는 것과 도박으로서 너희 사이에 적의와 미움을 부채질하고, 너희를 휘방하여 하나님을 생각할 틈을 주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거늘 너희가 삼가지 않으려느냐?(꾸란, 5:90-91)

그러나 하나님께서 네게 주신 것으로 내세의 본향(本鄉)을 구하라. 현세에서 네 본분을 잊지 말되, 하나님께서 네게 선하셨듯이 너는 선을 행하며, 땅에서 해악을 짓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해악을 짓는 자를 사랑하지 않으심이라.(꾸란, 28:77)

여기 발췌한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꾸란의 다른 구절과 무함만의 관습은 많이 있다. 여기에 발췌한 것만으로도 이슬람의 기본적 윤리를 나타내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이슬람의 윤리는 경우 여하를 막론하고 그 성격이 독특하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윤리원칙을 세우신 뜻은 어찌다 보고 감복하라는 것이 아니요, 그것을 시행, 발효시키려는 것이다. 한사람 한사람을 도와서 가장 건전하게 성격을 개선하고 인격을 도야하며, 모든 선의 원천이신 하나님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그분과의 결속을 다지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사람을 위협하여 소극적이 되게 하거나 무관심하게 만들려고 이슬람의 윤리를 세워 놓은 게 결코 아니다. 예를 하나 들면 요점이 설명될 것이다. 만약 무슬림이 해를 입거나 억압을 당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는 자유선택에 의해 여기에 저항하여 상응하는 보복을 가하거나 용서를 베풀어 자기 행위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맡길 수도 있다. 그는 자기에게 어느 쪽으로도 조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알며, 용서해 주는 쪽이 더 좋다는 것도 역시 안다. 그러므로 그가 용서를 베풀 경우, 그 자신의 자유선택에 의해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그가 보복을 가하는 경우에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거나 부당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처인 것이니, 이런 태도는 그 자체가 신성한 의무이며 동시에 관계당국이 질서와 정의를 확립하는 데도 일조가 되는 것이다. 만약 이슬람이 어느 교의가 내세우는 이론처럼, 절대적인 용서를 요구한다면 수양이 안 된 많은 사람들은 죄를 범하고 모든 한계를 벗어나는 쪽으로 기울기 십상이다. 마찬가지로 어느 교의가 무자비하게 가르치는 것처럼 이슬람이 오로지 보복만을 요구한다면 자비와 인내 그리고 영적 개선과 윤리적 성숙의 여지가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인간의 많은 훌륭한 성품이 자취를 감출 것이고 많은 윤리적 잠재능력이 결코 빛을 못 보게 될지도 모른다.

여하한 일이 있어도 용서해야 한다고 가르침 받은 사람은 그런 가르침을 실천하지도 않으려니와 아마 실천할 수도 없으리라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왜냐하면 그런 가르침은 결국 인류를 위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윤리 그

자체를 위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가차없이 보복을 가하라고 가르침 받은 사람은 인간의 덕이라는 것을 거의 혹은 전혀 존중하지 않으며 보편적 규정으로서의 윤리에 대한 관심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못하다. 그러나 인간성의 신성한 육성자인 이슬람은 인간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제시하였다. 악인이지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찾고, 용서를 베풀면 더 나아지거나 이롭게 될 경우에는 용서를 권하게 되며 또 그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나 용서의 동기를 잘못 생각하고 있거나 악의 길을 걷기 쉬운 자들에게는 원한에 따라 상응하는 보복을 가하게 된다. 따라서 어느 경우이나 무슬림은 건전하고 유익한 태도를 견지하게 되는 것이다. 용서를 베푸는 경우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월한 입장에 서서 비행을 저지른 자의 선도에 기여하게 된다. 그리고 보복을 가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권리를 보호하고 질서와 정의를 확립하며 악을 저지하는데 이바지하게 된다.

그렇다면 어느 쪽이 건전한 윤리인가? 물 불 가리지 않고 무자비하게 복수하는 자의 태도인가? 아니면, 자비와 용서의 여지를 두고 예외적 경우를 허용하는 무슬림의 태도인가? 그리고 누가 윤리적으로 건전한가? 보복이 허용되지 않음을 알고서 용서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보복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용서하는 무슬림인가? 어느 쪽이 진정한 용서인가? 외적인 강제와 금지 때문에 다른 도리가 없어서 하는 용서인가? 아니면 선택과 행동의 자유에서 비롯하는 용서인가? 이슬람의 윤리원칙이 건전하고 독자적이며 융통성이 있음은 당연한 귀결이다. 그것은 모든 선과 윤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교훈인 것이다.

세계의 개념

머리말에서 간략하나마 서반구에서의 무슬림의 위치와 이슬람의 미래상을 논했는데 이번에는 현대 세계에서의 인간의 위치와 인간의 전반적 상황 그리고 이슬람의 세계의 개념 또는 세계관을 논하기로 한다. 이미 논의된 개념을 재확인하는 한편, 몇 가지 새로운 생각을 덧붙이고 다양한 차원에 걸친 주제를 한데 묶어 요약하게 될 것이다.

현재 인간이 처한 상황은 아무리 좋게 보아도 절박한 감을 금할 수 없다. 선의와 신앙심을 가진 사람 모두의 관심과 적극적 반응을 요청하는 상황인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절망이나 체념에 빠지게 되는 것은 아니며 또 그래서 안 된다. 희망의 정신이 언제나 그래 왔듯이 이슬람의 긴요한 속성이다.(예, 꾸란 12:87, 65:3 참조)

지금 우리가 당면한 제문제와 위기는 오로지 현대만이 안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문제와 위기는 난감하고 복잡하며 고통스러운 것임은 사실이다. 아마 이전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 한층 더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시대와 지난 세기 사이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종류의 차이가 아니라 정도의 차이인 것이다.

현대가 처한 곤경이 점점 복잡성을 더해 가는 것은 주로 우리의 기대와 능력의 수준이 비슷하게, 비례하여 높아지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수세기에 걸쳐 지구상의 수많은 지역에서 발생한 가장 난감한 위기는 주로 생소하고 이질적이고 외래적(外來的)인 것에 대한 일종이 완고하고 배타적이고 편협한 태도에서 기인하였다. 이러한 정향(定向)은 인종주의, 엘리트 의식, 완고한 신앙, 편견 그리고 이에 못지 않게 불쾌한 일군(一群)의 태도를 조장하였다.

그 누구도 감히 인류가 유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한다. 인간이 현재 처해 있는 이런 위기는 외부적인 박을 향한 물질적 탐구와 내면적인 안을 향한 윤리적 탐색 사이의 심각한 불균형에서 야기되는 현상으로 보인다. 균형의 유지를 요구하고, “중도”를 주장하고, 중용을 위한 개혁운동을 하는 것보다 쉬운 일은 없다. 그러나 이것만큼 성취하기 어려운 일도 없었다. 과거에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는 말이 왜곡되어 인간의 물질적 복지를 무시해도 좋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때도 있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을 오해한 나머지, 만사를 맡겨 버리는 운명론이나 절대적인 부정을 뜻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영성(혹은 탈속(脫俗))과 체념을 지나치게 내세우면 필경 이에 대한 반동으로 물질주의와 합리주의와 “자유의지”등을 강조하게 된다. 영성(혹은 탈속)을 어느 한계를 넘어 강조하게 되면 그것이 미신과 미혹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강조가 지나치면 물질주의가 방종으로 자유의지가 방탕으로 화하고 합리주의가 공리공담으로 끝날 우려가 있다. 지난 수세기의 지성사(知性史)가 이런 경향을 단적으로 증명한다.

지난 수십 년간 정신의 저울은 비틀거렸다. 60년대와 그리고 70년대인 지금, 추종을 불허하는 미증유의 외계 탐사가 뉴스를 장식하는 사건이 되었다. 안으로 파고드는 존재의 내면 세계에 대한 전례 없는 탐구도 그것이 비록 광적이거나 신경질적인 혹은 일시적 유행의 양상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대대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와 같이 고조되고 있는, 전대 미문의 균형을 잃은 2가지 유형의 탐구열은 유례없는 불안을 자아내고 있다. 그 이유를 필시 이 두 가지 유형이 수렴하기는 고사하고 서로 무관계한 것처럼 보이는 사실에 있을 것이다. 뚜렷한 상호관계나 상호보완 혹은 교접(交接)이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불안정하고 불균형한 이 두 가지 유형의 존재는 대다수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불안과 혼란에 빠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며, 이로 인해 사회문제는 심화되고 현대인의 운명에는 찬물이 끼어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과학적 외계 탐사와 윤리적 내면 탐색이 다소나마 화합하게 된다면 이런 불안한 경향을 역전시킬 수도 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 지당한 말이다. 그러나 사람은 또한 예배만으로도 살 수 없다. 인간은 정치적 물질주의적 동물인 동시에 성(聖)의 탐구자이기도 한 것이다. 앞서도 말했듯이 현대세계는 허다한 문제로 좌절에 직면해 있다. 한편,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처방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 역시 못지 않은 좌절의 요인이다. “지금 세상에 필요한 것은 사랑...이다”식의 대중가요를 읊조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간은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사람들도 있다. 마르크스주의, 인도주의, 악마주의 혹은 과학주의를 궁극의 해결책으로서 내세우는 사람들도 있다. 장차 구세주가 도래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더욱 많다. 그러나 이렇게 장황하게 늘어 났지만 무관심한 사람들, 자포자기한 사람들, 냉담한 사람들이 아직 남아 있다. 이런 사람들이 실제에 있어서는 낙관론자들이 결성한 클럽들보다 수적으로 우세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오늘날 가장 시급하게 요청되는 것은 “이해”의 절박한 필요성일 것이다. 인간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자기자신과 자신의 본성과 잠재력과 한계 그리고 세계 속의 자기의 위치와 그 요소와의 관계를 이해하는 일이다.

이제 문제는 이슬람이 어떻게 인간에게 도움을 베풀어 그 자신을 이해시키고, 정신에서 장애를 제거하며, 흐릿한 시야를 맑게 해 주느냐 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답하려면 이제까지 논한 이슬람의 기본개념을 머리에 새기고, 그 가치체계를 구성하는 일부요소를 정치화(靖緻化)시킬 필요가 있다. 바라건대 이걸 분석을 통하여 이러한 제개념과 가치체계의 제요소가 어떻게 진통하는 현대에 사는 현대인들에게 관련될 수 있으며, 어떻게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하여 현대인이 자기 길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느냐 하는 점이 밝혀질 것이다.

중용의 원칙은 이슬람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그것은 이슬람이 인간성과 생의 의미와 하나님의 개념을 파악하는 방식 속에 가장 잘 드러나 있다. 이슬람은 편파적인 “인본주의”철학에 동조하지 않는다. 이러한 철학은 인간을 거의 신격화시키고, 그 이상의 것은 아무 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이슬람은 또한 인간은 날 때부터 악하고 죄성(罪性)이 깃들여 있다고 하는, 인본주의 철학에 못지 않게 편파적인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인생은 추잡하고 동물적이며 짧고 비참하다는 관념을 배격한다.

그러나 이슬람은 생은 그 자체가 목적인 것으로서 즐겁고, 태평하다는 관념 역시 배격한다. 이슬람은 생에 긍정적인 의미와 목적을 부여한다. 이슬람이 지상에서의 생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경우는 내세와 관련시켜서 일뿐이다. 오로지 목전의 현실과 순간적인 향락주의와 찰나적 쾌락에만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현실을 도피하여 철저하게 내세의 낙원만을 추구하지도 않는다. 이슬람은 지상에서의 인간조건에 관심을 갖는 동시에 내세에서의 인간의 운명을 중시한다. 물론 이런 관심은 비례적인 것으로서 이슬람은 존재의 각 단계

를 평가하되 그것이 인간의 전체 복지에 미치는 영향의 상대적 크기에 의존한다.(꾸란 7:33, 17:18-21, 28:77, 57:20-21) 여타의 많은 성귀(聖句)를 만들 꾸란의 성귀(꾸란, 2:27-39)가 하나 있다. 이 성귀는 이슬람의 기본원칙의 일부를 포함하며, 이슬람의 세계관의 기초를 제시한다. 이런 원칙들 가운데 특히 두드러진 것을 들여보면 다음과 같다.

1. 세계는 하나의 생성체로서 설계자의 의지에 의해 창조되어, 의미 심장한 목적을 위해 유지된다. 역사는 그분의 의지대로 전개되며, 정해진 법칙을 따라 흘러간다. 역사의 전개는 맹목적인 우연에 지배되지 않으며, 우발적으로 무질서하게 일어나는 사건들이 모여 역사의 흐름을 이루는 것도 아니다.

2. 인간 역시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어 지상에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부왕(副王)으로 임명된다. 인간이 부왕으로 선택된 것은 땅을 경작하고, 지식과 덕과 목적과 의미로서 생을 풍요케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천지의 만물이 인간을 위해 창조되어 인간에게 도움을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지상에서의 생은 인간을 가두어 놓은 감옥이 아니며, 인간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전생의 죄를 임의로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다른 세상에서 이 세상으로 쫓겨난 것도 아니다. 인간의 존재는 단순한 우연이나 우발적 사건이 아니다.

3. 지식은 인간에게만 있는 능력이며 인격과 존재의 필수요소다. 인간에게 창조주의 부왕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하고, 하나님의 천사들에게조차도 존경과 충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지식이다.

4. 지상에서의 생의 초두부터 죄와 반역이 시작된 것은 아니다. 인간이 “타락”하여 에덴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뒤를 이어 일어난 일련의 일들-아담과 이브의 양심의 가책, 회개, 하나님의 용서와 동정 그리고 인간과 사탄 사이의 적의-이 모든 것은 창조주에게 의외의 일이 아니었다.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던 것이다. 우발적이기에는 너무나 의미심장하였다. 오히려 첫 인간을 훈계하고, 타락과 회복, 도덕적 패배와 승리 그리고 창조주로부터의 이탈과 그분과의 화해를 실지 체험시키려는 계획으로 보인다. 이렇게 하면, 인간은 생에 대한 자세를 가다듬고, 생의 불확실성과 고통스런 순간들을 헤쳐 나갈 수 있는 해안을 가지게 될 것이다.

5. 이브는 첫 인간부부의 연약한 쪽이 아니었다. 이브는 아담을 유혹하여 금지된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지 않았으며, 그녀만이 에덴동산에서의 추방에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아담과 이브는 똑같이 유혹을 받았으며 똑같이 유책(有責)하였다. 둘 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회개하였으며, 하나님의 용서와 동정을 받았다. 이는 의미 심장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이브는 여성으로서의 그녀에게 태고적부터 따라다녀 온 저주로에서 벗어나게 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여자가 도덕적으로 열등하다는 것을 단호하게

지적하는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도 꾸란은 남자와 여자는 똑같이 미덕과 약점을 지니며, 똑같이 감수성과 장점을 갖는 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²⁾

6. 인간은 자유의지가 부여된 자유 행위자다. 이것이 인간성의 본질인 동시에 인간이 창조주에게 책임을 지는 근거다. 인간에게 상대적 자유가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그 자신의 목적을 깨는 것이 되고, 인간은 전혀 어떤 책임도 질 수 없게 될 것이다. 이것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임은 물론이다.

7. 생명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된다. 생명은 영원하지도, 그 자체가 목적인 것도 아니다. 생명은 하나의 과도기로서, 이 기간이 끝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8. 인간은 책임을 져야 하는 행위자다. 그러나 죄에 대한 책임은 실제 죄를 지은 사람만이 진다. 죄는 유전되지 않으며 전가가 불가능하고, 연대성을 갖지 않는다. 각 개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진다. 인간은 타락하기 쉬운 반면, 구제와 선도의 가망성도 아울러 갖는다. 이것은 이슬람이 집단보다 개인을 선호한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개인주의는 사회적 맥락에서 유리시켜 생각하면 무의미해진다. 개인마다 상이한, 일련의 역할을 갖는다는 것이 개인주의 본래의 의미다. 각 개인은 자기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되, 자신의 도덕적 성실성을 지키고 그 주체성을 보존하며, 하나님의 권리를 지키고 자기의 사회적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이다.

9. 인간은 존엄하고 명예로운 존재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에게 창조주의 영이 불어넣어진다는 사실에서 연원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존엄성이 특정 종족이나 피부색 혹은 신분계층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것은 지상에서 가장 명예로운 존재인 인간 모두의 천부적 권리이다.

10. 끝으로 이 성귀는 하나님의 유일성과 인류의 통일성이 깊이 뿌리를 내려 요지부동임을 지적한다. 더 나아가 인간 최고의 덕은 경건과 지식이며,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이런 지식을 습득, 활용하면 그 사람에게는 행복한 운명이 보장되고 그 생애가 평탄해지리라는 것을 지적한다.

제 3장 신앙의 적용

본 장에서는 이슬람이 규정한 신앙의 실천사항을 다룬다. 이 가운데는 예배(쌀라), 단식(싸움), 자선-기부 혹은 희사(자카)와 순례(하즈)가 있다. 하나님께서 이들 실천 사항을 명하신 방식이 이들 실천사항으로 하여금 영적인 제반목적에 합치하고 인간의 필요를 만족시켜 주게 한다. 그 중에는 매일 실행해야 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한 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일 년에 한 번 실행해야 되는 것이 있고 적어도 평생에 한 번은 실행해야 되는 것도 있다. 결국 이러한 실천 사항은 한 주의 모든 요일, 한 달의 모든 주, 일 년의 모든 달, 그리고 평생의 모든 해에 걸쳐 있는 셈이며, 특히 이러한 실천을 통하여 전 생애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게 되는 것이다.

이미 지적한 대로 행동과 실천이 없는 신앙은 이슬람에 관한 한 막다른 길목이다. 신앙이란 워낙 아주 민감하며, 극히 효과적일 수 있는 것이다. 신앙은 실천하지 않거나 그냥 내버려두면 생기와 동기유발 능력을 금방 잃어버리고 만다. 신앙에 생기를 주고 신앙이 그 목적에 합치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실천하는 것이다. 실천의 신앙에 자양분을 공급하고, 존속과 효과를 부여한다. 역으로 신앙은 인간을 고무하여 부단한 헌신과 꾸준한 실천으로 유도한다. 이것은 신앙과 실천의 상호관계가 매우 깊고 둘의 상호의존이 쉽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뚜렷하게 감화를 받을 만한 곳이 없고 따라서 성취하거나 열망할 만한 가치 있는 목적도 가지지 못하게 된다. 이런 사람의 생은 무의미하며 그날그날 살아가고는 있지만, 이렇게 산다면 아예 사는 것도 아니다. 한편 신앙을 고백해 놓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며 실제로는 신앙을 갖지 않은 것이니, 이런 사람은 스스로 어찌할 수 없이 빛나간 사람이나 진배없다.

이슬람에서 신앙과 실천 사이의 상호관계는 종교제도 전체를 생생하게 반영하며 그 가르침의 심오한 철학을 드러낸다. 이슬람은 여하한 경우에도 영혼과 육체, 정신과 물질, 종교와 실생활의 분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 인간을 받아들이며 영육으로 이루어진 그 본성을 인정한다. 이슬람은 인간의 영성을 무시하지 않는다. 영성을 무시한다면,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이슬람은 또한 인간의 육체적 요구를 과소 평가하지 않는다. 육체적 요구가 없다면 인간은 천사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인간은 천사가 아니며 또 천사가 될 수도 없다. 이슬람에 의하면 인간은 피조물의 연속선상에서 중앙에 자리한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를 초월하지도 않는다. 하나님만이 오직 영적인 존재를 초월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오로지 물리적, 육체적 존재인 것만도 아니다. 이런 부류의 존재는 동물이나

기타 이성 없는 피조물 외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은 이처럼 상보적(相補的)본성을 갖는 존재이기에, 상응하는 요구와 상응하는 필요를 지닌다.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그리고 윤리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이 그것이다. 인간에게 도움을 주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할 수 있는 종교는 이러한 모든 요구와 필요를 고려에 넣는 종교이며 인간의 영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육체적 욕망을 훈련하는 종교인 것이다. 이런 종교가 바로 이슬람이다. 인간성의 어느 한 면을 억누르거나 균형을 잃거나 한쪽으로만 치우친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심어준 본성을 무책임하게 무시함은 물론이려니와 그것을 부인하여 확대하는 처사가 될 것이다.

이슬람은 있는 그대로의 인간성을 전적으로 긍정하고 인간의 영적, 물질적 복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종교를 사사로운 문제로 보거나 실생활 전반과 유리된 실체로 보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종교란 공사를 불문하고 전체적인 인생행로에 눈에 띄는 흔적을 내지 못하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의 법에 따라 생활을 조직적으로 영위해 나가지 않는다면 생은 무의미하다. 이슬람이 사회 각 방면-개인적, 사회적 행위, 노동과 산업, 경제와 정치, 국가적, 국제적 제관계 등-으로 그 조직적 감각을 확장해 나가는 것은 이런 연유에서나 또 같은 연유에서 이슬람은 세속주의나 성속(聖俗)의 분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참종교와 의미 있는 생활의 상호작용은 지극히 중요하다. 이것이 이슬람이 사회 각 방면으로 침투하여, 하나님께 가납될 수 있고, 인간에게 자비로운 건전한 방식으로 인간의 제반사를 지도하는 까닭이다.

참종교와 일상생활 사이의 이러한 필연적인 부합의 결과로서, 이슬람은 옛새는 나 혹은 세상을 위해서 그리고 하루는 주님을 위해서 라는 식의 교리를 중요시하지 않는다. 이런 교리는 결국에 가서는 공허해지고 종교의 활기를 창백하고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린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교리는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심히 부당하게 대하는 것이며, 인간 자신의 영혼에 해로운 상처를 입히는 것이다. 그것은 영적, 윤리적 욕구를 심각하게 무시하는 것인바, 이러한 영적, 윤리적 요구는 물질적 욕망보다 더한 것은 아니지만, 그에 필적할 만큼 중요하다. 그것은 또한 인간성을 위협하게 분열시키는 것이며, 이러한 불균형은 곧 타락의 징후이다. 마찬가지로 옛새는 수도생활이나 명사에만 몰두하고 하루는 자신을 위해 보낸다고 해서 더 나아지는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균형이 깨어지기는 매일반이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고 논리적인 행로는 이슬람이 제시하는 행로가 된다. 인간은 상보적 본성을 지닌 존재이고 피조계(被造界)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영혼이나 육체를 등한시하거나 어느 한 쪽을 다른 쪽보다 우위에 둔다면 심각한 곤경에 처하게 될 것이다.

다. 영혼과 육체 모두에 자양분을 주고, 양자를 균형 있고 건전하게 육성시키는 것이 인간의 정의감과 성실감 그리고 의지력과 진실성을 가늠하는 가장 어려운 시험이다. 그리고 인간을 도와 이 시험에 통과시키고자, 이슬람이 신앙의 규칙적인 실천사항을 가지고 인간을 구원하러 온 것이다.

예 배(쌀라)

예배의 목적

예배는 이슬람을 버티는 하나의 지주이며, 종교의 기초로 간주된다. 합당한 이유도 없이 예배를 보지 않는 무슬림은 중대하고 가중한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런 범죄가 중대한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이것만해도 나쁜데-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위대한 존재를 숭배하고 숭고한 목적을 추구하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다. 가장 위대한 존재이며 동시에 가장 숭고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다. 인간의 성격을 건전하게 키워 주고 성숙과정에서 그 열망을 실현시키는 최선의 방법이 이슬람의 예배이다. 예배를 게을리 하는 것은, 인간성의 선한 자질을 억누르고 인간성이 누려야 할 권리 곧 숭배하고 사랑할 수 있는 권리와 열망하고 고매해질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선에 뛰어나고 고상한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권리를 부당하게 거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억누르고 거부하는 것은 극히 심각하고 파괴적인 범죄를 구성한다. 예배가 인간의 생에서 가지는 의의와 생명력을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서는 인간의 예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항상 염두해 두어야 한다.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은 아무 것도 없기 때문이다. 그분은 다만 우리의 번영과 복지에 관심이 있을 뿐이다. 그분이 예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우리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하시는 것은 우리를 도우려는 그분의 뜻인 것이다.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하든 그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며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든 그것은 우리 자신의 영혼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도 역시 인간이 인력(引力)의 중심이다. 그가 보이는 일반적인 흥미가 주된 관심이다.

인간이 이슬람의 예배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무한하여 예배의 축복은 상상을 초월한다. 이는 하나의 이론이나 상투적인 가정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흥미진진한 사실이며 영적인 체험이다. 다음에 이슬람 예배의 효과를 설명한다:-

1. 하나님의 존재와 선에 대한 신념을 강화시키며 이런 신념이 인간의 마음 깊숙한 곳으로 스며들게 한다.

2. 이러한 신념에 생기를 주는 한편, 실생활에서 그것이 건설적으로 작용하게 한다.
3. 인간에게 도움을 베풀어 위대성과 숭고한 윤리 우월성과 원숙한 덕에 대한 천부적, 본능적 열망을 실현하게 한다.
4. 마음을 정화하고, 정신을 계발(啓發)하여 양심을 길러 주고 영혼을 위로한다.
5. 인간에게 선하고 예의바른 기질을 함양시켜, 악하고 무례한 성향을 억제시킨다.

이슬람의 예배를 분석하여 그 독자성을 연구해 보면, 이슬람의 예배가 단순히 신체 동작이나 성서의 공허한 낭송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질 것이다. 그것은 지적인 명상과 영적 헌신 그리고 윤리적 향상과 신체 운동 모두를 총괄하는, 독자적이고 유례없는 신앙 형식이다. 그것은 전적으로 이슬람적인 체험인 바, 예배하는 동안 신체의 모든 근육이 영혼과 정신에 합일하여 하나님을 숭배하고 그 분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다. 이슬람 예배의 완전한 의의를 말로써 나타내기 어렵지만, 다음과 같이 말할 수는 있다. 이슬람 예배는...

1. (심신)단련과 의지력의 수업이다.
2. 하나님과 모든 가치 있는 목적에 대한 헌신의 실습이다.
3. 하나님과 부단히 계시되는 그분의 선을 빈틈없이 상기시킨다.
4. 영적 수양과 윤리적 건전성의 씨앗이다.
5. 생의 가장 곧은길로 이끄는 안내자이다.
6. 무례와 악, 그릇된 탈선과 이탈에 대한 방어수단이다.
7. 진정한 평등과 확고한 통일성과 형제애의 시현(示顯)이다.
8.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인식의 표시이다.
9. 마음의 평온과 안정의 길이다.
10. 인내와 용기, 희망과 자신의 풍부한 원천이다.

이것이 이슬람의 예배이며, 그것이 예배가 인간에게 베풀 수 있는 혜택이다. 예배를 실제 체험해 보고 그것이 주는 영적인 즐거움에 젖어 보면 이 말이 실감나게 된다. 그런 연후에야 예배의 진정한 의의를 알게 될 것이다.

예배의 제조건

다음의 조건을 갖춘 무슬림은 남녀를 불문하고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1. 정신이 온전하고 책임을 질 수 있을 것.
2. 비교적 성숙하고 사춘기의 연령-보통 14세-에 달해 있을 것(자녀들의 경우 7세가 되면 예배를 시작하라고 권해야 하며, 10세가 되면 강권해야 한다.)
3. 중병에 걸려 있지 않아야 하며, 여자의 경우에는 월경 중이 아니고, 해산과 수유로 행동이 부자유스럽지 않을 것, 양자의 최대기간은 각각 10일과 40일이다. 이런 경우에 여자는 예배의 의무가 완전히 면제된다.

다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예배는 무효이다.

1. 세정(우두)을 할 것. 이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한다.
2. 온몸과 몸에 입은 옷을 청결하게 하고, 예배 장소에 있는 먼지와 불순물을 깨끗이 치울 것.
3. 의복을 격식대로 입어 음부를 가리는데 그 뜻이 있는 윤리적인 규정을 지킬 것. 남자는 적어도 배꼽에서 무릎까지는 가려야 한다. 여자는 얼굴과 양손, 양발을 제외한 전신을 가려야 한다. 남녀를 불문하고 예배 중에는 속이 들여다보이는 의복을 피해야 한다.
4. 가능하면 마음과 말로써 예배 의사(니얏)를 밝힐 것.
5. 끼블라 의 방향, 즉 맥카의 카바 방향을 똑바로 향할 것. 방향을 제대로 잡는 방법은 많다. 방향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자신의 최선의 판단에 따른다.

예배의 종류

예배의 종류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1. 의무예배(파르드) : 하루 다섯 번의 예배와 금요일의 정오 집회, 그리고 장례예배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예배를 보지 않는 것은 합당한 이유가 없다면 가벌적 중죄다.
2. 추가 의무예배(와집과 순나) : 의무예배에 수반되는 예배와 두 개의 큰 축제(이-드)의 집회가 이에 해당한다. 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유해한 태만이며 지탄받을 행위다.
3. 임의예배 : 밤낮을 가리지 않고 어느 때이든 자진해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이에 해당한다. 특히 다음의 두 시기를 택해서 예배를 보는 게 좋다 : 동트기 직전까지의 늦은 밤과 늦은 오전.

예배 시간

모든 무슬림은 남녀를 불문하고 합법적 면제 사유가 없고 모아서 하거나 일

시적으로 자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적어도 하루에 다섯 번의 예배를 때 맞춰 드려야 한다. 다섯 번의 예배는 다음과 같다.

1. 이른 아침 예배(쌀라똘-파즈르) : 새벽 이후 해뜨기 전-전체 약 두 시간의 길이-사이에 드리면 된다.

2. 정오 예배(쌀라똘-주흐르)¹⁾) 주간의 시간 절약대의 무슬림들은 금요일의 회중 예배(주마)시간을 제대로 잡기가 어려워 혼선을 빚고 있는 모양이다. 예배 시간을 오후 1:15와 2:30분 사이에 잡아서 일년 동안 고정 시켜 두면 문제는 쉽게 해결된다. 이렇게 되면 겨울부터 여름까지 시간을 바꿀 필요가 없어진다. 저자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하기를 강권한다. 형제들이 위 예배시간을 주간 계획에 넣어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일요일 정오 집회에 대해서는 이에 마찬가지로 조정할 수 있다. 남중한 태양이 기울기 시작하여 서녘 하늘에 질 때까지의 중간을 잡아서 그 사이에 드리면 된다. 예를 들어, 일몰시간이 오후 7시인 경우에는 예배 시간은 정오 12시 조금 후에 시작해서 오후 3시 30분 조금 후까지 계속된다. 그 직후에 다음 예배 시간이 시작된다. 하지만 정확한 달력이 나와 있어서 이것을 보면 각 예배 시간을 알 수 있다. 이런 달력을 입수할 수 없다면 자신의 최선의 판단에 의존해야 한다.

3. 이른 오후 예배(쌀라똘-아스르) : 정오 예배시간이 끝난 직후에 시작해서 해질녘까지 계속 된다.

4. 해질녘 예배(쌀라똘-마그립) : 이 예배시간은 일몰 직후에 시작해서 서쪽 지평선에서 저녁놀이 사라질 때까지 1시간 20분 내지 30분 동안 계속되는 게 보통이다.

5. 밤 예배(쌀라똘-이샤) : 서쪽 지평선에 저녁놀이 사라진 후(일몰 후 약 1시간 30분 뒤)에서 새벽 조금 전까지 계속된다.

이슬람에서 예배시간을 정한 방식은 주목할 만하다. 이 방식에 의하면 영적 안식이 신체의 영양 섭취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한편 마음의 평온과 신체의 휴식을 겸하고 있는 점이 두드러져 보인다. 이른 아침 예배는 통상 아침 식사 시간대에 올리도록 되어 있고, 정오 예배는 점심 시간대와 일치하며, 이른 오후 예배는 대략 차나 커피를 마시는 휴식 시간에 해당한다. 해질녘 예배는 저녁 식사시간에 올려지고 밤 예배는 밤참을 먹을 때와 일치한다. 또한가리 주목할만한 것은 무슬림이 이들 예배를 준행함으로써 하루가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하루 전체에 영적 인(印)을 찍게 된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무슬림은 종교와 생활을 결합시키고 하루 종일 마음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며 영적인 기분에 젖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자신의 도덕적 위신을 튼튼한 기초 위에 구축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함으로써 무슬림은 자기의 생활 곳곳으로 영적 활기를 불어넣은 것이며, 종교는 활동 분야 전반에서

그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상점과 회사에서 가정과 농장에서 공장과 작업장에서, 종교가 그 효력을 나타내게 된다. 업계 전반으로 종교가 그 빛을 발하는 것이다. 기실 이런 시간표가 돋보이는 이유는 즉,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며 이슬람의 소산이기 때문이다.

가급적이면 예배시간이 시작되자마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다. 예기치 않은 일이 생겨 예배를 지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들 예배는 신성한 경기다. 이 경기를 치르는 자들이 받는 보상은 무한하며, 그 기쁨 또한 상상을 초월한다. 이들이 얻는 행복, 느끼는 즐거움, 받는 명예는 형언할 수 없는 정도다. 반면에 이 경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처벌할 수 있는 죄에 해당한다. 엄한 형벌과 영적인 일탈과 정신적 고민과 사회적 소외를 초래한다.

정오(주흐르)와 오후(아스르)예배는 여행 중이거나 병중인 경우에는, 한꺼번에 드릴 수도 있다. 해질녘(마그립) 그리고 밤(이샤)예배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는 것이 허용된다.) 첫 번째 유형의 예배 결합은 조기형이다. 실례를 보면 이른 오후 예배가 정오 예배를 올린 직후에 제시시간 전에 올려지게 된다. 두 번째 유형의 예배 결합은 후기형이다. 실례를 보면 해질녘 예배가 제시시간이 지난 후에 밤 예배 직전에 올려지게 된다. 이렇게 예배를 한꺼번에 봄으로써 합법적인 사유(예, 여행, 업무변경 등) 때문에 예배를 제 시간에 행하지 못하는 무슬림의 걱정을 덜어 줄 수 있게 된다.

일부세정(우두)

예배를 올리기 전에 먼저 용모를 단정히 하고, 청결한 상태로 있어야 한다. 먼지나 스모그에 전체가 노출되는 신체 부위를 씻어내야 한다. 이렇게 씻는 것을 세정(우두)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이 행하는 것이 좋다.

1. 숭배와 청결을 위해서 세정한다는 의사를 밝힌다.
2. 손을 손목까지 세 번 씻어낸다.
3. 입을 물로 세 번 헹궈 낸다. 될 수 있으면 칫솔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4. 콧구멍 속으로 물을 들이켜 세 번 씻어낸다.
5. 얼굴 전체를 양손으로 세 번 씻는다. 가급적이면 이마 위에서 턱 아래까지 그리고 양쪽 귀 있는 데까지 씻어낸다.
6. 오른팔을 팔꿈치 끝까지 세 번 씻고 다음에 왼쪽 팔도 같은 식으로 씻는다.
7. 머리의 전부 혹은 일부를 손을 적셔서 한 번 닦아 낸다.
8. 귀 안쪽은 집게손가락으로, 귀 바깥쪽은 엄지손가락으로 닦아낸다. 젖은 손으로 해야 한다.
9. 목둘레를 적신 손으로 닦아 낸다.
10. 양발을 발목까지 세 번 씻는다. 오른발부터 시작한다.

여기까지 하면 세정이 끝나게 되는데, 이처럼 세정을 한 사람은 예배를 할 준비가 된 것이다. 세정이 유효하면 가급적 오랫동안 그 상태를 유지하여, 다시 세정을 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회수만큼 예배를 올릴 수 있다. 그러나 가능하면 다시 세정하는 것이 좋다. 다시 할 경우에도 위의 순서대로 하는 게 역시 좋다. 그러나 이 순서를 지키지 못한 사람에게도 세정한 것으로 인정된다. 위에 말한 대로 세정을 하면 다른 사유에 의해 무효화되지 않는 한 예배를 보는 데는 부족함이 없게 된다.

세정의 무효

세정은 다음 각 경우에 무효가 된다.

1. 생리적 배설 즉 소변, 대변, 방귀 등
2. 신체 부위에서 피나 고름 혹은 유사물질의 유출
3. 구토
4. 수면
5. 마약이나 술 종류로 인한 정신 이상

이중에 어느 한 가지 경우라도 생긴다면 그 후에 세정을 다시 해야 예배를 볼 수 있다. 또 생리적 배설 후에는 물을 써야 한다. 송배와 청결을 위해서는 화장지만으로 충분치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세정의 완전한 대체(따이야뭍)

따이야뭍 혹은 깨끗한 흙의 사용은 세정을 대체할 수 있다. 목욕도 이로써 대체가 가능하다. 따이야뭍은 다음 각 경우에 허용된다.

1. 병중이거나 물을 쓸 수 없을 때 :
2. 충분한 양의 물에 접할 수 없을 때 :
3. 물을 쓰면 해가 되거나 질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을 때
4. 세정을 하고 나면 장례예배나 이-드 예배를 놓칠 우려가 있을 때, 이 두 예배는 대체가 안 된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따이야뭍을 하는 게 허용되는데 그 시행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양손을 깨끗한 흙이나 모래 혹은 돌 위에다 가볍게 두드린다.
2. 세정할 때와 같은 식으로 흙이나 모래 혹은 돌로써 한 번 손을 문질러 털어 내고 얼굴을 닦는다.
3. 손을 다시 두드리고, 왼쪽 손으로 오른팔을 그리고 오른쪽 손으로 왼팔을

팔꿈치까지 닦아낸다.

이 타이야뭉은 세정의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세정은 건강과 승배양자에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처럼 반복 가능한 세정을 도입함으로써 이슬람은 어느 종교 교리나 의학적 처방도 예상하지 못했던 최선의 위생요법을 아울러 가져오게 된 것이다.

세정의 편의(便宜)

이슬람은 세정에 관한 몇 가지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세정 후에 양말이나 스타킹을 신거나, 신고 있었던 경우에는 세정을 다시 할 때 이를 벗지 않아도 된다. 벗지 않는 대신 적신 손으로 그 위를 스쳐 닦는다. 그러나 24시간 마다 적어도 한 번은 벗어 내고 발을 씻어야 한다. 장화를 신은 경우에는 그 바닥이나 겉이 깨끗하면 이와 마찬가지로 방식에 의한다. 세정시에 씻어내야 할 신체 부위에 상처를 입었거나, 그 부위를 씻어내면 유해할 경우에는 위와 마찬가지로 상처를 맨 붓대를 젖은 손으로 닦아내도 된다.

전부 세정(구슬/목욕)

다음의 각 경우에는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콧구멍, 입, 머리를 포함하여 전신을 목욕에 의해 완전히 씻어내야 한다.

1. 성교 후
2. 몽정 후
3. 여자의 경우, 월경기간이 끝나자마자
4. 산후수유로 자리를 뜰 수 없는 기간(산욕기)-최장 40일로 추산-이 끝날 때, 이 전에 끝나도 전부 세정을 해야 한다.

지적해 둘 점은, 목욕과 세정을 시작할 때 청결과 승배를 위해서 한다는 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일부나 전부 세정을 하는 사람은, 세정과 동시에 말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올바른 인도를 간구 해야 한다. 이 때 하는 말의 유형이 정교한 원전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는 법을 말하다면 자기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할 수도 있다. 하나님을 찬미하여 진지하게 말하는 것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예배 알리는 소리(아잔)

이제 앞에 설명한 대로 세정을 마친 예배자는 예배를 올릴 준비가 된 것이다. 예배시간이 되면 무함만의 관습(전통)을 따라, 소리를 내어 예배를 알리

는 것(아잔)이 좋은 관습이다. 소리를 발하는 사람은 끼블라(멕카의 카바 방향)를 향하여 서서, 양손을 양쪽 귀로 올려 큰 소리로 다음과 같이 말한다.

1. 알라후 아크바르(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시도다), (4번 반복) ;
2. 아쉬하두 안 라 일라하 일랄라(나는 유일신 하나님 외에 신이 없음을 증언하노라), (2번 반복)
3. 아쉬하두 안나 무함마단 라수룰라(나는 무함만이 하나님의 사도임을 증언하노라), (2번 반복)
4. 하이야 알랏-쌀라(어서 예배를 보러 오라). (2번 반복 :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린다)
5. 하이야 알랄-팔라(어서 오라, 형통하리니). (2번 반복 : 고개를 왼쪽으로 돌린다)
6. 알라후 아크바르(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시도다). (2번 반복).
7. 라일라하 일랄-라 (유일신 참 하나님 외에 신은 없도다). (한번)

이른 아침 예배를 알릴 때는 소리내는 사람은 위(5) 직후에 한 마디를 추가한다. 이 때 하는 말은 다음과 같다.

앗-쌀라 두 카이룸 미난-나움

(예배는 잠자는 것보다 나으리라), (2번 반복)

다음에 소리를 말하는 사람은 (6) (7)로 계속한다. 아침예배에 이런 예외를 둔 것은 사람들이 잠들어 있을 때여서 예배를 상기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예배에 들어가기(이까마)

예배를 알리는 소리가 나면 예배자는 예배 준비를 하고 예배 준비가 되었음을 알려-(이것을 이까마라 함)-예배를 거행한다. 이 때 하는 말은 위 아잔의 경우와 같지만, 두 가지이 차이점이 있다.

(ㄱ) 이까마는 보다 빠르지만 낮은 목소리로 낭송하며 (ㄴ) (5) 직후에 다음과 같이 두 번 말한다.

꺼드 꺼맛디-쌀라

(예배 볼 준비가 되었다.) 다음에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6,7)로 끝까지 계속해 나가야 한다.

예배의 거행

예배자가 세정을 마치고, 아잔과 이까마가 낭송한 다음에 다음과 같이 예배를 시작한다.

1. 이른 아침 예배(쌀라똘-파즈르)

이 예배에서는 추가의무(순나)로 먼저 두 라카를 올린다. 다음에 다시 의무(파르드)로 두 라카가 따르게 된다. 추가의무 라카와 의무 라카는 같은 방식으로 올린다. 다만 예배 의사를 밝힐 때 둘 중 어느 쪽인지를 구별해야 한다. 거행 방법은 다음에 설명한다.

동작1. 공손하고 겸허한 자세로 서서 끼블라를 향하고 양손을 양쪽 귀로 올려 이렇게 말한다.

나와이뚜 쌀리 순나따 쌀라똘-파즈르 혹은 파르다 쌀라똘-파즈르(각 경우에 따른다) ; 알라후 아크바르.

뜻은 다음과 같다. 아침의 추가의무 혹은 의무(각 경우에 따른다.) 예배를 드리고저 하나이다 ;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시도다 다음에 양 팔을 내려 배꼽 바로 아래에서 오른손을 왼손 위에 포갠다.) 여기서 손의 위치는 어느 한 법학파에 따른 것이다. 학파에 따라 내세우는 손의 위치도 다르다. 그러나 이런 차이는 사소한 것이어서 예배의 유효성 여부에는 상관이 없다. 사실 이러한 차이는 방해나 제한이 아니다. 편리나 편의로 간주되고 있는 터이다.



와꾸프 자세

동작2. 다음에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한다.

수브하나칼-라훴마와 비함디까, 와 따바라까-쓰무까, 와 따알라 잣두까,
와 라일라하 거이루크 아우주 빌라히 미낫-샤이따니르-라지임 비스밀-라히-
르-라흐-마니르-라히-임

뜻은 다음과 같다 : 오 하나님, 영광을 누리소서, 찬미가 당신 것이오며
당신의 이름은 복되며 당신의 위엄은 홀로 뛰어나니, 당신 외에 신은 없나이
다. 저주받은 마귀로부터 당신께 피하고자 하나이다. 참으로 자비로우시고
참으로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부분은 권고 사항이다. 이 부
분을 꼭 해야만 예배가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다.

동작3. 다음에 나지막하거나 혹은 들릴 수 있는 목소리로 꾸란 서장(알-파티
하)을 낭송하고 이어서 성귀를 낭송한다.(서장과 짧은 장절의 예가 본장 말
미에 나와 있다.)



루꾸 자세

동작4. 다음에 알라후 아크바르 를 외면서 머리를 직각으로 구부려, 손바
닥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나지막하게 이렇게 말한다.

수브하나 랍비알-아지임

(나의 주 위대하신 이여 영광을 누리소서 3번 반복)이것을 일컬어 루크라고
한다. 그 다음에 다시 기립자세를 취하며 이렇게 말한다.

싸미 알-라후 리만 하미다 ;랍바나 라칼-함드

(하나님께서서는 당신께 감사하는 사람은 누구나 받아들이시나니 ;우리의 주여
찬미를 받으소서) 이 말을 할 때 손은 양편에 그대로 둔다.

동작5. 다음에 예배자는 알라후 아크바르 라고 말하며 양발의 발가락과

양 무릎과 양손과 이마를 바닥에 닿게 한다. 이것은 수주드 자세인데 다음과 같은 말이 따른다.

수브하나 랍비알-알라

(나의 주, 지고하신 이여 영광을 누리소서, 3번 반복)



수주드 자세

(나의 주, 지고하신 이여 영광을 누리소서, 3번 반복)

동작6. 다음에 알라후 아크바르 라고 말하며, 줄루스 곧 앉은 자세의 짧은 휴식에 들어간다 : 왼발 바깥쪽 그리고 오른발 발가락-곧추 세운다-을 바닥에 닿게 하고 양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는다.

그 다음에 처음 할 때와 같은 말을 하면서 같은 방식으로 다시 반복한다. 이로써 예배 한 라카가 끝난다.



잘싸 자세

동작7. 첫 번째 라카가 끝나면 예배자는 일어나면서 알라후 아크바르라 말하고 기립자세를 취하여 두 번째 라카를 준비한다. 그리고 첫 번째 라카에서와 마찬가지로 꾸란 서장(파티하)을 낭송하고 이어서 꾸란 한 구절을 더 낭송한다.

동장8. 첫 번째 할 때와 같은 방식으로 두 번째 경배와 두 번의 부복을 마쳤으면, 줄루스 때처럼 앉은 자세를 취하고 2부로 되어 있는 따쉬아후드(장말(章末)에 나와 있다)를 낭송한다.

동작9. 끝으로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 이렇게 말한다. 앓 쌀라무 알라이 꾸م 와 라흐마 툴-라 (평화와 하나님의 자비가 당신에게 깃들기를), 다음에 고개를 왼쪽으로 돌려 같은 인사말을 한다.

이것이 예배 두 라카를 거행하는 방식인 바 의무냐, 추가의무냐를 불문한다. 이 예배를 제대로 거행할 줄 알면 다른 예배는 모두 거의 쉬워진다. 이슬람 예배에서는 동작 하나 하나 말 한마디가 큰 의의를 수반하여 매우 심오한 의미를 상한다는 것을 밝혀 둔다.

2. 정오 예배(쌀라똘-주흐르)

이 예배는 순나 네 라카 그 다음에 파르드 네 라카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순나 두 라카로 이루어진다. 이 예배에서 파르드는 다음과 같이 거행한다.

(ㄱ) 처음 두 라카는 아침 예배와 같은 식으로 거행한다. 파티하와 꾸란 한 귀절을 나지막한 목소리로 낭송한다. 경배와 부복 자세를 취하는 방식은 같다.

(ㄴ) 두 번째 라카 이후 따쉬아후드를 낭송할 때, 예배자는 제 1부 끝에서 멈추고 다시 기립자세를 취한다.

(ㄷ) 다음에 세 번째 라카에서는 파티하만 낭송하고 꾸란 구절을 덧붙이지 않는다.

(ㄹ) 세 번째 라카가 끝나면 일어서서 네 번째 라카를 준비하고 세 번째 라카에서 처럼 파티하만 낭송한다.

(ㅁ) 다음에 오른쪽과 왼쪽을 향하여 평화의 인사를 한다.

(ㅂ) 순나 두 라카를 드리는 방식은 아침 예배와 같지만, 목소리를 나지막하게 한다.

3. 이른 오후 예배(쌀라똘-아스르)

이 예배는 순나 네 라카 그 다음에 파르드 네 라카로 이루어진다. 거행 방식은 정오 예배와 같으며 역시 목소리를 나지막하게 한다.

4. 해질녘 예배(쌀라똘-마그립)

이 예배는 파르드 세 라카 그 다음에 순나 두 라카로 이루어진다. 처음 두 라카를 올릴 때는 목소리를 나지막하게 할 수도 있고 들릴 수 있게 할 수도 있다. 세 번째 라카에서는 목소리를 나지막하게 한다. 거행 방식은 정오 예배나 이른 오후 예배와 같지만, 네 번째 라카가 빠지고, 파티하 낭송과 경배, 부복에 이어지는 마지막의 앉은 자세를 여기서는 세 번째 라카 이후에 취한다는 점이 다르다. 세 번째 라카는 평화의 인사로 끝난다. 순나 두 라카는 이른 아침 예배와 같은 방식으로 올린다.

5. 밤 예배(쌀라똘-이샤)

이 예배는 파르드 네 라카 순나 두 라카 그리고 위뜨르) 여러 법학파들 사이에 해석상 조금씩 차이가 있다. 위뜨르를 요구하지 않는 학파들도 있다. 학파에 따라서는 약간의 변화를 가하여 이른 예배에 위뜨르를 요구하기도 한다. 하지만 권위 있는 학파 중 어느 하나를 따르면 된다.(순나 보다는 높고 파르드 보다는 낮다) 세 라카로 이루어진다. 파르드 네 라카 중에서 처음 두 라카를 올릴 때는 목소리를 나지막하게 할 수도 있고 들릴 수 있게 할 수도 있다. 그 이외에는 정오 예배나 이른 오후 예배와 같은 방식으로 거행한다. 순나 두 라카를 거행하는 방식은 이른 아침 예배와 꼭 같다.

위뜨르 세 라카는 해질녘 예배와 똑같이 거행되나 두 가지 예외가 있다 :

(ㄱ) 세 번째 라카에서 파티하 다음에 꾸란 한 구절이 따른다. 그리고

(ㄴ) 경배 이후 부복 이전 예배자는 이렇게 말한다.

알라 훔마 인나 나쓰따이이누까, 와 나쓰따히디까, 와 나쓰따그피루까, 와 나뚜부 일라이까, 와 누우미누 비까, 와 나따왁 칼루 알라이까, 와 누쓰니 알라이칼-카이라쿨라후나쉬쿠르까, 와 라 나크푸루까, 와 나클라우 와 나뜨루쿠 만 야프주르크 알라훔마 이야카 나아브드, 와라카 누쌀리 와 나쓰주드, 와 일라이카 나쓰우-와 나흐피두 나르주 라흐마따까, 와 나크쉬아 아자-바까, 인나 아자-바카 빌-꾸파리 물하꾼 와 쌀릴-라훔마 알라 싸이이디나 무함만 와 알라 알리히 와 싸흐비히 와 쌀림.

이것을 꾸누트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오 하나님! 저희가 당신의 도움과 인도를 간구하오며, 당신의 보호를 구하오니이다. 당신을 믿고 당신을 의지하며 당신을 찬송하고 당신께 감사하며, 당신의 은혜를 저버리지 아니 하리이다. 정녕코 당신께 불순종하는 자와 상존

하지 아니하고 저의 곁을 떠나리이다.

오 하나님! 당신께 저희가 엎드려 비오며 당신을 향해 나아가며 당신께 속히 복종하여 당신의 자비를 저희가 바라옵고 당신의 형벌을 저희가 두려워 하옵니다. 당신의 형벌이 불신자들에게 내려짐이나이다.

오 하나님! 저희의 지도자 무함만과 그분의 백성과 그분을 진실하게 따르는 자들을 높여 주옵소서.

이 꾸누트를 기억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터득할 때까지 그와 유사하게만 낭송해도 족하다. 모든 순나(추가 의무) 예배는 개별적으로 올려야 한다. 이-드 예배나 라마단 달의 위뜨르를 제외하고는 집단적으로 올릴 수 없다.

파르드 예배를 놓친 사람은 순나 예배를 올릴 필요가 없다. 대신 놓친 예배를 벌충하여 의무예배를 올려야 한다. 또(순나 예배를 수반하는)파르드 예배가 끝난 경우에도 역시 순나 예배를 올릴 필요가 없다. 따라서 예배를 놓쳐 벌충하고자 한다면, 파르드만 올려야 한다.

예배자가 전혀 아랍어를 낭송할 줄 모르는 경우에는, 자기가 아는 다른 말을 써도 된다. 다만 그렇게 해서 아랍어와 같은 의미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아랍어의 낭송의 편의를 위해 음역을 제시해 두고 있다.

파르드 예배는 이맘이 인도하는 집회에서, 올리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 집회는 마스집에서 여는게 최적이지만 다른 장소에서 열 수도 있다.

회중(자마아) 예배

1. 예배 참석자들 중에서 뽑은 이맘이 회중을 인도한다. 이맘은 종교적 지식과 경건성에 의거하여 뽑아야 한다.
2. 회중의 이맘은 혼자 앞에 나와 서고 피인도자들은 이맘의 뒤에 직선으로 도열하여 전원 끼블라를 향한다. 두 사람 곧 이맘과 피인도자 한 명으로 회중을 이룰 수 있다.
3. 이맘은 예배 의사를 밝히고 나서 파티하와, 보충으로 꾸란 구절을 들릴 수 있게 낭송한다. 이는 이른 아침 예배와 처음 두 라카의 해질녘 예배의 경우에 해당한다. 이맘이 꾸란을 큰 소리로 낭송하면 피인도자들은 잠자코 겸허하게 경청한다. 이맘을 쫓아서 파티하나 다른 귀절을 낭송하지 않는다.
4. 이맘이 파티하를 마치면 피인도자들은 아민하고 말한다. 이맘이 경배 자세에서 기립한 후 싸미알-라후리만 하미다 (하나님은 당신께 감사하는 자들을 받아들이시느니라)라 말하면 피인도자들은 이렇게 회답한다 : 랍바나 라칼-함드 (우리의 주여 찬미를 받으소서)
5. 피인도자들은 이맘을 따라 움직여야 하며 이맘을 앞질러 행동해서는 안

된다. 만약 피인도자가 어느 한 동작에서라도 이맘 행세를 하면, 이 사람의 예배는 무효가 될 것이다.

6. 집단 예배는 이맘이 이맘의 자격으로 예배를 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무효다. 피인도자들 역시 자기가 지금 같이 올리고 있는 예배에서 이맘의 인도를 따르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한다.

7. 예배가 시작된 후에 와서 회중에 들어갈 경우, 한 라카 혹은 그 이상을 놓쳤더라도 이맘을 따라야 한다. 이맘이 마지막 평화의 인사를 하여 예배를 끝마치더라도 늦게 온 사람은 여기에 상관없이 기립자세를 취하여 처음의 놓친 라카를 벌충한다. 경배 자세에서 일어나기 전에 회중에 들어갈 경우에는 그 라카에 한하여 처음부터 참석했던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경배 이후의 자세에서 참석한 경우에는 그 라카는 놓친 것이 되고, 이맘이 예배를 끝낸 직후에 개별적으로 이를 보충해야 한다.

8. 무슬림은 집단 예배를 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기에 빠져서는 안 된다. 집단 예배는 통일된 목적과 행동, 하나님 앞에서의 복수적 경건과 겸손, 무슬림 상호의 효과적 결속 그리고 공공질서와 상호 호응의 멋진 현현(顯現)이다.

이슬람 회중은 인종 차별, 사회적 특권계급, 인간의 편견에서 야기되는, 인류가 당면한 첨예한 문제에 대한 긍정적인 해답이다. 이슬람의 회중 예배에서는 왕과 신하, 부자와 빈자, 백인과 유색인, 일등계급과 이등계급, 앞자리와 뒷자리, 특별석과 일반석이 따로 없다. 세속적 신분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예배자 전원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서 일사 분란 하게 움직인다.

6. 금요 예배(쌀라똘-주므아)

지금까지 일상 예배를 다루었다. 이제 금요일의 주 회중 집회로 넘어간다. 이 예배는 다른 예배를 올리도록 되어 있고 또 면제의 합당한 사유가 없다면 무슬림 누구나가 지켜야 할 의무다. 이 예배는 매주 금요일에 보게 되는데 특히 다음의 이유로 해서 중요하다. 금요 예배는:

1. 무슬림이 집단적인 헌신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기회다.
2. 지난주를 영적으로 결산하고 다음 주를 준비하기 위한 약속이다. 사업하는 사람의 경우나 꼭 같다.
3. 무슬림들이 새 힘을 얻고 자신들의 종교적인 유대와 사회적 결속을 윤리적 영적 토대 위에 다짐하기 위한 집회다.
4. 무슬림들이 다른 어떤 관심사보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선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금요 예배의 하이라이트

금요 예배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예배 시간이 정오 예배 시간과 같고, 정오 예배를 대체한다.
 2. 이맘이 인도하는 회중에서 드려야 한다. 한 사람이 혼자서 이 예배를 드릴 수는 없다.
 3. 이 예배는 놓치고 나면 벌충할 수 없다. 대신, 통상 이 예배에 의해 대체되는 원래의 정오 예배를 드려야 한다.
 4. 금요일에도 다른 요일과 마찬가지로 모든 정상 업무와 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 예배가 끝난 이후 세속활동을 다시 시작해도 좋다.
 5. 금요 예배는 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다면 마스크에서 거행해야 한다. 마스크가 없다면 다른 장소 예를 들어 집, 농장, 공원 등에 모여서 거행해도 된다.
 6. 예배 시간이 되면 아잔을 부른다. 다음에 순나 예배 네 라카는 개별적으로 드린다. 정오 예배와 마찬가지로 목소리를 나지막하게 한다. 이 부분이 끝나면 청중을 향하여 서서 설교(꾸뜨바)를 한다. 설교는 예배의 필수부분이다. 이맘이 설교하는 동안, 누구도 말하거나 기도해서는 안 된다. 참석자는 제각기 앉은 자세에서 설교가 끝날 때까지 조용히 경청해야 한다.
 7. 설교(꾸뜨바)는 2부로 이루어지는데 각각 하나님을 찬미하는 말과 예언자 무함만을 축복하는 기도로써 시작된다. 제 1부에서는 꾸란 구절 하나 하나를 낭송 설명하여 훈계와 충고를 베풀어야 한다. 제 1부가 끝나면 이맘은 앉은 자세에서 잠시 휴식하고 다시 일어서서 전반적 관심사를 거론할 수 있다. 특히 설교 2부에서 이맘은 모든 무슬림의 전체 복지를 간구한다.
 8. 그 후에 이까마를 하고 이맘의 인도를 따라 의무 두 라카를 올린다. 이맘은 꾸란의 파티하와 다른 구절을 들릴 수 있게 낭송한다. 이로써 예배가 끝나게 된다. 다음에 두 라카를 목소리를 나지막하게 하여 개별적으로 올린다. 순나의 처음 네 라카와 나중 두 라카는 집에서 올려도 된다. 또한 먼저 번에 놓쳐서 벌충해야 하는 의무 예배로써 이를 대신할 수도 있다.
- 주집회 혹은 이드 예배 참석자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차림새를 단정히 하고 말쑥하게 해야 한다. 전부 세정을 해야 할 의무적 이유는 없지만 목욕을 하도록 특히 권하는 바이다. 목욕을 하고 나면 기분이 한결 상쾌해지기 때문이다.

축제(이-드) 예배의 의의

이-드는 행복의 회귀를 뜻한다. 이-드 예배는 무슬림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다. 앞에 설명한 일상 예배의 장범과 주집회(주므아)의 효과와 무슬림 간의

연례 재회의 특성을 아울러 갖는 것이 바로 이-드 예배다. 이러한 이-드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것을 이들-피뜨르(破斷祭)라 부른다. 이날은 이슬람력 10월 곧 샤우왈월 초하루다. 꾸란이 계시되고, 단식을 하는 날인 라마단 달의 다음이다. 두 번째 이-드를 이들-아드하(희생제)라고 부른다. 이날은, 이슬람력 마지막 달 곧 줄-히자월 10월이다. 핫즈(멕카순례)여정이 끝난 다음이다. 핫즈는 순전한 헌신의 여정이다.

이슬람의 이-드는 모든 점에서 특이하다. 여타의 종교나 사회 정치제도에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것이다. 각 이-드는 숭고한 윤리적, 영적 특성을 갖는 외에도 다음과 같이 비길 데 없는 특성을 지닌다.

1. 각 이-드는 무슬림 각자가 하나님께 대한 봉사에서 해낸 괄목할 만한 성취를 기리는 건전한 축전(祝典)이다. 첫 번째 이-드는, 한달 전체에 걸쳐 낮 동안에 절대적으로 단식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 돌아온다. 두 번째 이-드는, 멕카 핫즈의 마지막을 장식한다. 이 핫즈의 여정은 무슬림의 세속적 관심사를 포기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원한 음성에만 귀를 기울인다는 것을 당당하게 보여 준다.

2. 각 이-드는 감사의 날이다. 무슬림들은 이날 모여 형제의 정이 오가는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이-드에 앞서 자기들의 영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이러한 감사 형식은 영적 헌신이나 언어적 표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을 훨씬 초월하여 사회적 인도주의적 정신의 당당한 모습으로 감사를 표하는 것이다. 라마단의 단식을 마친 무슬림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시로 첫 번째 이-드 일에 불쌍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자선을 베푼다. 이와 마찬가지로 집에 있는 무슬림은 물론 멕카의 핫즈 여정을 마친 무슬림도 제물을 도살하여 희생을 바치고 나서 이 제물을 불쌍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준다. 자선을 베풀고 제물을 나누어주는 것은 이-드의 중요한 특징이다. 이러한 이슬람의 감사 형식은 영적 헌신과 인도주의적 자선의 건전한 결합인 바 이러한 결합은 이슬람 이외에는 찾아볼 수 없다.

3. 각 이-드는 기념의 날이다. 무슬림들은 아무리 즐거운 시절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대한 숭배의 복수적(複數的) 회기에 즈음하여 이날을 새롭게 시작한다. 무슬림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분의 이름에 영광을 돌려 자신들이 그 분의 은총을 기억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와 더불어 고인이 된 자를 기억하여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가난한 자를 기억하여 도움의 손길을 뻗치며, 슬퍼하는 자를 기억하여 동정과 위로를 베풀고 병든 자를 기억하여 기꺼운 마음으로 문안하여 쾌차를 빌어 주며 부재자를 기억하고 충심으로부터 안부인사를 하고 진정어린 친절을 보인다. 따라서 이날의 기념의 의의는 한계를 전부 초월하여 인간생활의 광범위한 차원으로 퍼져 나간다.

4. 각 이-드는 승리의 날이다. 자기의 영적 권리와 성장을 확보하는데 성공하는 사람은 승리의 정신으로 이-드를 맞이한다. 이-드에 관련된 영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사람은 승리자가 된다. 자기의 욕망을 엄하게 다스리고 건전한 자제력을 행사하며 수련 생활의 묘미를 맛보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리고 일단 이런 자질을 획득한 사람은 최대의 승리를 쟁취할 것이다. 그리고 일단 이런 자질을 획득한 사람은 최대의 승리를 쟁취한 것이다. 자제하고 욕망을 훈련할 줄 아는 사람은 죄와 악, 공포와 비겁, 악덕과 무례, 질투와 탐욕, 굴욕과 기타 온갖 예속의 원인에서 해방된다. 따라서 이러한 자유의 성취를 특징으로 하는 이-드를 맞이하는 것은 실제에 있어서 자기의 승리를 축하하는 것이며 그렇기에 이-드는 승리의 날이다.

5. 각 이-드는 결실의 날이다. 하나님께 봉사하여 훌륭하게 일한 모든 사람들, 모든 충실한 신자들은 이날 자기들이 베푼 선행의 결실을 거둔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비와 축복을 베풀어주시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이슬람 사회는 종교적 형제애와 사회적 책임을 위하여 응당 치러져야 할 기부금을 거둔다. 기부금은 이러한 형제애와 책임을 의식하여 사랑과 동정과 관심이 교차하는 속에서 지불된다. 이슬람 사회의 성원 각자는 어떠한 식으로든지 결실을 거두거나 소득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특히 동료신자들의 전체 복지에 진정한 관심을 갖는 사람들에게 무한히 베풀어주신다. 베풀 수 없는 수혜자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베풀어주는 것에 대하여 동료 기부자들이 내놓은 기부금을 받게 된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모두가 서로 어울려 하나님의 마련을 향유하는 것이니 이날은 정녕 훌륭한 결실의 날이 될 것이다.

6. 각 이-드는 용서의 날이다. 이날의 집회에 모인 무슬림 모두는 온 마음을 다하여 용서와 강한 신앙심을 간구한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을 다하여 당신께 나아오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자비와 용서를 보증하신 터이다. 이 순수한 대회, 고도로 영적인 집회에서 무슬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적으나마 악감을 품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가 부끄러워 질 것이다. 진정한 무슬림이라면 이 형제끼리의 영적인 대회에 깊이 감동되어 어떤 악감이 생기더라도 이를 극복하게 된다. 결국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나란히 이 날의 정신에 호응하여 자기의 마음과 영혼을 순화시키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누가 자기에게 해를 입혔더라도 그를 용서하게 되는 것이다. 그 자신도 하나님의 용서를 간구하며 용서를 받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고도로 헌신적인 대회의 정신이 용서해야 용서받는다라는 사실을 깨우쳐 준다. 용서를 베풀 때 하나님의 용서의 미덕이 자비롭게 시현되고 또 무슬림 상호간에 이런 미덕이 오고 가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용서의 날로서의 이-드의 특징이다.

7. 각 이-드는 평화의 날이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수련생활을 영위함으로써 마음의 평화를 이룩한 무슬림은 하나님과 신성 불가침의 평화조약을 굳게 체결한 것이다. 일단 하나님과 평화를 이룬 사람은 자신과 평화를 이루고 결국 세계와 평화를 이루게 된다. 그러므로 이-드를 올바로 경축하는 무슬림은 실제로는 자신과 하나님과의 평화협정의 체결을 경축하는 것이니, 이것이 평화의 날로서의 이-드의 특징이다.

평화와 감사의 날, 용서와 도덕적 승리의 날, 훌륭한 결실과 주목할 만한 성취의 날, 그리고 기념 축제의 날이 곧 이-드인 바, 이것이 이슬람의 이-드의 본연의 의의인 것이다. 이슬람의 이-드는 이 모두이면서 동시에 그 훨씬 이상이다. 그것은 이슬람의 날이며,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이다.

축제(이-드) 예배(쌀라똘 이-드)의 거행

1. 금요일예배를 볼 때처럼 예배자 각자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단정하고 말쑥한 차림새로, 활기차게 이-드 집회에 임해야 한다. 마스크 혹은 대회장소에서 실제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구두로 예배를 올린다. 이것을 따크비-르라 하는데, 장말(章末)에 보면 나와 있다.

2. 이-드 예배 시간은 일출 시간 이후와 정오 이전의 사이이다. 아잔이나 이까마는 할 필요가 없다. 예배는 두 라카로 이루어지는데 매 단위에서 이맘은 꾸란의 파티하와 다른 한 구절을 들릴 수 있게 낭송한다.

3. 이맘은 알라후 아크바르(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시도다)라 말하며 예배를 인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다. 그 다음에 같은 말을 세 번 되풀이한다. 손을 양쪽 귀로 올렸다가 말이 한 번 끝날 때마다 양편으로 내린다. 세 번째 따크비-르(말하기)가 끝나자 이맘은 다른 예배를 볼 때처럼, 배꼽아래에서 오른손을 왼손 위에 포갠다. 예배자는 한 동작 한 동작씩 이맘을 따라 행하며 말과 행동을 이맘과 정확히 일치시킨다.

4. 첫 번째 라카가 끝나면 이맘은 일어서서 두 번째 라카를 준비하며 알라후 아크바르라 말한다. 다음에 첫 번째 라카에서 한 것처럼 같은 동작을 취하면서 같은 말을 세 번 더 한다. 그리고 회중도 같은 방식으로 따라 한다.

5. 예배 두 라카가 끝나면 이맘은 설교를 행한다. 설교는 이부로 되어 있으며 중간에 잠깐 휴식한다. 제 1부는 알라후 아크바르라는 말을 아홉번 되풀이함으로써 시작되며, 제 2부는 같은 말을 일곱 번 되풀이함으로써 시작된다. 이어 설교에 들어가면 금요일 설교에서 하는 것처럼 훈계와 충고를 펴나간다.

6. 그해 첫 번째 이-드 설교에서 이맘은 싸다까 툴-피뜨르(단식의 자선)문제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것은 의무적인 세금인 바, 이것을 낼 수 있는 모든

무슬림은 그것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에게 적어도 한끼의 정식 식사나 그에 상당하는 대가를 베풀어야 한다. 식구가 딸린 경우, 매 식구마다 같은 식으로 베풀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자기와 식구를 합해서 네 명인 경우, 최소한의 네 끼의 정식 식사나 그에 상당하는 대가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야 하는 것이다. 예배보다 아주 일찍 이러한 자선을 베푸는 것이 훨씬 보람있고 바람직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이 축제의 즐거운 기분으로 그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

7. 두 번째 이-드의 설교에서 이맘은 희생의 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 돌-아드하(희생제)일에 자력이 있는 모든 무슬림은 제물을 바쳐야 한다. 한 가구 당 양이나 염소 한 마리면 족하다. 이-드일에 예배를 보고 나서 희생동물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틀째 혹은 사흘째 잡는 것도 인정된다. 희생동물의 고기에 관하여 성꾸란은 이렇게 지시한다.

그 고기를 먹고, 가난하나 만족하는 사람과 구걸하는 자...에게 먹일지니라 (꾸란, 22:36)

같은 곳에서 성 꾸란은 하나님께서는 제물의 고기에 관심이 없으며 또 그 고기를 취하지도 아니 하시는 바, 그 분이 취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은 숭배자들이 보이는 경건함이라고 단언한다.

되풀이 말하지만, 이-드 예배는 이른 아침의 의무(파르드)예배를 대신하지 않으며 그 자신 역시 다른 예배에 의해 대신될 수 없다.

두 이-드 예배 이전 그리고 두 번째 이-드에 이어 삼일동안 거행되는 정규 집회 이후에 올려지는 따크 비-르를 일컬어 따크비-룻 따쉬리-끄라 한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알라후 아크바르,(3번)

라 일라하 일랄-라.

알라후 아크바르(2번) 왈 릴-라힐-함두

알라후 아크바르 카비-라

왈-함두릴-라히 까씨-라

와 수브 하날 라히 부끄러탄

와 아씨-란

라 일라하 일랄-라후 와흐다

싸라까 와 아드하, 와 나싸라

압다,

와 아 앓자 준다후 와 하자말 아흐자바

와흐다후 라-일라하 일랄-라후 와라

나흐부두 일라-이-야후 무크리씨-나
라훗 디-나 왈라우 까리할-까피룬
알라후마 쌀리 알라-싸아디나-무함만
와왈라-아-리 싸이디나-무함만
와알라-아스하-비 싸이디나-무함만
와알라-안싸-리 싸이디나-무함만
와알라-주르리-야띠 싸이디나-무함만
와 쌀림 따쓰리-만-까씨-란

이 따크 비-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시도다.

한 분이신 참 하나님 외에 신은 없도다.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시니(2번), 찬미가 그분의 것이다.

정녕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시도다.

넘치는 찬미가 그분의 것이로다.

주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하나님 곧 한 분이신 참하나님 외에 신은 없다.

그분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고, 당신의 종(무함만)을 후원하시며

당신의 용사들에게 빛나는 승리를 안겨 주고, 동맹한 적군을 가차없이

무찔러 버리시도다. 하나님 외에 신은 없나니 우리는 오직 그분만을

숭배하여 진정으로 헌신하노라 비록 불신자들이 분을 낸다 하더라도.

오 하나님! 우리의 주인 무함만과,

우리의 주인 무함만의 백성들과,

우리의 주인 동료들과,

우리의 주인 무함만의 지지자들과,

우리의 주인 무함만의 아내들과,

우리의 주인 무함만의 자손들을 높이사, 축복하여 주옵시며

저들 모두를 큰 화평으로 맞이하여 주옵소서

약식 예배

1. 집을 떠나 48마일 이상을 갈 작정으로 여행 중이라면, 의무 예배 네 라카를 각 두 라카로 줄여야 한다. 이러한 약식 예배는 정오(주흐르) 예배, 이른 오후(아스르) 예배, 밤(이샤) 예배에 적용된다. 이른 아침(파즈르) 예배와 해질녘(마그립) 예배는 변함없다.

2. 여행자가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도 거기에 15일 이상 머물러 있을 작정이 아니라면 이러한 편의는 그대로 유효하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약식 이전

의 예배를 원래의 라카대로 올려야 한다.

3. 이런 조건에서 여행하는 동안 이른 아침 예배(파즈르)의 순나 두 라카와 밤 예배(이샤)에 따르는 위뜨르를 제외하고는 모든 추가 의무 예배(순나)가 면제된다.

예배를 금하는 때

무슬림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의무 혹은 추가 의무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금지된다.

1. 해가 떠오르고 있을 때
2. 해가 남중에 있을 때
3. 해가 떨어지고 있을 때
4. 월경기간이나 해산, 수유로 인해 행동이 부자유스러운 기간에 있을 때
5. 부정을 탔을 때, 일부 전부를 불문한다.

예배 지체의 벌총

1. 일반적으로 무슬림은 남녀를 불문하고 모두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은, 지체하는 합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벌받을 죄에 해당한다.

2. 해산하였거나 월경 중인 여자 그리고 정신이상이거나 한동안 의식불명인 사람을 제외하고 무슬림 각자는 지체된 의무 예배를 벌총해야 한다.

3. 지체된 예배를 벌총할 때는, 원래의 형태대로 올려야 한다. 예를 들어 지체 예배가 바로 약식 예배라면, 약식대로 올려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식 예배를 올려야 한다.

4. 지체 예배 상호간 그리고 지체 예배와 현재 예배 상호간에는 순서를 지켜야 한다. 다시 말해서 시간상 맨 처음 예배를 맨 먼저 올려야 한다. 다만 예배를 너무 많이 놓쳐서 일일이 그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없거나, 지체 예배와 현재 예배를 다 올릴 만큼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현재 예배를 먼저 올리고 지체 예배를 나중에 올려도 된다. 아무튼 무슬림은 자기가 아는 한 자신의 기록에 오점이 없으며 놓친 예배도 없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위 예배

이 예배는 라마단 달의 특징인 바, 밤(이샤) 예배 다음에 올려진다. 여덟 내

지 스무 라카로 이루어지는데 두 라카씩 올리고 각 두 라카 사이에 잠깐 휴식하게 된다. 이 예배는 집단적으로 그리고 밤 예배의 마지막 부분인 위뜨르 이전에 올리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예배의 무효

다음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하면, 그 예배는 무효가 된다.

1. 예배 행위나 동작에서 이맘을 앞지르는 행위
2. 예배 중 먹거나 마시는 행위
3. 예배의 진행규정에서 벗어나는 말을 하는 행위
4. 맥카 방향으로부터 위치를 바꾸는 행위
5. 예배의 행위나 동작 이외의 행위나 동작을 노출시키는 행위
6. 세정을 무효화시키는 배설행위, 예를 들어 소변, 대변, 방귀, 혈액 유출 등
7. 기립 꾸란 낭송, 루꾸, 수주드 등과 같은 예배의 필수적 행위 중 어느 하나를 지키지 않는 행위
8. 남자의 경우, 예배 도중 배꼽과 무릎 사이를 노출시키는 행위, 여자의 경우, 손 얼굴 발 이외의 신체부분을 노출시키는 행위

무효가 된 예배는 제대로 다시 올려야 한다.

장례예배(쌀라툴-자나자)

1. 고인이 된 무슬림을 위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공공의 의무(파르드 키파야)다. 이것은 무슬림 여러 명이 예배를 올려야 하며, 당시에 참석한 몇 명의 무슬림이 예배를 올리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다른 무슬림들에게는 책임이 면제된다는 것을 뜻한다.
2. 무슬림이 죽으면, 전신-세정(우두)하는 노출부분에서 시작한다-을 비누나 다른 세제 혹은 소독제로 여러 차례 씻어내어 눈에 띄는 불결물을 모두 없애야 한다. 시신을 아주 깨끗하게 씻어 냈으면 흰 무명 천으로 시신을 감싸서 신체의 모든 부위를 가린다.
3. 다음에 시신을 영구차나 관에 넣어 예배장소로 운구한다. 예배장소는 마스질이나 기타 깨끗한 구내로 한다. 시신의 위치는 맥카쪽으로 얼굴을 향하게 잡는다.
4. 예배 참석자 전원은 먼저의 세정이 유효한 상태에 있지 않는 한 세정을 해야 한다. 이맘은 시신 옆에 서서 맥카의 끼블라를 향하고 피인도자들은 이맘 뒤에 도열한다.

5. 이맘은 손을 양쪽 귀로 올려 나지막한 목소리로 고인을 위해 예배드리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알라후 아크바르(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시도다)라 말한다. 예배자들은 이맘의 인도를 따라서 이맘이 먼저 한 다음에 다른 예배처럼 배꼽 아랫부분에서 오른손을 왼손 위에 포갠다.

6. 다음에 이맘은 다른 예배에서 통상 낭송되는 싸나 와 파티하 만을 나직한 목소리로 낭송한다.

7. 이 단계에서 이맘은 양손을 올리지 않고 알라후 아크바르라 말하고 따쉬 아 훗 제 2부(알라 훗마 쌀리 싸이디나 무함만 에서 시작하여 끝까지)를 낭송한다.

8. 다음에 양손을 올리지 않고 알라후 아크바르라 말하며 세 번째 따크비르를 올리고 적당한 말을 생각해서 기도(두아)를 드리되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좋다.

알라훗마 그피르리 하이이나-와 마이이띠나-와 샤히디나-와거-이비나-, 와 자까리나-와운-싸-나 와씨기-리나와 까비리나-. 알라훗마 만 아흐야이 따후 민나-파아흐이히 알랄-이슬람와만 따와파이따후 민나-파따와파후 알랄-이슬라-미 알라훗마라-따흐림나-아즈러후 와라-따프 띨나-나바아 다후.

오 하나님! 저희의 삶과 죽음에 용서를 베푸시며, (여기에)있는 이들과 없는 이들, 젊은이와 노인들 그리고 남자와 여자에게 용서를 베푸소서. 오 하나님! 저희들 중 당신께서 삶을 허락한 사람은 누구든지 이슬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중 당신께서 죽게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신앙 안에서 죽을 수 있도록 도움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고인을 잃음에 당하여 저희가 인내하오니 그 보상을 저희에게 거두지 마시옵소서 저희로 고인을 따라 시련을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9. 다음에 양손을 올리지 않고 네 번째 따크비를 하고 이어 다른 예배에서와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좌우를 향하여 평화의 인사말을 한다. 기억해 둘 것은 뒤에 도열한 예배자들은 이맘의 인도를 따라 단계적으로 동작하고 저마다 나지막한 목소리로 같은 내용을 낭송해야 한다는 점이다.

10. 예배를 마친 후, 얼굴을 메카 방향으로 두고 시신을 내려 매장한다. 시신을 내리면서 이렇게 말한다.

비쓰밀-라히 와빌-라히, 와알라-밀라띠 러쑤-릴라-히 쌀랄-라-후 알라이히 와 쌀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도의 순나(전통)에 따라 고인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평화가 내려지이다.

이것 말고도 달리 적절한 기원을 할 수도 있다. 고인이 사춘기 이전의 아이인 경우에는 같은 방식으로 예배를 올린다. 세 번째 따크비르 이후 앞에서처럼 길게 기도하는 대신, 예배자는 이렇게 말한다.

알라훔마-즈알후라니-파라탄-, 와즈알후라나-두크란-, 와즈알후라나-싸-피안 와무싸파 안

오 하나님! 저를 우리의 선구가 되게 하시고 저를 우리의 상, 우리의 보배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탄원자가 되게 하여 저의 탄원을 들어 주옵소서 장례예배는 시작부터 끝까지 선 자세로 올린다. 장례순서 하나가 지날 때마다, 그것이 무슬림이 하는 순서들이니, 무슬림 모두는 선 자세로 고인에게 경의를 표해야 한다. 남자의 염(殮)은 남자가 하고 여자의 염은 여자가 한다. 여자라도 자기의 남편은 염할 수 있고 남녀를 불문하고 어린 자식은 염할 수 있다. 염할 때는 손에 장갑을 끼거나 헝겊을 감아야 한다. 그리고 시신의 음부는 눈에 띄지 않게 염해야 한다.

무덤은 표가 나게 세우되 소박하게 해야 한다. 시신은 규격에 맞는 흰 무명천으로 덮어야 한다. 무덤을 사치스럽게 만들거나 시신에 좋은 옷 등을 입히는 것은 이슬람식이 아니다. 그 것은 가당치 않는 허영이며 여러모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재산을 낭비하는 것이다. 고인을 매장할 때는 비용을 많이 들여 연회를 크게 여는 북미의 일부 무슬림들의 관습 역시 이슬람식이 아니며, 다른데 바치면 더없이 유익한 시간과 돈을 무책임하게 낭비하는 것이다.

예배 총론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무슬림의 정신은 항상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차 있어야 하며 그 혀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영예롭게 하는 말로 분주해야 한다. 전술한 예배 유형 말고도 예언자 무함만이 예배를 강권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1. 비가 과도하게 내릴 때
2. 가뭄이나 비가 모자랄 때
3. 일식할 때

이런 경우 무슬림은 권고대로 자기가 원하는 라카 수와 시간만큼 예배를 올린다. 때에 따라서는 일반 예배에 규정한 식에 따르지 않고 달리 말하기도 한다. 이렇게 말할 때는 하나님과 그분의 은총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도움을 의지하며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의 자비를 간구함을

나타낸다.

1. 해산할 때
2. 결혼식을 올릴 때
3. 취침할 때와 기상할 때
4. 출타할 때와 귀가할 때
5. 화장실을 출입할 때
6. 여행을 떠나거나 도시에 들어갈 때
7. 승마하거나 승차할 때
8. 승선할 때
9. 재난을 당할 때
10. 거울을 대할 때
11. 목욕이나 세정 후에
12. 첫 수확물을 받을 때
13. 묘를 방문할 때

각 경우에 무슬림은 권고를 따라 적절하고 합당한 말로써 하나님을 기념하고 자기의 느낌과 깊은 사례를 표시한다.

이 경우에도 기도하는 식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아무 것이나 자기가 아는 기도를 올려도 된다. 다만 그 내용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념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음에 적절한 기도 유형으로 쓰이는 특별한 실례 몇 가지를 들어 둔다.

1. 식사하거나 마시기 전에 이렇게 말한다.
비스밀 라히 와 알라-바러 까딸-라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더불어)

또 식사하기 전에 파티하를 낭송하는 습관을 들여도 좋다.

2. 식사를 마친 후에는 이렇게 말한다.

알-함두릴라 힐-라디-아뜨아미나-와싸꺼-나-와자알라나-무슬리민-

(찬미는 오직 하나님께 드려야 마땅하나니, 그분은 우리에게 베푸사 먹고 마시게 하시며 우리로 무슬림이 되게 하셨음이라.)

3. 문병갔을 때는 이렇게 말한다.

아즈히빌-바으싸 럽반-나씨. 와쉬피 안딤-샤피, 라쉬파-아일라쉬파-우까
쉬파-안 라 유거-리 싸거만

(병을 물리치사 쾌차하게 하소서 오 만인의 주님이시여! 당신은 치료하는 분
이시니 당신이 치료하지 않으시면 치료할 수 없나이다. 쾌차를 주사 병이 떨어지게 하옵소서)

이제 파티하 따쉬아 훗 그리고 짧은 꾸란 귀절 몇 개를 다룰 차례다.

1. 파티하(서장 혹은 알-함드)

비쓰밀-라히르-라흐마-니-르-라히임,

알함두릴-라히럽빌-알-라미-인

아르러흐마-니르러 히임-,

말리끼 야우민-디인.

이이야카 나으부두 와이이야카

나쓰따이-인,

이흐디낫-시러-딸-무스따까-임.

시러-딸-라지나 안암따 알라이힘

거이릴 마그두-비 알라이 힘

와랏-되-라인. (아민)

이것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참으로 자비로우시고 참으로 자애로우신 하나님 이름으로 찬미를 받으소서.
온 세상을 소중히 하사 유지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자비로우시고 참으로
자애로우신 분이시며 심판 날의 주인이시로다.

당신만을 저희가 숭배하오며, 당신의 도움을 저희가 구하오니 저희를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당신이 자비를 베푸신 사람들, 진노를 사지 아니하는 사람들, 길을 잃지 않는
사람들의 길로... (아민)

2. 따쉬아 훗

(ㄱ) 제 1부

앗-따히야 뚜릴-라히 왓 썰라와뚜

왓 따이이 받뚜,

앗 썰라-무 알라이까 아이유한 나비이유

와러흐마 똘라-히 와바러 까-뚜후

앗썰라-무 알라이나-와알라-이바-

딜라-히트 썰-리히-인.
아쉬하두 알라일라-하 일라-라-후
와흐다후라 싸리이깔 라후
와 아쉬하두 안나 무함마단-아브두후
와러쑈-루후.

해석

모든 존경과 모든 숭배와 모든 신성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마땅하도다.
오 예언자시여 당신에게 평화와 하나님의 자비와 축복이 내려지이다.
우리 모두와 하나님의 의로운 종들에게 평화가 깃들어지이다.
저는 우직 하나님 외에 신이 없음을 증언하오며,
무함만은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사도임을 증언하나이다.
(이 부분은 세□네 라카로 이루어지는 예배에서 그 각 두 번째 라카 후에 낭
송된다. 그 다음에 예배자는 기립하여 세 번째 라카를 준비한다.)

(L) 제 2부

알라훤마 썬리 알라-싸이디나-무함만
와 알라-알-리 싸이디나-무함마딘
까마-썰라이따 알라-싸이디나-
이브러-히-임.
와 바-리까 알라-싸이디나-무함
마딘-와 알라-알-리 싸이디나-
무함마딘-
까마 바력크따 알라-싸이디나-
이브러히-임
와 알라-알-리 싸이디나-이브러
히-임.
필알-라미-인 인나까 하미-둔
마지-둔.

해석

오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의 지도자(주) 아브라함과 우리의 지도자 아브라함
의 백성을 높이셨듯이, 우리의 지도자 무함만과 우리의 지도자 무함만의 백
성을 높여 주옵소서.
그리고 당신께서 우리의 지도자 아브라함과 우리의 지도자 아브라함의 백성
을 축복하셨듯이 우리의 지도자 무함만과 우리의 지도자 무함만의 백성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당신은 찬미를 받기에 합당하고, 영예로운 분이시
나이다.

(2부로 된 따쉬아훗은 예배를 마치는 마지막 단위에서 낭송된다. 제 2부가
 끝나면 평화의 말이 이어지고 예배는 완결된다. 장례 예배에서는 세 번째 따
 크비이르 이후에 제 2부만 낭송된다.)

3. 꾸란의 짧은 구절

(ㄱ) 수러똥 이크라스

비쓰밀-라 히르러흐마-니르러히-임

꿀후왈-라후 아하드

알-라훗-싸마드

람야리드 와람유우라드

와람 야쿨라후 꾸푸완-아하드

해석

참으로 자비로우시고 참으로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하라 : 그분은 하나님이니 곧 한 분이신
유일한 하나님이며 영원히 만인의 간구를 받으시는 분이시라
그분은 낳지도 태어나지도 아니 하시나니 그분과 동등한 자 없도다
(꾸란, 112장)

(ㄴ) 수러똥 아스르

비쓰밀-라히르러흐마-니르러히-임

왈-아쓸르

인날-인싸 나라피-꾸쓰르

일랄-라디-나-와마누-와 아밀룻-쌀

리하-띠 와따와-씨우빌-학끼 와따와-

씨우 빗-씨브리

해석

참으로 자비로우시고 참으로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금을 통하여) 시간을 증거하나니
진실로 사람은 손해를 보고 있음이라
그러나 신앙을 지니고 의를 행하며 뜻을 같이 하여 진리와 다함 없는 인내
를 서로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아니 하도다.(꾸란 103장)
이런 짧은 구절 중의 하나가 처음 각 두 라카에서 파티하 이후에 낭송된다.

셋째, 넷째 라카에서는 파티하 이외의 낭송은 요치 않는다.

꾸란에는 짧고 쉬운 구절이 많이 있다. 무슬림 각자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가급적 많은 꾸란 구절을 암기해야 한다. 또한 꾸란의 가르침을 읽고 연구해야 한다. 꾸란을 읽는 것 자체가 고상한 숭배 형식이며 헌신의 보람찬 시간이다.

단식(싸움)

또 하나의 이슬람 특유의 윤리적 영적 특징은 단식제도의 규정이다. 단식은 문자적 정의에 의하면, 이슬람 력으로 아홉 번째 달인 라마단 달의 전체에 걸쳐 동트기 전부터 해질녘까지 음식, 음료, 성교, 그리고 흡연을 완전히 삼감을 뜻한다. 그러나 이슬람 단식의 의의를 이런 문자적 의미에 한정시키는 것은 몹시 잘못된 생각이다.

이슬람이 이런 비길 데 없는 제도를 도입한 것은 마치 항상 자라며 무한한 덕과 아주 귀중한 산물을 생출하는 나무를 심은 격이었다. 다음에 이슬람 단식의 영적 의의를 설명한다.

이슬람 단식은:

1. 진정한 사랑의 원칙을 가르쳐 준다. 단식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에서 우러나와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곧 사랑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아는 사람이다.
2. 창조적 희망감과 낙천적 인생관을 갖게 해 준다. 단식을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어하며, 그분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3. 진정한 덕, 곧 효과적으로 헌신하고 정직하게 봉납(捧納)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덕을 심어 준다. 단식은 하나님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여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4. 방심함이 없는 건전한 양심을 배양시킨다. 단식하는 사람은 누가 보든, 안 보든, 단식을 하기 때문이다. 특히 단식을 할 때는 세속적 권위에 의해 행동이 저지되거나 단식이 강요되는 일이 없다. 단식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남이 보든, 안 보든, 충실을 지킴으로써 자신의 양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한다. 건전한 양심을 배양시키는데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5. 인내심과 비이기심을 고취시킨다. 단식을 할 때는 박탈의 고통을 느끼면서도 인내하기 때문이다. 사실 이런 박탈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지만, 확실히 이렇게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몇 날, 몇 주 혹은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생필품을 박탈당한 사람이 당하는 극심한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사회적 인도주의적 의미에서 이런 체험이 갖는 의의는 이런 체험을 해 본 사람이 누구보다도 빨리 같은 인간으로서의 처지를 동정하여 필요한

도움을 베푸는 데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비이기심과 진정한 동정심을 웅변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6. 절제와 의지력의 효과적인 실습이다. 단식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자신의 정욕을 훈련하고 육체적인 유혹에 초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이 곧 인격자요, 의지력과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다.

7. 투명한 영혼으로 초월의 경지에 들게 하고 맑은 정신으로 사고할 수 있게 하여 경쾌한 몸으로 행동할 수 있게 한다. 이 모두가 위를 가볍게 해서 생기는 필연적인 결과인 바 의학적 지식과 생물학적 법칙 그리고 지적인 경험의 이런 사실을 증명한다.

8. 현명한 저축과 건전한 가계 예산의 새로운 길을 제시한다. 덜 먹고 덜 마시면 그만큼 돈과 노력도 덜 드는데 상례(常例)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단식은 가정경제와 가계예산을 익히는 영적인 학기(學期)다.

9. 노련한 적응 기술을 터득시킨다. 단식할 경우, 일상생활의 방식이 완전히 바뀐다는데 주목하면 이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생활 방식의 변화를 통하여 새로운 체계에 자연스럽게 적응하고 새로운 규칙에 순응하여 행동하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 현명한 적응감과 예기치 않은 곤경을 이겨낼 수 있는 자발적인 힘이 길러지게 되는 것이다. 건설적인 적응력과 동기를 존중하는 사람은 이점에 있어서 단식이 미치는 효과를 쉽게 인식할 것이다.

10. 심신 단련과 건강한 생존의 기초를 닦아준다. 성월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또 매년 성월 마다 단식을 규칙적으로 지킨다면 확실히 고도의 단련과 훌륭한 질서감에 전념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위를 쉬게 하여 소화기관을 이완시키면 위를 혹사시켜 초래되는 해가 영혼은 물론이고 신체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완시킴으로써 신체가 평소의 무질서와 단절에서 해방되고 영혼이 계속해서 순수하고 평화롭게 빛나리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

11. 사회적 귀속, 화합과 형제애, 하나님과 법 앞의 평등의 참다운 정신을 진작시킨다. 이러한 정신은 단식을 하는 사람이 그 자신 전체 무슬림 사회의 일원으로서 같은 방식으로 같은 시간에 같은 동기로, 같은 목적을 위해 같은 의무를 이행하고 있음을 의식한다는 사실에서 생기는 당연한 결과다. 이처럼 훌륭한 이슬람의 제도에 견줄만한 것이 역사상 어느 시대인가에 있었다고 단언할 수 있는 사회학자는 아무도 없다. 고금을 막론하고 귀속 화합, 형제애, 평등을 외쳐오기는 했지만, 이러한 외침에 대한 반향은 미미하였고 또 그 성과라고 해 봐야 보잘 것 없는 것이 아니었던가! 이슬람의 인도의 빛이 없다면 사람들이 어디서 자신들의 목표를 찾을 수 있겠는가?

12. 자기 안정과 자제, 인간 존엄성과 자유의 보존, 승리와 평화를 위한 하나님의 처방이다. 이러한 결과는 생생한 현실로써 단식할 줄 아는 사람의 마

음속에 반드시 나타난다. 단식을 제대로 하면, 자제하고 정욕을 완전히 다스리며 욕망을 훈련하고 모든 악의 유혹을 물리치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를 안정시키고 그 존엄성과 성실성을 회복하며 악의 예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입장에서는 것이다. 일단 이 모든 것을 달성하면 마음의 평화를 이룬 것인 바, 마음의 평화는 하나님과, 결과적으로 온 우주와 영구적인 평화를 이루는 원천이다.

이제 혹자는 이런 이의를 제기하고 싶어질지 모른다. 이슬람의 단식 제도가 그런 것이라면 또 그것이 이 점에 있어서의 이슬람의 실상이라면, 어째서 무슬림들은 유토피아에 살고 있지 않은가? 이런 이의에 대해서는 다만 무슬림들이 역사상 어느 시대에 유토피아에서 삶을 누렸다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유토피아 실현은 역사상 한 현상으로서,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한 업적이었다. 유일무이하다는 것은 이슬람 이외의 어떤 종교나 사회제도도 일찍이 그 이상을 실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타종교나 사회제도의 유토피아는 항상-때로는 분명하지만 때로는 막연한, 때로는 가깝지만 대부분이 요원한-이론 혹은 소망과 꿈의 범주에 머물렀지만 이슬람의 유토피아는 실현되었고 능력을 한껏 발휘하여 연출 실천되었다. 인간적 실천적 의미에서 이것은 이슬람의 유토피아가 바로 지상에서 재현될 수 있으며, 확고한 기초와 실천성 있는 제 원칙 위에 세워짐을 뜻한다.

오늘날 이슬람의 유토피아가 건설되고 있지 못한 이유는 복잡다난하지만 쉽게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논의를 단식제도에 한정시켜 설명하면, 많은 무슬림들이 자신들에게 불행하게도 단식을 하지 않으며 고작 한다는 게 무관심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단식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 진정한 의의를 알지 못하여 결국 단식을 하면서도 거의 혹은 전혀 유익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오늘의 무슬림들이 전체적으로 단식의 특권을 제대로 누리고 있지 못한 이유다.

또 혹자는 이슬람의 단식만 그런 게 아니다. 유태교의 유월절, 기독교의 사순절, 간디형 등과 같은 다른 유형의 단식도 마찬가지라고 말할지 모른다. 그런데 어째서 무슬림들은 자기네 단식에 대해서만 독단적인 주장을 펴는 것인가?

이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 모두에게 호소하는 바이다. 하나님의 예언자 중 그 누구라도 비방하거나 진리를 배척하거나 신성한 종교를 왜곡시키는 것은 무슬림으로서의 우리의 종교적 원칙과 윤리에 어긋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라면 아무 거리낌없이 이런 무책임한 죄를 범할 수 있겠지만 우리 무슬림은 그렇지 않다. 일단 이런 저급한 윤리 아니 부도덕에 빠지면 사실상 이슬람의 대열에서 벗어나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기 때문이다. 단식의 제도

가 역사 자체만큼이나 오래된 것이며 하나님께서 무슬림에게 이런 제도를 규정하셨듯이, 이슬람 이전의 사람들에게도 규정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타의 단식 유형을 규정하신 정확한 형태와 고유의 방식을 알지 못한다.-아는 사람이 많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나 진실을 밝히고 사실을 알고자 하는 호기심을 채워주기 위해 이러한 이슬람의 제도를 다른 유형의 단식과 비교함으로써 우리의 주장을 실증할 수 있다.

비교 단식론

1. 타종교나 교의, 철학이나 교리의 경우에 단식하는 사람은 어떤 종류의 음식물 혹은 물질을 삼가지만 그 대신-역시 물질적 성격을 띠는-다른 것을 섭취하여 자기 마음대로 배를 한껏 채울 수 있다. 이슬람에서는 영적 기쁨과 도덕적 자양을 얻기 위해서 물질적 성격을 갖는-음식, 음료, 흡연 등을 삼간다. 무슬림은 물질을 전혀 섭취하지 않고 공복 상태를 유지한다. 영혼을 평온과 축복으로, 마음을 사랑과 동정으로, 심령을 경건과 신앙으로, 정신을 지혜와 결의로 채우기 위해서다.
2. 타종교나 철학에서의 단식의 목적은 항상 부분적이다. 영적 목적이나 신체적 필요 혹은 지적 수련을 위한 단식이지 결코 이 모두를 통틀어 그 목적으로 하는 단식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이슬람의 단식은 이러한 모든 유익과 기타 많은 목적 곧 사회적, 경제적, 윤리적, 인도주의적, 사적, 공적, 개인적, 집단적, 내적, 외적, 지방적, 국가적, 제목적 모두를 위한 것이다.
3. 비이슬람 단식은 어떤 물질을 부분적으로 삼가는 것 이상을 요구하지만, 이슬람식 이 외에도 헌신과 숭배, 자선과 꾸란 연구, 사교성과 활기, 자기수양과 양심의 자각을 수반한다. 따라서 단식하는 무슬림은 자신이 전혀 딴 사람이 됨을 느낀다. 내면과 외면 모두가 순수하고 깨끗해지며 영혼이 투명해져서 완전히 가까워지는 느낌을 받는다. 하나님과 아주 가까워지기 때문이다.
4. 우리가 아는 한, 또 일상 경험을 근거로 판단하건대, 다른 도덕 철학이나 종교에서는 세속의 인연을 뿌리뽑지 않는 한 자신의 도덕적 목적을 이루거나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가르친다. 따라서 이런 사람은 세속적 관심사와 이혼하고 인간으로서의 책임을 등한시하며, 단식이 반드시 끼게 되는 모종의 고행이나 엄한 수도생활에 의지할 필요가 생긴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하는 이런 종류의 단식은-여태까지 그래 왔듯이-정상적인 생활을 등진 굴욕적인 은둔 생활을 감추기 위한 구실로 이용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슬람의 단식은 실생활과의 이혼이 아니라 그것과의 행복한 결혼이며, 은둔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장한 침투며 등한시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풍요케 함인 것이다. 이슬람의 단식은 종교를 일상 생활과 이혼시키지 않으며 영혼을 육

체와 분리시키지 않는다. 깨뜨리지 않고 조화시키며, 풀어지게 하지 않고 배어들게 하며, 해체하지 않고 메우고 벌충하는 것이 바로 이슬람의 단식이다.

5. 이슬람의 단식 시간표까지도 주목할 만한 현상을 보인다. 단식시기가 일년 중 어느 때에 고정되어 불변하는 경우와는 달리, 이슬람에서는 그 시기가 아홉 번째 달인 라마단 달과 더불어 온다. 이슬람력은 태음력인데 달의 경과는 달의 위상변화(位相變化)에 따른다. 이럴 경우, 이슬람의 단식은 특정 연수에 걸쳐 일년 네 계절을 포함하여 가을과 봄을 거쳐 여름과 겨울 사이를 교대로 왕복 순환하게 된다. 음력의 성격상 라마단 달이 예를 들어 어느 해에는 1월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느 해에는 12월이 될 수도 있다. 두 해에 걸쳐 있는 경우도 있다. 영적인 의미에서 이것은 무슬림이 다양한 차원에서 단식의 도덕적인 경험을 하고, 상이한 기후의 상이한 계절 곧, 때로는 낮이 짧고 추운 겨울에 때로는 낮이 길고 무더운 여름에 때로는 그 사이에 영적인 묘미를 맛보게 됨을 뜻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의 다양성은 언제나, 활기에 찬 이슬람 제도의 인상적 특징을 이루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무슬림의 준비성 역동성, 적응성을 끊임없이 보여 준다. 이것은 확실히 이슬람의 가르침을 구성하는 건전하고 주목할 만한 요소다.

단식 기간

이미 지적인 대로, 단식 의무기간은 라마단 달이다. 하루의 단식 기간은 동트기 전에 시작해서 해가 떨어진 직후에 끝난다. 보통은 달력을 보면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있지만, 이런 달력을 이용할 수 없으면, 자기가 찬 시계나 태양의 위치 혹은 지방신문을 보든지 기상대 등에 문의해야 한다.

라마단의 단식은 책임을 질 수 있고 건강한 무슬림(무 칼리프) 모두의 의무다. 한편 이외에도 예언자 무함만의 관습(전통)을 따라 단식을 강권하는 경우가 있다. 매주의 월요일과 목요일, 라마단의 도래를 예고한 두 개의 달 곧 라잡 달과 샤반 달의 각 며칠, 이둘-피뜨르일 다음의 6일이 이에 해당한다. 더욱이 이-드일과 금요일-무슬림은 이날 단식할 수 없다-을 제외하고 일년 중 어느 달 어느 날에 단식하든 항상 보상이 따른다. 그러나 되풀이 말하지만 라마단의 단식-달의 위상에 따라 29일이 될 수도 있고 30일이 될 수도 있다.-만이 의무 단식이다. 라마단의 단식은 이슬람의 지주이며, 합당한 사유 없이 이 단식을 하지 않는 것은 벌받을 중죄다.

하나님께서서는 단식이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바를 아시기에 맹세를 파하는 사람에게 대안으로서 3일간의 단식을 명하셨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기 아내가 자기 어머니처럼 자신에게 금기라고 선언-이슬람 이전의 낡은 풍습-한 사람은 자신이 저지른 경솔하고 무책임한 언동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속죄하려면 대안으로서 두 달 동안 계속해서 단식을 해야 한다.(꾸란, 2:183-185, 5:92, 58:1-4) 진지한 맹세를 파하는데 대한 속죄로 10명의 가난한 사람을 먹이고 입혀야 한다는 점이 흥미를 끈다. 그것이 안 되면 종을 해방시키거나 몸값을 치르고 종을 풀어 준다. 그것도 안 되면, 마지막 대안으로 3일간 단식을 한다(꾸란, 5:92). 불쾌한 이슬람 이전의 풍습대로 말을 경솔하게 한 경우에 죄진 자의 첫 번째 의무는 종을 해방시키거나 몸값을 치르고 종을 풀어 주는 것이다. 그럴만한 여유가 없으면 아내와 다시 관계하기 전에 두달 동안 계속해서 단식을 해야 한다. 단식을 할 수 없으면 60명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평균 60끼니의 식사를 나눠주어야 한다. 이외에도 처리 곤란한 일을 대신하여 단식을 요구하거나 권하는 경우가 있다.(꾸란, 58:1-4, 비교 2:196)

누가 단식해야 하나

라마단의 단식은 남녀를 불문하고 다음의 자격을 갖춘 무슬림 모두의 의무다.

1.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할 것, 다시 말하면 정신이 온전하고 신체적으로 능력이 있을 것.
2. 성년이거나 사춘기, 분별연령-보통 14세 내외-에 달해 있을 것. 이 나이가 되지 않은 아이들에게는 쉬운 데서부터 이러한 좋은 습관을 시작하도록 권해야 한다. 그리하면 아이들이 사춘기에 달할 때, 정신적 단식을 할 준비를 갖추게 될 것이다 ;
3. 주소지, 고향의 도시, 농장, 점포 등에 머물러 있을 것. 다시 말해서 50마일 이상 여행 중이 아닐 것 ;
4. 단식을 하면 건강이 악화될 염려가 있는 환자들. 이 사람들은 병에 걸려 있는 동안에는 단식을 후일로 연기했다가 나중에 빠질 날 수 만큼 벌충하면 된다.
5. 50마일 이상의 거리를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여행 중에만 일시적으로 단식을 파하고 후일에 빠진 날 수 만큼 벌충하면 된다. 그러나 꾸란의 언급대로 특별한 어려움이 생기지 않는 한 될 수 있는 대로 단식을 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더 좋다.
6. 임산부와 수유기의 산모 역시 단식을 하면 자기 자신이나 유아의 건강에 해로울 염려가 있는 경우, 단식을 파할 수 있다. 그러나 뒤로 미뤘다가 빠진 날 수 만큼 단식을 벌충해야 한다.
7. 월경기간(최장 10일)이나 산욕기간(최장 40일)중의 부녀자들 이런 부녀자들에게는, 설사 단식을 할 수 있거나 하기를 원하더라도, 단식하는 것이 허

용되지 않는다. 회복할 때까지 단식을 연기했다가 다음에 빠진 날 수 만큼 벌충해야 한다. 이슬람에서 하는 여타의 모든 일이 그러하듯이 이 경우에도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 분의 명에 응하여 그 분에 대한 사랑에서 우리나라와 행동에 착수한다는 의사를 밝혀야 한다.

라마단의 단식 중 고의적으로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거나, 또는 성교를 하면, 그날의 단식은 무효가 된다. 무엇이든지 입을 통하여 몸 속으로 들어가게 해도 그날의 단식은 무효가 된다. 합법적인 사유 없이 고의적으로 이런 행위를 하면, 벌로 60일 동안 계속해서 단식을 하거나 두 번째 대안으로서 단식이 무효가 된 날 수 만큼 단식을 하는 외에 60명의 가난한 사람들을 흡족하게 먹어야 한다.

라마단 기간 이외의 단식이 전기 면제 라는 표제 하에 나열된 사람들처럼 합법적 사유 때문에 파해지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나중에 빠진 날 수만큼 그 단식을 벌충해야 한다.

누구든 실수로 통상 단식을 파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자기가 하는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깨달은 순간에 그 행위를 멈추면 단식은 무효화되지 않으며 그 대로 유효하다.

라마단의 단식을 마치는 즉시 싸드까똘-피뜨르(파단의 자선)라고 하는 특별 자선을 베풀어야 한다.

일반적 권고 사항

특히 라마단 기간 중에는 다음의 습관을 지키라고 예언자 무함만은 강권한다.

1. 동트기 전에 가벼운 식사를 할 것. 이것을 수흐르라고 한다.
2. 해가 떨어진 직후에 대추야자 세 개를 먹고 물 한잔을 마시며 이렇게 기도할 것. 알라 훔마 라카숨나, 와 알라 리즈끼까 아프 따르나(오 하나님! 당신을 위해 저희가 단식하였사오며 이제 당신께서 저희에게 주신 음식으로 단식을 파하나이다.)
3. 가급적 식사는 가볍게 할 것. 예언자 무함만이 말씀하셨듯이 사람이 채울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나쁜 것이 배(위)이기 때문이다.
4. 따라위라고 하는 추가 의무 예배를 드릴 것 :
5. 서로 방문하여 교제를 나누고 인도주의적 봉사에 열을 올릴 것.
6. 꾸란 연구와 낭송에 더욱 힘쓸 것.
7. 최선을 다하여 인내하고 겸손하게 행할 것.
8. 오감과 정신 특히 혀의 사용에 각별히 유의할 것 ;
9. 부주의한 잡담을 삼가고 수상쩍은 거동은 모두 피할 것.

자선(자카)

또 하나의 뛰어나게 주목할만한 이슬람의 제도이자 중요한 지주(支柱)는 자카다. 우리가 아는 한 꾸란의 자카라는 말과 그것이 나타내는 의미에 상당하는 말은 타언어에 없다. 그것은 일종의 자선이나 희사 혹은 세금이나 십일조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단순한 친절의 표시도 아니다. 자카는 이 모두를 합친 것이어서 그 훨씬 이상이다. 자카는 자기 재산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보다 풍요케 하는 영적인 투자다. 단순히 어떤 사람이나 대의 명분을 위한 자발적인 기부도 아니요, 약삭빠른 사람은 안내고도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국가 세금도 아니다. 오히려 자카는 사회 전체를 위해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무슬림들이 떠맡은 의무다. 꾸란의 자카라는 말은 자선, 희사, 십일조, 친절, 국세, 자발적 기부 등을 포함할 뿐 아니라, 이러한 모든 하나님을 지향하는 마음과 영적 및 윤리적 동기를 아울러 내포한다. 이것이 자카에 상당하는 말이 없는 까닭인 바, 이러한 특징은 하나님의 성서 꾸란의 비길 데 없는 독창성에서 연유한다.

자카의 문자적 의미는 단순한 청결이다. 이 말의 기술적 의미는 재산을 가진 무슬림이 정당한 수령자들에게 분배해 줘야 하는 현금이나 현금의 액수를 가리킨다. 그러나 자카의 종교적, 영적 의미는 이보다 한층 심오하고 한층 생생하다. 자카의 인도주의적 사회 정치적 가치 역시 마찬가지이다. 다음에 자카의 광범위한 효과를 설명한다.

1. 자카는 재산가의 재산을 정화시키며, 그 재산에 더 이상 속하지 않고 정당한 수혜자들에게 분배해야 하는 몫을 공제하여 그 재산을 깨끗하게 한다. 자카를 지불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일정 비율의 재산을 즉시 올바르게 분배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그 몫에 대한 도덕적 법적 소유권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윤리적, 영적 관점에서 모든 법적, 상업적 관점에서 모든 어느 모로 보나 부패요, 명백한 강탈이나 이는 불법적으로 소유한 몫 때문에 전체 몫이 부정해지고 위태롭게 됨을 뜻한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 정당한 수령자들에게 고루 분배되면 몫의 나머지 부분도 깨끗하고 떼떽해진다. 깨끗한 자본과 떼떽한 재산은 영구적인 번영과 공정한 거래의 제 1요건이다.

2. 자카는 기부자의 재산을 정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기심과 재산에 대한 욕심을 제거하여 기부자의 마음을 정화시킨다. 이에 대한 보답으로 자카는 질투와 시기, 미움과 불만을 제거하여 수령자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그 대신에 기부자에 대한 선의와 따듯한 호의를 마음속에 심어 준다. 결국 사회 전체가 정화되어 계급 투쟁과 의혹, 악감과 불신, 부패와 분열, 그리고 이런 류의

모든 해악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3. 자카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회선원들의 고통을 최소한도로 덜어 준다. 자카는 불운한 사람들에게는 적지 않게 위로가 되겠지만 옷소매를 걷어붙이고 자기 재산을 늘려 가는 사람 모두에게는 성가신 간청이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 이것은 자카는 원래 비상조처에 불과하므로 여기에 전적으로 의존해서는 안 되고 자신과 남을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기부자에게 있어서 자카는 더 많이 벌어서 더 많이 득을 보라는 따듯한 권유다. 관련 당사자 모두에 대해 자카는 직□간접적으로 보상이 풍부한 만큼 영적으로 투자해 볼만한 공개된 보물이다.

4. 자카는 이기적 탐욕과 사회적 불화, 파괴적 이데올로기의 침투에 대한 건전한 형태의 내부적 방위 수단이다. 기부자에게 사회적 책임의 정신을, 수령자에게는 안전감과 귀속감을 길러 주는 효과적인 도구의 구실을 한다.

5. 자카는 개인과 사회가 서로 화답하여 상호 작용하는 영적 인도주의적 정신의 생생한 시현이다. 자카는 이슬람이 개인 기업을 막거나 사유 재산을 죄악시하지는 않지만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자본주의는 관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실증이다. 개인과 사회, 시민과 국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물질주의와 영성 사이에 온건하고 중도적이긴 하지만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노선(路線)을 취하는 이슬람의 일반 철학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자카다.

자카율

연말에 현금이나 상품으로 대략 15달러 이상에 상당하는 재산을 소유한 모든 무슬림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최소한 2.5%의 비율로 자카를 내야 한다. 재산 액수가 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간단하다. 그러나 소유 재산이 증권이나 상품인 경우에는 매년 말에 자기 재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최소한 재산 총가액의 2.5%의 비율로 자카를 내야 한다. 임대료 건물이나 산업과 같은 부동산에 투자한 경우에는 자카율은 재산 전체의 총가액이 아니라 총순수입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건물이나 가옥을 팔려고 내놓으면, 자카율은 재산 전체의 총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채권자의 경우, 채무자가 신용할 만한 사람이면 자기가 빌려 준 액수에 대해 자카를 지불해야 한다. 그 역시 확실한 자기 재산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어느 경우에도 기억해야 할 것은 자카는 차감 순잔액에 대해서만 지불한다는 점이나 개인비용, 가족 용동, 필요 경비, 이행기채무(履行期債務)를 먼저 모두 지급하고 나서 자카는 차감순잔액에 대해서만 따진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2.5%라는 비율은 최소한도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긴급사태가 발생하거나 구호의 필요가 생기는 경우에는 자카율에 한계가 없

다. 많이 베풀수록 당사자 모두에게 그만큼 더 좋다. 자카의 배분은 수많은 기금 모금운동이 전개되는 제반 목적에 이바지한다. 자카 기금은 다른 모든 기금을 대신한다. 믿을만한 보고에 의하면, 이슬람통치의 역사상, 자카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시대가 있었다고 한다. 대 이슬람 제국의 신민-무슬림, 기독교인, 유태인-모두가 자신의 필요를 만족시킬 수 있을 만큼 가진 게 충분하였으며, 통치자는 거두어들인 자카를 국고에 보관해 두어야 했다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자카의 법이 올바르게 시행되면 가난하거나 불쌍한 사람이 하나도 없고, 막대한 잉여액마저 생길 정도로 국민에게는 부족한 것이 극소화되고 국고는 넉넉해진다.

공익의 실현을 위한 이러한 효과적인 수단이 발휘하는 끊임없는 힘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친히 내리신 명ियो, 법이라는 사실에서 연원한다. 그것은 사사로운 문제나 자발적인 기부가 아니라, 오히려 당사자가 하나님께 직접 책임을 지고 이행해야 하는 의무인 것이다. 자카는 일반적인 관심 속에 시행되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법이기 때문에 무슬림은 누구라도 이것을 등한시할 수 없다.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관계 당국이 민중을 대신하여 나서서 이 제도를 확립시키고 그것이 시행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자카의 정당한 수혜자들

성 꾸란은 자카의 정당한 수혜자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불쌍한 무슬림,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해 :
 2. 가난한 무슬림, 생활비를 스스로 벌 수 있도록 자금을 마련해 주기 위해 :
 3. 새로 개종한 무슬림, 정착해서 생소한 필요에 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
 4. 무슬림 전쟁포로, 몸값을 치르고 해방시켜 주기 위해 :
 5. 빛진 무슬림, 급한 사정 때문에 진 빛에서 구해 주기 위해 :
 6. 무슬림 통치자가 자카 징수를 위해 임명한 무슬림 고용인, 급료를 지불하기 위해 :
 7. 이슬람을 연구하거나 전파함으로써 하나님의 대의에 봉사하는 무슬림. 이들에 대한 묵은 비용을 총당하고 봉사를 계속해 나갈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
 8. 외국 땅에서 궁지에 빠져 도움을 필요로 하는 무슬림 여행자.
- 자카의 정당한 수혜자는 연말에 무일푼이거나 가진 게 거의 없어서 (15달러

이하)자신의 필요에 응할 수 없는 사람이다. 가진 게 대략 15달라 이상 되면 자카의 수혜자가 아니라 기부자가 되어야 한다. 수혜자는 자기 몫을 받아서 시급한 필요에 충당하고도 15달라 정도 남는다는 것을 알면 더 이상 받아서는 안 된다. 받는 대로 자격 있는 다른 수혜자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자카는 전술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직접 분배할 수도 있고, 이들을 돌보는 복지 단체에 분배할 수도 있다. 총망하고 유망한 무슬림 학생이나 연구자들에게 장학금 형식으로 분배해 줄 수도 있고, 복지 단체나 이런 대의 명분을 후원하는 공공단체에 보조금의 형식으로 분배해 줄 수도 있다.

무능력하거나 병약한 불쌍한 무슬림이 능력 있고 다만 얼마라도 벌 수 있는 무슬림보다 더 적격이다. 기부자는 최선의 판단으로 가장 합당한 수혜자를 찾아내야 한다.

우리가 오늘날 국가에 바치는 세금은 이 종교세를 대체하지 않는다. 이 종교세는 특별한 의무로써, 국가세금 이외의 별도로 계산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북미의 무슬림의 경우, 자선에 대해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세법을 이용할 수 있다. 먼저 자카를 합당한 수혜자에게 지불하고 나서 지불한 금액을 정당한 법적 공제액으로 청구해야 한다.

기부자는 이 의무를 이행했다고 해서 자만하거나 남의 이목을 끌려고 해서 안 된다. 의무이행은 가급적 은밀하게 해야 한다. 선행을 전부 무효화시키는 위선이나 허영심의 제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이름을 밝히거나 기부했다는 것을 알리면 다른 사람들에게 격려와 자극이 될 경우 그렇게 해도 좋다.

농축산물도 자카 의무의 대상이다. 자카로 지불해야 할 몫은 경우에 따라 다르며 자세한 논의를 요한다. 그러므로 독자는 법과 종교를 다룬 자세한 자료를 참조하기 바란다.

순례(하즈)

이슬람의 마지막 지주이자 가장 훌륭한 제도의 하나는 하즈 혹은 메카 순례다. 적어도 평생에 한 번 하즈를 하는 것은 남녀를 불문하고 정신적, 재정적, 신체적 능력을 갖춘 무슬림 모두의 의무다. 책임을 질 수 있는 연령에 달해 있고 건강이 상당히 양호하며 재정적으로 능력이 있고 안전한 무슬림은 적어도 평생에 한 번 하즈를 해야 한다. 여기서 재정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은 하즈의 여정이 끝날 때까지 자기 자신과 자기에게 딸린 사람들의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빚을 진 경우에는 빚을 갚을 수 있을 만큼 가진 게 충분해야 한다는 뜻이다.

하즈 여정은 또 하나의 이슬람 고유의 특징이다. 그것은 여러 목적에 이바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 그 목적들 가운데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서로를 알고 공통의 문제를 연구하며 자신들의 전체적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무슬림들이 만나는 연례 최대의 신앙집회다. 또한 인류 역사에 등장한 최대의 정기 평화회이다. 핫즈 여정에서는 평화가 으뜸가는 주제다. 하나님과 자신의 영혼과 평화를 이루어야 하며, 무슬림 상호간과 동물과 평화를 이루어야 하고 새와 심지어 곤충과도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 타인이나 형태를 불문하고 다른 생물의 평화를 방해하는 것은 엄금이다.

2. 이슬람의 보편성과 무슬림의 형제애와 평등을 건전하게 현현한다. 사회의 각계각층, 지구의 구석구석으로부터 무슬림은 하나님의 부름에 응하여 메카로 모인다. 무슬림들은 똑같이 간편하게 옷을 입고, 같은 규정을 지키며 같은 시간에 같은 식으로 같은 목적을 위해 같은 기원을 드린다. 왕이 따로 없다. 하나님에 대한 모두의 충성이 있을 뿐이다. 귀족이 따로 없다. 겸손과 헌신이 있을 뿐이다.

3. 무슬림의 하나님에 대한 서약과 물질적 이익을 버리고 하나님께 봉사하겠다는 각오를 (더욱)굳게 한다.

4. 순례자들에게 예언자 무함만의 영적, 역사적 환경을 숙지시켜, 뜨거운 감화를 받게 하고 신앙심을 강화시킨다.

5. 아브라함과 이쉬마엘(이브라힘과 이스라엘)이 행한 신성한 의식을 기념한다. 아브라함과 이쉬마엘은 지상 최초의 하나님의 성전 곧 메카(막카)의 카바를 최초로 순례하였다고 한다.

6. 심판날의 대회를 상기시킨다. 이 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게 서서 자신들의 마지막 운명을 기다리게 될 것이다. 인종이나 혈통의 우수성을 주장할 수 없는 날이 이 날이다. 또한 아브라함 시대부터 일신교의 중심지였고, 마지막 때까지 변함없이 순수한 일신교인 이슬람의 중심지로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오직 메카만이 현세계에서 하나님에 의해 성역화되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핫즈를 하다 보면, 그것이 영적으로 풍요케 하고 도덕적으로 재무장하는 여정, 열렬하게 헌신하고 수련의 체험을 하는 여정, 인도주의적 관심과 고무적인 지식의 여정-이 모든 것이 이슬람의 하나의 제도 속에서 종합된다.-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핫즈 기간 중에 따라야 하는 규칙과 단계를 설명하자면 얘기가 길어진다. 여기서 논하지는 않겠다.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독자는 이 문제를 상세하게 다룬 저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그러나 핫즈 여정 전체에 걸쳐 항상 박식한 안내자들이 있어서 순례자들은 이들로부터 올바른 지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해 둔다.

또 하나 지적해 둘 것은 헌신의 전 여정은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무슬림들이 메카에 가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이지, 돌에 입을 맞추거나, 어떤 인간, 혹은 반신 인간을 숭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카바의 흑석에 입을 맞추거나, 그것을 만지는 것은 임의적 행동이지 의무나 명령이 아니다. 흑석을 신앙하거나 거기에 어떤 미신적 속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입을 맞추거나 만지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신앙의 대상이다. 카바를 개축할 당시, 카바의 기초에 흑석을 놓았던 예언자 무함만에 대한 존경의 증거로서 또한 그분에 대한 사랑의 상징으로서만, 흑석에 입을 맞추고 그것을 만지고 가리키고 하는 것일 뿐이다. 이 사건은 특별한 의의를 갖는다. 이 사건에서 무함만은 중재자로 지명된 사람으로 나온다. 이슬람이 도래하기 수년 전, 카바를 개축하고 있을 당시, 흑석을 그 기초 위에 놓게 되었다. 그런데 누가 흑석을 제자리에 갖다 놓는 영광을 차지하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부족의 족장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났다. 문제는 매우 심각하였고, 성역에는 내란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웠다. 흑석은 돌 한 덩어리에 불과했지만 족장들은 이것을 극진하게 숭상하였다. 이 흑석이 아마 고대에 건축한 대사원의 유물로써 유일하게 남아 있는 돌일 것이라는 사실 때문에 이렇게 존중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런 돌은 이슬람과 무슬림에 관한 전혀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는 것이다.

족장들은 자기들 사이에 일어난 논쟁을 해결할 수 없게 되자, 맨 처음 온 사람에게 그 논쟁의 해결을 맡기기로 합의했다. 무함만이 바로 맨 처음 온 사람이었다. 그래서 무함만은 천 조각에 그 흑석을 싸기로 결정하고 논쟁자들에게 그것을 함께 들어서 제자리에 갖다 놓으라고 말했다. 이렇게 하면 각 족장마다, 그 작업에서 한 몫을 하게 되는 셈이다. 이들은 무함만의 현명한 결정을 흡족히 여겨 즉시 그대로 실행하였다. 이것이 흑석의 이야기에 내포된 교훈이다. 그러므로 순례자들이 흑석에 입을 맞추거나 손으로 그것을 가리키는 것은 경의의 표시로서 현명한 중재자인 무함만을 기념하는 행위인 것이다. 비교하면 이점이 더 뚜렷해진다. 망명했다 귀국하는 애국자나 싸움터에서 귀환하는 군인이 자기가 사랑하는 조국의 국경선에 당도하자마자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예를 들어 국경선의 땅에다 입을 맞추거나 맨 처음 만나는 동포 몇 사람을 감정이 북받쳐 포옹하거나 경계표를 보고 감탄하는 등의 행동을 하게 된다. 이것은 정상적이고 수긍이 가는 행동으로 본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애국자나 군인이 땅을 숭배하거나 자기 동포를 신격화하거나 경계표에 신적인 속성이 있음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순례자들의 행동도 이와 마찬가지로 해석해야 한다. 메카의 카바는 이슬람의 영적 중심지이며 모든 무슬림의 영적 조국이다. 순례자가 메카에 당도하면 망명했다 귀국하는 애국자나 결정적 전투를 치르고 개선하는 군인과

같은 기분이 들것이다. 이것은 비유적인 해석이 아니다. 역사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 초기의 무슬림들은 현존하는 하나님의 지성소인 카바에서 숭배할 권리를 거부당했다. 망명에서 돌아온 이들의 주 목적지는 카바였다. 기쁨에 넘쳐 성전에 들어간 이들은 거기에 있는 우상과 형상들을 모두 파괴하고 나서 순례의 의식을 끝마쳤다.

특별한 사람들이 겪은 유별난 체험을 보면 이런 해석이 분명해진다. 예를 들면 유명한 헝가리인 작가 한 사람이 자기 나라가 침략 당하자 흠 한 줌을 가지고 피나하였다. 문학 년보에 의하면 이 작가는 그 한 줌의 흠에서 가장 큰 위안과 가장 깊은 즐거움을 얻었다고 한다. 그것은 이 작가에게 있어 격려의 원천이었고 언젠가는 자유조국으로 돌아가게 되리라는 희망의 상징이었다.) 저자는 50년대에 이 기사를 읽었는데 매우 유감스럽게도 그 정확한 출처를 찾을 수도 없고, 그 작가의 이름도 생각나지 않는다.

이와 비슷한 예로서, 팔레스타인 사람들 이라는 기록 영화 한편이 CBS에 의해 제작되어 1974년 6월 15일에 방영되었다. 이 영화에서 팔레스타인의 시온주의자의 테러를 피하여 망명한 부유한 사업가 한 사람이 베이루트에 있는 현대식 자택에서 인터뷰에 응했다. 망명생활을 하면서도 자기재산이 상당하다는 생각이 들자, 그는 미소를 띠며 흠이 반쯤 찬 조그만 병을 가리켰다. 피난 올 때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것인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그 흠이 가장 소중한며, 자기의 조국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가진 재산을 모두

포기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인터뷰에서 더욱 인상깊었던 것은 이 사람의 가족이 더 흥분해서 열을 올렸다는 점이다. 이 사람이 비슷한 처지의 많은 사람들을 대표한다고 해서, 또 그 적은 보물의 흠 이 앞으로 몇 년이고 아주 특별하고도 신성하기까지한 물건이 된다고 해서 전혀 놀랄 일이 아닌 것이다.

1973년 10월 14일 자로 낸 (미)연합통신사의 보도는 이보다 더욱 실감난다. 다음은 그 보도 내용이다. : 수에즈운하의 동쪽 독에 있는 이스라엘군의 마지막 거점이 항복해 왔다. ...지치고 흠투성이가 된 이스라엘군 포로 37명이 작은 배에 실려 수용을 위해 건너편으로 호송되었다. ...이집트군 몇 명이 마침내 이 마지막 거점(바르-레브 전선)을 해방시켰다는 감격을 가누지 못하여 모래 한 줌을 움켜쥐더니 입에 집어넣었다. 땅에다 입을 맞추는 자들도 있었다. (Dispatch observer 지 2A면)

더욱 최근에 동통신사는 시리아군 전쟁포로의 귀환을 보도하는 가운데 이같이 밝혔다. 맨 처음 두 다리가 절단된 사람이 앉은 채로 들것에 비행기 밖으로 나왔다...두 다리는 아무 것도 아니다. 우리의 영혼이라도 기꺼이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고 그는 외쳤다. 그러더니 들것에서 땅으로 내려 달라

고 즐겼다. 몸을 굽혀 땅에다 입을 맞추겠다는 것이었다. (Dispatch observer지 1974.6.23A면)

이런 인간적 견지에서 흑석에 얽힌 이야기를 보아야 한다. 또 비상한 상황 아래서 겪은 이러한 인간의 체험에 비추어 그것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

결 어

메디나(마디-나)에 있는 무함만의 묘를 반드시 의무적으로 방문해야만 핫즈가 유효하게 완결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예언자의 무덤을 찾아서 인류에게 있어 최대의 스승인 그분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은 메디나에 오는 사람 누구에게나 항상 권할만한 일이며 또 그것이 강권되는 바이기도 한다.

기억해 둘 것은 하나님을 위한 제물인 희생을 바치고, 이 헌신의 여정의 완료를 축하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먹여 만인이 누리는 이-드일의 기쁨을 함께 나누게 함으로써 핫즈는 그 절정에 달한다는 사실이다. 순례자들에게만 이런 의무가 지워진 건 아니다. 세계 곳곳에 있는 재산을 가진 무슬림 모두에게 지워진 의무인 것이다.

일부 무슬림 가운데서 핫즈 철에 희생으로 도살되는 동물이 너무 많아서 막대한 양의 고기가 낭비된다는 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되어 왔다. 날씨는 무더운데 냉동시설은 없고 운송 수단은 부족한데다가 며칠만에 고기가 과잉 공급되니까 대부분의 고기가 그대로 방치되거나 못쓰게 되어 버린다. 이것은 새로운 상황에서 야기되는 새로운 문젯거리다. 양심적인 무슬림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알고 싶어한다.

고급의 권위 있는 종교학자들의 학문적 견해를 놓고 법적으로 따져가며 토론을 벌일 필요까지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슬람은 종류나 정도 여하를 막론하고 낭비를 허용하지 않으며 보다 시급한 필요에 먼저 응하고 나쁜 것은 보다 덜한 쪽을 택하며, 가장 중요한 것으로부터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것에 이르기까지 또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부터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것에 이르기까지 우선 순위의 체계에 맞춰 운용되며, 기력이 풍부한 동시에 적응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에서 입각하면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다. 그 해결책은 문자적인 해석에서 다소 벗어나 보일지는 모르지만, 이슬람의 정신으로부터 나온다. 여러 단계와 수준에서 이 해결책을 적용할 수 있다.

첫째, 무슬림은 최선을 다해 남은 고기를 저장할 수 있는 냉동시설을 확보하여 성역과 그 인근의 가난한 사람들이 일년 내내 그 고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도처에 있는 가난한 무슬림들에게 남은 고기를 운반해 주는데 노력해

야 한다. 희생동물을 메카에서 잡아서 그 고기를 통조림으로 만들거나 냉동시킨 다음 세계 각지의 가난한 무슬림들에게 운반할 수도 있다.

셋째, 남은 고기를 팔아서, 거기서 생긴 돈을 지역적, 지방적, 국가적, 국제적 규모의 자선에 사용할 수도 있다. 무슬림들은 합심해서 이런 조처를 실천에 옮겨야 한다. 이런 조처가 취해질 때까지 그럭저럭하는 사이에 남은 고기가 낭비되어 버릴 것이라고 생각되면 희생을 바치는 날짜를 연기하거나 앞당겨도 된다. 적절한 시기와 장소를 택해서 낭비를 피할 수 있다. 혹은 핫즈 기간 중 메카에서 희생하게 되어 있는 동물의 값에 해당하는 돈을 합법적 명분을 위해 자선 형식으로 지불할 수도 있을 것이다.) 위대한 이مام이었던 고(故) 마흐문 샬투트가 자신의 저서 알-파따와(카이로 : 알-아즈하르대학 출판부, 1959)152-160면에서 매우 학문적인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저자는 삼가 그 내용 중 일부와 의견을 달리한다. 그러나 저자의 견해만이 올바른 이슬람의 입장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렇게 말할 수는 있다. 사회생활과 관련되는 한도 내에서 핫즈라는 제도는 무아마라트(인간사(人間事))이라고 하는 샤리아(이슬람법)의 분야에 속하는 것이다. 이 분야의 법은 핫즈 제도가 소속돼 있다고 흔히 믿는 이바다뜨(숭배 와 의식의 문제)의 분야를 보완한다. 그러나 두 분야는 불가분의 것인 바, 아주 깊은 의미에서 핫즈는 음식과 돈과 노력이 너무 낭비된다는 현실적 문제를 감안하여 이슬람의 정신과 조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희생 규정을 재해석하고, 적당한 수준에서 온건성, 합리성, 현실성을 보지 해야 한다. 그러므로 저자는 이와 같이 해석을 내리는 바이다. 이런 해석이 하나님께 가납되고 동료 무슬림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마지막으로 희생의 문제와 그것이 실제 상징하는 바에 대해 한 마디 하겠다. 앞서 이-드를 논하는 가운데 지적했듯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고기나 피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며, 그 분에 대한 신앙과 예언자 아브라함(이브라힘)에게 자기 아들을 희생으로 바치라는 명령이 내려진 그 역사적 사건의 확인이다. 아버지와 아들이 기꺼이 이 명령에 복종할 각오가 서 있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아들의 생명은 보존되었고 양 한 마리가 대신 희생되었다. 희생을 바치는 것은 이 때를 기념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 일 년에 한 번 거행하는 축전이 되었다.

무슬림들은 하나님의 명에 응하여 희생으로 바쳐지게 되어 있었던 것은 이삭(이샤끄)이 아니라 이스마엘(이스마일)이었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스마엘과 그의 아버지가 기꺼이 복종할 각오를 보이자 그는 대속되었다. 이러한 신념을 뒷받침하는 논거가 적어도 스무 가지는 된다. 그러나 이러한 논거 중 어느 하나도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적 역할이나 예언자 모세가 이들에게 전한

빛과 지혜를 흠 잡으려는 의도는 없다. 오히려 꾸란도 그러한 점을 아주 여러 곳에서 지적하고 있는 터이다.(예: 꾸란, 2:40,47, 7:137, 17:2, 40:53, 45:16)

이들 논거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1. 꾸란(37:101-103)에 기록된 사건전체의 경위로 보아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명에 응하여 아버지가 희생으로 바치려 했던 아들임에 틀림이 없다.
2. 지금 있는 구약성서(창세기 21:5)에 의하면 이삭은 아버지가 100세일 때 태어난 반면 이스마엘은 아버지가 86세일 때 태어났다.(창세기 21:16) 그렇다면 14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스마엘이 아버지의 유일한 아들이었던 셈이나 하시(何時)라도 이삭이 같은 위치에 있었던 적은 없다. 그러나 구약성서(창세기 22:2)에 의하면 이제 너의 아들 곧 너의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데리고...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 너의 아들을 번제(燔祭)로 바치라 는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내려졌다. 이 문맥 가운데 나오는 이삭이라는 이름은 분명히 삽입되었을 것이다. 또 모리아 땅이 이슬람의 해석을 뒷받침하는 메카의 마르와 산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정확한 위치가 분명치 않게 된다.
3. 사건 전체가 일어난 곳은 메카 근방이었다. 그리고 주지하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을 따라 메카로 가서 거기에 정착하여 아브라함을 도와 카바 신전을 세운 것은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였다.(꾸란, 2:124-130, 14:35-40)
4. 아마 다음이 이슬람의 신념을 저지하는 가장 중요한 논거일 것이다 : 유태-기독교식 해석에 의하면 다음 같이 심히 부당한 결론에 봉착하게 된다.
 - (ㄱ) 한 사람의 어머니는 종이고 다른 사람의 어머니는 자유인이라는 이유. 형제들 사이에 차별을 두는 것.
 - (ㄴ) 인종이나 교의 혹은 피부색을 이유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
 - (ㄷ) 자기 조상의 이름으로 영적 우월성을 주장하는 것.
 - (ㄹ) 어머니가 종인 자식은 정계(正系)로 인정하지 않는 것.

이런 추정과 결론은 모두 이슬람의 정신에 어긋난다. 무슬림은 이런 추정과 결론으로 유도하는 것은 다 배격해야 한다. 자기 조상의 지위, 어머니의 고귀함과 비천함 그리고 사회적 출신과 피부색의 차이는 사람의 영적, 인간적 자질과 하등 관계가 없다. 적어도 하나님에 보시기에는 그렇다.) 여기에 언급한 것 이외에 다음 서적을 참고할 것. 유숴알리, 성꾸란, 원문번역과 주석 (1946) p. p. 1204-1206: Ibn Qayyim al-jawazayh, Zad al-Ma' ad...(베이루트판, n. d)1권 p. p15-17.

제 4장 이슬람의 일상 생활에서의 적용

이슬람은 그저 명목상 숭상하기 위해서 생각해 낸 추상적 이상이나 한 곳에서 꿈쩍 못하고, 이따금씩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숭배나 받는 우상이 아니라 는 무슬림의 주장은 타당하다. 이슬람은 생활 규범이며, 인간 생활의 곳곳에서 살아 움직이는 힘이다. 무슬림이 내세우는 또 한 가지 주장은 개인이 인력의 중심이며 이슬람이나 이에 상당하는 다른 제도를 완전히 가동시킬 수 있는 시동기라는 것이다. 이슬람이 항상 개인에게서 시작되고 양보다 질을 우선하는 것은 이런 까닭에서다.

이슬람이 시작되는 곳인, 개인부터 시작하자. 개인의 본성을 고찰하고 이슬람이 이러한 본성을 어떻게 보는 지를 알아보자. 철학적 논쟁이나 추상적 논의에 빠져들지 않고 가급적 명료를 기하기 위해, 아주 긴밀하게 서로 관련되고, 끊임없이 상호 작용하는 두 가지 상보적 본성이 있다고 규정한다. 이 두 가지 본성은 내면성과 외면성이다. 혹은 두 부분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실상은 한 가지 본성만 있다고 할 수도 있다. 하나는 내면적이고, 다른 하나는 외면적이다. 인간의 내면성이란 루흐(영혼이나 자아 혹은 마음)와 아끌(지성이나 추리력 혹은 지능)을 가리킨다.

인간의 내면성을 설명하자면, 다음의 두 가지 측면을 다루어야 할 것이다. (1)영적□윤리적 측면과 (2)지적 측면, 나머지 인간의 활동과 거래는 외면성으로 갈라야 할 것이다. 결국 인간이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보편적으로 인정된 사실이다.

내면성

1. 영적 생활

이슬람은 경건과 정의□안전과 평화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온갖 영적 자양을 인간에게 공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간의 영적□윤리적 생활을 조직한다. 이슬람의 영적 생활 규정에 충실히 따르면 인간의 영적 성장과 성숙에 관한 한 최대한의 긍정적인 결과가 부여된다. 이러한 이슬람의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예배(쌀라)
2. 자카 혹은 자선, 기부
3. 단식(싸움)
4. 순례(햏즈)
5.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진리와 인류를 사랑

할 것.

6. 항상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것.

7. 비 이기심을 발휘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할 것.

이들 내력의 여러 측면은 상당히 자세하게 논했으므로 여기서는 다만 이슬람에 관한 한 이런 기본적 요소 없이 진정한 신앙이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부연 하는데 그치기로 한다. 독자는 본서의 앞부분을 참조하기 바란다.

2. 지적 생활

인간의 지적 본성은 전술한 바와 같이 지성이나 지능 혹은 추리력으로 이루어진다. 이슬람은 이러한 측면에 각별히 유의하여 인간의 지적 구조물을 아주 튼튼한 기초 위에 세운다. 이러한 기초를 다음과 같이 분류해 볼 수 있다 :

1. “경험”이나 실험 혹은 양자에 의해 획득한, 명백한 증거나 논의의 여지가 없는 근거에 바탕을 둔 정확한 지식□이점에 관하여, 꾸란이 실험과 명상과 관찰은 물론 “경험”을 통하여 지식을 열심히 탐구하라고 명한 최초의 전거(典據)라고 해도 과언이 아님은 물론이다. 가장 넓은 의미에 있어서의 지식을 추구하고 진리를 탐구하라는 것은 남녀를 불문하고 무슬림 모두에게 과해진 하나의 명령이다. 자연과 온 세계는 지식과 진리를 끊임없이 계시하는 공개된 보물이며, 꾸란은 이러한 지식의 풍부한 원천을 지적한 최초의 책이었다. 꾸란은 전래의 “진리”라든가 증거나 근거에 의해 실증하지 않고 주장하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는다. 저자가 지금까지 아는 한 꾸란이 다음과 같이 지적으로 말한 최초의 경전이었다. “이유가 뭐냐” 확신이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대 보라(꾸란, 2:111과 21:24).

꾸란 자체가 특출한 지적 도전이다. 꾸란은 그 속의 진리와 다투거나 자신을 모방해 보라고 인간의 지능에 도전한다. 꾸란의 아무 장이나 펼쳐 보라. 자연이라는 무한한 원천을 통하여 지식을 탐구하라는 가장 열렬한 호소가 그 속에 있을 것이다. 이슬람은 정확한 지식에의 헌신을 가장 보상이 풍부하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에의 헌신으로 간주한다.

2. 두 번째 지적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지식의 끊임없는 계시원천이며, 사과의 무한한 장(場)을 파고드는 영적인 통찰이다. 이슬람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종교라는 건물 전체의 초석이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유효케 하기 위해서, 이슬람은 그 신앙을 부동의 확신과 신념 위에 구축하라고 요구한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지성의 적절한 투자 없이는 불가능하다. 침체하고 무관심한 정신, 보잘 것 없는 상상력 으로서는 애당초 지고한 진리-하나님-의 정상에 도달할 수 없거니와 신앙의

정말 깊은 곳에 이를 수도 없다.

이슬람은 맹목적으로 모방하여 아무런 의심 없이 무조건 받아들인 신앙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사실은 인간의 지적 생활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이슬람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요구하며 꾸란도 아주 여러 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요구하는 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말은 서재에서 혹은 마음속에서 뒷전으로 밀려나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게 아니다. 지성에 대해서 깨어 생각하며, 숙고하고 명상하라는 열렬한 권유와 절실한 호소를 한다는데 이러한 말의 의의가 있는 것이다. 꾸란이 하나님에 대한 필수적 진리와 제 사실을 보여 준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사람이 스스로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빈둥거리는 상속자처럼 행동하는 것은 꾸란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는 점 역시 마찬가지로 사실이다. 꾸란은 사람이 진지하게 노력하고 정직하게 벌어서 지적인 재산을 풍부하게 하여 지적으로 든든해지기를 바란다.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없어지는 법”이어서 이슬람은 쉽게 없어지게 마련인 쉽게 얻은 신앙을 부정한다. 이슬람이 바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효과적이고 영속적이며, 사람의 마음을 속속들이 비추고, 생활 곳곳에서 드러나는 신앙인 것이다. 쉽게 얻은 신앙으로서는 전혀 그것이 불가능하며, 이슬람은 이보다 못한 것은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슬람은 지식과 연구에 바탕을 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요구하는 동시에 지성 앞에, 그것이 도달할 수 있는 데까지 침투해 볼 수 있도록 온갖 드넓은 사고의 장(場)을 활짝 펼쳐 놓는다. 이슬람은 지식을 추구하여 시야를 확장하고 정신을 폭넓게 하려는 자유 사상가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도 가하지 않는다. 순전히 이론적인 것이든, 혹은 실험적인 것이든 가리지 말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여 지식을 추구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슬람이 이렇듯 지성을 요청하는 것은 인간의 지적 능력을 존중하고 그것을 신뢰함을 나타내는 것이며, 답답한 속박과 유형성의 한계로부터 인간의 정신을 해방시키려는 희망을 표현하는 것이다. 인간을 향상시키고 정신의 범위를 온갖 사고의 장-물리적□형이상학적□과학적□철학적□조직적 기타 등등-으로 확장시키는 것이 이슬람이 바라는 바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지력(智力)에 자양을 주는 한편, 지적 생활은 풍요해지고 생산적이 되는 것이다. 인간의 영적□지적 활동이 전술한 이슬람의 가르침에 따라 조직될 때, 인간의 내면성은 건전하고 튼튼하게 된다. 그리고 인간이 내면적으로 건전하고 튼튼해질 때, 외면성 역시 건전하고 튼튼해질 것이다.

외면성

인간의 외면성 역시 내면성만큼이나 복잡□미묘하고 광범위하다. 전자의 건전성이 후자의 건전성에 의존하는 바 크며, 전자의 건전성 역시 후자의 건전

성에 의존하는 바 크다는 사실을 재삼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인간의 완전한 본성은 양측 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명료를 기하기 위해, 인간의 외면성을 또 다시 상위와 하위로 구분한다. 그러나 항상 명심해 두어야 할 것은 인간성의 체계가 균형을 잃으면, 파괴적이고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실인즉 인간의 내면성과 외면성은 상호작용□반작용하는 것이며, 이슬람은 생활의 내면과 외면으로 그 거룩한 손길을 뻗어 왔던 것이다.

1. 사생활

이슬람은 개인의 순수성과 청결성을 보장하고, 건강에 좋은 음식물을 섭취하게 하는 한편 예외에 맞는 복장□품행□몸치장□스포츠 등으로 이끌 수 있는 방향으로 인간의 사생활을 다룬다.

1. 순수성과 청결성

무슬림은 앞서한 세정이 유효한 상태에 있지 않는 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세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이슬람의 명령이다. 이러한 의무적 세정은 상태에 따라 일부 세정이 될 수도 있고 전부 세정이 될 수도 있다. 이제 무슬림이 순수한 마음과 정신으로 깨끗한 몸에 깨끗한 옷을 입고, 순수한 동기와 의향을 가지고 매일 적어도 하루에 다섯 번 의무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러한 한 가지 행위가 인간에게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유익한 결과를 금방 깨달을 수 있다.(비교, 꾸란, 4:43, 5:7)

2.음식물

순수한 마음과 건전한 정신을 유지하고, 열망하는 영혼과 깨끗하고 건강한 신체에 자양을 주기 위해서, 먹고사는 음식물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이슬람이 바로 이렇게 하고 있다. 먹고 마시는 것이 배를 규칙적으로 채우는 사람의 전체 상태에 아무런 직접적이고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일부 피상적이고, 자기를 속이는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생각이다. 이것은 확실히 이슬람의 견해가 아니다. 이슬람은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본다. 이 점에 대한 이슬람의 일반 원칙은 다음과 같다 : 깨끗하고 사람에게 좋은 것은 적당하게 섭취하는 한 모두 음식으로서 적법하다. 그리고 불결하고 해로운 것을 정상적인 상황 아래에서 섭취하는 것은 모두 위법이다. 항상 예외를 허용하는 여유와 융통성으로써 절대적인 필요에 대처한다.(꾸란, 7:157, 전기 이슬람의 윤리참조)

이러한 일반 원칙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금기로 지정하신 음식과 음료가 있다 : 이것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죽은 짐승이나 새의 고기, 돼지고기, 하나님 이외의 다른 이름을 빌어 도살한 것의 고기(꾸란, 2:173, 5:4), 이슬람이 인간의 정신이나 도덕, 체격과 사기에 유해하다고 여기는 음료가, 취하게 하는 것과 도박이나 내기를 전부 금지한 꾸란의 구절 속에 포함되어 있다.(꾸란, 5:93-94)

이러한 음식과 음료를 금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마음 내키는 대로 하신 행위가 아니며, 또 하나님께서 독단적으로 내린 명령도 아니다. 이러한 금지는 최우선적으로 바로 인간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간섭이다. 꾸란이 이렇게 금지된 것들을 나쁘고 불결하고 해롭다고 말하는 것은 곧 인간의 도덕성과 지혜, 건강과 재산, 경건과 공유행위-이 모든 것을 이슬람에서는 아주 귀중한 재산이라고 본다.-를 빈틈없이 감시하고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러한 간섭 배후에는 많은 이유가 숨어 있다. 이들 이유는 지적□영적□윤리적□정신적□경제적 성격을 띤다. 그리고 그 목적은 오직 인간에게 올바른 생활을 통한 자기 향상의 방법을 보여 가족의, 나아가 사회의, 궁극적으로는 인류 전체의 건강한 구성 단위가 되게 하려는 데 있다. 믿을 만한 의사나 사회 과학자는 이제 틀림없이 이러한 이슬람의 법령이 이롭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슬람은 인간의 영적 건전성과 지적 성숙에 대한 큼이나 사람이 먹는 음식물의 질에 대하여도 정통적이고 비타협적인 입장을 취한다. 이 점은 어떤 음식물은 전술한 바와 같이 종류에 있어서 금지되고 또 어떤 음식물은 정도에 있어서 금지된다는 사실로 밝혀졌다. 무슬림에게 적법한 것이라도 적당량을 섭취해야 한다. 거기에 탐닉해서도 안 되고 도에 지나쳐도 안 된다.(꾸란, 7:31) 종류나 정도에 있어서 금지된 모든 것을 피한 연후에야 무슬림은 하나님께 초대되어 그 분의 은혜가 깃든 양식을 즐기고, 자비로운 부양자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느껴보게 된다.(꾸란, 2:168,172, 5:90-91)¹⁾

3.복장과 몸치장

남자의 복장과 몸치장에 있어서 이슬람은 품위, 겸손, 정숙, 남자다움이라는 원칙들을 신중하게 고려한다. 이슬람은 이러한 자질의 달성, 유지, 향상에 반하는 복장과 몸치장을 금한다. 오만한 마음이나 터무니없는 자만심과 허영심을 자극하는 옷감과 옷차림새는 엄금이다. 남자의 도의심을 악화시키거나 남자다움을 해치는 몸치장 역시 엄금이다. 남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지정해 준 남자의 천성에 충실해야 하며, 자신의 성격을 나약하게 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것은 모두 멀리 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이슬람은 남자에게 비단 등의 옷감이나 금 등의 보석으로 몸치장을 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이런 것들

은 여자의 천성에만 어울린다. 남자의 멋진 보석을 소지하거나 비단 옷을 입고 으스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고결한 덕성과 매력 있는 그리고 건실한 품행에 있는 것이다.

이슬람이 남자에게 금지되고 여자의 천성에만 어울리는 것을 여자가 사용하도록 허락했다고 해서, 여자가 방정치 못하게 멋대로 행동하게 내버려두려는 것은 아니다. 여자의 천성에 어울리는 것을 허락하는 동시에, 그 천성을 남용하거나 망칠 우려가 있는 것을 삼가도록 주의시킨다. 여자가 옷을 입고, 아름답게 하고, 걷고, 쳐다볼 때 취해야 하는 방식은 아주 미묘한 문제인 바, 이슬람은 이 문제에 각별히 신경을 쓴다. 이슬람은 특히 여자가 자신의 존엄성과 순결성을 유지□향상시키고, 실없는 험담이나 악의에 찬 소문 그리고 의심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남자와 여자에게 다음과 같이 충고를 베풀어 오고 있다. 꾸란은 이렇게 충고한다. :

믿는 남자들에게 시선을 내리고 겸손을 지키라고 말할지니라. 그리하면 저희의 순수함이 더해지리라.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하는 모든 일을 익히 알고 계시느니라. 또 믿는 여자들에게 말하되, 시선을 내리고 겸손을 지키며, 저의 아름다움과 장식을 (평소에)보여야 하는 것 말고는 드러내지 말며, 너울을 가슴에 드리워, 저의 남편이나 아버지...(그리고 집안의 다른 식구들)앞이 아니라면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지 말며, 발을 굴러 눈에 안 띄는 장식에 주의를 끌려하지 말라고 할지니라(꾸란, 24:30-31)

이슬람은 옷차림새와 몸치장하는 방법에 매우 민감하다. 남자나 여자가 제각기 자신의 천성을 지켜 타고난 본능을 보호하고, 겸손과 고결한 덕성을 갖춰야 한다는 것을 이슬람은 아주 분명히 한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예언자 무함만은 여자처럼 행동하는 남자들과 남자처럼 행동하는 여자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은 무해하고 품위 있는 복장과 몸치장에 대해서는 아무 제한도 가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 사실, 꾸란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이라 일컫고 있으며 그것들을 금기로 여기는 자들을 꾸짖고 있다. (꾸란, 7:32-33)

4.스포츠와 오락

대부분의 이슬람의 숭배 형식, 예를 들어 예배□단식□순례가 근본적으로는 원래 영적 목적을 위해 생겨난 것이지만, 상당히 스포츠 적인 특성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고 나면 유쾌한 기분이 든다. 그런데 사람의 체격과 사기가 부단히 상호 작용한다는 것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이로써 스포츠와 오락에 대해 이슬람이 할 말을 다 한 건 아니다. 이슬람은 건전한 사색을 자극하거나 정신을 상쾌하게 하고 몸의 생기를 회복시켜 건강한 체형

을 유지케 하는 것은 무엇이나 권장한다. 또 그것이 범죄 행위를 내포하거나 그것을 부를 소지를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하며, 해를 초대하거나 다른 의무의 이행을 지체시키거나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이 점에 관한 일반적 교훈은 무함만의 언명이다. 무함만은 이 언명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모두는 선한 성격을 가지나, 강한 성격이 약한 성격보다 낫다고 말했다. 또한 전하는 바에 의하면 무함만은 체격을 강인하게 하고 사기를 돋우는 스포츠와 오락을 인정하였다.

스포츠답지도 오락답지도 않은 것을 스포츠와 오락에 관련시키는 잘못을 범하는 것은 유감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도박이나 음주를 스포츠와 오락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이슬람의 견해가 아니다. 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으며 분명한 목적을 위해 우리에게 부여된다.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자기 생을 남용하거나 전적으로 요행이나 단순한 우연에만 의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슬람이 그 거룩한 손길을 뺀채 극히 사사로운 데 까지 생활을 조직하는 것은 인권 침해가 아니다. 생명은 인간의 가장 소중한 재산이며, 고상한 목적들을 지향하도록 만들어 졌기에, 이슬람은 생을 올바르게 즐겁게 사는 방법을 인간에게 제시하여 왔다. 도박의 금지가 이런 관점에서 취해진 조처 가운데 하나다. 도박은 사실상 긴장을 풀어 주기는커녕 긴장을 촉진시킨다. 요행이나 단순한 우연에 생을 맡겨 버리는 것은 심각한 남용이다. 정신없이 돌아가는 도박 기구에 운을 걸거나 도박판의 예측을 불허하는 움직임에 자기 능력을 바치려는 것은 정상적인 생활로부터의 이탈이다. 이런 모든 불필요한 정신적 긴장과 신경 파탄을 미연에 방지하고, 목적은 물론 수단에서 자연스런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슬람은 형태와 종류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도박을 금지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벽에 빠지거나 알콜의 악성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것은 부끄러운 현실 도피인 동시에 인간 최고의 자질인 지성에 대한 무책임한 모욕이다. 술에 취해서 생기는 위험과 비극은 너무나 뻔해서 자세히 설명할 필요조차 없다. 매일 이로 인해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고 있으며, 이런 위험 때문에 많은 가정이 붕괴하고 있다. 술 마시는데 들어가는 돈만 해도 매년 수 십억 달러에 달한다. 음주 습관이 불러온 곤궁과 불행 때문에 결단나는 집안이 부지기수다. 게다가 건강은 파괴되고, 정신은 피폐해지며, 재산은 줄어들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진다. 인간 존엄성이 훼손되고 도의심이 없어지며 부끄럽게도 현실을 도피하게 된다. 소위 교제상 술을 마신다는 사람은 모두 알콜에 중독될 가능성이 높다. 이슬람은 이런 위협을 좌시하거나, 인간이 이렇게 비극적으로 자기 생의 의미를 남용하도록 방관할 수도 없다. 이런 이유로 해서, 이슬람은 도박과 음주를 훌륭한 스포츠와 기분을 전환시키는 오락에 관련시키지 않고 이들을 단호하게 금하였다. 뉴스매체를 조사하고 의학에

관한 기사를 읽어보거나 사회사업 기관을 방문하고 재판 절차를 지켜보기만 하면, 이 점에 있어서 이슬람의 견해가 옳다는 것은 알게 될 것이다. 모든 고민스러운 사회 문제 중에서 알콜 중독이 단연코 가장 심각하다. 매년 130만 이상의 미국인들이 알콜 중독자가 되고 있다. 어느 해에 열 내지 열 두 명이 처음으로 술을 마신다고 할 경우 그 중에 한 명은 앞으로 알콜 중독에 걸린다는 얘이다. 구태여 이론이나 거래 액을 들먹거리지 않더라도, 이러한 모든 고통스런 비극과 당면한 손실이 현실을 더 잘 대변하는 터이다.

2. 가정 생활²⁾

가족에 대해서는 많은 정의와 기술이 나와 있다. 편의상, 다음의 단순화된 정의를 택한다. 가족이란 그 성원들이 혈연이나 혼인 관계를 유대로 하여 결속된 인간의 사회 집단이다.

가족의 유대는 종교에 의해 규정되고, 법에 의해 시행되며, 집단 성원에 의해 준수되는 권리와 의무에 대한 상호적 기대를 수반한다. 따라서 가족 성원들은 일정한 상호적 책임을 공유한다. 일체감□대비□상속□의논□연소자에 대한 애정□연로자의 안전□가족의 계속성을 보전하기 위한 노력의 극대화가 이러한 책임의 내용이다.

이로부터 분명히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슬람에서의 가족의 기초는 혈연이나 혼인의 서약 혹은 이 두 가지다. 입양, 상호결연, 예속자(家臣), 성교에서의 은밀한 동의, 그리고 “시험”(“commonlaw” or “trial”)은 이슬람적 의미에서 가족을 구성하지 않는다. 이슬람은 합리적 계속성과 진정한 안전 그리고 무르익은 친밀감을 제공할 수 있는 튼튼한 기초 위에 가족을 세운다. 가족의 기초는 진정한 상호성과 도덕적 만족감을 키워 줄 수 있을 정도로 확고하고 자연스러워야 한다. 이슬람은 혈연 관계가 가장 자연스러운 관계이며 도덕적 만족이 결합된 성교가 가장 건전한 성교임을 인정한다.

이슬람은 결혼의 종교적 미덕과 사회적 필요성과 도덕적 장점을 인정한다. 무슬림 개개인에게 있어 정상적인 행로는 가족을 지향하고, 자기 자신의 가족을 갖고자 하는 것이다. 혼인과 가족은 이슬람제도의 핵심이다. 꾸란의 많은 구절과 예언자가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을 정도다. 결혼한 무슬림은 그로써 자기 종교의 절반을 완성한 것인즉, 저는 하나님을 염원하며 나머지 절반에 유념할지니라.

결혼은 종교적 의무며 도덕적 안전 장치며, 사회적 약속이라는 것이 꾸란의 결혼관에 대해 무슬림 학자들이 내린 해석이다. 종교적 의무로써 그것은 이행되어야 하지만, 이슬람의 여타의 의무가 그렇듯이, 그것은 관련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에게만 과해진다.

1. 결혼의 의미

사람들이 결혼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관계없이, 이슬람은 결혼을 강한 유대(미싸꾼 갈라즈), 가장 완전한 의미에 있어서, 도전적인 서약이라고 본다. 그것은 삶 자체와 사회와 인류의 존엄하고 의미 있는 생존에 대한 서약인 동시에, 결혼 배우자들이 하나님과 서로에 대하여 한 서약이다. 결국 배우자들은 이런 서약 속에서 상호적 의무 이행과 자아 실현, 사랑과 평화, 동정과 평온, 위안과 희망을 확인한다. 이 모든 것은 이슬람에서의 결혼은 최우선적으로 의로운 행위, 신뢰할 수 있는 헌신의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성적 통제가 도덕적 승리, 생식이 사회적 요구 혹은 봉사, 건강이 만족스러운 정신 상태라고 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이러한 결혼의 제 가치와 목적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읽혀지고 또한 종교적 서약으로 여겨지며, 신선한 축복으로 내재화된다면, 그것들은 특별한 의의를 지니고 새롭게 강화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이슬람에서의 결혼의 초점이 아닌가 한다. 다음에 꾸란 구절 몇 개를 말을 바꿔 제시한다. 하나님께 충실하자.

-이는 인류에 대한 외침이다.

하나님은 한 영혼으로부터 인류를 창조하셨으며, 또 그 한 영혼으로부터 그 배우자를 창조하셨으며, 저들 둘로부터 많은 남녀를 널리 퍼뜨리셨음이라(꾸란, 4:1).

살아 있는 한 영혼으로부터 인류를 창조하시고, 그 영혼으로부터 한 배우자를 창조하시어 저가 그 여자에게서 위안과 안식을 찾게 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꾸란, 7:107)

하나님의 표징은 이것이니 곧, 당신께서 사람들로부터, 사람들을 위하여 배우자를 창조하시어, 저들이 함께 거하여, 평화와 평온을 찾게 하시어, 저들 사이에 사랑과 자비를 두신 것이다. 진실로 그 가운데 생각 깊은 자들을 위한 표징이 있느니라(꾸란, 30:21)

결혼 생활이 아무리 어려운 시련기에 부딪치더라도 또 법적 분쟁과 소송의 와중에서도 꾸란은 당사자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상기시킨다. 꾸란은 이들에게 서로 다정하게 대하고, 진심으로 서로를 용서해 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충실하라고 명한다.

이슬람의 결혼 규정이 남자와 여자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는 점이 주목된다. 예를 남자에게는 독신 생활을 권하지 않는다면, 여자에게도 그것을 권하지 않는다. 이것은 여자의 요구도 동등한 합법성을 가지며, 진지하게 고려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사실 이슬람은 결혼이 남자에게 있어서와 꼭 마

찬가지로 여자에게 있어서도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행로라고 간주한다. 아마 여자에게 더욱 그러할지도 모른다. 결혼은 무엇보다도, 여자에게 상대적이긴 하지만 경제적 안정을 보장해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자 쪽에 이처럼 무시할 수 없게 유리한 면이 따른다고 해서 결혼을 순전히 경제적 거래로 볼 수는 없다. 사실, 경제적 요인은 그것이 아무리 우세하더라도 이슬람이 중시하는 결혼의 측면 중 최하위를 차지한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예언자는 여자를 아내로 맞을 때, 통상 여자가 가진 재산□아름다움□혈통의 고귀성□종교적 품성을 보게 되지만 무엇보다도 경건을 앞세워 배우자를 고르는 자가 복 받은 행운아라고 말했다. 꾸란은 독신자들과 경건한 사람들에게 비록 가난하거나 노예 신세일지라도 결혼하라고 명한다.(꾸란, 24:30) 한편, 남자가 앞으로 아내가 될 여자에게 주는 결혼 예물은 무엇이나 다 여자의 소유가 된다. 여자가 결혼 전 후에 얻은 것은 모두 다 여자만의 소유다. 남편과 아내의 재산 공유는 “필요로 하지”않는다. 더구나 가족의 부양과 경제적 안정에 대해 책임이 있는 쪽은 남편이다. 심지어 남편은, 아내가 결혼 전에 남의 시중을 받았다면 결혼 후에도 그렇게 해 주어야 한다. 몇몇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아내에게는 매일 되풀이되는 집안 일에 매달려야 할 의무가 없다. 협동이나 절약 등의 이유로 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통상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말이다.

2. 결혼의 영속성

이슬람은 결혼을 매우 중대한 서약으로 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인력으로 결혼의 유대를 영속시키기 위해서 몇 가지 수단을 규정하였다. 결혼 당사자들은 다음의 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적절한 연령, 전체적인 조화, 분수에 맞는 결혼예물, 호의, 자유로운 동의, 헌신적 보호, 명예로운 결혼의식, 적절한 분별, 결혼계약을 맺을 때는 그 유대를 영속 시켜 일시적□임시적인 것이 되게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시험 결혼과 기한부 결혼 그리고 실험적이거나 일시적□임시적 성격을 띠는 결혼 모두가 이슬람에서는 금지된다.³⁾

예언자(P. B. U. P)는 자신의 가장 단호한 언명 가운데 하나에서, 배우자를 자주 바꾸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즉 얼마 동안은 한 배우자를 즐기다가 다른 배우자로 바꿔치는 식으로 “맛만 보는”자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저주를 받는다고 단언하였다.

그러나 결혼의 영속성을 주장하는 것이 곧 결혼 계약은 해체가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무슬림들은 꾸란에 의해 종앙의 민족으로 일컬어지고 있으며, 이슬람 또한 참으로 중용의 종교요, 균형과 통합을 잘 이룬 제도다. 이것은 결혼의 경우에 특히 분명하다. 이슬람은 결혼을 성례나

단순한 일반 계약으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이슬람에서의 결혼은 성례적 성격과 계약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독특한 것이다. 또 이러한 일시적□임시적이라는 극단에 대한 대안이 결혼 계약 해제의 절대 불가능이라는 또 다른 극단이 아니라는 것도 똑같이 사실이다. 이슬람은 공평하고 현실적인 중용의 길을 걷는다. 결혼계약은 중대하고 영속적인 유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결혼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친절과 명예를 건지하며 공평하고, 평화롭게 결말지을 수도 있다.

3. 남편과 아내의 관계

경건을 배우자 선택의 기준으로 삼고, 결혼의 제조건을 진지하게 만족시킨다면, 당사자들은 틀림없이 행복하고 본분을 다하는 결혼생활로 순조롭게 인도될 것이다. 그러나 이슬람은 여기서 한층 더 나아가 남편과 아내의 행동 방식을 규정한다. 꾸란과 순나에는 친절과 공평, 연민과 정과 사랑, 동정과 이해성, 인내와 호의를 명하는 말이 많다. 예언자는 자기 가족에게 가장 친절 한 사람이 가장 훌륭한 무슬림이며, 인생에 있어 가장 크고, 가장 복된 기쁨은 착하고 의로운 아내라고까지 단언까지 하고 있다.

신방을 치르고 나면, 관련 당사자들에게는 새로운 역할이 주어진다. 각 역할은 공평하고, 비례적인 일단의 권리와 의무다. 남편의 역할은 자기 아내를 인내심으로써 친절하고 명예롭게 대우하며, 아내를 명예롭게 보살피 주든지 아니면 결혼의 유대로부터 명예롭게 해방시켜 주며, 아내에게 해나 슬픔을 끼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남편의 엄숙한 의무라는 윤리원칙을 중심으로 한다.(꾸란, 2:229-232, 4:19) 아내의 역할은 여자는 의무를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평하게 권리를 가지지만,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지위를 가진다는 꾸란 구절로 요약된다.(꾸란, 2:228). 무슬림 학자들은 통상 이 지위를 다른 구절과 관련시켜 해석한다. 이 구절이 특히 지적하고 있는 점은 하나님께서 남자를 여자보다 뛰어난게 하셨으며, 남자가 자기 재산으로 여자를 부양하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의 수탁자, 감시자, 보호자라는 것이다. (꾸란, 4:34) 이 지위는 분업과 역할 분화에 따라 가정 내에 생긴, 사회학자들의 소위 “수단적 리더십” 혹은 외적 권위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절대적 차별이나 남자의 여자에 대한 우월을 뜻하지는 않는다.⁴⁾

(1) 아내의 권리 : 남편의 의무

이들 윤리원칙이 행위규칙으로 구체화되면, 이에 따라 여자에게 권리와 이에 상응하는 의무가 배당된다. 꾸란과 예언자의 순나가 여자에게 친절하라 명했으므로 자기 아내와 화합하여 공평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남편의 의무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의 한 가지 특별한 결과로서, 남편은 자기 아내를

전적으로 부양할 책임을 진다. 남편은 이 부양 의무를 기꺼이 이행하되, 나무랄 데가 없어야 하며, 아내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생색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부양의 내용, 부양은 의식주와 전체적인 보살핌, 안녕에 대한 아내의 논쟁의 여지없는 권리를 수반한다. 아내의 주거는 아내에게 합리적 수준의 프라이버시□안락 □독립을 보존하는데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 아내의 안녕과 결혼의 안정이 급선무다. 주거만 그런 게 아니라 의복□음식□전체적인 보살핌 역시 마찬가지다. 아내는 남편의 재산과 자신의 생활 양식에 맞춰 남편에 의해 입혀지고, 먹여지고, 보살핌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의 행사가 무절제해서는 안 되지만 그것을 행사하는데 인색해서도 안 된다.

물질외적 권리, 물질적 권리만이 아내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아내는 이외에도 윤리적 성격을 띠는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권리 역시 마찬가지로 구속력이 있고 구체적이다. 하나님의 법은 남편에게 자기 아내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아내의 감정을 존중하며 아내에게 친절과 이해심을 보이라고 명한다. 남편은 아내를 혐오해서는 안 되며 아내가 불확실하고 어중간한 상태에서 불안을 느끼게 해서도 안 된다. 이러한 규정의 당연한 결과로서, 남자는 아내에게 해를 입히거나 아내의 자유를 가로막을 작정으로 아내를 데리고 있을 수 없다. 남자가 자기를 사랑하거나 동정하지 않을 경우 여자는 결혼의 유대를 풀어 달라고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누구도 그녀의 사생활을 방해할 수 없다.

(2) 아내의 의무 : 남편의 권리.

결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로서 아내가 지켜야 할 주된 의무는 가급적 결혼 생활을 원만하고 행복하게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애쓰는 것이다. 아내는 남편의 안락과 안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남편을 화나게 하거나 남편의 기분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 아마 다음의 꾸란의 말씀보다 핵심을 더 잘 찌를 말은 없을 것이다. 이 꾸란의 말씀은 의로운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지적한다.

우리의 주여! 우리에게 아내와 자식을 주사 우리 눈의 기쁨과 위안이 되게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사 의의 본이 되게 하소서.(꾸란, 25:74)

이것이 아내의 모든 의무가 의거하고 발원하는 기초다. 이러한 기초적 의무를 이행하려면 아내는 충실하고 신뢰할 만하며 정직해야 한다. 특히 남편이 적출(嫡出)을 갖지 못하게 할 양으로 임신을 고의적으로 회피하여 남편을 속여서는 안 된다. 또 아내는 전적으로 남편의 권리인 동침을 타인에게 허락해서도 안 된다. 이의 당연한 결과로서, 아내는 남편이 모르게, 남편의 승낙

없이 낯선 남자들을 자기 집에 맞아들이거나 접대해서는 안 된다. 또 낯선 남자가 주는 선물을 남편의 허락 없이 받아서도 안 된다. 이는 필시 질투□ 의심□협담 등을 피하고 관련 당사자 모두의 결백을 지키려는 의도일 것이다. 남편의 재산은 아내의 신용이다. 남편의 재산이 일부라도 자기에게 달려 있거나 자금 등이 맡겨진 경우에는 슬기롭고 알뜰하게 자기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남편의 허가 없이 그 재산을 빌려주거나 처분할 수 없다.

동침에 대하여 말하자면, 아내는 남편이 자기를 보면 마음이 끌리게 해야 하고, 매력적이고 민감해야 하면, 협조적으로 나와야 한다. 아내는 남편에게 자신을 거부할 수 없다. 꾸란이 부부는 서로에게 위안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물론 건강과 체면을 마땅히 고려해야 한다. 또한 아내는 자기와 동침하고 싶은 생각이 가시게 하거나 만족을 빼앗을 여지가 있는 행위를 하도록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행위를 하거나 자신을 소홀히 할 경우, 남편은 아내의 자유에 간섭하여 사태를 바로잡을 권리를 가진다. 양 당사자에게 최대한의 자기 달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남편 역시 아내의 만족을 방해할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하도록 허용되지 않는다.

4. 부모와 자녀의 관계

(1) 자녀의 권리 : 부모의 의무

이슬람의 자녀에 대한 접근 방법은 몇 가지 원칙으로 요약된다. 첫째, 자녀가 부모에게 해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둘째, 부모는 언저시 반응을 보여야 하며, 자녀를 해롭게 해서는 안 된다. 꾸란은 부모에게 과잉 보호나 무관심의 책임이 없지 않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인정한다. 이런 인정을 근거로 하여 셋째, 꾸란은 몇 가지 지침을 확립하고 자녀에 관한 몇 가지 사실을 지적하였다. 꾸란은 자녀가 자만의 근원, 허영과 허망의 씨앗, 고난 유혹의 원천일 뿐 아니라 삶의 기쁨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꾸란은 서둘러, 심령의 보다 큰 기쁨을 강조하고 부모에게 과신하거나 터무니없이 자만하지 말고 자녀가 저지를지도 모르는 비행을 방지하라고 경고한다. 이런 입장이 가지는 종교적 윤리 원칙은 부모와 자녀를 막론하고 각 개인은 하나님께 직결되며, 자기 행위에 대해 개별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심판날에는 자녀가 부모를 사면할 수 없다. 부모가 자기 자식을 위하여 나설 수도 없다. 끝으로 이슬람은 자녀가 부모에게 결정적으로 의존한다는 사실에 특히 민감하다. 자녀 인격형성에 부모가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슬람은 분명히 인정한다. 예언자는 매우 시사적인 언명 가운데서 자녀는 모두 피뜨라(이슬람의 순수한 자연 상태)라는 진정한 의미의 순응성을 제각기 타고나는데, 부모가 나중에 자기 자식을 유태교나 기독교도 혹은 이교도

로 만드는 것이라고 단언하였다. 특기할 만한 것으로, 이들 지침에 의하면 이슬람에서 가장 양도 불가능한 자녀의 권리 중 하나는 생존과 동등한 삶의 기회를 누릴 권리이다. 자녀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은 이슬람의 세 번째 계명이다.(꾸란, 6:151 비교 17:28ff)

마찬가지로 양도 불가능한 또 하나의 권리는 자녀마다 오직 한 아버지를 가질 것을 주장하는 적출(嫡出)의 권리다. 세 번째 부류의 권리에 해당하는 것은 사회화와 양육 그리고 전반적인 보살핌이다. 자녀를 잘 보살피는 것은 이슬람에서 가장 높이 칭찬하는 행위 중 하나다. 예언자는 아이들을 가장 좋아하였고, 자신의 무슬림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들 사이에서 아이들에게 친절하다는 것으로 유명해지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자녀에 대한 사랑은 무엇보다 자녀의 영적 복지, 교육의 필요 그리고 전반적 안녕 임이 최우선의 과제인 것이다. 예언자의 지시에 의하면, 일곱째 날까지 자녀에게 훌륭하고 호감이 가는 이름을 지어 주어야 하며, 머리를 깎고 아울러 건강하게 자라는 데 필요한 기타 위생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런 날은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축일이 되어야 한다.

어린아이에 대한 책임과 동정은 사회적 관심사일 뿐 아니라 종교적으로 중요한 문제다. 부모의 생사나 동거여부에 관계없이 또 부모를 알거나 모르거나 어린아이에게는 최적의 보살핌이 베풀어져야 한다. 아이의 복지를 책임질 만한 유언 집행자나 친척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이들에게 이러한 의무가 부과될 것이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친척이 없으면, 그 아이를 보살피는 것은 당해 관리와 일반 대중 다시 말해서 전체 무슬림 사회의 공동 책임이 된다.

(2) 자녀의 의무 : 부모의 권리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상호보완적이다. 이슬람에서의 부모와 자녀는 상호적 의무와 상호적 책임에 의해 결속된다. 그러나 연령 차이가 너무 벌어져 부모의 심신이 이미 나약해져 가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면 흔히 조급해지고 기력이 쇠퇴하며 신경이 예민해진다. 그리고 어쩌면 판단을 그르칠지도 모른다. 또한 이로 말미암아 부모의 권위가 남용되거나 요새말로 “세대격차”와 유사한 세대간이 소원과 불안이 야기될 수도 있다. 이슬람이 몇 가지 사실을 인정하고 개인의 부모와의 관계를 규율하는 기본 규정을 만드는데 있어서 필시 이러한 점들을 계산에 넣었을 것이다.

부모가 나이가 더 많고 대체적으로 경험이 더 풍부하다는 사실 자체가 부모의 견해를 정당화시키거나 그 기준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젊은 그 자체가 활기나 이상주의 혹은 지혜의 유일한 원천인 것도 아니다. 꾸란은 여러 곳에서 자신과의 대립에서 부모가 잘못된 경우와 자신이 부모의 입장을 그릇 판단한 경우를 예로 들고 있다.(참고, 꾸란 6:74,

11:42, 19:42-48)

어쩌면 관습이나 민습, 전통 혹은 부모의 가치 체계와 기준이 그 자체로서 진리와 정의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이 더욱 중요한 사실일지도 모른다. 꾸란은 몇몇 구절에서 진리가 자기들에게 새롭거나 친숙한 것에 반하거나 부모의 가치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그 진리에서 벗어나는 자들을 엄히 꾸짖는다. 더 나아가서 꾸란은 부모에게 충실하거나 복종하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될 경우에는 말하자면 하나님 편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춘다. 부모에게는 마땅히 고려와 동정과 사랑과 자비가 베풀어져야 한다. 하지만 부모가 적정 선을 넘어 하나님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한계선을 긋고 그것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

꾸란은 의와 선과 미를 이흐싼이라는 최상위 개념으로 문제 전체를 요약한다. 이흐싼의 개념이 부모에 대하여 실제 내포하고 있는 사항은, 적극적 감정 이입과 인내, 감사와 동정, 부모에 대한 존경과 그분들의 영혼을 위한 기도, 그분들의 정당한 서약에 대한 존중과 그분들에 대한 진지한 조언이다.

이흐싼의 한 가지 기본적 차원은 복종이다. 부모는 자신들이 자녀들에게 해준 데 대한 부분적인 보답의 의미에서라면 자녀들이 복종해 주기를 기대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부모가 불의를 명하거나, 부정한 일을 요구하면 복종하지 않는 것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절대로 필요하다. 복종을 하든, 하지 않든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태도가 절대적인 복종이나 무분별한 반항이 될 수는 없다.

끝으로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이흐싼의 중요한 일면은 자녀들이 부모를 부양할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요긴할 때에 부모를 부양하고 가급적 편안한 여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살피는 것은 절대적 종교의 의무다.

5. 가족 생활의 기타 측면

“종”이나 다른 식구, 친척 그리고 이웃에 대한 대우는 가족 생활과 밀접히 관련된다. 예언자 무함만은 종신 하녀를 거느린 사람들에게 충고와 좋은 소식을 아울러 주었다. 자기 종을 노예가 아니라 형제처럼 대우하라는 것이 “주인”에게 내려진 명령이다. 예언자가 말한 바와 같이 누구든지 자기 종을 잘 대우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보통은 고통스럽고 어려운 임종의 순간을 쉽고 평안하게 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종(하인)들도 정의□친절□자비□의식주와 기타 개인 비용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예언자는 종들도 주인이 먹고 입는 것과 같은 것으로 먹이고 입혀져야 하며, 주인은 종들에 대한 자신의 의무의 일부로서 이런 마련을 해 주어야 하는 말까지 하고 있다. 종들을 학대하거나 멸시하거나 너무 부려서는 안 된다. 이러한 규정은 인간을 존엄하게 하고, 계급투쟁이나 프롤레타리아의 독재를 부르지 않고, 노동을

존중하는 방법을 보이기 위한 것이다. 종이나 노동자라 해서 그 권리가 박탈되거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손상되지는 않는다. 또 종이나 노동자라고 해서 공상적 프롤레타리아라는 아편에 빠져들게 되는 것도 아니다. 참다운 무슬림 사회의 시민 모두는 동등한 입장에 선다. 이슬람은 카스트 제도나 2등 시민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슬람이 인정하는 유일한 우월성은 하나님을 섬기는데서 나타나는 경건과 선행의 우월성이다. (꾸란, 9:105, 49:13)

하나님은 인간에게 다른 식구나 친척에 대해 최대한의 도움과 친절을 베풀고 진심에서 우러나는 사랑과 관심을 보이라고 명하신다. 아랍어로 친척이라는 말이 자비(라힘과 라흐마)를 뜻하는 어근에서 파생한다는 점이 흥미를 끈다. 친척에 대한 친절은 낙원에 이르는 지름길이다. 이와는 달리 이런 의무를 소홀히 하는 자들에게는 낙원이 허락되지 않는다. 예언자는 친척들을 친절하게 대우하는 것을 가리켜 자신의 삶에 대한 신성한 축복이며, 규정이라고 말하고 있다. 친척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신성한 의무다. 비록 그 친척이 똑같이 대해 주지 않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이 의무는 하나님의 명인바, 친척의 반응에 상관없이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슬람에서는 이웃의 지위를 아주 높게 본다. 이웃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든, 이슬람이 부여하는 많은 특권을 누린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예언자 무함만은 그 누구도 자기 이웃이 자기에게서 안전을 느끼지 못한다면 진정한 신자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자기 이웃은 굶주려 밤을 보내는데 자기 배만 채우는 사람들도 역시 진정한 신자가 될 수 없다. 예언자가 말한 바와 같이, 자기 이웃에게 가장 친절한 사람은 부활의 날에 하나님의 이웃이 될 것이다. 이웃간에는 선물을 주고받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 또 다른 언명 가운데서 예언자는 이렇게 말했다 : “이웃의 권리가 무엇인지 아느냐? 이웃이 네 도움을 구하면 도와주며, 네 구원을 청하면 구원하고, 빌려 달라는 게 있으면 빌려 주라, 걱정거리가 생기면 염려해 주며, 병들면 간호해 주고 초상이 나면 장례에 참석하라. 경사를 만나면 축하해 주고 재난을 당하면 위로해 주라. 이웃의 허락 없이 네 집을 높이 올려 하늘을 막지 말라. 이웃을 괴롭히지 말라. 과일을 사거든 이웃에게 나누어 주라. 나누어 주지 않으려면 네가 산 것을 남이 눈치 안채게 집으로 바로 가지고 들어가되, 네 자녀들이 그것을 들고 나가 옆집 자녀들이 보고 샘내는 일이 없게 하라.” 게다가, 전하는 바에 의하면 예언자는 이웃에게도 상속에 참여할 권리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자신에게 들 정도로 천사 가브리엘이 이웃의 권리를 누누이 강조했다고 말했다.(또한 앞 문단의 꾸란 구절 참조)

3. 사회 생활

진정한 무슬림의 사회 생활은 최고의 제 원칙에 입각하여, 사회는 물론 개인의 행복과 번영을 보상하는데 그 의의를 둔다. 계급투쟁, 사회적 특권 계급, 그리고 개인지배는 이슬람의 사회생활과 그 질을 달리 한다. 꾸란이나 무함만의 전승의 어디에도 계급이나 출신(혈통) 혹은 재산을 근거로 우월성을 인정한 말을 찾아 볼 수 없다. 이와는 달리 인류에게 살아가는데 있어 지극히 중요한 제사실을 상기시키는 꾸란 구절과 무함만의 말씀은 많이 있다. 이러한 제 사실은 동시에 이슬람 생활을 사회적으로 조직하는 제원리를 이룬다. 이 가운데 한 가지 사실은 인류는 같은 한 부모에게서 나서 같은 궁극적 목적을 지향하는 한 가족이라는 것이다.

아담과 이브를 공통 부모로 한다는 사실에 비추어 인류의 통일성을 생각한다. 사람은 모두 첫 아버지와 첫 어머니에 의해 이루어진 세계 가족의 일원이며, 따라서 공통의 책임이 과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통의 이익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사람들이 자기들 모두가 아담과 이브의 후손이며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인종적 편견이나 사회적 부조리 혹은 2등 시민의 지위라는 것이 발붙일 여지를 잃을 것이다. 사람들은 공통 부모라는 유대에 의해 본성이 통일되어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 사회적, 행동에 있어서 통일될 것이다. 꾸란과 무함만의 관습은 인류가 본성과 기원에 의해 통일되어 있다고 하는 이 중요한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킨다. 이는 곧 인종적 자만과 민족적 혹은 종족적 우수성에 대한 주장을 타파하고 형제애를 향한 탄탄대로를 여는 것이 아닐 수 없다.(꾸란, 4:1, 7:189, 49:10-13)

인류는 그 기원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그 궁극적 목적에 있어서 통일된다. 이슬람에 의하면 인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 분으로부터 와서 그 분을 위해 살다가 모두 그 분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사실 꾸란이 말하는 창조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만을 숭배하고, 진리와 정의□사랑과 자비□형제애와 도덕이라고 하는 그분의 대의에 이바지하는 것이다.(꾸란, 51:56-58)

개인과 사회의 관계는 이슬람의 사회 생활의 배경을 이루는 이러한 기원과 궁극적 목적의 통일성에 기초한다. 개인의 역할은 사회의 역할을 보완한다. 양자 사이에 사회적 결속과 상호적 책임이 자리한다. 개인은 사회의 공공복지와 번영에 책임을 진다. 이러한 책임은 사회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하여 개인은 건전한 사회성을 갖추고 외면할 수 없는 책임을 올바르게 의식하여 활동에 임하게 된다. 사회를 위해 최선을 그 공공복지에 기여하는 것이 개인의 역할이다. 다른 한편으로, 사회 역시 개인의 복지에 대해 하나님께 책임을 진다. 개인에게 능력이 있을 때, 그 개인은 기부자가 되고 사회는 수혜자가 된다. 그 대신 그 개인이 무능해 진다면 안전과 보호의 권리를 누리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개인이 수혜자가

되고 사회가 기부자가 된다. 그러므로 의무와 권리는 서로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책임과 의무는 상호적이다. 국가가 개인을 지배하고 개인으로서의 존재를 말할 수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느 한 개인이나 계급이 사회를 착취하고 국가를 부패하게 할 수도 없다. 개인과 사회는 건설적으로 상호 작용해야 한다.

기원과 궁극적 목적에 있어서의 인류의 통일성, 그리고 이러한 상호적 책임과 관심 이외에도 이슬람의 사회 생활은 선하고 경건한 일을 하는데 서로 협력한다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한다. 개인과 개인이 가지는 생명□재산□명예에 대한 신성한 권리를 충분히 인식하는 것과 아울러 사회의 도덕과 윤리의 측면에서 개인이 수행하는 효과적 역할이 이슬람 사회생활의 특징을 이룬다. 이슬람 사회의 개인은 무관심할 수 없다. 이슬람 사회의 개인은 선을 권하고, 또는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온갖 악과 마음대로 싸울 수 있도록 사회의 도덕과 윤리를 확립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명을 받고 있다. 이렇게 하는 가운데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할 뿐 아니라 타인도 그와 같이 하도록 돕게 되는 것이다. 사회에 무관심한 개인은 이기적인 죄인이다. 도덕은 문란해져 있고 양심은 혼란에 빠져 있으며, 신앙은 영양실조에 걸려 있는 것이다.

이슬람의 사회생활의 구조는 매우 고상하고 건전하며 포괄적이다. 이러한 구조를 이루고 있는 실질적 요소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동료 인간에 대한 진정한 사랑, 젊은이에 대한 자비, 웃어른에 대한 존경, 고통 당하는 자의 위안과 격려, 슬퍼하는 자의 위로, 진정에서 우러난 형제애와 사회적 결속감, 타인의 생명과 재산과 명예에 대한 권리의 존중□개인과 사회 사이의 상호적 책임, 다음과 같은 언명을 흔히 접하게 된다.

누구든지 사람에게서 이 세상의 슬픔을 덜어 주면, 하나님께서 심판날에 저의 슬픔을 덜어 주시리라.

연소자에게 자비를 보이지 않고 연장자를 존경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우리 무슬림 가운데 들지 않는 자라.

너희 중 누구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 생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면 이슬람의 진정한 신자가 아니니라.

다른 사람을 선으로 이끄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을 행하는 자와 다를 바 없는 즉 응분의 보상이 따르리라. 그리고 악을 충동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악을 행하는 자와 다를 바 없는 즉 응분의 처벌이 따르리라.

한편, 꾸란에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교훈이 많이 나온다.

오, 너희 믿는자들아! 하나님을 유념하되 온당하게 하며 이슬람의 상태 밖에서 죽지 말라. 다 함께 하나님의 밭줄을 굳게 잡아 흩어지지 말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네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라. 너희가 적이었으나 그 분이 사랑으로 너희 마음을 맺어, 그분의 은총으로 너희가 형제가 되었으며, 너희가 불구덩이 옆에 있었으나 그 분이 거기서 너희를 구해 냈음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표징을 너희에게 분명히 하시나니, 이는 너희를 인도하려 하심이라. 오직 선을 권하고 의를 명하며 악을 금하는 사람의 무리를 너희에게서 일으키라. 저들이야말로 지복을 누릴 자들이니라.(꾸란, 3:102-104)

오, 너희 믿는자들아! 모든 의무를 이행하며...의롭고 경건한 일에는 서로 돕되, 죄를 짓고 원한을 짓는 일에는 서로 돕지 말라. 하나님을 유념하라. 하나님은 엄히 벌하심이라.(꾸란, 5:1-2)

전술한 내용에 더하여 순례의 여정 중에 예언자 무함만이 행한 마지막 설교에서 이슬람의 사회 생활 양식을 한 번 더 볼 수 있다. 수만 명의 순례자들에게 대한 설교에서 무함만이 특히 언급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오,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후에 한 해가 더 내게 허락되어 이 곳에서 너희를 다시 대하게 될 지 알 수 없음이라. 이 달 이 날이 모두에게 신성한 것처럼, 너희가 주님 앞에 나타날 때까지 너희 생명과 재산은 너희 사이에서 신성 불가침한 것이니라. 그리고 기억할지니, 너희는 너희 모든 행위의 회개를 너희에게 요구하실 주님 앞에 나타나야 하리라.

오, 사람들아! 너희는 아내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아내는 너희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느니라. 너희 아내를 사랑스럽고 친절하게 대하라. 정녕 너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으로 너희 아내를 맞이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몸이 너희에게 합법적이 되게 하였느니라. 언제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너희에게서 안주하고 있는 아내에게 성실을 지키고 죄를 피할지니라. 이제부터 무지와 이교의 시대에 횡행하던 유혈보복을 금하며 모든 피의 복수를 폐하노라.

그리고 너희 종들이 있으니, 너희는 살피어 너희 종들에게 너희가 먹는 음식을 먹이고 너희가 입는 것으로 입히라. 만약 너희 종이 잘못을 저질러 용서해 주고 싶지 않거든 저를 떠나 보내라. 저는 하나님의 종인지라 학대할 수 없음이라.

오, 사람들아! 내 말을 듣고 이해하라. 무슬림은 모두 형제임을 알라. 너희는 한 형제이니라. 호의로 그냥 준 것이 아니라면 다른 형제의 것을 취함은 불법이니라. 너희 자신을 지켜 불법을 행치 말라.

이 성역에서의 이 달 이 날처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너희 주를 만날 때까지 너희 각인의 생명과 재산을 다른 사람에 대해 신성 불가침한 것이 되게 하셨느니라.

여기 있는 사람은 여기 없는 사람들에게 말해 주도록 하라. 아마 직접 듣게 될 자가 소문으로 들은 자보다 더 잘 기억할 수 있으리라.

진실로 나는 나의 사명을 이루었노라. 이제 그것을 너희 가운데 남기나니 곧 분명한 명령이요, 하나님의 성서요, 명백한 법령이라. 너희가 굳게 지키면 결코(이에서) 벗어나지 않으리라.

4.경제 생활

이슬람의 경제 생활 역시 확고한 기초와 하나님의 교훈에 입각하나. 버젓하게 일해서 생계비를 버는 것은 의무일 뿐 아니라 큰 미덕이기도 하다. 능력이 있으면서 노력하지 않고 남에게 의지해서 사는 것은 종교적 죄요, 사회적 오명이며 수치스런 자기비하다.

하나님께서서는 무슬림에게 남에게 짐이 되지 말고 제 힘으로 살아가라고 명한다. 이슬람은 떳떳하지 못하거나 나쁜 일이 아닌 한 생계비를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은 모두 존중한다. 깨끗한 양심으로 사회에서 합당한 존경을 받으면서 무슬림은 자신과 식구들을 부양하기 위해 소매를 걷어붙이고 손에 잡히는 대로 아무 일이나 나설 수 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예언자 무함만은 주거나 말거나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는 것보다 새끼줄을 들고 나무를 베어 팔아 자기도 먹고살고 남에게 자선도 베푸는 것이 훨씬 낫다고 말했다. 이슬람에 의하면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의 지위를 그 사람의 생업의 종류를 보고 격하시킬 수 없다. 오히려 노동자들도 아무런 제약 없이 능력껏 자기 운명을 개척하고 생활수준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다. 노동자들도 자기 뜻대로 균등한 기회를 누리며 사업의 자유를 향유한다.

개인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벌어들인 것은 모두 그 개인의 사유재산이다. 국가나 그 어느 누구도 이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함은 부당하다. 이러한 사유 재산권에 대한 보답으로 사회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를 이해하고 국가에 세금을 바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권리를 누리게 되며 사업의 자유가 보장된다. 이슬람 제도 아래서는 탐욕적인 자본주의와 파괴적인 공산주의가 결코 고개를 쳐들 수 없다. 기업정신이 왕성한 개인은 국가의 번영에 대해 책임을 지고 역으로 국가는 개인의 안전에 대해 책임을 진다. 협동과 조화가 계급투쟁을 대신하여 상호의 안정과 신뢰가 공포와 의심을 제거한다.

산술적 계산과 생산능력만을 보고 이슬람의 경제 제도를 도출할 수는 없다. 이슬람의 경제 제도는 도덕과 원칙의 포괄적인 체계에 비추어 도출되며 또 이러한 체제에 비추어 그 제도를 생각한다. 하나님은 개인이나 회사 혹은 기관에 고용된 사람에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능률적이고 정직하게 수행하라

고 명하신다. 예언자는 누구든지 일단 어떤 일을 맡았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맡은 일을 제대로 능률적으로 해 나가는 것을 보고 싶어하신다고 말했다. 일이 끝나고 나면 일한 사람은 자기가 일한 대가로 공정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고용주가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깎아 내리려고 하거나 주기를 망설이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벌받을 행위다.

이슬람은 특히 상거래에 주목한다. 하나님은 정직한 거래를 허용하시며 또 그것을 축복하신다. 거래는 개인, 회사, 대리점 등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데 모든 거래 관계는 숨김없이 정직하게 맺어져야 한다. 속이거나, 상인이 상품의 흠을 숨기거나, 고객의 필요를 악용하거나 자기 가격을 강요하기 위해 매점을 하는 것은 모두 범죄 행위이며, 이슬람법에 의해 처벌된다. 떼떈한 생활을 하려면 정직하게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없어져 버린다. 그 뿐만 아니라, 예언자의 말씀에 의하면 부정한 양식을 먹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날에 지옥 불에 탈것이다. 사기와 이기적 악용을 막기 위하여 이슬람은 거래에 있어서 정직을 요구하고 사기꾼에게 경고하며 떼떈하게 일할 것을 권하고, 고리 대금업을 하거나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이자를 받는 것을 금한다. 이는 곧 자신이 일해서 얻은 것만을 정당하게 소유할 수 있음을 보이는 것이요, 타인의 절박한 사정을 이용하는 것은 비종교적이며, 비인간적이며, 부도덕한 처사임을 지적하는 것이다. 꾸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

고리(高利)를 받아먹는 자들은 서지 못하리니, 저들이 선다 하더라도 악마가 건드려 광기(狂氣)들리게 한 자들 같으리라. 저들의 장사도 고리대금과 마찬가지로 말함은 이런 연고에서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장사는 허락하셨으며 고리대금은 금하셨느니라. 주님에게 명을 받은 후 그치는 자들은 그 지난 일을 용서받으리니, 이들의 처지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일이라. 그러나 이(죄)를 되풀이하는 자들의 불의 친구인 즉 저들은 (영원토록)그 속에 거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고리에 대해서는 모든 복을 제하실 것이나 자선에게는 (복을)더하시리라. 하나님은 감사할 줄 모르는 악한 자들을 사랑하지 않으심이라(꾸란, 2:274-276)

그분은 하늘을 높이 올리사 (공정한)균형을 이루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합당한)균형을 범치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런 즉 공정하게 무게를 달아, 모자람이 없게 하여 균형을 지키라.(꾸란, 55:7-9)

이는 곧 공정과 정직에 의거하여 모든 거래를 하도록 인간을 인도하려는 것이다. 사기꾼의 앞날은 냉혹하며 그 운명은 끔찍스럽다. 꾸란은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본다.

속이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저들은 재서 받아야 할 때는 한치도 어긋남이 없으면서 재거나, 달아서 주어야 할 때는 제대로 주지 않는 도다. (온)인류가 주님 앞에 설 권능의 날에 자신들이 헤아려지지 않으리라 생각하느뇨.(꾸란, 83:1-6)

그 외에도 예언자 무함만의 많은 전승이 진실한 무슬림이 대열에서 사기꾼 □착취자□독점자□부정직한 상인을 제외시키고 있다. 부정이나 사기 혹은 착취가 개입된 상거래는 엄히 금지되며 거래 관계가 맺어진 후에라도 이슬람법에 의해 취소할 수 있다. 경제와 상업에 관한 이슬람법의 주목적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의 결속을 유지하며 실업계의 고도의 윤리를 세우고 그 분야에 하나님의 법을 시행하는 것이다. 이슬람이 이러한 제 측면에 관심을 갖는 것은 논리 일관의 귀결이다. 왜냐하면 이슬람은 영적 신조뿐 아니라 각 분야를 총괄하는 완전한 생활 제도이기 때문이다.

소유주들에게 부단히 주지되는 사실은 소유주들은 실상 단지 하나님께서 그 소유물을 관리하기 위해 임명한 대리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슬람은 무슬림이 합법적인 수단과 떳떳한 경로를 통하여 부를 축적하고 물질적 풍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하지만 사람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진짜 소유주인 것이다. 다른 소유주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대리자요 수탁자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삶의 현실일 뿐 아니라 인간의 행위와 중대한 관련을 갖는 사실이다. 이런 사실은 소유주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 베풀고, 가치 있는 대의 명분에 기여하려는 마음의 자세를 항상 갖추고 있게 한다. 소유주로 하여금 사회의 필요에 호응하게 하며 그에게 수행해야 할 중요한 역할, 이행해야 할 신성한 사명을 부여하는 한편, 이기심과 탐욕과 부정의 수렁에서 소유주를 구해내는 것이다. 이것이 이슬람에서 말하는 재산의 올바른 개념이며, 그것이 소유주가 자처하는 사실상의 지위다. 꾸란은 재산의 소유를 뛰어난 덕과, 특전이 주어진 고귀한 신분의 증거, 혹은 착취의 수단이 아니라 참기 어려운 시험으로 간주한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를 대리지로 땅의 상속자로 만드신 분은 그분이시라. 그분은 너희 중 어떤 사람의 지위를 다른 사람보다 높이셨나니, 이는 당신께서 너희에게 베푸신 선물로 너희를 시험하려 하심이라. 진실로 너희 주는 속히 처벌하시나, 참으로 관대하고, 지극히 자비로운 분이시라.(꾸란, 6:165)

또한, 꾸란은 모세와 그의 백성들 사이에서 오고 간 흥미 있는 대화를 인류에게 권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모세가 이렇게 말하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인내하며 변치 말고 기다리라. 땅이 하나님의 것임이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원대로 그 종들에게 땅을 유산으로 주시나니 의로운 자의 결말이 가장 좋은 것이니라’ 백성들이 말하되, ‘당신이 우리에게 오기 전이나 후나 우리가 고생만 하는 도다’ 하니 모세가 이렇게 말 하니라 : 너희 주께서 너희 적을 멸하시고 그 땅에서 너희를 상속자로 삼으시리니 그런즉 그 분은 너희 행위로 너희를 시험하실 지 모를 일이다.’ (꾸란, 7:128-129)

모세와 백성이 주고받은 이 대화는 종족의 기원이나 민족의식을 내세워 인류 가운데 특권 받은 족속을 인정하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또한 꾸란이 후대의 모세의 추종자들이 한 행위나 생각을 전적으로 긍정한다는 것을 뜻하지도 않는다. 본문의 어조는 오히려 의심하는 자들을 책망하고 비판하는 투다.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상속받은 신탁물이나 시험물의 형태로 그것을 당신의 종들에게 나누어준다는 사실을 재보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점은 꾸란 전체를 통하여 되풀이 확인한다. 예를 들어 꾸란은 이렇게 말한다 :

천지의 주권이 하나님의 것이며 만사가 그분께로 귀일하는도다...하나님과 그분의 사도를 믿고 그 분이 너희에게 상속해 준 것으로 자선을 베풀라. 너희 중 믿고 자선을 베푸는 자들에게는 큰 보상이 있음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베풀지 못할 이유가 없나니, 천지의 유산이 하나님의 것임이라.(꾸란, 57:5,7,10)

공산주의와는 달리 이슬람은 하나님의 유익한 주권으로 공산주의 국가의 인위적인 전체주의 주권을 대신하게, 건전한 윤리와 상호적 책임과 화합으로 공산주의의 계급투쟁 이론을 대신한다. 다른 한편으로, 이슬람은 탐욕적인 자본주의와 가진 자들의 무자비한 착취를 최대한 억제한다. 이슬람의 경제제도는 개인이라는 “독립된” 실체가 일하고 소유하고자 하는 개인의 타고난 열망을 충분히 인식한다. 그러나 개인이 하나님이나 세계(우주)로부터 절대적으로 독립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인간이나 인간이 가진 자원을 신격화하지 않으며, 프롤레타리아를 신성시하고 자유기업을 폐하지도 않는다. 이슬람의 경제제도는 인간을 창조된 그대로 받아들이며 거기에 걸맞게 인간을 다루고 인간의 타고난 열망과 능력 한계를 고려에 넣는다. 인간은 어디까지나 인간이므로 인간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며 또 그렇게 다루어져야 한다. 인간은 절대적 권력과 의문의 여지가 없는 무류성을 주장하는 신이나 반신반인이 아니다. 그렇다고 하찮고 미천한 존재도 아니다. 인간은 본연의 지위와, 과

장되거나 무시되지 않는 본성의 테두리 안에서만 인식되는 존재다. 자신을 제외한 세계를 초월하는 존재가 아니라 전 체계의 일부분이요, 세계의 전체적인 바탕을 이루는 한 요소인 것이다.

인간에게 일을 권하고 사업의 자유와 벌어서 소유할 권리를 부여하지만 인간이 단순한 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인간이 신탁물로서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정직한 관리를 보증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다. 벌어서 투자하고 소비할 권한이 인간에게 있지만, 일탈을 방지하기 위한 고도의 원칙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것이다. 예를 하나 들면 요점이 충분히 설명된다. 소유주에게는 아무 제한 없이 자기 마음내키는 대로 돈을 쓰거나 재산을 처리할 자유가 없다. 지출은 일정한 규정에 따라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꾸란의 말씀 가운데서 소유주에게 같은 인간들에 대한 재정적 의무를 이행하고 검소한 소비를 하라고 명하신다. 하나님이 진정한 공급자요, 사실상의 소유주라는 것이 소유주에게 항상 주지되는 사실이다. 꾸란은 이렇게 단언한다 :

가난한 사람과 여행자에게 하는 것처럼 친척들에게도 저들의 정당한 권리대로 해 주라. 그러나 방탕한 자처럼 너희 재산을 낭비하지 말라. 진실로 방탕한 자들은 악마의 형제이니, 악마는 저의 주께 감사할 줄 모르느니라...

(인색한 사람처럼) 네 손을 목에 매이게 말며 (어리석은 탕자처럼) 네 손을 쪽 뺀지도 말라. 너희가 질책을 당하고 곤궁해질까 함이라. 진실로 너희 주께서는 당신이 베풀고 싶어하는 자들에게 식물을 풍성히 베푸시나니, 그분은 또한 공평히 베푸시느니라. 그분은 당신의 모든 종을 알고, 주시하고 계심이라. (꾸란, 17:26-27, 29-30)

5. 정치 생활

이슬람의 정치 생활은 사회□경제 생활과 마찬가지로 건전한 영적□도덕적 기초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교훈에 의해 인도된다. 이슬람의 정치제도는 그 구조와 기능과 목적이 독특하다. 그것은 실용주의나 도구주의가 아니다. 이슬람의 정치제도는 특정계급이 신적인 세습 혹은 비세습권리를 사칭하여 국민 위에 군림하고 책임을 초월한 듯한 태도를 취하는 신정이 아니며 복수심에 불타는 일부 노동자들이 권력을 장악하는 프롤레타리아의 독재도 아니다. 그렇다고 대중적인 의미에서의 민주주의도 아니다. 이슬람의 정치 제도는 이 모든 것과 구별되는 것이다. 이슬람의 정치관은 그것이 다음의 제원칙에 의거한다는 것을 알기만 하면 올바르게 인식된다 :

1. 무슬림 개인이나 집단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법인 꾸란에 의해 고무□인도되어야 한다. 꾸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실한 종들을 위해 택하신 헌

법이다. 하나님께서 계시한 바에 따라 판결하지 (혹은 다스리지)않는 자는 누구든지 불신자요...행악자요...반역자니라. (꾸란, 5:47-50) 이 꾸란이야말로 지고한 의라 선으로 안내하는 길잡이다. (꾸란, 17:9)

2. 이슬람 국가의 주권은 통치자나 국민에게 속하지 않는다. 주권은 하나님께 속하며, 하나님의 법을 시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법제화하기 위해, 국민전체가 하나님의 신탁을 받아 그 주권을 행사한다. 통치자는 누구든 하나님의 법에 따라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국민에 의해 선출된 행정관 대리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이 이슬람 국가의 기초인 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유일한 주권자로 계시는 세계에 대한 이슬람의 전체적 소망과 일치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꾸란을 보면 다음과 같은 언명에 접하게 된다 :

권위와 권력과 주권은 오직 하나님의 것이라, 축복을 받으소서, 하나님이지여, 주권이 그 수중에 있으며 만물을 지배하시는 도다.(꾸란, 67:1)

진실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 수탁물을 응당 받아야 할 자에게 되돌려 주라. 그리고 너희가 사람들 사이에서 판결할(혹은 다스릴)때는 공정하게 판결할지니라. 그 분이 너희에게 베푸시는 가르침이 정녕 우월하지 아니한가!(꾸란, 4:58)

천지와 그 가운데 만물의 주권이 하나님의 것이며 (만사의)궁극 목적이 그분께로 향하는 도다(꾸란, 5:18)

3. 이슬람 국가의 목적은 피부색이나 인종이나 교의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헌법인 꾸란의 규정과 일치하게 모든 국민에게 안전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다. 종교적 혹은 인종적 소수의 문제를 이들이 법을 준수하고 평화를 지키는 국민으로 있는 한, 생기지 않는다. 꾸란은 이렇게 말한다 :

오, 너희 믿는 자들아! 공정한 처리의 증인으로서 어디까지나 공명정대 하라. 남들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악으로 빗나가지 말며 공정에서 벗어나지 말라. 공정 하라. 그것이 경건에 아주 가까우니라. 하나님을 유념하라. 하나님은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을 익히 알고 계심이라(꾸란, 5:8, 비교 4:135)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과...우리가 그 땅에 안주시키면 예배를 거르지 않고 제 때에 자선하며 의를 명하고 악을 금하는 자들을 수호하시리라. 만사의 끝과 (결정)하나님께 달려 있느니라.(꾸란, 22:38-41)

4. 전술한 목적을 위해 형성되고 하나님의 법을 시행하기 위해 세워졌기에 이슬람 국가는 비이슬람적 강령의 정당에 의해 지배되거나 타 강대국에 종속될 수 없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리고 그 분을 위하여 정당한 권위를 행

사하기 위해서 이슬람 국가는 독립국이어야만 한다. 이것은 무슬림이 하나님께만 복종하고 그 분의 법에 대한 충성을 서약하며, 법을 시행하고 그 규정을 준수하는 자들에게 최대한의 협조와 지지를 해 주는 자라는 원칙에서 연원한다. 그러므로 무슬림 국민이 비이슬람적 강령의 정당을 지지하겠다고 서약하거나 그 근본이나 목적이 외국적인 비이슬람 정부를 따르는 것은 이슬람과 양립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불신자들이 신자들을 이기거나 지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꾸란, 4:141) 하나님께서 신자들 사이에서 판단(혹은 지배)케 하기 위해 하나님과 그 분의 사도에게 소환될 때 신자들은 다만 이렇게 답할 뿐이다 :

저들은 말하되, ‘우리가 듣고 우리가 복종하나이다.’ 하리라. …너희 가운데 믿고 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 하셨나니, 그 분은 정녕코 저들보다 앞선 자들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저들을 그 땅에서 당신의 대리자로 세우시며, 저들이 두려움 속에 살았던 지난날의 형세를 안전과 평화의 형세로 바꾸시리라 : ‘저들이 나만을 숭배하여 나에게 어떤 동반자도 붙이지 않으리라.’(꾸란, 24:51,55)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셨다 : 나와 나의 사도들이 정녕 이기리라. 진실로 하나님은 힘에 총만하고 당신의 뜻을 시행할 수 있는 분이시라. 너희가 하나님과 마지막 날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그 분의 사도들을 적대하는 자들을 비록 저들이 자기 아버지나 아들이나 형제나 친척이라 하더라도 사랑함을 보지 못하리라. 이런 신자들에 대해서는 그 분께서 저들의 마음속에 신앙을 기록하셨으며 친히 영으로 저들을 강하게 하셨느니라.(꾸란, 58:21-22)

5. 통치자는 누구든 국민에 대한 주권자가 아니다. 통치자는 국민에 의해 선출되어 국민을 대표하는 고용인이며, 하나님께서 감독하시는 엄숙한 계약에 의해 통치자와 피치자를 다함께 구속하는 하나님의 법에 통치자 자신이 복종함으로써 권위를 부여받는다. 이슬람의 정치적 계약을 정부와 국민 사이에서만 체결되는 것이 아니다. 이 계약은 정부와 국민 그리고 그 상대로써 하나님 사이에 체결되며 그것은 인간 쪽에서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도덕적으로 유효하며 구속력을 가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민에 의해 선출된 통치자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한 국민으로부터 협조와 지지를 받을 권리가 있다. 국민이나 어떤 사회 성원이 어떤 행정관들에 대해 지지와 협조를 해주지 않는다면 이들의 행위는 하나님은 물론 정부에 대한 무책임한 범죄로 간주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하나님이 길에서 벗어나거나 그 분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똑같이 죄를 범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지지와 충성을 받을 권리를 잃

게 된다. 꾸란은 이렇게 말한다 :

오, 너희 믿는 자들이여!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하나님의)사도와 너희 가운데 권위가 부여된 자들에게 순종하라. 너희 사이에 의견이 맞지 않는 일이 생기거든, 하나님과 마지막 날을 믿는다면 그 일을 하나님과 그 분의 사도에게 맡기라. 그렇게 함이 최선이며 종래에 가장 온당하니라. (꾸란, 4:59)

권위가 부여된 자들에 대한 순종은 이들 자신이 하나님과 그 분의 사도의 전승에 순종한다는 것을 그 조건으로 한다. 무함만은 결정적인 언명 가운데 하나에서 그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분의 법에 구속되지 않는 인간에게는 통치자나 아니냐에 상관없이 순종이나 충성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무함만의 초기 계승자들은 이런 원칙을 아주 분명하게 하였던 바, 정책을 처음 발표하는 가운데 자신들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한 백성은 자신들에게 복종하고 도움을 주어야 하며, 자신들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다면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천명하였다.

6. 통치자나 행정관은 덕성과 적성과 능력을 근거로 하여 최선의 자격을 갖춘 국민들 가운데서 선출되어야 한다. 출신 인종이나 가문의 위광 혹은 경제적 지위 그 자체는 결코 후보자의 고위 공직에 대한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각 입후보자는 그 자신의 실적에 의해 판단되어야 하며, 가문의 위광□재산□인종□연령 따위는 이런 실적의 유의적 부분이 아니다. 후보자는 총선거를 통하여 국민의 동의에 의하여 선출하거나 사회 여러 분야의 자유 동의에 의해 리더십이 위임될 민중의 지도자가 뽑아서 권한을 부여해 줄 수도 있다. 따라서 이슬람 국가는 원하는 만큼의 대의원회 혹은 시의회를 둘 수 있다. 선거권과 행정 행위는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으며, 사회 전체의 최선의 이익을 그 목표로 해야 한다. 예언자 무함만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 ‘그 사회에 더 책임자가 있는데도 다른 사람에게 공직을 맡기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 분의 사도와 무슬림들의 신뢰를 배반한 것이니라.’ 정치적인 의미에서 이것은 유권자들이 도덕적으로 말하면 공사에 무관심할 수 없으며 투표할 경우에는 반드시 신중히 알아본 다음에 투표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하면 국가는 현대의 많은 민주국가들이 하지 못하고 있는 안전과 책임이 따르는 시민권에 대한 최대한의 보장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7.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통치자를 선출한 다음에 국민 각자에게는 자기 자력으로 정부 행위를 감독하고 공사에 잘못된 점이 발견되면 항시 그 처리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 요구된다. 만약 정부가 하나님과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다면 직무 수행을 할 권리를 상실한다. 그 정부는 축출되고 다른 정부로 대체되어야 한다. 국민을 위해 이런 일이 이루어 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시민 모두의 의무다. 그러므로 세습정권이나 종신통치의 문제는 이슬람국가에 해

당이 없다.

8. 통치자는 국민에 의해 선출□임명되지만 통치자는 일차적으로 하나님께 책임을 지며 그 다음으로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 통치자의 직책은 상징적인 존재에 불과한 것이 아니며 그 역할 역시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 통치자는 문서에 서명이나 하고 국민의 의사를 그 시비를 가리지 않고 오로지 집행하는 것을 일삼는 꼭두각시가 아니다. 국민 최선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법에 일치하게 실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이 통치자다. 통치자는 이중의 책임을 짊어지기 때문이다. 자기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께 책임을 지는 일과, 자기를 신뢰하는 국민에게 책임을 하는 것이다. 국민이나 국민의 대표자들을 어떻게 대우했느냐에 대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실직고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통치자와 국민은 또한 꾸란을 어떻게 취급했으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속력을 가진 그 분의 법을 어떻게 여겼느냐에 대해서도 이실직고해야 할 것이다. 국민에 대한 책임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법에 따라 그렇게 해야 한다. 따라서 이슬람의 정치 제도는 인류가 알고 있는 여타의 모든 정치 제도와 교리와 근본적으로 다르며 통치자가 자기 마음대로 국민을 지배하지 못한다. 통치자는 정의를 불문율로 하고 우주의 주권자이신 주님께 대한 진정한 복종을 국가의 정식 기능으로 하며 건전한 윤리를 행정부의 고상한 사업으로 하여 국민에게 봉사해야 한다.

9. 꾸란이 이슬람 국가의 헌법으로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슬림들에게 협의의 방법을 통하고 공사를 처리하라고 명하신다. 이는 국가적□국제적 차원은 물론 지방적 차원에서 입법회의와 자문기관을 둘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것이다. 이슬람 국가의 국민 모두에게는 공사에 대하여 최선의 조언을 할 것이 요구되며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이러한 의무와 이행을 실천적이고 실속 있게 보증하기 위해 통치자는 학식 있고 경험 있는 국민의 조언을 구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거리낌없이 말해야 하는 일반 국민의 권리를 부정함을 뜻하지는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슬람 국가의 국민 모두는 어떤 자격으로든 이행해야 할 의무를 부여받으며 공사의 처리에 직□간접적으로 깊이 관여한다. 이슬람의 역사는 최고 통치자와 칼리프들이 남녀를 불문한 일반 국민에게 추궁 당하고 조언과 시정을 받은 믿을 만한 기록을 보여 준다. 상호 협의의 원칙은 이슬람에 있어서 근본적인 것인 만큼 자기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말해야 할뿐만 아니라 가장 진지하고 효과적으로 사회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또한 그렇게 해야 한다. 정치 혹은 정치적인 문제를 다루는 다른 분야에 있어서의 협의의 방법은 민주적인 통치 방식일 뿐 아니라 종교적인 명령이요 피치자는 물론 통치자에게 부과되는 도덕적인 의무다. 예언자는 그 자신 어떠한 원칙을 부단히 실천한 데 더하여, 훌륭한 조언을 제시하는 것을 가리켜 종교의 필수요

소라고 말씀하셨다. 이러한 조언의 목적은 하나님의 법의 준수와 국민의 권리의 존중과 그 의무의 이행을 보호하는데 있다. 직업적인 정치가 발흥하는 것을 막고 기회주의적 정당을 가진 지하의 정치가들을 꺾기 위해 예언자는 하나님의 권위를 빌어,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그것이 조언의 형식이든 다른 형식이든-옳고 선한 말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려거든 침묵을 지키는 편이 낫다고 말씀하셨다. 이는 고문과 조언자에게 이기적인 성향이나 유혹을 제어 하라고 경고하는 것이며, 조언은 하나님에 의해 인정되며 그 분을 대신하여 이루어지고 공공복리를 그 목표로 하는 것이므로 가장 진정한 의도로써 최선의 공익을 위해 그것이 제시됨을 보증하는 것이다. 통치자가 조언을 구하고 국민이 조언을 주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며, 자발적인 조치도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신조요, 종교적인 법령이다. 무함만 자신이 지혜롭고 “무류하며 헌신적”이긴 했지만 이러한 처세훈을 초월해 있지 않았으며, 이러한 규정에 대한 예외도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무함만에게 이렇게 지시하신다 :

네가 저들 (너희 백성들)을 온유하게 대함은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음이라, 네가 가혹하거나 매정하다면, 저들이 네 곁에서 벌써 떠났으리라, 그런 즉 저들의 허물을 너그럽게 용서하며 저들을 위해 (하나님의)용서를 구하라. 그리고 (중요한)일에는 저들에게 조언을 구하라. 그 다음 네가 결정을 내렸으면 (그분을)신뢰하라. (꾸란, 3:159)

꾸란은 신자의 특성을 열거하는 가운데 상호조언(의논)을 하나의 신조로써 명기하고 있다.

신자란 하나님을 믿고 주를 신뢰하는 사람이요, 더 큰 범죄와 수치스러운 행위를 피하고 화가 나더라도 용서하는 사람이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배를 거르지 않고 서로 의논해서 일을 처리하고 우리가 식물로 준 것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이요, 부당하게 억압당하면, (겁을 먹지 않고)스스로 일어서 자신을 지키는 사람이니라. (꾸란, 42:36-39)

10. 이슬람의 정치 제도 아래서는 국민은 저마다 신앙과 양심의 자유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자신의 잠재력을 계발하고 운명을 개척하며, 일하고 경쟁하고, 벌어서 소유하며, 자신의 정직한 판단에 따라 찬성하거나 반대할 자유를 누린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는 절대적이 아니며 그럴 수도 없다. 그렇지 않다면 자유는 혼돈과 무정부 상태로 화해 버린다. 자유는 하나님의 법에 의해 보증되며, 같은 하나님의 법에 지배된다. 이 자유가 하나님의 법에 일치하는 한, 그것은 국민 모두의 정당한 특권이 되지만, 법의 한계를 벗어나고 공익과 충돌할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것이 되며, 따라서 통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개인은 우주 전체의 일부이므로

우주 전체를 지배하는 하나님의 법과 질서에 순응해야 한다. 한편 개인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나 민족의 일원이므로 피차에 유익하게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타인의 권리와 이익을 고려하여 조절해야 한다. 그러나 여론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개인은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고 소요를 일으키거나 건강부회하는 일이 없이 타인을 설득하여 자신의 신념을 믿게 할 충분한 자유가 있다. 다수가 다른 길을 택했다는 것이 분명해지면, 개인은 다수를 따라야 한다. 제기된 문제는 더 이상 개인적인 심의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꾸란, 3:102-105, 8:46)

11. 이슬람 국가의 통치자의 직위는 공적인 신탁물인 바, 국민 공통의 동의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행정관들에게 위임된 것이다. 하나님이 국가의 최고 주권자이므로 최고위직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는 누구든지 수탁 권리에 충성해야 하며 하나님을 믿는 자여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 대다수가 무슬림이므로 대통령이나 칼리프 직위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진실한 무슬림이어야 한다. 이러한 조처를 취하는 것은 공익에 이바지하고 국민은 물론 하나님에 대한 국가의 모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다. 또한 이러한 조처는 이른바 종교적□인종적 소수의 권리를 보장하고 존중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이슬람의 통치가 곡해□왜곡된 것은 인류에게 유감스러운 일이다. 실상인 즉 이슬람의 통치는 소수를 차별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장한다. 법을 준수하는 이슬람 국가의 국민이 되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렇게 할 자유가 있으며 책임을 다하는 국민으로서의 의무와 특권을 타인과 공유한다. 그가 관습법에 복종하고 권리를 행사하되 거기에 따르는 책임을 이행하는 한, 무슬림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지위가 격하되거나 이등 국민의 신분으로 낮아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만약 그가 국가의 존속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안전과 복지에 대한 대가로 무슬림 국민과 마찬가지로 종교세(자카)와 기타 국세를 바치고자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슬람의 세금(자카)을 바치는 것이 자신의 체면을 손상시키거나 자신이 무슬림이 아니라는 기분이 상한다고 생각한다면 “공물” 혹은 지즈야로 알려진 다른 형태로 세금을 바칠 수도 있다.-그러므로 그는 사실상 그 국가의 무슬림들이 누리지 못하는 선택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국가에 기여하는데 대한 대가로 그는 국가 공무원과 사회에 의해 보호와 안전을 제공받을 충분한 권리가 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국민이 혼인□이혼□음식□상속 등의 사생활을 이슬람의 법에 따라 관리하고자 한다면, 그의 희망은 인정되고 그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신의 종교 교리에 따라 이런 일들을 처리하고자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절대적인 자유가 있으며 누구도 거기에 대한 그의 권리를 훼손할 수 없다. 그러므로 사적인 혹은 감정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는

자신의 가르침에 의지할 수도 있고 공적 규정에 의지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공익과 공사의 문제에 있어서는 국가의 법 곧 하나님의 법을 준수해야 한다. 어떤 선택을 하거나 안전과 보호의 권리가 다른 국민보다 못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 모든 것은 한갓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천국의 꿈이 아니다. 그것은 꾸란의 가르침이요, 무함만의 관습이며 이슬람 역사의 기록이다. 예를 들어 전하는 바에 의하면 무함만 이후 제 2대 칼리프인 우마르 이븐 알-카따브가 한 번은 어떤 곳을 지나다가 가엾은 처지에 있는 한 늙은 유대인을 보게 되었다. 우마르는 그 사람에 대해 물어 보고는 그 처지가 어떠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유감이 섞인 말투로 그는 이렇게 말했다 : “그대가 능력이 있을 때 우리는 그대에게서 공물을 징수했다. 그런데 이제 그대가 돌보는 이 없어 버려져 있으니 진정 이 우마르가 그대에게 불공평하였도다!” 말을 마치자 우마르는 연금을 정기적으로 그 노인에게 주라고 명했고 그 명은 즉각 시행되었다. 우마르를 비롯한 통치자들은 무함만이 이룬 정치적 정향(定向)을 수용하였으며, 이 무함만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았던 것이다. 이들 가르침이 다음의 꾸란 구절에 적혀 있다 :

너희 신앙을 인하여 너희와 싸우지 아니하며 너희 집에서 너희를 쫓아 내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친절하고 공평하게 대함을 하나님은 금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공평한 사람을 사랑하심이라. 다만 하나님께서는 너희 신앙을 인하여 너희와 싸우며 너희 집에서 너희를 쫓아내고 남을 도와 너희를 추방하는 자들에게 우정과 보호를 금하시느니라. 저들에게 우정과 보호를 구하는 자들은 행악자들이니라. (꾸란, 60:8-9)

끝으로 이슬람 국가와 그 무슬림 원수의 필요성을 소수 집단에 속할지도 모르는 자가 이론적으로 국가 원수로 있을 법한 세속국가와 비교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잘못이다. 이러한 비교는 몇 가지 이유 때문에 불합리하며 오해를 일으키기 쉽다. 첫째, 그것은 세속주의가 아무리 피상적이라 하더라도 이슬람의 이데올로기보다 건전하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 혹은 전체는 과장된 것이다. 둘째, 이슬람하의 국가 원수의 의무와 권리는 전술한 바, 세속질서에 속해 있는 국가 원수의 그것과는 판이하다. 셋째, 현대의 세속 정신은 대부분의 경우 배상하여 구제 내지 사죄하는 것이나 이것은 이슬람에는 적합하지 않다. 더욱이 세속 국가의 원수가 진실한 사람일 수 있다 하더라도 인종적□종족적 혹은 종교적으로는 소수에 속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국가 원수는 거의 예외 없이 다수당에 가입해야 한다. 이것은 실제에 있어서 종교적 다수를 정치적 다수로 대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것을 소수의 지위 향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세속 논리는 전반적

으로 국가 원수직을 개인에게 부여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리나 특전으로 전제한다. 이슬람의 입장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슬람에 있어서의 국가 원수직은 최우선적으로 의무요 감당하기 어려운 서약이며 두려운 책임이다. 그러므로 이슬람이 만약 이런 책임을 비무슬림에게 과한다면 그것은 형평을 잃은 처사가 될 것이다.

6. 국제 생활

이슬람의 국제 생활이란 이슬람 국가 혹은 민족과 타국가 혹은 민족 사이의 관계 노선이다. 이슬람 생활의 다른 측면들과 마찬가지로 이 역시 하나님의 인도에서 비롯하며 하나님의 모범을 따른다. 국제 생활이 세워지는 기초는 다음과 같다 :

1. 기원과 인간으로서의 지위와 목적에 있어서의 인류의 통일성을 확신한다. (꾸란, 4:1, 7:189, 49:13)
2. 무슬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타국민의 이익과 생존권, 명예와 재산을 합당하게 존경한다. 이것은 권리 침해와 범죄와 부정이 엄히 금지되기 때문이다. (꾸란, 2:190-193, 42:42)
3. 평화를 정상적인 관계 노선으로 하여 선의의 사절을 교환하고 만인의 공유하는 인간애를 위해 상호 정직하게 노력한다. (꾸란, 8:61과 전기 참조)
4. 국제 관계에 있어서 유화정책과 침략을 용납하지 않는다. 만약 이슬람 국가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평화를 어지럽히거나 안보를 위협하거나 평화정책을 악용하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국가는 즉시 자신을 방위하고 이런 성격 가진 모든 기도를 분쇄해야 한다. 이런 경우 이런 생활 아래서만 이슬람은 전쟁을 정당시한다. 그러나 전쟁을 할 경우에도 그 범위를 최소한도에 국한시키고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전쟁을 한다는 도덕적인 원칙을 따라야 한다. 이슬람에 있어서의 전쟁과 평화의 법은 자주 도덕적이고 독특하며 포괄적이고 건전하다. 이 법은 본서에서 다룰 이유는 없지만 법학자나 윤리학자들이 특히 연구해 볼 만한 것이다. 그러나 이슬람은 침략전쟁을 정당시하지 않으며 농작물, 동물, 집 등의 전쟁의 객체는 파손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이슬람은 비전투원인 부녀자□아이□노약자의 살해는 허용하지 않으며 전쟁포로의 고문이나 패자에 대한 교리의 강요를 묵인하지 않는다. 전쟁은 세상에 부정과 불의와 침략이 존재하는 한 이슬람의 현실적인 제원칙에 의해 정당화되는 방어 조처에 불과하다.(꾸란, 2:190-195, 216-218, 22:39-41, 또한 후기의 지하드 논의 참조)
5. 이슬람 국가가 짊어질 의무들을 이행하고 이슬람 국가와 타국가 간에 체결된 조약을 존중한다. 이것은 조약 상대방이 자기 의무에 충실하고 조약을

존중하는 경우에 한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그렇지 않을 경우 조약은 효력을 상실하며 의무의 구속성은 없어진다.(꾸란, 5:1, 8:55-56,58, 9:3-4)

6. 국내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국제적 차원에서의 인간 이해와 보편적인 형제애의 실현에 진심으로 기여한다.

이상이 이슬람 국가가 국제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고무적인 원천이다. 이슬람 국가는 자신과 그 국민만을 위해 살지 않는다. 국제적인 장(場)속에서 넓은 활동 범위와 중요한 사명을 가지는 것이다. 이슬람의 명에 의해 이슬람 국가는 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자국민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또 같은 명에 의해 전체 인류에게 가치 있는 공헌을 해야 한다. 이것은 가장 넓은 의미에 있어서 우호적인 국민과 국가와의 우호관계를 마련하며, 이슬람 국가가 국제적 차원에서 인류를 위해 교육□경제□산업□정치 등의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역할은 무함만에 의해 친히 시작되었고 그 분의 후대 추종자들에 의해 존속되었다.

본 장을 마무리하기에 앞서 여기서 논의된 내용은 모두 꾸란과 무함만의 관습에 언급된 건전하고 진실하며 참된 이슬람의 제원칙에 근거한다는 점을 지적해 둔다. 이것이 무함만과 그 분의 충실한 추종자들이 가장 훌륭하게 실천하고 본을 보였던 이슬람이다. 어느 특정 신학자 혹은 어느 특정 법학자나 지배자의 이슬람이 아닌 것이다. 오히려 그것은 실제 있는 그대로의 이슬람 본연의 이슬람이라고 필자는 믿는 바이다.

또 하나 명심해 둘 것은 이슬람의 생활 제도는 독특하며 여타의 모든 제도와 이데올로기와 다르다고 하는 점이다. 영적 혹은 도덕적, 지적 혹은 문화적□정치적 혹은 경제적 관점에서 모든 기타 다른 관점에서 모든 이슬람의 생활 제도가 독특한 성격을 띠는 것을 쉽사리 알 수 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

1. 이슬람의 이데올로기의 근원이 다르다. 이슬람의 이데올로기는 인간이 만들어 낸 게 아니다. 파괴적인 정치가나 복수심에 불타는 경제학자의 저작이 아니요, 실용주의적인 윤리학자나 이기적인 산업주의자의 작품은 아니다. 그것은 인류 전체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이며 무한하신 분의 예술품이다. 그리고 성질상 그것은 구속력을 가지며 충실한 모든 사람에게 의해 존중된다. 이슬람의 이데올로기는 풀기 어려운 신비나 은밀한 제한이나 특권의 사칭이 없기 때문에 정상인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를 이해할 수 있다.

2. 이슬람의 이데올로기의 목적이 또한 다르다. 이슬람의 이데올로기는 세계 지배나 물리적 팽창을 목적을 하지 않는다. 이와는 달리 하나님의 뜻에 세계를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법의 한계에 세계를 묶어 두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그 주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인간에게 도움을 주어 창조주의

제 5 장 이슬람에 대한 왜곡(歪曲)

본 장에서는 일부 무슬림이 망각하고 사실상 여타의 모든 사람들이 왜곡해 온 이슬람의 몇 가지 측면들을 다룬다. 이들 측면에 진리의 빛을 투시하여 진상을 밝히는데 역점을 둘 것이다. 진상을 밝히되 누구를 달래거나 비난하거나 혹은 누구에게 아첨할 생각도 없다. 이슬람은 이런 것을 용납하지 않으며 직선적인 사고와 행동을 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들 측면의 진상을 발견□제시하여 비무슬림의 인식을 새롭게 하고 이지적이고 책임을 질 줄 아는 합리적인 존재답게 각자가 스스로 보고 결정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 본 논의의 의도다.

서양에 살고 있거나 서양의 문헌에 친숙한 무슬림들은 일부 서양인들이 내놓은 놀라운 연구 내용과 충격적인 논평에 종종 접한다. “성전”, “반 그리스도 이슬람”, “일부 다처제”, “이혼”, “이슬람에서의 여자의 지위” 등이 가장 자주 거론되는 문제 등이다. 진리를 위하여 그리고 오해하고 있는 악의 없는 연구자들 가운데 정직한 사람들을 위하여 이 문제들을 간단히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

1. 성전(지하드)

이슬람이 칼로 전파되었을까? “꾸란이 아니면 칼”이라는 것이 무슬림의 상징이었을까? 무슬림들은 세속 권력 혹은 전리품이나 추구하는 제국주의자들이었을까? 긍정적인 쪽으로 생각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부정적인 쪽으로 생각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꾸란은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 이와 관련하여 무함만의 전기가 나타내는 바는 무엇인가? 진리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정직한 사람 모두에게는 스스로 답을 찾아내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분명하게 알려 주는 일이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세상에 불의와 압제와 변덕스러운 야심과 독단주인 주장이 존재하는 한 전쟁은 존재의 필연이요, 삶의 현실임을 꾸란은 분명히 한다. 이것이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류가-역사의 먼동이 틀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국지전□내란□세계 대전으로 고통을 당해 왔다는 것은 역사 기록의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승리한 동맹국은 흔히 자기네 이익과 패전한 적의 지위에 대한 분쟁을 전쟁이나 전쟁의 위협을 통하여 처리한다는 것 역시 사실이 아닌가? 오늘날까지도 인류는 세계 도처의 분쟁지역에서 전쟁의 끊임없는 공포와 소란 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의 현실을 간과하실 수 있었을까? 혹은 꾸란이 현실적이고 효과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없었을까? 단연코 아니다! 이것이 이슬람이 전쟁을 자기를 방위하고 정의와 자유와 평화를 회복하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수단으로 인정하는 까닭이다. 꾸란은 이렇게 말한다:

너희에게 싸울 것을 명하나 너희는 싸움을 싫어하는 도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로운 것을 너희가 싫어 할 수도 있고, 너희에게 해로운 것을 너희가 좋아 할 수도 있나니, 하나님은 아시나 너희는 알지 못하느니라.(꾸란, 2:216)

하나님께서 한 무리의 사람들을 다른 무리로 저지하지 않으신다면 땅은 정녕 해악으로 가득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대한 자비로 충만하시도다.(꾸란, 2:251)

하나님께서 한 무리의 사람들을 다른 무리로 저지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수다히 기념하는 수도원과 교회와 회당과 성원이 정녕코 무너졌으리라.(꾸란, 22:40)

이슬람은 그 접근 방법이 현실적이기 하지만 자기편이나 상대방이 침략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며 침략 전쟁이나 침략 전쟁의 개시를 좋아하지 않는다. 무슬림들은 하나님에게 전쟁을 시작하거나 전쟁 행위에 착수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는 명을 받고 있다. 앞장에서 이미 말한 내용에 더하여 꾸란의 특별한 몇몇 귀절이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음과 같다 :

하나님을 위하여, 너희와 싸우는 자들과 싸우되 한계를 위반하지 말아라(전쟁을 시작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위반자들을 사랑하지 않으심이라. 그리고 너희가 어디에서 저들을 잡든지 죽일 것이요 저들이 쫓아낸 곳에서 저들을 쫓아낼지니라. 폭동과 압제가 살육보다 더 나쁨이라. 그러나 저들이 (먼저)너희에게 싸움을 걸지 않는 한 성원에서 저들과 싸우지 말라. 그러나 저들이 싸움을 걸어온다면 살해하라. 이것이 신앙을 억압하는 저들의 댓가이니라. 그러나 저들이 그친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자비로우사 용서하시느니라. 그리고 저들과 싸우되 더 이상의 박해가 없을 때까지, 정의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편안해 때까지 하라. 그러나 저들이 그친다면 압제를 자행하는 자들 말고는 적대 행위를 하지 말라.(꾸란, 2:190-193)

전쟁이 이슬람의 목적은 아니며 무슬림의 정상적인 수단도 아니다. 그것은 다른 모든 수단이 통하지 않는 비상 사태 아래에서만 사용되는 최후의 수단이다. 이것이 이슬람에서 전쟁이 차지하는 사실상의 위치다.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다. 이슬람의 의미는 평화이며 하나님의 이름 중의 하나가 평화다. 무슬림과 천사의 일상의 인사말도 평화다. 낙원은 평화의 집이며 '형용사'로서의 무슬림은 '평화로운'을 뜻한다. 평화는 이슬람의 본질이요, 의미의 상징이요, 목적이다. 모든 사람은 종교적□지리적□인종적 이유를 불문하고 이슬람이나 무슬림들을 공격하지 않는 한 이슬람의 평화와 무슬림의 친절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비무슬림들이 무슬림들과 평화를 유지하거나 이슬람에 무관심하다면 그들에게 선전을 포고할 정당한 이유가 있을 수 없다. 비무슬림에게 이슬람을 강요하기 위한 종교 전쟁 같은 것은 없다. 왜냐하면 안으로부터의 깊은 확신에게 우러나오지 않는 이슬람은 하나님께서 가납하시지도 않거니와 그 신앙 고백자에게도 도움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종교의 평화로운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의 강요를 금하는 종교나 헌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이슬람이며 또 이슬람뿐일 것이다. 이 점에 관하여 꾸란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종교를 강요하지 말라. 진리는 오류와 뚜렷이 구별되며, 누구든 악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결코 부서지지 않는 가장 믿을 만한 손잡이를 잡은 것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듣고 아시느니라.(꾸란, 2:256)

이슬람을 전파하는 경우에도 무슬림은 무력을 쓰는 것이 금지될 뿐만 아니라 가장 평화적인 방법을 쓰라는 명을 받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무함만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

지혜를 다하고 아름다운 선교를 펴 (모든 사람)너의 주의 길로 초대하며 최선을 다하여 가장 정중하게 저들과 의논하라. 너희 주께서 누가 당신의 길에서 벗어났으며 누가 인도를 받아들이는지 가장 잘 아심이라.(꾸란, 16:125)

(단순한 논쟁보다)더 낫은 방법이 아니라면 악행과 해를 가하는 자들을 상대하지 않는 한 성서의 백성들(유태인과 기독교인)과 논쟁하지 말고 이렇게 말할지니라. 우리에게 임한 계시와 너희에게 임한 계시를 믿노라. 우리의 하나님이요, 너희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우리(이슬람)는 바로 그 분께 경배하느니라(꾸란, 29:46)

그런데 이슬람이 것처럼 평화로 일컬어지고 무슬림들이 것처럼 평화에 헌신한다면 그리고 꾸란이 평화를 지지한다면 무함만이 전쟁을 개시하고 전투를 명한 이유는 무엇인가? 어쩌서 꾸란은 '저들을 죽이고' 저들과 싸우라고 말하는가 겉보기에 그럴듯해 보이는 이 질문을 검토하려면 불가불 이교도에 대한 무슬림의 전쟁에 수반되고 그 전쟁을 예견한 역사적 사실 몇 가지를 언급해야 한다.

무함만은 하나님에게 임무를 받은 후에 공개 회의를 소집하여 모인 사람들에게 자신이 받은 내용에 대해 말하면서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한 분이신 참하나님을 믿으라고 호소하였다. 무함만이 행한 최초의 평화적이고, 논리 정연한 호소는 저항에 부딪혔을 뿐 아니라 조롱과 냉소와 비웃음을 당하였다. 그래도 무함만은 그치지 않고 백성들에게 축복 받을 부름을 얘기했으나 거의 성과가 없었다. 여러 사람 앞에서 이슬람을 전파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자 그는 소수의 추종자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고생을 덜어 주기 위해 수년 동안 은밀히 선교하였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개적으로 선교하라는 지시가 내리자 박해와 고문이 점점 심하고 무자비하게 무슬림들에게 가해졌다. 그러나 박해가 심해질수록 무슬림의 수는 늘어만 갔다. 이교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침묵시키려고 온갖 압력과 유혹을 기도했다. 그러나 이런 기도가 되풀이 될 수록 무함만과 무슬림들은 점점 더 의연한 태도를 취했다. 이교도들은 위협, 압력, 재산의 몰수, 조롱 등에 의해 신자들의 믿음을 깨뜨릴 수 없게 되니까 무슬림들에 대한 가혹한 보이코트와 맹렬한 추방운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하였다. 수년 동안 멕카인들과 매매, 혼인, 계약도 할 수 없었다. 그래도 무슬림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보이코트는 이교도들이 그것을 지키는데 지쳐서 철회하지 않을 수 없을 때까지 계속되었다.

가혹한 보이코트는 끝났으나 그렇다고 이교도들이 평화의 뜻을 비치거나 평온을 기대한 것은 아니었다. 반대로 압력과 박해가 가속화되었다. 그러나 무슬림들에게는 이 모든 일이 소용이 없었다. 마지막으로, 이교도들은 막후에서 수뇌회담을 열어 이슬람을 뿌리뽑고 무함만을 단번에 제거하기 위한 차후의 대책을 논의하였다. 각 부족에서 장사 한 사람씩을 뽑아 무함만이 잠자고 있는 틈을 타서 살해하자는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무함만의 사명이 그 장소에서 끝날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함만에게 정든 고향 맥카를 떠나 메디나로 이주하여 도착 무슬림들과 맥카에서 메디나로 먼저 피신한 이주자들과 재결합하라고 지시하였다.(꾸란, 8:30, 9:40 참조) 이것이 바로 히즈라 혹은 성전의 대사건이었던 바, 이슬람 역사가 여기서 시작되며 이슬람력이 여기에 의거하고 있는 것이다.

무슬림들은 맥카에서 피신할 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진 재산과 소유물 전부와 가족들까지 뒤에 남겨 놓게 되었다. 메디나에 정착하자마자 무함만은 평화적인 선교를 재개하여 이슬람으로 정중하게 초대하였다. 일부 토착민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하여 즉시 무슬림 공동체의 어엿한 성원이 되었다. 이슬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의 전통적인 신념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었다. 무함만은 고귀한 평화와 개혁에 헌신하였던 것이므로, 비무슬림들과 조약을 체결하여 그들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고 편협한 부족적 충성 대신에 사회□국가적 양심을 그 마음속에 일깨웠다.

무함만이 이러한 개혁을 하면서 메디나에 무슬림 공동체를 조직하고 무슬림과 비무슬림이 나란히 살 수 있는 안정되고 평화로운 사회의 기초를 놓는데 힘쓰고 있는 동안, 메카의 적들은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다. 무슬림에 대한 증오심은 불길처럼 타올랐고 이슬람을 뿌리뽑자는 결의는 하루가 다르게 굳세어만 갔다. 그들은 전략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계획이 마무리되자마자 그 실행에 착수하였다. 대외적으로 무슬림들을 곤경에 빠뜨리자는 것이 그들의 작전이었다. 메디나를 공략하여 손에 닥치는 대로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올 양으로 약탈□침략군이 조직되었다. 메디나의 비무슬림들은 이슬람이 끄는 인기와 그들로서는 경험하지도 못했고 특히나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을 눈꼴사나워하며 무슬림 상호간의 고귀한 형제애의 정신을 점점 시기하게 되었다. 그래서 메카의 적들을 놓칠세라 이런 상황을 이용하여 무슬림에 대한 내란을 획책하였다. 시기하는 메디나의 비무슬림들의 맥카인의 선동에 대한 반응은 신속하고 뚜렷하였으며 메디나 전역에 걸쳐 심각한 분란이 있었다.

이제 무슬림들은 맥카로부터의 조직적인 침공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메디나의 새롭게 눈을 뜬 자들에 의해 내부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었다. 무슬림들은 더 이상의 박해와 위협을 감당할 수 없는 막바지에 몰렸다. 가족과는 강제로 헤어졌으며 재산을 몰수당했다. 그들은 피를 뿌렸고 3 차에 걸친 이주 파동-두 번은 아비시니아로 한 번은 메디나로-으로 정든 고향을 떠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30 여 년을 참았던 것이다. 메카의 적이 세운

새로운 전략 앞에서 대량 학살로 전멸의 최후를 기다리거나 압제와 박해에 대항하여 스스로를 지키는 것 외에 무슬림에게는 다른 방도가 없었다.

그것은 분명 하나의 역설이었다. 이슬람은 무슬림들에게 존엄과 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고 선과 도움, 능력과 평화의 최고 원천이신 하나님과 동맹을 맺어주기 위해서 왔다. 그러나 그들은 도움을 받기느커녕 근심과 위협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었다. 이슬람은 그들에게 평화를 수립하고 의를 명하며 악을 금하고 억압당하는 자들을 옹호하며 피정복자들을 해방시키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얼마나 믿음직하고 도움이 되는 분인가를 입증하라는 임무를 주었다. 그러나 이들 자신이 억압당하고 두려움에 빠진데다 무력한 상태에 처해버린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들 대부분을 당혹케 한 것은 꾸란이 그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어떻게 하라는 특별한 지시를 내리지 않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들 당혹감은 오래가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문제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단을 내려 그들의 슬픔을 덜어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내린 결단을 다음과 같이 말씀으로 나타내신다:

진실로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수호하시니라. 하나님은 믿음을 배반하거나 배은망덕한 자를 정녕코 사랑치 아니하시느니라. 전쟁을 걸어오면 싸울 것을 허락하노니, 이는 저들이 해를 당함이라. 진실로 하나님은 지극히 강하사 저들을 도우시느니라, 저들은 (아무 까닭도 없이) '우리의 주는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자기 집에서 쫓겨난 자들이라. 하나님께서 한 무리의 사람들을 다른 무리로 저지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수다히 기념하는 수도원과 교회와 회당과 성원이 정녕코 무너졌으리라. 하나님은 당신의 대의를 돕는 자들을 정녕 도우시리니 진실로 하나님은 힘으로 총만하고 능력에 뛰어나며 (당신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분이심이라. 저들은 우리가 그 땅에 안주시키면 예배를 거르지 않고 제 때에 자선하며 의를 명하고 악을 금하는 자들이라. 만사의 끝과(결정) 하나님께 달려 있느니라(꾸란, 22:38-41)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을 내리자 무슬림들은 더 이상 박해와 압제를 당하지 않았다. 무슬림들은 평온을 다시 찾고 평화와 자유를 회복하며 자기 가족과 재회하고 재산을 되찾기 위해 대항하였다. 무슬림의 평화와 자유를 약탈하게 거부한 악의의 이교도들과 전투와 전쟁을 벌였다. 그러나 무슬림 편에서 먼저 공격한다든지, 집, 농작물, 보급품 등을 파손한다는 지 혹은 비전투원인 아이, 부녀자, 무능력자를 죽이는 일은 결코 없었다. 무슬림들은 이들 규정을 지켜 하나님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것은 전후후무한 일이었다. 바로 이런 상황 아래서 무슬림들은 싸워야 했으며,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원칙과 지시로서 그들은 최후에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검은 아라비아의 이글거리는 메마른 사막에서 출현하여 로마와 페르시아의 속령을 정복하고 대담하게도 유럽의 성벽을 에워싸기까지한 '잔인한' 무슬림을 다룬 얘기나 기록이 상당히

많다. 이 무슬림들이 갈 수 있는 데까지 무력을 이슬람을 전파시키겠다는 종교적 열망에 의해 움직였다는 견해를 피력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 이슬람은-그 성격상-강요될 수 없으며 설사 이슬람을 피정복민에게 강요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곳에서 오랫동안 존속할 수 없었을 것이고 정복된 지역에서 비무슬림들이 축출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견해를 어리석고 소박하다고 보는 사람들도 많다. 이슬람은 가는 곳마다-몇 가지 이유 때문에 스페인은 예외로 하고-살아 남았으며, 무슬림 정복자들이 가는 곳마다 비무슬림 토착민들과 나란히 살았다는 것은 역사가 증거 하는 바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이슬람 같은 종교를 누구에게 강요할 경우, 새로운 지역의 무슬림 개종자들이 그랬던 것만큼 자기 신앙에 대해 지지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는 예를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패배한 사람들 중에서 이처럼 훌륭한 무슬림들을 키워내는데는 강요 이상을 요하며, 이들이 “강요된”종교를 지지하고 여기에 애착을 갖게 하는 데는 억압 훨씬 이상을 요한다.

또 하나, 일부 지식인 혹은 사리에 밝은 비판자나 권위자임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지니는 사고 경향이 있다. 그들은 이슬람이 무력으로 전파되었다는 저 어리석고 소박한 견해에 만족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이슬람의 팽창을 아라비아의 열기와 가뭄에 질식하고 단순히 경제적인 필요와 사정에 의해 움직인 무슬림들이 일으킨 침략 전쟁의 탓으로 돌린다. 그러한 전쟁과 모험은 종교적이거나 영적인 성질의 것이 아니었으며 당장 먹고사는 문제가 급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아랍인들이 것처럼 고도의 희생과 헌신을 하지 않았고, 무함만의 사후 그의 잔존자들과 이들의 뒤를 이은 잔존자들이 종교에 아주 흥미를 잃고 당장의 욕구만을 채우기 위해 기동했으며 이슬람 자체가 아랍의 무슬림 전사들의 마음에 열기와 정열을 불어넣을 수 없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암시는 다양하며 이런 견해의 지식인들은 어느 것을 앞세워야 할 지 단정한 입장이 못 된다.

아라비아에서의 무슬림의 전쟁을 약탈과 침략의 야욕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지니는 사고 경향이 또 하나 있다. 그들은 무슬림에게서 피해 굶주리고 전리품을 노린다는 것 이외의 동기를 보지 못하며 다른 호소를 알아차리지 못한다. 이슬람에서 미덕을 보려하지 않으며 무슬림에게 고상한 동기를 관련시키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들 각파 사이의 논쟁은 아주 심각하며 때로 학문적인 논의의 모습을 띠기도 한다. 어쨌거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비판자들 중 누구도 진지하게, 문제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진상을 공개하려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모두가 통찰력이 결여되어 있었고 사건 전모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공표할 만한 용기도 없었다. 그들이 언젠가 자신들이 수많은 사람을 오도하여 판단을 흐리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짐이 얼마나 무겁겠는가! 진리에 대해, 무슬림들에 대해 그리고 자신의 추종자들에 대해 대죄를 범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 책임이 얼마나 막중할 것인가!

여기서 각 전쟁과 전투에 관한 이슬람의 견해를 상세히 제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언급해 두면 문제 전체를 올바르게 알 수 있게 할 주요 논점이 몇 가지 있다.

1. 모든 인류를 위한 자비로서의 사명을 하나님에게 받은 무함만은 인근지역의 통치자들에게 접근하고자 노력했고 이들에게 이슬람을 받아 들여 하나님의 자비를 함께 나누고자 권유한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통치자들이 무함만의 정중한 권유를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무함만을 조롱하고 무슬림들에게 선전포고를 하였다는 사실이다. 무함만의 생전에 로마와 페르시아의 군대가 무슬림의 국경을 넘어 여러 번 침략해 왔다. 그래서 무함만이 죽을 때까지 무슬림들은 부득이 이웃나라와 싸우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사태가 계속 되었던 만큼, 후대에 일어난 일은 모두 이러한 최초의 사건의 맥락 속에서 보아야 한다. 이것은 당시에 스페인과 프랑스를 비롯한 모든 기독교국이, 등장하는 이슬람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벌였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유럽에서의 무슬림들의 모험 역시 이런 상황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 모든 기독교국이 하나의 강국으로 움직이고 있었다는 사실은 로마 교황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의심할 여지없는 권위에 의해 입증된다. 또한 이 사실은 중세와, 금세기의 1/4 분기의 십자군 운동시 이슬람을 상대로 한 기독교 병력의 총동원에 의해서도 입증된다.

그러므로 로마가 이슬람에 대한 전쟁을 승인하였을 때, 무슬림들에게 어떤 전장에서든-팔레스타인이나 비옥한 초생달 지대에서든, 이탈리아나 헝가리에서든-맞받아 싸울 충분한 권리를 인정치 않을 수 없었다. 무슬림들은 가만히 앉아서 로마와 페르시아의 막강한 병력에 의해 사방에서 포위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스페인과 프랑스 남부로 가게 한 것이다. 그들을 땅 위에서 소탕되기를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무함만을 죽여 목을 잘라서 황실에 바치라는 명령이 로마에서 내려졌다. 이는 로마의 이교도들이 초기의 기독교 개척자들에게 저질렀던 만행이었다. 그러나 후세기의 일부 전쟁들은 무슬림들이 싸우기는 했지만 이슬람과 아무 관계도 없었음을 인정해야 한다. 이들 전쟁은 이슬람을 포교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어떤 지역적인, 어쩌면 개인적이라 할 이유들이 작용하고 있었다.

무슬림들이 가한 것이건, 당한 것이건 침략은 침략이다. 이슬람의 침략에 대한 태도는 알려진 대로며 변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후에 침략 전쟁이 있었다면 그것은 이슬람에 의해 정당화 될 수 없거니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도 않을 것이다.

2. 전술한 비판자들 중 누구나 그 당시의 초기 성격과 상황을 이해하려 들지 않는다. 당시에는 마스크이 존재하지 않았다. 대인 접촉에 의하지 않고 홍보하거나 선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생명이나 재산이나 명예 혹은 개인이나 약소국의 협정을 존중하지도 않았다. 안전보장이나 평화의 자유도 없었다. 고상한 대의명분을 위해 싸우거나 인기 없는 신념을 입밖에 내는 자는 모두 협박당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 기독교 개척자들 그리고 초기의 무슬림들의 전기에서 드러난다. 통치자들과 총독들에게 특별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명을 띤 많은 사자들이 함흥차사가 되고 말았다. 그들은 바로 자기 주인들에 의해 냉혹하게 살해되거나 체포당하였다.

아라비아의 무슬림들은 이러한 모든 곤경을 헤쳐 나가야 했으며 이러한 모든 상황하에서 그들은 일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인류에게 메시지를 전해야 했고, 인류를 위해 기여해야 했으며 구원의 신조를 권해야 하였다. 꾸란은 지혜를 다하고 아름다운 선교를 펴 하나님의 길로 초대하고 가장 정중하게 의논하라고 말한다. 그러나 거기에 누가 하나님의 평화적인 부르심에 기꺼이 귀를 기울이려 하였는가? 많은 불신자들이 예언자의 평화적인 설교에 물들지 않으려고 예언자의 말을 듣기를 기피하는 실정이었다. 그들은 심지어 무력으로 이슬람의 평화적인 부름에 저항하였다. 일찍이 아라비아에서 겪은 체험을 통하여 무슬림들은 평화를 견지하면서 동시에 경계태세를 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며, 평화를 수호할 수 있을 만큼 강한 경우에만 평화롭게 행동할 수 있고 평화의 소리는 압박에 저항하고 압제를 제거할 수 있을 때 더 잘 울려 퍼지리라는 것을 배웠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명에 따라 이슬람을 바깥 세상에 알려야 했다. 그러나 원거리 통신 체계나 신문 혹은 기타의 매스컴이 없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즉 직접적인 대인 접촉뿐이었던 바, 이것은 국경을 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였다. 그러나 소규모의 비무장집단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대규모의 무장 보호 집단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이 분명 군대처럼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건전한 의미의 군대는 아니었다. 무슬림들은 여러 시기에 여러 방향으로 국경을 넘었다. 이 때 일어났던 일은 고려해 볼 만하다. 어떤 지역에서는 로마와 페르시아의 외국세력에 오랫동안 억압과 복종을 당해 왔던 토착민들에게 열렬한 환영을 받았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이슬람을 권하는 처지가 되었다. 이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슬람세금(자카)에 상당하는 공물(조공)을 바치도록 요구하였다. 이러한 세금을 요구한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무슬림들은 이 납세자가 자신이 어떻게 했다는 것을 스스로 알며 이슬람이 제시되었으나 자신이 자유의사와 선택으로 지불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싶었다. (2) 무슬림들은 무슬림 자신과 마찬가지로 납세자를 보호하고 그의 안전과 자유를 보장할 의무가 있었다. 납세자의 위험은 곧 무슬림 동포의 위험이었으며 무슬림을 지키기 위해서는 비무슬림을 지키고 그 안전을 보증해야 했기 때문이다. (3) 새로운 사태는 모두의 기지와 협조 곧 무슬림에게는 자카를, 비무슬림에게는 공물을 요청하였다. 이 모든 것이 공익을 위해 사용되었다. (4) 무슬림들은 납세자가 자신들과 자신들의 새로운 형제를 적대하거나 무슬림이 된 그의 동포를 괴롭히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하고 싶었다.

이슬람을 배척하고 자기 국가를 지원하기 위해 다른 분파들과 공모하여 공물을 바치기를 거부한 자들은 스스로 사태를 악화시켰다. 그들은 처음부터 적대 행각을 벌였고 새로운 무슬림들이 아니라, 새로운 무슬림 개종자들과 공동 납부자들에게 혼란을 획책하였다. 국가적으로 그런 태도는 반역이었고 인간적으로 야비하였으며, 사회적으로 경솔하였고 군사적으로는 도발이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것이 새로이 온 자들의 안녕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바로 이러한 반역자들이 살고 있었던 국가를 위하여 진압될 필요가 있었다. 이것은 이런 사람들을 각성시키고 자기들 책임-즉 이슬람을 쾌히 받아들이는

무슬림으로서의 책임 혹은 공물을 바치고 무슬림이 된 동포들과 함께 살면서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그들과 공유할 수 있는 성실한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한 유일한 경우였다.

3. 이러한 비판자들은 전쟁과 평화에 관한 꾸란의 규정을 알아보겠다는 정직한 의도로써 꾸란을 연구해 봄이 현명할 것이다. “피정복민”의 지위와 무슬림과의 접촉 전후의 생활조건을 연구해 보면 더욱 좋다. 페르시아와 로마의 속령의 원주민들이 와서 외국이 억압적인 통치로부터 해방시켜 달라고 무슬림들에게 절박하게 호소하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들은 뭐라 말할 것인가? 무슬림 정복자들이 무슬림의 보호와 무슬림의 정의로운 통치를 갈망하는 종교적인 족장과 평민에게 즐거운 환영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피정복”민 중 일부가 “쳐들어오는” 무슬림을 환영했을 뿐만 아니라 무슬림 편에 서서 압제자들과 싸웠다는 현상을 그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슬람하의 “점령”지역의 번영과 자유와 발전을 그 이전의 지배적인 상태와 비교하여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필자는 이 문제에 대한 특별한 관점을 확인하거나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않겠다. 다만 이 문제는 재고와 신중한 연구의 여지가 있다고 믿을 뿐이다. 발견 내용은 확실히 흥미 있고 의미심장한 것이다. 현대의 지배적인 세계상태에 비추어 그 문제를 전체적으로 고찰한다면 아마 서양인에게 이해가 더 잘될 것이다.

4. 해외에서의 무슬림의 전쟁이 아랍인들의 경제적인 요구에 의해 유발되었다는 생각 역시 재고의 여지가 있다. 이런 생각을 지지하는 자들은 겉보기에 자신들의 추측을 확신하고는 있지만 정말 사실을 진지하게 조사해 본 것은 아니다. 경제적 요구가 무슬림들이 아라비아의 국경을 넘게 한 이유였다는 게 그들의 정직한 생각일까? 어떤 근거에서 그들은 고대의 사업 중심지와 계곡과 오아시스가 있는 아라비아가 더 이상 무슬림들을 충분히 부양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가? “침공한” 무슬림들이 어느 정도로 자급자족했으며 자신들 지배하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이 분배했고, 메디나, 다마스쿠스, 바그다드, 카이로에 있는 중앙 정부에 얼마나 많이 반환했는지 신중하게 조사해 보았던가? 이슬람이 오기 이전의 “점령”지역의 소득을 비교해 보고 과연 침략자들은 단순히 자기 이익만을 추구한 투기꾼들인지 아닌지 밝혀 내었던가? 당시의 무슬림들이 준 것보다 뺏은 게 더 많거나, 말긴 것보다 찾아낸 게 더 많거나 혹은 투자한 것보다 벌어들인 게 더 많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가? 아라비아의 중앙정부가 바로 “정복자” 속령의 발전에 필요한 공물이나 조세를 이들 정복 속령으로부터 언제고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라도 발견했는가? 또 그렇다면 얼마나 많이 받았으며 그것이 미지의 세계에서 모험할 만한 가치가 있었는가? 아라비아가 “점령”지역보다 세출이나 발전 계획 면에서 더 특권이나 우선권이 부여되었다는 믿을 만한 정보라도 입수했는가? 끝으로 아라비아가 갑자기 인구폭발의 위협을 의식한 나머지 무슬림들이 부득이 모험적인 전쟁이나 경제적인 탐험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인가?

무슬림이 비무슬림과 접촉한 것을 경제적 요구의 관점에서 해석하려는 시도가 참신하고 공감의 여지가 있어 보이지만 그다지 사실성이 있어 보이지 않으며, 학문적인 진지성도 있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시도에 붙일 수 있는 최소한의 단서는 그것이 결코 만족스럽거나 완벽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다. 아직도 연구, 조사, 분석, 비교의 여지가 상당히 많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비판자에게는 자신의 이론적 가정을 타당하고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통용시킬 수 있는 도덕적 권리가 없다. 그런 만큼 이슬람은 다시 한번 모든 비판자들에게 더욱 진지하게 진리를 탐구하라고 권하는 것이다.

5. 무슬림의 전쟁을 약탈물과 전리품에 의하여 고찰하는 사람들의 견해를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이것보다 더 영성하고 상투적인 견해가 어디 있겠는가? 그것은 학문에 있어서는 지름길이요 지적□윤리적 문제에서 빠져 나오는 쉬운 방법이긴 하지만, 결코 지리는 아닌 것이다. 무슬림 모험가들이 얼마나 많은 전리품을 획득하거나 아라비아로 반송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전리품을 가지고 귀국했는지를 정확히 알아내기 위해 전기의 세 번째와 네 번째 논점의 물음을 다시 되풀이 할 수 있다. 그렇다고 바로 이러한 “약탈자”들에게 짓밟힌 “약탈당한” 지역의 번영과 부흥과 융성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며, 무슬림들이 모진 박해와 그리고 엄청난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당했다거나 도발과 위협이 그들에게 가해졌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도 아니다. 단지 이런 견해를 가진 사람들에게 사실을 더 자세히 조사해보고 보다 책임 있는 결론을 제시하라고 호소할 뿐인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은 무슬림들이 모든 전리품은 무슬림들이 몰수□강탈□박해 기타 적진에서 자행한 도발행위에 의해 잃은 것에 비해 비할 바가 못된다고 하는 점이다.

이들 여러 계층의 비판자가 이러한 조사의 관점을 받아들이든 않든,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다. 곧 이슬람은 완전한 의미에서 평화의 종교이고 부당한 전쟁은 그 가르침 속에 결코 없으며 침략이 그 교의에 포함되거나 이슬람에 의해 용납되는 일은 결코 없고, 무력을 써서 누구에게 그것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이슬람의 팽창은 강요나 억압 때문이 결코 아니며, 착복은 결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거나 이슬람이 용납하지 아니하고, 이슬람의 가르침을 왜곡시키거나 잘못 전하는 자는 누구나 이슬람보다 자기 자신과 동료들에게 더 많은 해를 입히게 되리라는 것이다. 이슬람은 하나님의 종교요, 그분께서 가는 정로(正路)이기에 그것은 가장 어려운 조건 아래서도 살아 남았던 것이며, 영원의 행복에 이르는 안전한 다리로서 앞으로도 살아 남을 것이다. 이들 비판자들은 이러한 사실이 의심스럽다면 이슬람을 연구하고 꾸란을 읽어보고 자신들의 역사에 대한 기억을 새롭게 함이 현명할 것이다.

이슬람이 “정복”지역에 전파된 데 이어 경제적 번영과 문예부흥이 따랐다는 사실이 반드시 무슬림들이 경제적 이익과 전리품을 추구하였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비록 이슬람의 후기 역사에서, 추정대로 이러한 이득과 전리품이 동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슬람이 평화를 전쟁보다 좋아했고, 무슬림들이 전리품에 맛을 들였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보다 더 훌륭한 설명들이 있다. 그 중 하나는 프로테스탄티즘이 기타 요인들과 더불어

현대 자본주의의 흥기를 유도했다고 지적한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 대한 고전적 논의를 익히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명백한 것이다. 진지한 사람이라면 아무도 프로테스탄트들(신교도들)이 경제적으로 번영하기 위해서 그들 윤리를 발전시켰다거나 현대 자본주의가 아직도 프로테스탄트 윤리에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하지 않을 것이다.

2. 마리아의 아들, 예수

인류 역사상 가장 논란이 많은 것 중의 하나가 예수의 문제이다. 예수는 완전한 신이였는가 아니면 인간에 불가하였는가? 혹은 반신반인이였는가? 그는 진실한 사람이였는가 아니면 속이는 또한 사람들의 사기꾼에 불과했는가? 그는 여느 아이처럼 평범하게 부모에게서 태어났는가? 태어난 때가 겨울이었나 여름이었나? 이와 같은 많은 질문들이 기독교인들과 비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다같이 제기되었으며 아직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논쟁과 의논은 예수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계속 되어 오고 있다. 이들 문제의 몇 가지 하찮은 측면들에 대한 해석상의 사소한 차이 때문에 기독교들 사이에 많은 교파가 생겨났다. 이것은 기독교인들과 비기독교인들이 모두 알고 있는 바 그러나 이슬람의 정확한 입장은 무엇인가? 이슬람이 이 골치 아픈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해석을 내릴 수 있을까?¹

논의에 앞서 세 가지 점을 분명히 한다. 첫째, 예수에 대한 이슬람의 태도에 관한 한 무슬림은 아주 태평하다. 무슬림의 마음은 차분하고 양심을 깨끗하며 신념은 건전하다. 둘째, 하나님, 종교, 예언자의 지위, 계시, 인간애에 대한 무슬림의 개념에 의해 무슬림은 예수를 하나의 역사적 사실로서 뿐 아니라 하나님의 특출한 사도의 한 분으로서 받아들인다. 여기서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은 무슬림들이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은 이슬람의 기본 신조이며 무슬림이라면 결코 예수를 비하시켜 생각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다행히 무슬림에게는 예수나 하나님의 다른 예언자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셋째, 여기에 언급되는 것은 모두 꾸란이 말하고 가르치는 것이다. 예수에 대한 이슬람의 신념은 비록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아주 인기가 없지만, 결코 예수의 역할을 앞잡거나 그의

¹ 예수의 생애에 있어서의 중요내용-어떻게, 언제, 어디서 그는 태어나고 살고 계시를 받고 죽어 매장되었는가 ; 정말 “기적”을 행했는가, 했다면 어떤 기적이었나 ; 死者로부터 부활했는가. 언제, 어떻게 부활했는가-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지면도 부족하고 논의의 성격이 모독적이고 명예를 훼손하는 감이 있어 이런 자주적인 질문들의 논의를 부득이 억제한다. 비관적으로 조사해 보려면 참고 문헌 목록이 잘 되어있으니 다음을 참조할 것 : 까지 무함만 바라카툴라 著, 마리아의 아들 예수, 그 虛와 實(필라델피아 ; Dorrance & company), 1973

인격을 과소평하거나 혹은 그의 위대한 개성을 깎아 내리려는 의도는 가지고 있지 않다. 반대로 이슬람이— 이러한 신념은 예수를 매우 존경스럽게 묘사하며, 하나님께서 친히 앉혀 주신만큼 높은 위치에 그를 앉힌다. 사실, 무슬림이 많은 기독교인들보다 예수를 더 존경한다. 그러나 이슬람의 태도를 오해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태도는 무슬림이 확신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확신할 진리로써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은 어제의 진리요, 오늘의 진리며 내일의 진리인 것이다.

예수가 태어나서 자라난 환경은 상당히 주목해 볼만하다. 예수가 보내어진 사람들은 몇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그들은 취지와 단어의 양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경을 개필, 곡해하였다. (2) 예수를 비롯한 예언자들을 일부는 배척하고 일부는 죽였다. (3) 자기네 부에 대해 무책임하게 함부로 말하였다. 꾸란은 이렇게 말한다.

너희(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원치 않는 것을 가진 사도를 보낼 때마다 너희가 교만으로 부풀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어떤 사도는 사기꾼이라 불렀고, 또 어떤 사도는 죽였도다!(꾸란, 2:87)

하나님께서, ‘진실로 하나님은 가난하되, 우리는 부유하도다!’라고 말하는 자들의 조롱하는 소리를 들으셨느니라, 우리가 정녕 저들의 말과 부당하게 예언자들을 살해한 저들의 소행을 기록하여 이같이 말하라 : 극렬히 타오르는 (지옥)불의 형벌 맛을 보라!(꾸란, 3:181)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서 계약을 받아냈더니, 저들이 그 계약을 어겨 우리가 저들을 저주하여 그 마음을 완악케 하였느니라 : 저들은 (제)자리의 말을 바꾸고 저들에게 보낸 계시의 중요부를 잊었느니라(꾸란, 5:13-14)

이것이 예수가 보내어진 사람들이 보인 제 2의 천성이었다. 예수의 탄생 연대에 관하여 기독교인들은 그 정확한 해나 계절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천문학자들은 아직도 베들레헴의 별을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 ...‘예수탄생과 더불어 별이 나타난, 해와 계절은 정확히 모른다’...역사가들이 추산한 가장 빠른 해는 기원 전 11 년이고 가장 늦은 해는 기원전 4 년이다. ...‘또한’...탄생한 해는 완전히 확정되지 않았으나 계절은 12 월이 아니라 봄철이었을 가능성이 짙어 보인다. ... (미해군 기상대의 Mrs. Simone Daro Gossner, 1960년 12월 23일 자 The Edmonton Journal 지 12면 인용)

아무튼 무슬림에 대해 더욱 중요한 문제는 예수가 어떻게 태어났느냐 하는 것이다. 예수 시대에 이르기까지 세 종류의 창조가 있었는데, 각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식과 지혜가 명백하게 입증되었다. 첫째, 아버지나 어머니의 육체적 개입이나 존재가 없이 창조된 사람으로서 아담이 있었다. 둘째, 어머니나 여자 조상의 육체적 존재 혹은 선재(先在)없이 창조된 사람으로서 이브가 있었다. 이브는 인류의 상징적 혹은 비유적 아버지로 생각할 수 있는 아담이 기대한 사람이었다. 셋째, 아버지와 어머니의 정상적인 관계를 통하여 창조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호기심 많고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네 번째 종류의 창조, 즉 인간 아버지의 육체적 개입이 없는 인간의 창조 가능성을 깊이 생각해 보았음직하다. 이러한 가능성이, 아마 네 번째 종류의 창조를 완성하고 가능한 모든 형태로 하나님의 능력을 예증하기 위해 예수의 창조시에 하나님에 의해 현실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수가 경건한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것은 기적의 작용이었으며, 하나님의 의지와 행위였다. 그 특정시기에 이런 종류의 창조를 선택한 것은 흥미로움과 동시에 이해되는 바가 없지 않다. (당시에는)의술이 그럭저럭 곳에 따라 상당히 대중화되었던 모양이다. 예수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길에서 크게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또한 완고하였다. 새로운 형태의 창조로 당신의 능력을 이런 사람들에게 입증하셨고, 당신의 능력은 무한하며 오직 그 분께 복종하고 그 분을 믿음으로서만 그들이 구원받으리라는 것을 보이셨다. 그 실례가 예수 창조의 생생한 실연(實演)으로 제시되었다. 이는 또한 예수가 후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행하게 되는, 다소 의학적 성격을 띤 종류의 기적을 예고하는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예수탄생에 대한 이러한 가정적 해석은 꾸란이나 무함만의 관습에 근거한 것이 아님을 밝혀 둔다. 이와 같이 논리적으로 가능한 네 가지 유형의 창조와 예수의 탄생이 네 번째이자 최종적인 유형을 이룬다는 귀납적 결론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요 가정이다. 이러한 사건은 꾸란과 무함만의 관습의 권위 혹은 진실성과 하등의 관계도 없다. 네 가진 종류의 창조에 대한 이러한 가정이 타당하든, 않든 그것은 꾸란의 진리와 예수의 탄생이 하나님의 기적의 뜻이요 일이라는 꾸란이 언명에 대한 무슬림의 믿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아무튼 전체적인 논점은 추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런데 만약 누가, 인간 아버지의 선재(先在)함이 없이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 친히 아들로 삼으시거나 아버지 행세를 하셨다 해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혹은 하나님이라 부르고자 한다면 이것이 옳다 할 경우, 아버지나 어머니가 없었던 아담에게는 같은 논리가 더욱 적절하게 들어맞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비유적 의미로 해석한다면 그것은 모든 인류 특히 지고한 주님께 대한 봉사로 이름을 떨친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인간은 하나님의 뛰어난 창조물이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 분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아담을 빼버리고, 비유적 해석에서 나머지 인류를 제외시키는 것은 실로 독단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꾸란은 예수의 탄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오, 무함만이어) 마리아가 가족의 곁을 물러나 동쪽에 있는 곳으로 가던 때의 이야기를 성서에 할지니라. 마리아가 (가족이 못 보게)장막을 치매 우리가 천사를 보냈더니 저가 마리아 앞에. 완전한 남자 모습으로 나타났느니라. 마리아가 말하되, '내가 당신에게서 지극히 자비로우신 하나님께로 피하려 하니 하나님이 두렵다면 다가오지 마오' 하니 천사가 이같이 말했느니라. '그리 말라. 나는 네가 티없이 자랄 아들을 선물로 받게 됨을 알려 주려고 온 네 주의 사자일 뿐이니라.' 마리아가 말하되, '남자가 내게 손댄 일이 없고, 내가 부정한 여자가 아니거늘 어찌 내가 아들을 가지리요?' 하니 천사가 또 이렇게 말했느니라 :

‘그렇게 되리라’ 네 주께서 말씀하시되, 그것은 내게 쉬운 일이요. 우리가 저를 사람들에게 대한 징표로, 우리가 보낸 자비로 정하고자 하노라 하였느니라. 이는 그리 정해진 일이라! 그러자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알아듣고 천사와 함께 먼 곳으로 물러갔느니라. 해산 진통이 임하매 마리아가 야자나무 줄기를 잡고 괴로움에 못 이겨 이렇게 소리쳤느니라 : ‘아!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차라리 죽었더라면!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잊혀져 버렸더라면!’ 그러자 한 음성이 야자나무 아래로부터 이렇게 외쳤느니라, ‘슬퍼하지 말라! 네 주께서 네 아래에 개울을 마련해 주셨느니라. 그리고 야자나무 줄기를 네 쪽으로 흔들라, 그러면 싱싱하게 익은 대추야자가 네 위에 떨어지리라. 그런 즉 먹고 마시며 (네)눈을 식히라. (평안할 지어다). 그리고 네가 사람을 만나거든 이렇게 말하라.’ ‘내가 지극히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단식을 맹세했으니 오늘은 아무하고도 말하지 않겠나이다.’ 마침내 마리아가 아이를 팔에 안고 사람들에게로 데려오매 저들이 말하되, ‘오, 마리아! 정녕 네가 이런 끔찍한 것을 가져오다니! 오 아론의 자매여! 네 아버지가 악인이 아니었고 네 어머니가 부정한 여인이 아니었거늘!’이라 하였느니라. 마리아가 아이를 손으로 가리키매 저들이 또 말하되, ‘요람에 있는 아이에게 어떻게 말을 하란 말이냐?’ 하니 아이가 이렇게 말했느니라. ‘나는 진실로 하나님의 종이니라. 그 분이 나에게 계시를 주셨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를 복되게 하셨고 내가 어머니에게 친절케 하셨으며 나로 오만해지거나 가련해지지 않게 하셨느니라. 그런 즉 내가 태어났던 날과 죽는 날과 생명으로 (다시)일으켜지게 되는 날에 나에게 평화가 있도다!’ 이 사람이 바로 마리아의 아들 예수였느니라. 이는 진리의 말씀이거는 사람들은 이를 두고 (헛되이)다투는 도다. 하나님이 아들을 낳는다 함은 그 분의 위엄에 어울리지 않는 일이나. 그 분께 영광이 있을 지어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결정하실 때, 다만 ‘되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느니라. 진실로 하나님은 나의 주요, 너희의 주이시니 너희는 그 분을 섬길지니라. 이것이 정로(正路)이나. (꾸란, 19:16-36, 비교 3:42-64, 4:171-172, 5:17, 72-75, 25:2, 43:57-65)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맡기신 사명은 피의 희생에 의하여 모두를 속죄함으로서 구원하라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인도와 자기 수양에 의해, 침체한 정신에 활기를 불어넣고 굳은 영혼을 부드럽게 함에 의해 구원하라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참종교를 정립시키고 곡해口오용된 당신의 계시를 바로 잡으라는 것이었다. 이들 침체한 정신과 굳어진 영혼에 접근하는데 있어서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징표를 가져오고 ‘기적’을 행함으로써 자기 사명을 뒷받침하였다. 이 완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보여 주기 위해 ‘초자연적’이고 비범할 뿐 아니라 논리적이고 영적인 증거가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에 의해 제시되었다. 예수의 사명과 그의 증거의 기적적인 성격에 관하여 꾸란은 이와 같이 말한다 :

보라! 천사들의 말이니라. ‘오 마리아여! 하나님께서 네게, 당신이 보낸 말씀의 기쁜 소식을 주셨나니 그의 이름은 마리아의 아들 예수이니라. 그는 현세와 내세에서 존귀함을 누리고

하나님께 가장 가까운 자들과 (함께 있으리라) 그는 아이로 있을 때나 어른이 되어서나 사람들에게 말하며 의로운 자들과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서와 지혜와 율법(토라)과 복음을 가르치시며 그를 이스라엘 자손들의 사도로 정하사 (이 같은 계시를 주시니라) ; ‘나는 너희 주의 징표를 가지고 너희에게 왔노라. 징표는 이것이니 곧 내가 진흙으로 새의 형상을 만들어 거기에 숨을 불어넣으매 하나님께서 허락하사 그것이 새가 되며, 날 때부터 눈 먼 자들과 문둥병자들을 고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사 죽은 자를 소생시키며, 너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집에 저장해 두었는지 너희에게 밝혀 말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믿는다면 진실로 그 가운데 너희에 대한 증거(징표)가 있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나 이전에 있었던 율법(토라)을 입증하고 너희에게 (전에)금지되었던 것의 일부를 너희에게 허락하기 위함이라. 나는 너희 주의 징표를 가지고 너희에게 왔느니라. 그런 즉 하나님의 노여움을 두려워하고 나에게 순종할지니라. 하나님은 나의 주요, 너희의 주이시니 그 분을 숭배하라. 이것이 정로(正路)이니라.(꾸란, 3:45-51)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라. ‘오 마리아의 아들 예수여! 내가 너와 네 어머니에게 내린 은총을 자세히 말해 보라. 보라! 내가 너를 성령으로 강하게 하매 내가 아이로 있을 때나 어른이 되어서나 사람들에게 말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성서와 지혜와 율법과 복음을 가르쳤느니라. 보라! 내가 나의 허락에 의해 진흙으로 새의 형상을 만들어 거기에 숨을 불어넣으매 그것이 내가 허락하여, 새가 되며, 내가 나의 허락으로 날 때부터 눈 먼 자들과 문둥병자들을 고치느니라, 보라! 내가 나의 허락으로 죽은 자를 되살리느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분명한 징표를 보일 때 내가 저들이 너에게 폭력을 가하지 못하게 하였더니 저들 가운데 불신자들이 이렇게 말했느니라.’ ‘이는 분명 마술에 불과하니라’ 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라. ‘오 마리아의 아들, 예수여! 내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비하시켜 너와 너의 어머니를 신으로 숭배하라 말하였느냐?’ 저가 이같이 말하리라. ‘당신에게 영광이 있을 지어다! 저는 저에게 (말할)권리가 없는 것은 결코 말할 수 없나이다. …저는 당신이 말하라고 명하신 것 곧 나의 주요 너희 주이신 하나님을 숭배하라는 것 이외에는 아무 것도 저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저는 저들 가운데 거하는 동안 저들에게 증거하였나이다. 당신이 저를 보호하셨을 때 저들을 지켜보았사오니 당신이 모든 일의 증인이니이다.(꾸란 5:110-117)

여기의 성귀들은 꾸란 전체를 통하여 많이 산재되는 유사한 성귀들을 대표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이들 성귀는 모두, 예수가 결코 신이나 하나님의 아들로 자처하지 않았으며, 그 역시 그보다 앞서 왔던 사람들의 본대로 하나님의 종이요 사도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꾸란은 이러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예언자들의 발자취를 좇아 우리가 마리아의 아들 예수를 보내어 저보다 앞서 왔던 율법을 확인하였노라. 우리가 저에게 복음을 주어 보내매, 그 가운데 인도와 빛과 저보다 앞서

왔던 율법의 확인이 있었나니, 이는 하나님의 노여움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인도하고 훈계하려는 것이다.(꾸란, 5:46)

‘하나님은 마리아의 아들인 그리스도니라’고 말하는 자들은 신성 모독을 범하는 자들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오 이스라엘 자손들아! 나의 주요 너희 주이신 하나님을 숭배하라. 하나님에게 다른 신을 붙이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낙원을 금하실 것이요 (지옥)불이 저의 거처가 되리라. 행악자들에게는 도와 줄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삼위(三位)의 한 분이니라’고 말하는 자들은 신성 모독을 범하는 것이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 신은 없음이라. 저들이 신성을 모독하는 말을 그치지 않는다면, 신성을 모독하는 저들에게 가혹한 형벌을 내리리라. 저들을 어찌하여 하나님께로 돌이켜 그 분의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는가? 하나님은 지극히 관대하시고 지극히 자비로운 분이시오. 마리아의 아들 그리스도는 한 사람의 사도에 불과하였음이라. 저보다 앞서 간 사도들이 많이 있었느니라. 저의 어머니는 진실한 한 사람의 여인이었으며 이들은 둘 다 매일 음식을 먹어야 했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징표를 저들에게 분명히 하시는가를 보라! 또 저들이 어떻게 미혹되어 진리를 떠났는가를 보라! …이렇게 말하라. ‘오 성서의 백성들이여’ 너희 종교의 (적당한)한계를 넘지 말며 진리를 범치 말라. 지나간 시대에 타락하여 많은 사람을 그릇 인도하고 스스로 평탄한 길에서 벗어난 자들의 헛된 욕심을 좇지 말라.(꾸란, 5:72-75, 비교 4:171-172)

예수의 시작을 놓고 이론이 분분하였다. 그의 최후 역시 마찬가지였다. 예수는 시작에서 최후까지의 사이에 불굴의 의지로 자기 사명을 완수하였으며 하나님의 성서와 지혜와 분명한 징표와 성령에 의해 강화되었다. 그러나 그를 진심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극히 적었다. 예수는 관대하고 온화하였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의 위선과 이들이 율법의 정신은 저버리고 문자에만 집착하는 것은 참을 수가 없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예수를 배척, 반대하였고 그를 잔혹하게 죽이려는 음모를 실제 꾸몄다. 예언자들 중 일부는 배척하고 일부는 죽이는 것이 그들 사이의 관례였다. 예수도 여기에 예외는 아니었다. 그는 십자가에서 죽을 뻔하였던 것이다. 사실 그들은 자기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믿었다. 얘기가 극적인 전개를 보여 그 절정에 달한 것은 바로 이 단계에서였으며, 곱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신성하였던 것처럼 종교적인 애도가 기독교인들에게 신성하게 되었다.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려는 음모가 꾸며졌고 실제 십자가형이 집행되었다. 누군가 형을 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게 예수는 아니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수 대신에 다른 누구였다는 것이다.

예수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적의 손에서 구해 내셨다. 하나님은 잔혹한 죽음으로부터 예수를 구해내시어 하늘 높이 올리심으로써 지상에서의 그의 사명의 최후를 장식하였다. 예수가 뛰어나서 지위가 높여진 것인지 혹은 영혼과 육체가 살아서 올려졌는지 아니면 자연사한 후에 영혼만 살아서 올려 졌는지의 여부는 이슬람의 신념과 별로 관계가 없다. 그것은 신조가 아니다. 왜냐하면 무슬림에게 있어 중요하고 구속력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인

바, 하나님께서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아니하고 당시께로 올리워 졌다고 계시하셨기 때문이다. 꾸란은 예수의 최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성서의 백성들이 하늘에서 자기들에게 책이 내려오게 해보라고 네(무함만)게 요구하니 진실로 저들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라’고 하여 더 큰 기적으로 모세에게 요구하였느니라. 저들은 주제넘었느니라., 천둥과 번개로 혼났느니라. 그러나 분명한 징표(증거)가 온 후에도 저들은 송아지를 숭배 하였나니, 그래도 우리는 저들을 용서하고 모세에게 명백하고 권위 있는 증거를 주었느니라. 그리고 (시나이)산 꼭대기를 저들 위로 우뚝 높혀 저들과 계약을 맺었으며 또 (다른 때에는)겸손하게 성문으로 들어가라고 말하였으며 (다시 한 번)저들에게 명하되, ‘안식일을 범치 말라’하였느니라. 우리가 저들과 엄숙한 계약을 맺었으나 (저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샀느니라) 이는 저들이 계약을 어겼고 하나님의 징표를 외면했으며 사도들을 부당하게 살해하였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보자기가 더 이상 필요 없다.’-반대로 하나님께서 저들이 신성 모독을 범하는지라 그 마음을 봉하시매 거의 이해하지 못하니라-고 말하였으며 신앙을 배척하였고 마리아에게 심한 누명을 씌웠으며 조롱하며 자랑하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사도인 마리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노라’하였음이라. 그러나 저들은 예수를 죽이지도 십자가에 못 박지도 아니 하였나니 다만 저들에게 그렇게 보였을 뿐이니라. 이와 생각이 다른 자들은, 추측만 할 뿐 확실히 알지 못하고 잔뜩 의심하나니, 이는 저들이 예수를 죽이지 않았음이 분명한 연고와,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저를 당신께로 올리셨으니 하나님은 능력이 뛰어나고 지혜로운 분이시라.(꾸란, 4:153-158, 비교 3:52-59)

이슬람은 하나님의 적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교리와 그런 교리를 배척한다. 이러한 배척은 꾸란에 나타난 하나님의 권위 그리고 피의 희생과 대속에 대한 보다 심한 배척에 근거한다. 이슬람이 가르치는 바에 의하면, 아담의 원죄는 그가 속죄한 후에 용서받았고, 죄인은 누구나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스스로 자기 죄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며 누구도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속죄할 수 없다. 이것은 피의 희생과 대속의 교리를 용납할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 그러나 초기 기독교 교파 중 일부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믿지 않았다. 바칠리드파는 예수는 결코 육체를 갖지 아니하였고 다만 가진 것처럼 보였을 뿐이며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그렇게 보였을 뿐 실제 그런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마르치온파 복음서(기원 138 년 경)는 예수가 태어났다는 것을 부인하면서 그는 단지 인간 형체로 나타났을 뿐이라고 지적하였다. 성 바나바 복음서-비엔나 주립 도서관에 영역판이 있고, 아랍세계에 아랍어 번역판이 있다-는 십자가 위에서의 대체설을 지지한다.

무슬림은 예수의 최후에 관해서는 예수의 시작에 관해서와 마찬가지로 전연 거리낄 것이 없다. 무슬림은 예수가 살해되거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서 명예와 은총 속에 그를 당신께로 올리셨다고 믿는다. 이 문제 전반에 관한 한 무슬림의 마음은

깨끗하다. 구란이 예수에 대한 논쟁을 단번에 매듭지었던 것이다. 예수가 십자가형을 당했다는 믿음은 많은 불가피한 의문을 제기한다. 이들 중 일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1. 기독교 교회들이 생각하는 예수의 십자가형이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와 능력과 지혜에 부합하는가?
2. 죄를 진 당사자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타인의 죄와 악행을 회개케 한다는 것이 하나님-혹은 누구라도 좋다-께서 그 문제를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인가?
3. 예수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굴욕적으로 살해당했다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지혜에 조화되는가?
4. 예수가 하나님의 적들에게 쉽게 희생당하도록 방치해 두는 것이 자신의 동맹자들을 수호하고 자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이행인가? 이것을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볼 수 있는가? 또한 솔선하여 자신의 말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가?
5. 지극히 관대하신 하나님께서 원죄 때문에 아담과 그의 자손들을 용서하실 수 없었으며 예수가 자신의 피로 속죄하려 오실 때까지 이들을 불안과 당혹 속에 방치하셨다고 믿는 것이 공정□타당한가?
6. 초기의 그리스, 로마, 인도, 페르시아 등의 이교 교의는 별문제로 하고 십자가형과 피의 희생에 대한 믿음이 (또)어느 종교에 나타나는가?
7. 바커스, 아폴로, 아도니스, 호루스, 기타 처녀가 수태하여 낳은 신들과 같은 허구적인 인물 외에 인류 역사상 필적할 만한 자가 (또)있는가?
8. 예수가 한 것으로 되어 있는 말과, 자신이 세상의 알파요 오메가며 자기의 피로 인류를 구속(救贖)하기 위하여 왔다고 한 바커스의 말을 비교해 보면 새로운 안목이 생기지 않는가? 이러한 말과 그 후에 예수가 했다고 하는 말의 유사성이 문제의 진상을 전체적으로 파헤쳐 보겠다는 새로운 열의를 자극할 수 있지 않을까?
9. 예수는 로마 당국에 무엇을 거슬렸는가? 그는 설교자로서 로마 당국이 그 지역에서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데 크게 도움을 주었다. 그런데 저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이처럼 법을 준수하는 선량한 시민 지지자를 잃어버릴 이유가 무엇인가?
10. 로마 총독 빌라도의 성품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나? 그는 자기에게 불복하여 로마에 항소한 당시의 유대인들과 사이가 좋았는가? 유대에서의 그 통치로 보아 그는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경멸하지 아니하였는가? 그는 뇌물에 약하지 않았나? 그가 아리마다의 요셉 같이 예수에게 감복한 부자의 뇌물을 받지 않을 이유라도 있는가? 누가의 말에 의하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부자로서 예수에게 대단한 관심이 많았으며 법률 고문의 한 사람으로서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하라는 평결에 찬성하지 않았다. 회의실에서의 구출 노력이 실패로 끝나자 그는 부패한 총독에게 뇌물을 주어서라도 예수를 십자가형으로부터 구해내려고 할 수 없었을까?
11. 실제 몇 명의 사도들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그들의 반응은 어떠하였는가? 제자들이 모두 그 분을 버리고 달아났다는 마태의 말(마태 복음 26:56)이

사실일 수가 있는가? 이것이 위대한 교사의 이처럼 위대한 제자들이 가지는 성실성과 인격의 기준이란 말인가? 오직 사랑하는 요한만이 현장에 있었다고 보고되어 있다. 그러나 그는 얼마동안이나 현장에 있었나? 믿을 만한 사료(The chamber's Encyclopaedia, 1950. 십자가에 관한 논문 참조)에 의하면 사형수가 십자가에서 죽는 데는 보통 며칠씩 걸렸다. 그런데 보통 며칠씩 걸리는 일이 어째서 예수의 경우에는 몇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는가? 같이 십자가형을 당하던 다른 두 사람은 아직 죽지 않았는데 어째서 그는 “죽었는가?” 형 집행의 세 시간 동안 온 땅을 뒤덮은 어두움은 어찌된 일인가?(마태, 27:45, 마가, 15:33, 누가, 23:44) 어둡고 혼란한 그 시간에 십자가 위, 자주색 옷 속에서 바뀌치기가 이루어질 수 없었을까?

12.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고 온 당시의 로마 군인들은 예수를 얼마나 잘 알고 있었나? 그들은 자기네가 현장에 데려간 사람이 바로 예수였다는 것을 어느 정도로 확신하였나? 체포하려던 그들이 정말 예수를 알아보았을까? 축제가 벌어져 민중 폭동이 터지지 않을까 두려운 그 때에 그들이 예수를 확인하는데 신경을 쓸 경황이 있었을까?

13. 믿는다는 사람이 (다섯 분의 가장 단호하고 굽힐 줄 모르는 하나님의 사도들 중의 한 분이셨던)예수가 사람들의 말처럼, 비난하는 투로 혹은 고작 한다는 게 근심하는 투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말하셨다고 감히 상상할 수 있겠는가? 예수처럼 특출한 예언자가 고통스러운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렸다고 그 분에게 말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인가? 그것을 하나님께 말하거나 고통에 반응하는 자의 모범 혹은 선례로 간주할 수 있는가?

14. 가장 자비로우시고 가장 관대하시며 가장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무죄할 뿐 아니라 당신에 대한 봉사와 당신의 대의 명분에 매우 비상하게 헌신한 분에게 이처럼 잔인하고 극히 치욕적인 십자가형을 가하지 않고서는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실 수 없었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의 적용인가? 그 분의 정의와 사랑의 반영인가?

당시의 주변 상황, 세속 당국의 행동, 민중의 반응, 하나님의 개념, 인간의 지위, 종교와 생명의 목적-이러한 것들을 연구해 보면 저자가 언급한 것과 유사한 흥미 있는 생각들이 떠오를 것이다. 이러한 의문들이 만족스럽게 설명되어야 비로소 믿는 사람은 태평해지고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관련 당사자 모두에게 문제를 진지하게 연구하고, 보다 깊이 조사해 보라고 권하는 바이다.

그러나 무슬림에게는 이런 의문들이 결코 생기지 않으며 이 때문에 당혹해 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이슬람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살해된 것이 아니라 영예롭게도 하나님께로 올리어졌다는 주장을 견지하기 때문이다. 기독교 문헌의 보고에 의하면 예수가 십자가형을 당한 이후 몇몇 사도들에게 나타나셨다. 예수께서 나타났을 가능성이 크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이슬람의 신념과 어긋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예수는 자기를 구하고 적의 악랄한 음모에 반격을 가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환으로 그 분의 명에 따라 은신하였던 것이다. 그 분은 적의 계획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옥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책대로 지위가 더욱 높아지고 더욱 영예롭게 되었다.

예수의 위대성과 그 분의 역할을 탁월성은 무슬림에 의하면 예수가 자신의 가르침 때문에 그리고 인간의 죄를 대속 하기 위하여 냉혹하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기독교의 신념으로부터는 나오지 않는다. 만약 이러한 대중적 믿음이 타당한 것이라면, 죄가 제거되지 않았으므로 예수의 속죄 희생은 무효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다. 혹은 훌륭한 어찌니 하는 자기네 대의 명분을 세우려다 죽어간 예수처럼 위대한 영웅들은 수없이 많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영웅들은 독일군들, 연합국, 공산주의자들, 국제연합기구의 관리들, 종교적 전사들, 자유의 투사들...가운데서 즉 어디서나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잔혹한 죽음이 사자를 신격화할 수 있다면 인류에게는 무수한 신들이 있어야 한다. 누구든 이러한 신성을 예수에만 국한시키고 비슷한 상황에서 죽은 다른 영웅들을 제외한다면 독단적인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번에도 무슬림은 이런 역설에 직면하지 않는다. 무슬림은 예수의 위대성은 다음과 같은 사실, 즉 그는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광을 입었으며, 하나님의 계시가 맡겨졌고 그 분의 메시지를 가르치라는 사명을 받았으며 개성과 인격을 갖춘 예언자였고 속과 겉이 다 진실하였으며 위선과 신성 모독에 맞서 싸웠고 태어날 때의 시작과 승천할 때의 최후가 특별하였으며, 백성에 대한 징표(증거)였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비였다는 사실에서 생긴다고 믿는다. 그 분과 그 분의 동료 예언자들에게 평화가 깃들 지어다.

본 조사의 성격상 그의 사명에 대한 꾸란의 진술을 철저하게 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여기에 제시한 내용은 기본적인 것에 불과하다. 더 연구 조사하고 싶은 독자는 꾸란 자체를 조사하기 바란다. 참조의 편의를 위해 꾸란의 관련 장절이 실린 표를 다음에 제시한다.

장	절
2	87, 136, 253
3	42-59, 84
4	156-159, 171-172
5	17, 46, 72, 75, 78, 110-118
6	85
9	30-31
19	1-40
23	50
33	7
42	13
43	57-65
57	27
61	6, 14

3. 일부다처제(一夫多妻制 : Polygamy : 복수(複數)의 처(妻))

엄밀히 말해서 (복혼(複婚 : polygamy)은 복수의 배우자를 의미한다. 더욱 특별한 경우로써 한 남자가 두 명 이상의 처(아내)를 둘 때 이것을 일부다처(一夫多妻 : polygyny)라 한다. 그러나 평균적인 일반 독자의 경우, 이 두 용어는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 두 용어를 구별 없이 사용하기로 한다. 본서의 문맥에서의 복혼(polygamy)은 실제로는 이 말에 적합한 의미인 일부다처(polygyny)를 뜻한다. 반면에 한 여자가 두 명 이상의 배우자를 두는 경우 이것을 일처다부(一妻多夫 : polyandry)라 한다. 남녀 혼성인 경우에는 집단혼이 된다.

각 사회는 제각기 처한 시대와 놓인 상황에 따라 어느 정도 이러한 세 가지 기본적 유형의 복혼을 행해왔다. 가장 흔한 경우는 일부다처다. 그러나 일부다처는 몇 가지 이유로해서 불가피하게 극히 소수의 특정 인구에 한정되어 왔다. 이것이 이슬람이 허용하는 유일한 유형이다. 다른 두 가지 유형, 즉 복수의 남편(一妻多夫 : polyandry)과 집단혼은 이슬람에서는 엄금이다.

그러나 유대교나 기독교가 항상 일부일처제였다거나 일처다부제를 철저히 반대해 왔다는 것은 심지어 오늘날까지 정확한 말이 아니다. 고이테인(pp184-185) 등의 몇몇 저명한 유대인 학자들을 통해 우리가 아는 바로는 일부다처의 유대인 이주민들 때문에 이스라엘 주택 당국이 곤욕을 치렀다고 한다. 기독교 몰몬교의 입장은 잘 알려져 있다. 간통, 주음, 배우자 바꿔치기보다는 차라리 일부다처가 낫다고 하는 아시아, 아프리카 주교들의 견해 역시 몰몬교도와 같은 입장이다. 미국에서만 해도 배우자 바꿔치기가 수십 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상된다.

엄격한 형식적 일부일처제와 매음, 동성애, 사생아, 간음, 일반화된 성문란의 빈도 사이의 높은 상관 관계를 조사해 보면 적나라하게 사실을 보여 준다. 이것은 표준적인 사회학적 가족사라면 다 지적하는 바일 것이다.²

이슬람의 경우로 돌아가서 보면 무슬림은 육욕에 사로잡혀서 제한된 또는 무제한의 많은 아내와 첩을 거느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서양인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들 중 아내가 한 명인 무슬림이나 결혼하지 않은 무슬림을 보면 놀라움을 표시하는 사람들은 더욱 많다. 이들은 무슬림들이 한껏 자유롭게 한 아내 혹은 다수의 아내로부터 다른 아내로 전전할 수 있으며 이것은 아파트를 옮기는 것만큼이나 심지어 옷을 갈아입는 것 만큼이나 쉬운 일이라고 믿는다. 이러한 태도는 일부는 선정적인 영화와 엽가판 소설에 의해 일부는 몇몇 무슬림들의 무책임한 행동에 의해 악화일로를 걷는다. 이런 상황의 필연적 결과로 허다한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 장벽에 가리워 이슬람의 찬란한 빛과 그 사회 철학을 보지

² S. D. Goitein, 유태인과 아랍인 : 교섭사(뉴욕 : Schocken Books) 1964, L. T. Hobhouse, 윤리의 진화 : 비교윤리학 연구. (런던 : Chapman and Hall) 1951, E. A. Westermarck, 결혼약사(뉴욕 : The Macmillan Co.) 1926

못한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 무슬림의 관점에서 그 문제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그 후에는 누구든 자기 나름의 결론을 내려도 좋다.

이러한 일부다처는 인류역사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행해져 오고 있다. 아브라함, 야곱, 다윗, 솔로몬 등과 같은 예언자, 왕과 총독, 고금의 무슬림들과 비무슬림들 가운데서 갖가지 형태로 일부다처가 행해지고 있다. 그 중 일부는 합법적이지만 일부는 불법적, 위선적이다. 또 숨기는 일부다처가 있는가 하면 공개적인 일부다처도 있다. 어디서 어떤 식으로 숨한 기혼자들이 정부(情婦)를 남몰래 부양하거나 애인을 따로 숨겨 놓고 만나든지 혹은 기타 법에 의해 보호되는 여자들과 그저 놀아나는 지를 알아내는데는 구태여 많은 조사가 필요 없다. 도덕론자들이 좋아하든 싫든 일부다처가 행해지고 있으며 어디서나 그리고 역사상 모든 시대에서 그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성서가 계시되던 시대에는 일부다처가 공인된 관습이었다. 종교적, 사회적, 도덕적으로 인정되었고 이에 대해 아무런 반대가 없었다. 아마 이것이 이 문제가 성서 자체에 거론되지 않은 이유일 것이다. 당시에는 일부다처가 기정사실이요 당연지사였기 때문이다. 성서는 일부다처를 금하지도 규제하지도 않으며 제한하는 일조차도 없다. 성서에 나오는 열 처녀 이야기를 한 번에 열 명의 아내를 두는 것을 허락한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에 관한 성서 예언자□왕□족장들의 이야기는 믿기 어려울 정도이다.

이슬람이 무함만에 의해 다시 제시되는 당시에는 일부다처의 관습이 사회생활 속에 널리 그리고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꾸란은 이러한 관습을 무시하거나 버리지 않았으며 아무런 제한도 없이 그대로 내버려두지도 않았다. 꾸란은 그 문제에 무관심하거나 일부다처가 조장하는 혼란과 무책임을 용납할 수 없었다. 널리 행해지는 여타의 관습이나 관행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전래의 악폐를 일소하고 그 이점을 지켜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일부다처 제도를 체계화하고 정비하기 위해 꾸란이 개입하였다. 꾸란이 개입한 것은 그것이 현실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을 수 없었고 바로 사회의 기초가 되는 가족 구조상에 어떠한 혼란이 야기되는 것도 묵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자비롭게 개입한 꾸란은 다음과 같은 제규정을 도입하였다.

1. 일부다처는 일정한 조건과 상황 아래서 허용할 수 있다. 그것은 조건부 허용일 뿐이지 하나의 신조가 아니요, 필연의 문제도 아니다.
2. 이러한 허용은 최대한 네 명의 아내까지 유효하다. 이슬람 이전에는 아무런 제한이나 보장도 없었다.
3.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아내라 하더라도 일단 아내가 되었으면 첫 번째 아내와 동등한 권리와 특권을 누린다. 나머지 아내들도 어떤 경우에도 첫 번째 아내가 당연히 가지는 것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권리가 있다. 대우와 부양과 친절에 있어서의 아내들 사이의 평등은 두 명 이상의 아내를 둔 사람은 누구나 만족시켜야 할 필요조건이다. 이러한 평등은 관련 개인의 내면의 양심에 주로 의존한다.

4. 이러한 허용은 정상 수단에 대한 예외다. 그것은 일부 사회적·윤리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불가피한 곤란에 대처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고 최후의 시도다. 요컨대 그것은 긴급조치의 일종이며 그러한 의미에 국한되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한 꾸란의 관련 구절은 다음과 같다 :

만일(너희가 결혼하거나 혹은 그 어머니를 너희 아내로 취하는) 고아들을 공평하게 대우하지 못할까 두려우면, 너희가 좋아하는 여자 두 명이나 세 명 혹은 네 명과 결혼할지니라. 그러나 저들을 공평하게 대우하지 못할까 두려우면 오직 한 명의 여자 혹은(너희 오른손이 소유한 한 명의 포로)하고만 결혼할지니라. 너희가 불공평해지지 않으려면 그리하는 편이 더 나으리라.(꾸란, 4:3)

이 구절은 많은 무슬림들이 전사하여 과부와 고아들이 생기게 한 우후드 전투 이후에 제시되었다. 생존한 무슬림들이 이러한 고아와 과부들을 마땅히 돌보아야 하였다. 결혼이 과부와 고아들을 보호하는 한 가지 방법이였다. 꾸란은 이와 같이 경고하는 한편, 고아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 보호자가 자기 부양 가족을 불공평하게 대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러한 선택권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배경이 있었던 만큼, 이슬람이 일부다처를 창시하였다거나 전기(前記)의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그것을 하나의 규칙으로 장려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이슬람이 일부다처를 폐지하지 않은 이유는 그것을 폐지한다 하더라도 단지 이론상으로만 폐지되었을 것이요 사람들을 오늘날 일부다처를 허용하지 않는 헌법과 사회규범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하듯, 그러한 관습을 계속해 나갔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슬람이 온 것은 생활 속에 실천되기 위해서지 어중간한 상태에 있거나 단순한 이론으로 간주되기 위해서가 아니다. 이슬람은 현실적이며 그 인생관은 매우 실질적이다. 그것이 이슬람이 조건부의 제한된 일부다처를 허용하는 까닭이다. 왜냐하면 이런 제도를 두지 않는 게 인류전체를 가장 이롭게 하는 길이었다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것을 폐지하라고 명하셨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누구도 하나님보다 더 잘 알 수는 없다.

이슬람이 일부다처를 허용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런 이유들을 상상해 보거나 가정을 세워 보거나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이유들은 실재하며 매일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 이유 몇 가지를 검토해 보자.

1. 사회에 따라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많은 경우가 있다. 특히 산업지역이나 상업지역 그리고 전쟁에 말려든 나라들이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무슬림 사회가 이런 범주에 들고, 이슬람이 일부다처를 금하며 법률혼을 한 아내에게만 제한시킨다면 기혼자들은 어찌할 것인가? 어디서 어떻게 선천적으로 바람직한 교제의 상대를 찾을 것인가? 어디서 어떻게 동정과 이해와 원조와 보호를 구할 것인가? 단순히 육체적인 문제만 내포되어 쓴 것은 아니다. 도덕적, 감정적, 사회적, 정서적, 천성적인 문제가 또한 내포되어 있다. 정상적인 여자라면 누구나-사업을 하든, 해외근무를 하든, 정보부에서 일하든-가정을,

자신의 가족을 원한다. 여자는 자기가 돌보아 줄 사람과 자기를 돌보아 줄 사람이 필요하다. 여자는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귀속되고 싶어한다. 비록 순전히 육체적인 관점에서 본다 하더라도 문제는 매우 심각하며 그대로 무시해 버릴 수만은 없다. 그렇지 않은 경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방치한 당연한 결과로서 심리적 콤플렉스, 신경쇠약, 사회의 혐오, 정신불안의 증세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타고난 욕구와 감정적 열망은 실현되어야 한다. 이들 욕구와 열망은 귀속하고, 돌보아 주고 돌보아질 것을 필요로 하며, 또한 어떻게 해서든지 만족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처지의 여자는 보통 자기의 천성을 변화시키거나 천사 같은 생활을 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여자들은 자기들도 인생을 즐기고 자기 몫을 차지할 충분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합법적이고 떳떳한 방법으로 권리를 차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험하고 일시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다른 경로를 찾고야 한다. 남자와 귀속적이고 보장 있는 교제를 하지 않고 지낼 수 있는 여자는 극히 적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미혼녀의 압도적인 다수가 남자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이들은 사치스런 파티를 벌이고 칵테일 모임을 만들며 상담에 나서고 노골적인 행각을 추구한다. 이러한 필사적인 헌팅(hunting)의 결과가 반드시 도덕적으로 떳떳한 것만은 아니다. 기혼 남자가 여자의 마음에 들 경우, 여자는 그 남자를 법적으로 혹은 법을 어겨서라도 자기 곁에 잡아 두려고 할 것이다. 또한 뭔가 까닭이 있어 풀이 죽어 있는 남자가 여자에게 반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남자는 공개적으로 혹은 은밀히, 떳떳하게 혹은 부도덕하게, 법의 형식을 갖추거나 혹은 합법적으로 그녀와 관계를 가지려 할 것이다. 이는 틀림없이 해당 기혼 남자의 가족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사회의 풍기와 도덕을 안으로부터 파괴할 것이다. 아내는 방치되고 자식들은 버려지며 가정은 파탄이 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남자친구와 만나는 여자는 아무런 보증도 받지 못하며 품위와 권리도 지키지 못한다. 그 남자친구 혹은 연애쟁이와 동거하면서 여자를 부양하고 모든 것을 다 바쳐 그녀를 열렬히 사랑하겠다는 마음으로 선물을 들고 그녀의 거처를 자주 들락거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녀에게 무슨 보장이 있는가? 어떻게 해야, 그 애인이 몹시 필요하고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때에 그가 자기를 버리거나 실망시키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 무엇으로 그가 이 은밀한 사랑을 내던지지 못하게 할 것인가? 도덕? 양심? 법? 아무 것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도덕은 그들이 이런 관계를 시작했을 때부터 치명타를 맞았고, 양심은 하나님과 인간의 모든 규정을 어기고 그가 관계에 빠졌을 때 마비되어 버렸다. 게다가 사회의 법은 하나뿐인 자기 아내 이외의 여자와 관계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남자는 자기가 원하는 한 이러한 느긋한 교제를 즐길 수 있다. 그러다가 일단 열이 식으면 또 다른 여자를 찾아서 책임이나 의무에 구애됨이 없이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체험은 한 여자가 여전히 매력적이고 호소력이 있을지도 모르며 아직도 뭔가 바라는 마음이 남아 있을 수도 있다. 그녀는 또 다른 남자를 찾아 두 번째 시도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한다고 그녀에게 무슨 보장이 있겠는가? 품위와 권리가 지켜지겠는가?

헌팅하거나 헌팅되기를 바라면서 줄곧 같은 악순환을 되풀이하게 될 것이다. 특히 아이라도 딸리게 되는 경우에는 부담은 점점 더 커진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소외당하고 말 것이다. 그것이 인간의 존엄이나 여성의 섬세함에 어울리는 일인가? 이런 처지의 여자라면 누구든 어쩔 수 없이 신경 쇠약자나 반항적인 보복자 그리고 도덕의 파괴자가 되고 만다.

한편, 누구도 모든 기혼 남자들이 행복하고 원만하며 자기 결혼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그것이 자기의 잘못이든 아내의 잘못이든, 불행한 남편은 다른 상대를 찾아 위안을 얻으려 할 것이다. 여자가 남자보다 많은 경우, 이렇게 하기는 쉬운 일이다. 정직한 경로를 통해서 뜻을 이루지 못하면 다른 수단을 써서라도 뜻을 이룰 것이다. 그 결과 부도덕하고 음란한 관계에 빠져 사생아, 낙태, 기타 그치지 않는 두통거리로 인해 시달리게 될지도 모른다. 이는 추악하고 쓰라린 사실이겠으나, 현실에 엄연히 존재하는 첨예한 문제들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남녀 개인의 안전을 지키고 사회를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이 점에 대하여 이슬람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불행하고 불만족한 남편이 두 번째 아내를 맞이하여 공개적으로 책임을 지고 첫 번째 아내와 두 번째 아내에 대한 모든 의무를 똑같이 이행하면서 함께 살도록 허락하는 것이다. 이러한 해결책은 결혼 못한 여자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필요를 만족시키고 소망을 실현하며 정당한 열망과 타고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한다.

이런 여자들도 결혼하여 남자와 사귀고 법적인 아내로서의 모든 권리와 특권을 누리도록 허락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이슬람은 구태여 문제를 회피하거나 무시하려 들지 않는다. 이슬람은 현실주의적이고 솔직하며 직선적이고 실제적이다. 이슬람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합법적이고 떳떳하여 자비로운 것이다. 이슬람이 이러한 해결책을 제안하는 이유는 인간 관계에서의 위선을 그것이 결코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슬람은 법적으로 한 여자와 결혼했으면서 실제로는 무제한의 정교(情交)와 은밀한 관계를 나누는 남자의 태도를 합법적이고 도덕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다른 한편으로는 간통에 무섭게 반대하는 이슬람은 그것을 묵과할 수 없다. 간통한 남녀에 대해서는 사형만큼 엄한 벌을 가할 수 있으며 간음한 자들에 대해서는 각각 채찍으로 100 번씩 때리는 만큼의 고통스러운 형벌을 가할 수 있다. 위선과 간음과 간통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일부다처를 허용하는 것 이외에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없다. 이것이 이슬람의 전기의 규정과 조건을 다룬 이유다. 일부다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대안에 의지해야 하는데, 이슬람은 이런 대안을 인정하지도, 특별히 지지하지도 않는다. 자기 수양을 쌓아 모든 면에서 자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일부다처가 필요 없다. 이슬람의 주요 관심은 개인의 존엄(품위)과 안전을 유지하고 사회의 고결성과 풍기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제 이러한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나으냐고 자문해 볼 수 있다. 혼란과 무책임한 행위가 사회의 기초를 파괴하도록 내버려두는 쪽이 권할 만 한가 아니면 이슬람의 해결책에 의지하여 그것을 시행하는 쪽이 권할 만 한가? 날카로운 문제들을 무시하고 위선과 외설을 용납하며 간통과 밀통을 묵과하는 것이 사회를 위하는 길인가? 사실상

실효를 거둘 수가 없고 불법적이고 음란한 배출구로 몰아 부칠 뿐인데도 남녀가 교제하고자 하는 정당한 욕구와 타고난 열망을 억누르는 것이 건전한 일인가? 사회적, 윤리적, 인도적, 영적 관점에서 문제를 고려하든 기타 다른 관점에서 문제를 고려하든, 개인이 합법적으로 책임을 지면서 법의 보호와 관계 당국의 감독 하에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사회가 허락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문제를 여성의 관점에서 본다 하더라도 바로 이러한 해결책을 통해서 이슬람이 여자에게 합당한 존중을 보장하고 여자의 권리와 고결성을 안전하게 지키며 떳떳하게 교제하고자 하는 그녀의 정당한 욕구를 인정하고 그녀가 사회에 귀속할 수 있는 여지를 주며 사랑하는 그이를 보살피고 그이에게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그녀에게 제공한다는 것이 분명해질 것이다. 이미 한 남편을 가지고 있고, 다른 여자가 남편에게 접근하여 교제와 보호를 구하는 것을 보거나 그 여자와 자기 남편의 부양과 친절을 함께 나누는 것이 심히 못마땅한 여자에게는 이것이 불쾌하게 들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남편이나 믿을만한 반려가 없는 다른 여자의 기분이 어떠하겠는가? 그들의 존재를 무시하고 그들에게는 안정과 만족에 대한 아무런 권리도 없다고 생각해야만 할까? 우리가 그들을 무시한다고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들에게 만족이 주어질까? 바로 이 아내가 반려 없는 여자의 비슷한 처지에 있게 된다면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귀속되고, 존중받고, 인정받고 싶어하지 않을까? 가득 채워 받을 수 없다면, 말하자면 반 잔 혹은 반 남편이라도 받아들이지 않겠는가? 어느 정도 보호와 안전을 누리는 것이 모두 빼앗기는 것보다 더 행복하지 않을까? 만약 사랑하는 남편이 각테일 모임이나 댄스파티에 갔다가 이러한 “잉여”여자들 중 하나에게 빠져 버린다면 그녀와 그녀의 자식들은 어찌 되겠는가? 남편이 자기 가족을 버리거나 새롭게 빠져든 여자를 위해 시간을 들여 준비하느라 자기 책임을 등한시한다면 그녀는 어찌될 것인가? 자기 일생에 하나 뿐인 남자가 다른 여들과 일을 벌이고, 다른 사람을 남몰래 부양하거나 따로 숨겨 둔 애인을 자주 찾아간다면 그녀의 기분이 어떠할까? 이러한 남자는 해로울 뿐 아니라 위협적인 존재이며 비열하고도 악랄한 인간이다. 말인즉 옳다! 그러나 이런 저주가 관련 당사자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러한 상태로 고통을 당하는 것은 여자 즉 합법의 아내와 불법의 반려자다. 그러나 관련된 두 명의 여자가 남자의 보살핌과 부양을 똑같이 분유(分有)하고 남자와 똑같이 관계를 가지며 둘이 똑같이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 남자는 이제 사실상 한 아내의 남편이 아니다. 그는 비열한 위선자다. 하지만, 당장 해가 끼쳐지고 영혼이 상처를 입고 있는 것이다.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이슬람이 자비롭게 개입하여 이 기혼 남자의 재혼을 허락하는 것이 곧 관련 당사자 모두를 보호하는 것이요, 부정과 싸우고 해를 막으며 상처 입은 영혼을 구하는 것이다.

2. 결혼을 했지만 사정이 있어 아내가 자식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완전한 의미에서의 가정 생활을 영위하고 인류의 보존에 기여하려면, 근본적으로 자식이 있어야 한다. 게다가 자식을 두는 것은 결혼의 주요 목적의 하나인 바, 남자는 선천적으로 자기

이름을 보존하고 가족의 유대를 강화시키기 위해 자식을 갖고 싶어하는 것이다. 이러한 처지에 있는 남자에게는 보통 다음 세 가지 대안이 있다.

1) 자식을 갖고 싶은 자신의 욕망을 억눌러 잊어버린다. 2) 별거, 간통 등의 방법으로 자식이 없는 아내와 이혼한다. 3) 아이를 입양시켜 그 아이에게 자기 이름을 준다.

이러한 대안들은 모두 생명과 본성에 대한 이슬람의 일반적 견해와 부합하지 않는다. 이슬람은 정당한 욕구와 타고난 열망을 억누르라고 권하지도 않거니와 그렇게 하는 것을 승인하지도 않는다. 이런 경우에 억누르는 것은 그 제도에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슬람은 떳떳하게 합법적으로 이러한 열망과 욕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혼하는 것은 자식을 가지 못하는 게 아내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정당하지 못하다. 더욱이 이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가증한 것이요 다른 대안이 없는 경우에만 허용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아내는 남편의 도움과 그와의 동거를 필요로 하고 있을지 모른다. 아내가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내가 아쉽고 절망적인 상태에 있을 때, 아내에게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아내를 나가게 하는 경우 잔인한 처사다.

모든 아이는 자기 친부의 이름을 붙여 불러야 하며 친부의 이름을 모를 경우에는 믿음의 형제라고 불러야 한다(꾸란, 33:4-5)는 것이 이슬람의 규정이기 때문에 입양하는 문제 역시 논의할 여지가 없다. 이것은 물론 아버지나 보호자를 모르는 아이는 보살핌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그런 일은 결코 없다. 오늘날 하는 식대로 입양시키는 것은 아이에게 안전하고 보람있는 생활을 보장해 주는 방법이 아니라는 뜻이다. 친부와 친모를 제대로 완전하게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매일 일어나는 사건, 법원의 복잡한 소송 절차, 가족간의 분쟁은 입양이 결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을 입증한다. 법원이 하루에 재판하는 소송 사건이 얼마나 많은가? 친부모는 재판에서 낯선 가정에 입양되어 다른 환경에 처한 자기 자식을 되돌려 달라고 요구한다. 얼마나 오랫동안, 정상적인 부모가 자기 자식이 낯선 가정에 있는 것을 참고 볼 수 있을까? 양부모가 자기 자식을 올바르게 양육하고 제대로 보살펴 주리라고 얼마만큼이나 믿을 수 있겠는가? 자식이 자라서 자기 친부모가 자기를 버려서 양부모 밑에서 자라왔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어떤 생각이 들겠는가? 친부모가 누군지 모르거나 혹은 자기 어머니가 가난, 수치, 불안정이 두려워 자기를 버렸다는 것을 알면 그 자식이 어떻게 나올까? 입양한 가정의 다른 식구들이 그 아이를 좋아할까? 낯선 아이가 들어와서 자기네 이름을 갖고 자기들이 상속하게 될 재산을 상속하는 것을 그들이 좋아할까? 친부모가 자기 자식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거나 그 자식이 원래 부모와 같이 살고 싶어한다면 길러준 사람의 마음이 어떠할까?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이 제도가 건전하지 못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으며, 그 자식과 친□양부모와 입양 가정의 다른 친척과 사회 전체에 큰 해를 초래할 지도 모른다. 입양은 많은 사람들이 무책임한 행동과 관계에 빠져들도록 조장하는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다. 요즘에는 입양이라는 게 상업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뉴스매체가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자기 자식을 “팔려고” 내놓은 사람들도 있다.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정글에 있는 일이

아니라 바로 여기 캐나다와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이러한 모든 문제 때문에 이슬람은 이 제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무슬림들 사이에 그것이 행해지는 것을 용납하지도 않는다.(꾸란, 33:4-6 참조)

이러한 세 가지 대안을 전술한 이유 때문에 배척하는 이슬람은 그 나라의 해결책을 제시한다. 이슬람은 이런 처지의 남자가 재혼하여 선천적인 요구를 만족시키고 동시에 그 어느 때 보다도 지금 자기를 필요로 할지 모르는 자식 없는 아내를 부양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번 경우에도, 이것은 절망적인 처지의 남자가 양자를 들이거나 이혼하거나 자신의 열망을 부자연스럽게 억누르는 대신에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허락된 것이다. 그것은 재혼이 최선의 가능한 선택이 되는 또 하나의 예요, 어려운 처지에서 빠져 나와 모든 면에서 정상적이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

3. 아내가 결혼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와 때가 있다. 아내가 의당 그래야 하는 만큼 혹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의 즐거운 반려자가 되지 못하는 수가 있다. 남편이 받을 만하고 또 그가 원하고 있는 애정과 만족과 주의를 모두 그에게 줄 수 없는 상태에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일이 생길 소지가 없지 않으며 실제 이런 일이 생기고 있다. 그것이 반드시 아내의 잘못은 아니다. 천성 자체가 그럴 수도 있고 지병이나 산욕기 혹은 어떤 정기적인 기간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도 모든 남자가 참거나 자제하거나 천사 같이 행동할 수는 없다. 불륜과 기만, 위선과 간통의 수렁에 빠져 버리는 남자들도 있다. 남편이 아내가 병상에 있거나 해산 후 자리에 누워 있는 동안 집안 일을 봐 주러 온 처제나 파출부 혹은 가정부들과 열렬한 사랑에 빠지는 경우가 실제로 있다. 아내가 어려운 분만 수술이나 외과 수술을 받는 동안, 남편은 다른 여자들과 새로운 연애를 벌이는 사태가 다반사로 일어난다. 환자의 동생이나 친구가 이러한 연극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다. 아마 좋은 의도만을 가지고 병든 자기 언니 혹은 자기가 아끼는 친구를 돕고 아이를 보살피거나 집안 일을 잠시 돌보러 왔다가 일이 크게 벌어져 문제가 복잡해졌을 것이다. 아내가 집이나 병원에 병들어 누워 있으면 남편은 외롭고 우울해진다. 집 주위의 다른 여자-아내의 동생이나 친구 혹은 그 밖의 다른 여자-가 그렇게 하는 것도 도와주는 길이라 생각하여 남편에게 어느 정도의 동정과 이해심을 보여 준다. 그러한 태도는 진지하고 정직한 것일 수도 있고 그 반대의 것일 수도 있다. 처음에 단순히 동정심을 보이는 것을 기화로 하여 그것을 끝까지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 결과는 상처뿐인 마음이요, 필시 파탄난 가정일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가상적인 것이 아니요 드물게 생기는 일도 아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인 것이다. 신문도 이러한 문제들을 종종 다룬다. 법원 기록 역시 이러한 사실을 증거 한다. 이 점에 있어서의 남자의 행위는 비열하고 부도덕하며 음란하고 악랄하다고 말할 수 있다. 말인즉 옳다! 그러나 이런 비난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런다고 사실이 달라지고 인간성이 바뀔까? 일은 벌어졌고 죄는 되풀이 저질러졌으며 날카로운 문제는 실천성 있는 몇몇한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입법자들은 이러한 남자와 그의 행위를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인가? 그들은 이 남자가 자신의

성실성과 사회의 도덕적 기초를 파괴하도록 내버려두어야 할 것인가? 정직과 성실이 물러가고 위선과 부도덕이 들어서는 것을 허용할 것인가? 공공연하게 금지하고 비난하면 사람들이 죄를 범하지 않고 자기 양심을 일깨울까? 저들은 도리어 입법자들이 속수무책으로 직면하는 위선과 은밀한 간통과 무책임이 활보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슬람마저 속수무책일 수는 없다. 이슬람은 도덕적인 기준을 놓고 타협하거나 위선과 간통을 용납할 수 없다. 이슬람은 만족을 가장해서 자신이나 사람을 속일 수 없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거나 단순히 공공연한 비난이나 금지에만 의지할 수도 없다. 그것이 해를 극소화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남자를 자기 자신으로부터 구하고 관계된 여자-아내나 밀통하는 친구-가 불필요하게 복잡한 문제에 휘말려 들지 않도록 보호하며, 해를 극소화시키기 위해 이슬람은 전술한 단서와 조건을 붙여 일부다처제에 의지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이것은 일종의 긴급조치로 적용될 수 있으며 이름뿐인 일부다처제와 남녀 사이의 무책임한 관계보다 훨씬 더 건전하다. 절망적인 상태에 처하거나 혼란에 빠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이러한 해결책에 의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당사자 일방에 대해 불공평하고 해로운 일이 생길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일부일처를 원칙으로 한다.

4. 본성 자체가 특히 남자에게 어떤 일이나 행동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대개 사업차 여행을 많이 하고 자국 내에서나 해외로 길거나 짧은 여행을 하느라고 얼마동안 집을 떠나 있게 되는 것은 남자다. 책임을 지고, 이러한 상황 아래 있는 남자들 모두가 충실하고 깨끗한 생활을 하는 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경험에 의하면, 대부분의 남자들이 몇 달 혹은 몇 년이 될 수도 있는 부재 기간 중에 낯선 여자들과 불륜에 빠져 죄를 짓는다. 우유부단하여 쉽게 뿌리칠 수 있는 유혹조차도 뿌리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결국 그들은 죄에 빠지게 되는데, 그것이 가정 파탄을 부를 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것이 제한된 일부다처제를 적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경우다. 이러한 남자의 경우, 멋대로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죄를 짓느니 차라리 두 번째 법적인 아내를 맞이하여 두 번째 가정을 갖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편이 그 아내에게도 훨씬 더 낫다. 자기 남자가 다른 여자와 관계를 하되 법적인 규정과 윤리적 원칙에 구속된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가 그가 다른 식으로 관계하고 있을 때보다 애를 덜 태울 것이다.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남자에게 다른 여자가 끼여드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여자의 본성이다. 그러나 남자가 법적으로 책임을 지고 윤리적으로 구속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교제를 계속할 것이냐 하는 선택을 내리게 되는 상황에 아내가 직면하게 될 때, 그 아내는 틀림없이 첫 번째 대안을 선택하여 그러한 상황에 순응할 것이다. 그러나 아내가 피해를 입거나 그 권리가 침해된다면 언제나라도 법에 호소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게 자기에게 가장 이롭다면 이혼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대해 이슬람의 일부다처제를 적용함으로써, 그 남자의 성실성과 두 번째 여자의 존엄성과 사회의 윤리가치가 더 많이 보호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들은 상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들은 일상 생활의 사실적 요소인 것이다. 그런

경우들이 드물지는 모르지만, 무슬림들 사이에 일부다처가 행해지는 경우는 더욱 드물다. 일부다처제에 호소하는 무슬림들이 일부일처제 사회에서 사는 신앙심 없는 남편과 아내들보다 훨씬 드물다는 말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부다처가 위험스럽고 많은 전제 조건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무관심, 위선, 불안정, 부도덕, 외설의 경우보다는 훨씬 낫다. 일부다처제의 도움으로 남녀들이 현실적이고 책임성 있게 자신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일부다처제는 심리적, 천성적, 감정적 성격을 띠는 인간 생활의 많은 복잡한 문제들을 극소로 줄인다. 그것은 관련 당사자 모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해지는 예방조치다. 그러나 그것은 이슬람의 신조가 아니며 그렇다고 명령도 아니다. 일부다처제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허락이요,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지난한 일부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에 지나지 않는다. 무슬림들은 합법적인 조건부의 일부다처가 실속 없는 결혼 생활과 피상적인 일부일처를 자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취하고 있는 다른 방법들보다 도리어 낫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무슬림들의 입장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일부일처가 일부다처보다 바람직할 뿐 아니라 그것이 원칙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필요하다면 일부다처를 고려하여 적용한다는 것이다.

논의를 마무리하자면, 예언자 무함만의 결혼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예언자의 이상적인 성격과 그가 혼인을 맺은 상황을 이해하는 무슬림에게는 이러한 결혼이 아무런 문젯거리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비무슬림에게는 그것이 예언자의 성격에 대한 이해를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슬람이나 예언자에게 불명예스러운 무책임하고 성급한 결론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여기서 저자 자신의 결론을 내세우거나 다른 사람의 결론을 비나하지는 않겠다. 확실한 몇 가지 사실을 제시하여 독자로 하여금 스스로 알게 할 것이다.

1. 이슬람에서는 결혼 제도는 매우 높은 지위를 차지한다. 그것은 사회의 건전한 존속을 위해 필요 불가결하며 가급적 하도록 권유되는 것이다.
2. 무함만은 결코 자신이 불사신(不死身)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인류에게 전하기 위해 그 분에 의해 선택된 죽어야 하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되풀이 강조하였다. 그의 생애는 독특하고 뛰어났지만, 그는 인간답게 살다가 인간으로 죽었다. 그러므로 결혼은 그에게 있어 당연한 것이었지 이단적이거나 저주받는 행위가 아니었다.
3. 그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기후에서 살았다. 이런 기후에서는 사람이 육육에 짓눌리고 몸은 조기에 성숙하며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쉽게 만족을 채워 버리기가 일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함만은 25 세의 나이로 처음 결혼할 때까지 여자에게 손을 대 본 적이 없다. 아라비아 전역에서 그는 나무랄 데 없는 성격으로 유명하였으며, 도덕적인 생활의 최고 기준을 뜻하는 칭호인 알-아민으로 일컬어졌다.
4. 그 지역에서 볼 때는 이례적으로 늦게 이루어진 그의 첫 번째 결혼 상대는 카디자라는 부인이었다. 그녀는 무함만보다 15 년 연상인데다 두 번이나 과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청혼을 수락하였다. 당시에 그가 정열적이거나, 육체적인 것을 추구하였다면 얼마든지 더 예쁜 처녀들과 젊은 아내들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5. 이 부인만을 반려로 삼아 50 세가 넘게까지 살았으며, 이브라힘을 제외하고는 그의 모든 자녀가 그녀에게서 태어났다. 그녀는 65 세를 넘길 때까지 그와 함께 살았으나, 그는 그녀 생전에 다른 여자와 결혼하거나 하나뿐인 아내 이외의 여자와 관계를 갖지도 않았다.

6. 이제 그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였다. 그의 나이 50 세, 그녀의 나이 65 세를 넘기던 때의 일이었다. 박해와 위협이 쉬지 않고 그와 그의 추종자들에게 가해졌다. 이런 고난의 와중에 아내와 사별하였다. 아내의 사후, 그는 한동안 독신으로 지냈다. 그때에 박해초기에 남편을 따라 아비시니아로 이주하였던 싸우다라는 여자가 있었다.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죽자, 그녀는 보호를 구하게 되었다. 무함만의 사명을 위해 남편이 죽었던 터라, 그녀는 당연히 직접 예언자에게 호소하였고 예언자는 보호를 베풀어 그녀와 결혼하였다. 특히 젊거나 예쁘거나 호감이 가는 여자는 아니었다. 그녀는 성질이 급하고 산만한 평범한 과부였다. 그후 같은 해에 예언자는 자신이 아끼는 동료 아브 바크르의 딸이며 일곱 산 난 소녀였던 아이샤에게 청혼했다. 이 결혼은 메디나로 이주하고 얼마가 지나서야 비로소 성사되었다. 그러나 그는 56 세가 될 때까지 다른 아내를 더 두지 않고 5-6 년 동안 그 두 아내하고만 살았다.

7. 56 세에서 60 세의 사이에 예언자는 잇달아 9 번의 결혼을 하였다. 생애의 마지막 3 년 동안에는 전혀 결혼하지 않았다. 그의 결혼은 대부분이 약 5 년의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그 기간은 그가 사명을 이루어 가는 과정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였다. 무슬림들이 결정적인 전투를 벌이고 대내외적으로 끝없이 되풀이되는 분쟁에 말려 든 게 바로 그 때였다. 또 바로 그 때에 이슬람법이 제정되어 있었고, 이슬람 사회의 기초가 놓여지고 있었다. 매우 흥미 있는 현상은 무함만이 이들 사건의 가장 지배적인 인물이었고 사건 전개에 중심이었으며 그가 한 결혼의 대부분이 이 기간 중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역사가□사회학자□입법자□심리학자 등의 진지한 주의를 끌고 있다. 단순히 육체적 매력과 호색적인 견지에서 이러한 사실을 해석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8. 무함만은 아주 소박하고 엄격 검소한 생활을 하였다. 한꺼번에 국가 원수, 재판장, 총사령관, 교사 등의 역할을 했던 그는 당내에서 가장 분주한 사람이었다. 또 밤에는 가장 헌신적인 사람이었다. 매임 밤의 삼분의 이(2/3)를 기도와 명상을 하면서 뜬눈으로 보내곤 하였다.(꾸란, 73:20) 아라비아의 왕이요, 주권자였지만 그의 가구는 매트, 주전자, 담요와 같이 소박한 물건들뿐이었다. 어찌나 엄격하고 검소한 생활을 했던지 한 번은 아내들이 세상 재미도 좀 보라고 즐라됐지만 결코 그런 예가 없었다.(비교, 꾸란, 33:48) 분명히 그것은 호색적이고 정욕에 불타는 사람의 생활은 아니었다.

9. 그가 취한 아내들은 어린 소녀였던 아이샤를 제외하고는 모두 과부거나 이혼녀들이었다. 그가 아내로 맞이한 이들 과부와 이혼녀 중 육체적 매력이나 아름다움으로 해서 특히 알려졌던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들 중 몇 사람은 그보다 나이가 위였고, 그들 모두가

실제로 그의 보호의 손길을 구하였다. 선물로 그에게 바쳐졌지만 법적인 아내로 그가 맞이한 아내들이었다.

이것이 예언자가 결혼했던 전체적인 배경인 바, 이는 결코 이들 결혼이 육체적 요구나 생물학적 충동에 응한 것이었다는 인상을 줄 수 없는 것이다. 사사로운 의도나 육체적인 욕구 때문에 그렇게 많은 아내들을 부양했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 친구든, 적이든, 무함만의 결혼 때문에 그의 도덕적 성실성이나 영적인 우월성을 의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음과 같은 의문들을 만족스럽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가 여자와의 교제가 전혀 없이 25 세의 나이에 최초의 결혼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 어쩌서 그는 두 번이나 과부가 되었던 15 년 연상의 부인을 선택하였는가? 그의 나이 50 이 넘어 그녀가 죽을 때까지 그녀하고만 같이 산 이유는 무엇인가? 왜 그는 특별히 매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러한 의지할 데 없는 과부와 이혼녀들을 받아들였는가? 편하고 안락한 생활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무슨 이유로 그는 엄격하고 힘든 생활을 하였나? 그의 사명과 경력이 위태롭던 그의 생애에서 가장 분주했던 5 년 동안의 기간에 결혼의 대부분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렘(Harem)생활과 정욕이 그를 사로잡았다면 어떻게 그와 같은 인물이 될 수 있었는가? 기타 많은 논점들을 제기할 수 있다. 여자에 대한 남자의 사랑과 욕망의 견지에서 해석할 수 있을 만큼 문제가 그리 단순치 않은 것이다. 이 문제는 진지하고 정직한 고찰을 요한다.

무함만의 결혼을 개별적으로 검토해 보면 이들 결혼 배후의 실제 이유가 어김없이 드러난다. 이러한 이유들을 다음과 같이 분류해 볼 수 있다.

1. 예언자는 인류에 대한 이상적인 본보기로서 세상에 왔으며, 생활의 모든 면에서 실제 그러하였다. 특히 결혼이 그 두 실례다. 그는 가장 다정한 남편이었고 가장 많은 사랑을 주는 가장 소중한 반려자였다. 그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경험과 도덕적인 시련을 겪어야만 하였다. 한 명의 아내와 두 명 이상의 아내, 나이든 여자와 젊은 여자, 과부와 이혼녀, 호감이 가는 여자와 신경질적인 여자, 유명한 여자와 비천한 여자를 상대로 그는 살았다. 그러나 그는 항상 친절과 위로의 본보기였다. 그는 인간 행위의 이러한 모든 다양한 측면을 경험해 보게 되어 있었다. 이것이 그에게 육체적 쾌락일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것은 도덕적인 시련이었으며 인간의 고된 과업이었다.

2. 예언자는 도덕을 확립하고, 모든 무슬림들에게 안전과 보호, 윤리적 성실성과 떳떳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왔다. 그의 사명은 자신의 생활 속에서 시험되었으며, 정태적인 이론의 형태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어느 때처럼 그가 가장 힘든 역할을 맡았고, 가장 불편한 속에서 자기 직분을 이행하였다. 전쟁과 박해는 무슬림들에게 많은 과부와 고아와 이혼녀들을 짐으로 안겨 주었다. 이들은 생존한 무슬림 남자들이 보호하고 부양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러한 여자들을 자기 동료들과 결혼시켜 다시 안정을 찾게 해 주자는 것이 예언자가 세운 관례였다. 동료들에게 거절당하는 여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예언자의 사적인 후원보호를 구하는 여자들도 있었다. 그들이 처한 여건과 이슬람을 위하여 그들이 치른 희생을 너무나 잘 알았던 그로서는 어떻게 해서든 그들을 구제해야만 하였다. 한 가지 구제

방법은 무거운 책임을 감수하고 그들을 자기 아내로 삼는 것이었다. 그는 그렇게 하여 한 번에 한 명 이상의 아내를 부양하였다. 즐겁지도 쉽지도 않은 일이었다. 자기로서는 관여할 뜻이 없는 일을 자기 동료들더러 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는 과부와 고아와 이혼녀의 처지를 회복시켜 주는데 관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여자들은 무슬림에게 맡겨진 사람들이었으므로 공동으로 보살펴 주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 때에 그가 한 일이 바로 자기 책임을 부담한 것이었으며 항상 그렇듯이 그의 부담이 가장 크고 무거웠다. 그가 한 명 이상의 아내를 두고, 자기 동료들 중에서 가장 많은 아내를 맞이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3. 무슬림들에 의해 많은 전쟁 포로들이 잡혔는데, 이들에게도 안전과 보호의 권리가 있었다. 이들은 살해되거나 인간으로서 육체적인 권리를 부인 당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들은 첩이나 혼한 정부로 취해진 것이 아니라, 무슬림과의 합법적인 결혼을 통하여 안정을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았다. 그 또한 무슬림들에게는 또 하나의 도덕적인 부담이었으며, 하나의 공동 책임으로서 그것을 분담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에 다시금 무함만은 자기 짐을 져, 포로 중 두 명과 결혼함으로써 책임의 일부를 떠맡았다.

4. 예언자가 한 결혼의 일부는 사회□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었다. 그의 주요 관심은 이슬람의 장래였다. 그는 온갖 유대로 무슬림을 강화시키려고 고심하였다. 이것이 그가 자신의 제 1 대 계승자인 아부 바크르의 어린 딸, 그리고 제 2 대 계승자인 우마르의 딸과 결혼한 이유인 것이다. 그는 주와이리와 혼인함으로써 바니알-무스따리끄 씨족 전체와 이들과 동맹한 부족들의 이슬람에 대한 지지를 획득하였다. 샤피아와의 혼인을 통해서서는 아라비아의 적대적인 유태인들이 차지한 큰 지역을 중립화시켰다. 이집트 출신의 콥트인,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므로써 한 유력한 왕과 정치적 동맹을 결성하였다. 무함만이 아비시니아의 네구스가 바친 자이납과 혼인한 것 역시 이웃 왕에 대한 우정의 제스처였다. 그의 영토에서 초기 무슬림들이 안전한 도피처를 구할 수 있었던 것이다.

5. 이와 같이 혼인을 맺음으로써 예언자는 신분제도와 인종적□민족적 허영심과 종교적 편견을 일소하고자 하였다. 그는 가장 비천하고 가련한 여자들과도 결혼했으며 이집트 출신의 콥트인 여자, 종교와 종족이 다른 유태인 여자, 아비시니아 출신의 흑인 여자와도 결혼했다. 그는 단지 형제애와 평등을 가르치는데 만족하지 않고 진심을 다해 가르치고 가르친 것을 실천하였던 것이다.

6. 법적인 이유 때문에 그리고 퇴폐적인 전통을 폐기하기 위해서 예언자가 결혼을 한 경우도 있다. 그가 자이납과 결혼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 자이납은 노예에서 해방된 자이드와 이혼한 여자였다. 아랍인들은 이슬람 이전에는 이혼녀와 재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무함만은 자이드를 양자로 삼아, 이슬람 이전의 아랍인들 사이의 관습대로 자기 아들이라 불렀다. 그러나 이슬람은 이러한 관습을 철폐하여, 그것을 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무함만이 최초로 실천을 통해서 이것이 불가함을 표명하였다. 그는 자기 “양(養)”아들의 이혼녀와 결혼함으로써, 양자를 삼음에 의해 실제로 그 양자가 양부의 친자가 되지 못하며 이혼녀도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공교롭게도 이 자이납은 바로

무함만의 사촌이었다. 그녀는 자이드와 혼인하기 전에 무함만에게 청혼한 적이 있었다. 무함만은 그 때는 청혼을 거절했지만, 그녀가 이혼한 이후 이혼녀의 합법적인 결혼과 양자의 사실상의 지위라는 두 가지 입법상의 목적을 위해서 그녀를 받아들였다. 자이납에 얽힌 이야기를 무함만의 도덕적 성실성에 대한 가소로운 날조에 관련시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 이러한 악랄한 날조는 여기에서 고려할 가치조차 없다.(꾸란, 33:36, 37, 40)

이제까지 논한 것들이 예언자의 결혼에 수반된 상황들이다. 무슬림들은 무함만이 최고의 도덕규범을 가졌으며, 그는 어떤 상황아래서든지 인간에 대한 완전한 본보기였다는 것을 추호도 의심치 않는다. 비무슬림들에게 그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해 보라고 호소하는 바이다. 그런 연후에야 그들은 건전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4. 결혼과 이혼³

이슬람에서 가장 많이 왜곡된 개념 중 하나는 결혼의 진정한 의미다. 본 조사에서 앞에 간략히 언급한데 덧붙여 몇 마디 준비해 두는 게 좋을 것 같다. 이슬람에서 결혼은 양 당사자들이 맺는 상거래가 아니며 서로 대조하여 물질적 이득과 의무를 평가하는 세속 계약도 아니다. 결혼은 엄숙, 신성한 것인 바, 단순히 물질적, 세속적 견지에서 결혼을 규정함은 잘못이다. 도덕적인 사랑, 영적인 향상, 사회적 결혼은 하나님께서 친히 첫 번째 증인, 첫 번째 당사자가 되시는 계약이다. 혼인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복종하여 하나님의 법령에 따라 맺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감독하시는 사람으로서의 떳떳한 교제이며, 그 분께서 꾸란(30:21)에서 언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분의 축복과 풍성한 자비의 징표다.

그러므로 이슬람에서의 결혼은 남녀사이의, 뿐만 아니라 양 당사자와 하나님 사이의 영속적인 관계와 부단한 조화의 수단임이 분명하다.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혼인 계약을 맺는 당시의 두 명의 무슬림은 좋은, 나쁜든, 더 좋아지든, 더 나빠지든 결혼을 원만하게 지속시켜 나가겠다는 의사를 갖는다고 하는 사실이다.

이런 결과를 보증하기 위해 이슬람은 몇 가지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런 규정들은 결혼이 제 목적에 완전히 합치될 것임을 철저히 보증한다. 이들 규정을 들여보면 다음과 같다.

1. 쌍방은 서로를 상당히 잘 알아야 하되, 부도덕하거나 기만적인 그리고 이기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개입시켜서는 안 된다.
2. 특히 남자에 대하여는 여자의 재산이나 가문 혹은 단순히 육체적 매력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종교적 헌신, 도덕적 성실성, 성격 등의 영속적인 가치를 기준을 하여 배우자를 고르라고 권고한다.

³ 이 점과 관련하여 전기(前記), “가족생활”부분참조

3. 여자에게 청혼하는 남자가 자기에게 어울리며 자기의 존경과 사랑을 받을 만한지, 자기를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것을 이유로 하여 여자는 자기 눈에 안차거나 자기에게 어울리지 않는 남자의 청혼을 거절할 수 있다. 이런 남자와 결혼하면 여자가 아내로서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없게 되고 그나마 결혼 생활마저 파탄 나 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4. 여자는 자기의 기준과 청혼 남자의 재력에 따라 그에게 결혼 지참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여자가 이런 권리를 무시하고 결혼 지참금을 거의 혹은 전혀 받지 않고 남자를 맞아들이고자 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결혼 지참금을 주라는 남자에 대한 명령은 곧 남자가 여자를 원하고 필요로 하며 기꺼이 자신의 재정적 혹은 기타의 책임을 질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을 여자에게 보증하는 것이다. 결혼 지참금은 또한 여자가 자기 안전을 누릴 것이며, 남자가 물질적 이득을 노리는 동기로 결혼하는 것이 아님을 암시하는 상징적인 제스처다. 그것은 각 당사자가 타방에 대해 기대하는 것과 기대하지 않는 것 사이에 분명한 한계선을 긋는다.

5. 결혼은 공개되어야 하며 즐거움이 넘치는 가운데 축복 받아야 한다. 쌍방의 자유로운 동기가 필수 조건이며 이러한 동의 없는 결혼은 무효가 된다.

6. 모든 결혼은 그것이 합법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두 명의 성인이 증인을 서고 공문서에 올려야 한다.

7. 아내를 온전하게 부양하는 것은 남자의 의무다. 여자는 결혼을 함으로써 부양 받을 권리를 갖는다. 여자에게 재산이나 소유물이 있는 경우에는 결혼 전이나 후나 그것은 여자의 것이 된다. 남편은 자기 아내의 재산에 대한 권리가 전혀 없다. 이는 곧 결혼을 그 숭고한 목적에 한정시켜 온갖 쓸데없는 목적과 절연케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조처를 통하여 이슬람이 결혼을 행복한 교제 그리고 부단한 조화와 영속적인 평화의 확고한 토대로 만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보증을 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행위란 변하기 쉬워서 예측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이슬람은 현실주의적 인생관을 견지하고 모든 예기치 않은 사건을 고려해 넣는다. 결혼은 전술한 바와 같이 이루어져야 할 땀땀하고 숭고한 목적을 갖는다. 이슬람은 제 구실을 다하지 못하거나 효과가 없는 결혼 생활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름뿐이거나 부질없는 결혼 생활이란 있을 수 없다. 원만한 결혼 생활을 하든가 아예 결혼 생활을 그만두어야 한다. 결혼은 엄숙한 계약인 만큼 아무 보람도 없이 침체된 상태에 방치될 수 없다. 그러므로 결혼이 제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제구실을 다하지 못한다면 그 결혼은 이혼으로써 청산하고 관련 당사자의 모든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이것은 이름뿐인 무익한 계약을 지킬 아무런 의의가 없기 때문이며 또한 이렇게 함으로써 존중할 수 없는 서약에 매인 사람을 풀어 주게 되는 것이다.

전술한 규정에 근거하고, 전술한 예방책이 적용되는 이슬람의 결혼 생활이 제 구실을 다하지 못할 때는 어떤 매우 심각한, 화해로써 극복할 수 없는 장애가 가로놓여 있기 마련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혼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혼은 마지막 수단이다. 예언자는 이혼을 가리켜 모든 합법적인 일 중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가증한 것이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최종적이고 절망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순서로 몇 가지 시도를 해 보아야 한다.

1. 관련 양 당사자는 자기들 사이의 다툼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당사자들이 해결을 못하면, 남편의 친척과 여자의 친척 가운데서 각각 한 사람씩 나온 두 명의 중재자들에게 일을 맡겨 둘 사이를 중재하여 다툼을 해결해 보도록 해야 한다.
3. 그래도 역시 안 되면, 이혼을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이혼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이슬람법은 양 당사자가 이혼에 동의할 것을 요구하며, 그들 각자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이슬람법은 이혼의 권리를 남자 혹은 여자에게만 국한시키지 않는다. 둘 다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양 당사자 중 어느 쪽이 이혼을 못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상대방과 함께 지내는 것을 불안하거나 불행하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이혼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간섭하여 피해를 받는 쪽에서 이혼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혼을 한 후에는 대기 시간-보통 2-3 개월-이 있게 되는데, 이 기간 중에도 전 남편이 이혼녀를 완전히 후원 부양한다. 이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여자는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없다. 대기 기간은 쌍방이 자기들의 태도를 더욱 진지하게 재고하고 수치스러운 별거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다. 그 기간 중에 재결합하기를 피차 원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사실 이렇게 별거하게 되면 보통, 상대방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히 느끼기 때문에 다시 결합하도록 고무된다. 대기 시간이 끝나면 여자는 자유롭게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다. 쌍방은 더 이상 서로에 대해 의무를 지지 않는다.

이혼녀와 이혼녀의 전 남편이 재결합할 경우에는 이들의 결혼은 신혼과 다름없을 것이다. 둘의 관계가 나아지지 않는다면 전과 마찬가지로 이혼이라는 해결책에 호소할 수 있다. 그 후 피차 원한다면 새로 결혼하여 재결합이 성공하지 못하면 최종적인 이혼을 적용할 수 있다.

맨 처음 이혼을 허락함으로써, 이슬람은 이혼보다도 더욱 해로운, 불행하고 냉정하며 침체된 결혼 생활을 용납할 수 없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다. 재결합한 쌍방의 결정으로 번갈아 두 번 이혼케 함으로써 이슬람은 보람과 목적이 있는 결혼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기회를 부여한다. 이처럼 이슬람은 온갖 문제와 대결하고 온갖 상황에 대처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이혼을 허락함으로써 이슬람이 결혼 생활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바로 이러한 조치에 의해 결혼 생활의 안전을 보장한다. 왜냐하면, 그 올바르게 못한 사람이 피해를 받는 쪽에서 이혼을 함으로써 부당한 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 것이기 때문이다. 제 구실을 다하고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결혼 생활만이 구속력을 가진다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양 당사자는 결혼 생활을 지속하는데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행위를 하기에 앞서 결혼 생활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슬람은 각 당사자로 하여금 결혼 전의 배우자 선택과 결혼 후의 배우자에 대한 대우에 신중을 기하게 된다.

이슬람이 상호 동의에 의해 혹은 피해자 측을 대신하여 법원이 간섭함에 의해 이혼을 성립시키는 것은 곧 도덕과 인간의 존엄성을 확고하게 지키는 것이다. 이슬람은 충실치 못한 배우자들에게 한쪽이 부당하게 해를 당하도록 강요하지 않으며 사람들은 부도덕하고 음란한 행위로 몰아 부치지 않는다. 이슬람은 이와 같이 말한다. 법적으로 행복하게 함께 살든지 아니면 품위를 지켜 떳떳하게 별거하라. 이 점에 관하여 이슬람에 있어서 도덕적으로나 인간적으로 가장 주목할 만한 사실은 그것이 아무에게도 단지 이혼을 하기 위하여 자시의 품위를 낮추거나 자신의 도덕성을 떨어뜨리도록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무슬림은 이혼 허락을 받기 전에 몇 년 동안 배우자와 “별거”할 필요가 없다. 이혼 허락이 간통 여부에 달려 있지도 않다. 많은 제도가 승인하고 있는 “별거”는 부도덕하고 음란한 행위를 수반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고 있는 게 확실한 실정이나, 이런 식으로 “별거”하는 경우에는 결혼 생활의 권리를 누릴 수도 없거니와 그 의무를 이행할 수도 없다. 별거 당사자는 공식적으로 결혼 상태에 있지만 실제 얼마나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가? 별거 당사자는 아주 단단히 엮매여 있지만 어떤 제약도 영향을 미칠 수 없을 만큼 해이해져 버리고 만다. 그 사람은 이혼도 재혼도 할 수 없다. 하지만 그가 혼외 관계를 하는데 대한 무슨 법적인 한계라도 있는가? 그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면 누구하고라도 아무런 저지나 제한도 받지 않고 놀아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일이 매일 생기고 있는 만큼, 자세한 설명을 요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별거”가 긍정적으로는 이혼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지는 모르지만 도덕이 치러야 하는 희생, 사회가 지불해야 하는 대가가 얼마나 큰 가! 이것은 이슬람으로서는 인정하거나 승인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그것을 인정한다면 이슬람이 소중히 하는 윤리적 가치의 전 체계를 범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간통의 경우와 일부 제도가 그것을 이혼 사유로서 승인한 사실을 고려하여 우리는 다만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뿐이다 : 이혼을 성립시키기 위하여 간통을 하거나 간통한 것처럼 가장하는 것은 인간 존엄성을 크게 모욕하고 도덕을 심히 해치는 행위다. 간통에 대한 이슬람의 견해는 전술한 바와 같다. 그러나 대게 보면 다음과 같은 일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간통을 하거나 간통한 것처럼 가장한다고 해서 이혼이 성립되는 것이 아닌데도 사람들은 이혼 판결을 받기 위하여 간통을 하거나 간통한 것처럼 가장한다. 다른 식으로는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 관계에 있어 참으로 주객전도의 수치스러운 행각이 아닌가!

이것이 그 문제에 대한 이슬람의 입장이다. 최후의 수단으로 이혼을 해야 한다면 품위를 지키고 합당하게 존중하면서 이혼을 승인해야 한다. 이슬람은 결혼 생활에 적용하면 “별거”나 간통이 이혼 사유가 될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극단적인 엄격함에 대한 극단적인 반응으로 생겨난, 저 할리우드식의 쉬운 이혼도 없을 것이다. 인간성에 관계하는 제도라면 어느 것이든 현실주의적이고 온건해야 하며 모든 조건에 대처해 나갈 각오로써 모든 상황을 고려해 놓아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제도는 설 땅을 잃고 자멸해 버리고 말 것이다.(꾸란, 2:224-232, 4:34-35, 4:127-130 참조)

끝으로 한 마디 더 주의하고 본 논의를 마치기로 한다. 사실상 알려져 있는 모든 사회, 모든 종교마다 제각기 결혼 생활을 끝맺는 방법이 있다. 이혼율은 산업화된 세계에서 급증하고 있으며 이혼 법은 점점 자유주의화 되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슬람에서는 이혼은 여전히 주목할 만한 도덕적 행위인 것이다. 배우자들은 친절하고 인내하라는 하나님의 명과 하나님께서 많은 미덕과 장점을 심어준 자기 배우자라도 그 배우자의 어떤 점이 싫을 수도 있다고 주의를 받고 있다. 선의를 가지고 동거한다면,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보장되고 있다. 그러나 이혼해서 갈라서야 한다면, 해롭게 하려는 생각은 말고 이혼을 청구해야 한다. 품위를 지켜 명예롭게 갈라선다면 이들에게도 고루 미치는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가 보장되어 있다. 결혼의 전체 맥락은 시종일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 중심으로 하여, 그러한 믿음을 지향한다. 이혼을 다룬 성귀들은 무미건조한 법규정이 아니다. 이 성귀들은 고도의 질서에 대한 도덕적 권고로 시작하여 그것으로 끝나고 있다. 당사자들의 도덕적 책임은 이혼 날짜의 훨씬 너머까지 미친다. 이혼을 주로 도덕적 행위로 간주하는 것이 정당할 만큼 이 문제 전체는 실로 고도의 윤리 체계 속에 통합되어 있는 것이다.

5. 이슬람에서의 여자의 지위

이슬람에서의 여자의 지위가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는다. 꾸란과 초기 무슬림의 태도가 여자는 적어도 남자만큼 생존에 필요 불가결하여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이거나 하등인종(下等人種)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거 한다. 외래문화와 외국세력의 영향이 없었다면 무슬림들 간에 이러한 문제가 결코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여자의 지위는 남자의 지위와 동등하다는 것이 당연시되었다. 그것은 당연지사요, 기정 사실이었던 만큼 아무도 그것을 전혀 문제로 여기지 않는다.

이슬람이 여자에 대해 제정해 놓은 것을 이해하기 위해, 이슬람 이전 시대나 오늘날의 현대 세계에서 여자가 처한 비참한 상태를 개탄할 필요는 없다. 이슬람은 타종교나 헌법 제도하에서는 결코 누려본 일이 없는 권리와 특권을 여자에게 부여하였다. 문제를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비교적인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조사해 보면 이러한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 여자의 권리와 책임은 남자의 그것과 동등하지만,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다. 동등(평등)하다는 것과 동일(同一)하다는 것은 두 가지의 전연 별개의 것이다. 남자와 여자는 동일하지는 않지만 동등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런 차이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 이런 차이를 염두에 둔다면 문제가 될게 없다. 똑같은 두 사람의 남자가 여자를 찾는다는 것을 불가능한 일이나 다름없다.

동등하다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 사이의 이러한 차이는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동등(평등)하다는 것은 바람직하고 공평 공정한 것이지만 동일하다는 것은 그렇지 않다. 사람들은 동일하게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평등하게 창조되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를 염두해 둔다면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할 여지가 없다. 여자의 권리가 남자의 권리와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덜 중요하다고 추정할 근거도 없다. 여자의 지위가 남자의 지위가 동일하였다면 여자는 남자의 복제물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의 복제물이 아니다. 이슬람이 여자에게-동일한 권리가 아니라-동등한 권리를 준다고 하는 사실은, 이슬람이 여자를 합당하게 고려하고 여자를 인정하며, 여자의 독립적 인격을 승인한다는 것을 지적한다.

여자에게 악마가 만들어 낸 것이라나 악의 씨라는 낙인을 찍는 것은 이슬람에 있는 경향이 아니다. 꾸란은 여자가 남자의 지배에 굴복할 수 없도록 남자는 여자를 지배하는 주인으로 삼고 있지 않다. 여자에게 영혼이 있느냐 하는 문제를 끌어들이는 것도 이슬람이 아니었다. 이슬람 역사상, 무슬림이라면 그 누구도 인간으로서의 지위와 영혼의 소유 그리고 기타 훌륭한 영적 자질을 결코 의심하지 않았다. 여타의 통속적인 믿음과는 달리, 이슬람은 이브에게만 원죄(原罪)의 책임을 씌우지 않는다. 꾸란은 아담과 이브가 모두 유혹을 받았으며, 둘 다 죄를 범했고 그들이 회개한 후에 하나님께서 둘 다 용서하셨으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동시에 두 사람 모두에 대한 것이었음을 매우 분명히 한다.(꾸란, 2:35-36, 7:19,27, 20:117-123) 사실 꾸란은 원죄의 책임이 아담에게 더 많았다는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이다. 여자에 대한 편견, 여자의 행위에 대한 의심은 모두 이러한 원죄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이슬람은 이러한 편견이나 의심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아담과 이브가 모두 똑같이 잘못을 범했고, 이브에게 죄가 있다고 한다면, 아담에게는 더 한층 많은 죄가 있다고 해야 하기 때문이다.⁴

현대 여성의 권리는 자발적으로 혹은 여성에 대한 친절심에서 부여되지 않는다. 현대 여자가 오늘의 지위에 오른 것은 강제에 의해서지 자연스러운 과정이나 상호 동의 혹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가 아니었다. 여자들은 실력으로 밀고 나가지 않을 수 없었으며, 여러 방면에서 벌어진 상황이 여자에게 도움이 되었다. 전시의 인력부족, 경제적 요구의 압력, 산업 발전의 필요 때문에 여자는 가정 밖으로 밀려나 일하고 배우고 자기 생계를 위해 애쓰고 나자와 동등한 입장이 되고 남자와 어깨를 나란히 생활 전선에 뛰어들게 되었다. 갖가지 상황에 몰린 여자는 스스로의 힘으로 헤쳐 나가 새로운 지위를 획득했던 것이다. 모든 여자들이 자기들 편에 기운 상황을 환영하였고 그 결과에 기꺼이 만족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또 다른 문제다. 그러나 현대 여성들이 어떤 권리를 누리고 있든지 간에, 그것이 무슬림 여자의 권리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이슬람이 여자를 위해 제정해 놓은 것은 여자의 천성에 어울리고, 여자에게 충분한 안전을 보장하며 수치스러운 상황과 불확실한 인생행로에 빠져들지 않도록 여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현대 여성의 지위와 살아가기 위해 혹은 자립하기 위해 여자가 무릅써야 하는 위험을 여기서 꼬치꼬치 따질 필요는 없다. 이른바, 여자의 권리의 결과로서 여자를 둘러싸고 있는 불행과 좌절을 파헤칠 필요도 없다. 현대 여성이 자랑하는 바로 그 “자유”와 “권리” 때문에 파탄 나고 있는 많은 불행한 가정의 상태를 조정해 보자는 것도 아니다. 오늘날 많은 여성들이 자유롭게, 독립해 나가서 노동하여 벌고 남자와 동등해진 양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⁴ 본 논의와 관련하여 전기죄의 개념 참조

행사하고는 있지만, 그 대가로 매우 유감스럽게도 자기 가족이 희생되고 있다. 이 모든 사실은 분명하게 알려져 있다.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은 바로 이슬람에서의 여자의 지위다. 이제부터 여자에 대한 이슬람의 태도를 요약해 보기로 한다.

1. 여자는 이슬람에 의해 인류의 생식에 있어서 완전하고 동등한 남자의 배우자로 인정된다. 남자는 아버지로서 여자는 어머니로서 모두 생존에 필요 불가결하다. 여자의 역할은 남자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하다. 이와 같이 서로 보조를 맞춤으로써 여자는 모든 점에 있어서 동등한 몫을 차지한다. 여자는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동등한 책임을 지며, 자기 배우자만큼의 자질과 인간성을 보유하고 있다. 인류의 생식에 있어서의 이러한 공동 보조에 대하여 꾸란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오! 인류여! 진실로 우리가 너희를 한 쌍의 남자와 여자로부터 창조하여 너희로 민족과 부족이 되게 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서로 알게 하려 함이라...(꾸란, 49:13, 비교 ; 4:1)

2. 여자는 남자와 동등하게 사적인 책임과 공동의 책임을 지며, 자기 행위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 여자는 인간적인 자질을 소유하고 영적 열망을 간직할 만한 독립된 인격으로 인정된다. 여자의 인간성은 남자의 그것보다 열등한 것도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니다. 둘이는 서로 한 지체(肢體)를 이룬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

주께서 (저들의 기도를)받아들이사 이같이 응답하시니라 : 나는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너희 중 누가 한 일든지 그 일이 결코 잊혀지게 하지 않으리라 : 너희는 서로 한 지체이니...(꾸란, 3:195, 비교 9:71, 33:35-36, 66:19-21)

3. 여자는 남자와 동등하게 교육과 지식을 추구한다. 이슬람은 무슬림들에게 지식을 추구하라고 명하되 남녀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 대략 14 세기 전에 무함만은 지식의 추구는 남녀를 막론하고 모든 무슬림에게 지워진 의무라고 선언하였다. 이 선언은 매우 분명하였으며 무슬림들에 의해 역사의 진행과 더불어 실행으로 옮겨졌다.

4. 여자는 남자와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를 누린다. 여자의 건전한 의견은 고려되며, 그것이 여자의 의견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시될 수 없다. 꾸란과 역사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 여자는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표현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무슬림 지도자들과는 물론 예언자와의 진지한 토론에 참여하기도 하였다.(꾸란, 58:1-4, 60:10-12) 뿐만 아니라 무슬림 여자들이 공익에 관한 입법상의 문제에 대하여 자신들의 견해를 표명하고 칼리프들과 반대 입장을 취하는 경우도 있었다. 당시에는 칼리프들이 이런 여자들의 건전한 주장을 받아들였다. 우마르 이븐 알-칼타브가 칼리프 직에 있을 때 한 가지 특별한 사례가 있었다.

5. 역사기록은 여자들이 초기의 무슬림과 더불어 특히 비상사태시에 공공생활에 참여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자들도 부상자 간호와 군량마련, 전사(戰士)의 뒷바라지

등을 위해 전투를 벌이는 무슬림 군대를 따라다니곤 하였다. 여자들은 쇠빛장 뒤에 갇히거나 무가치한 존재로 간주되지 않았으며 영혼을 박탈당하지도 않았다.

6. 이슬람은 여자에게 계약하고 사업할 수 있는 권리와 독립하여 벌어서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동등하게 부여한다. 여자의 생명, 재산, 명예는 남자의 그것만큼 신성한 것이다. 여자가 죄를 범할 때 받는 형벌은 비슷한 경우에 남자가 받는 형벌보다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다. 여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그러한 처지의 남자가 받는 것과 동등하게 응분의 보상을 받는다.(꾸란, 2:178, 4:45,92-93)

7. 이슬람은 이러한 권리들을 통계적으로 열거해 놓고 나서 흐지부지해 버리지 않는다. 이슬람은 이들 권리를 보호하고 필수적인 신조로서 실천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 취해 놓았다. 이슬람은 여자에 대해 편견을 갖거나 남녀 사이에 차별을 두는 버릇이 있는 사람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꾸란은 습관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누누이 책망한다.(꾸란, 16:57-59, 62, 42:47-50, 43:15-19, 53:21-23)

8. 인류의 생존에 똑같이 필요 불가결한 존재로 인정하여 여자는 하나의 독립된 인간으로서 인식하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이슬람은 여자에게도 상속권을 부여해왔다. 이슬람 이전에는 여자에게 상속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여자는 남자가 상속하는 재산으로 간주되었다. 그와 같이 양도할 수 있는 재산을 이슬람은 상속자로 만들어 여자의 선천적인 인간적 자질을 인정하였다. 아내이거나 어머니이거나 혹은 누이이거나 딸이거나 막론하고 여자는 사망한 친척의 재산의 일정 몫을 상속받는다. 상속분은 고인과의 촌수와 상속자의 수에 따라 결정된다. 이 상속분은 여자의 것이며 누구도 이것을 줄이거나 여자의 상속권을 내세움으로써 상속권을 빼앗고자 해도 법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지 않을 것이다. 소유자는 자기 재산의 삼분의 일의 한도 내에서만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남녀 상속자들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상속의 경우에 동등성과 동일성의 문제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게 고인이 된 친척의 재산을 상속할 권리를 가지지만 상속분은 달라질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여자가 한 몫만을 받는 반면에 남자는 두 몫을 받기도 한다. 이것은 여자보다 남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표시가 아니다. 이 특별한 경우에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이 받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 남자는 자기 아내와 가족 그리고 가난한 다른 친척들을 온전하게 부양할 책임을 혼자서 진다. 모든 재정적인 책임을 떠맡고 자기에게 딸린 사람들을 충분히 부양하는 것이 법이 정한 남자의 의무다. 또한 자기가 속한 사회의 모든 훌륭한 대의명분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 역시 남자의 의무다. 오직 남자만이 모든 재정적인 부담을 짊어지는 것이다.

둘째 : 이와는 대조적으로 여자는 약간의 개인 비용과 자기가 갖고 싶은 값비싼 사치품을 제외하면 재정적으로 책임이 없다. 여자는 재정적으로 안전할 뿐만 아니라 부양을 받는다. 여자가 아내라면 남편이 부양자가 되고, 어머니라면 아들이, 딸이라면 아버지가, 누이라면 오빠나 남동생 등이 부양자가 된다. 여자에게 의지할 친척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받을 것도 없고 그녀에게 유산을 남겨줄 사람도 없기 때문에 상속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의지할 데 없는 여자가 굶어죽게 내버려두지는 않는다. 이러한 여자를 부양하는 것은 사회전체와 국가의 책임이다. 여자는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생활비를 벌 수 있는 직업을 얻을 수도 있다. 여자가 버는 돈은 전부 자기 것이 된다. 여자에게는 자기 외에 다른 사람을 부양할 책임이 없다. 남자는 이런 처지에 있더라도 자기 가족과 혹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친척이 있다면 그 친척을 부양할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어도 여자의 책임은 한정되어 있는 반면에 남자의 책임은 무한한 것이다.

셋째 : 여자가 남자보다 덜 가지는 것은, 사실은 여자가 일한 대가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다. 상속 재산은 여자의 벌이나 노력의 결과가 아니다. 그것은 국외의 출처로부터 그들에게 넘어온 가외(加外)의 재산이다. 그것은 여자에게나 남자에게나 불로소득이다. 상속 재산은 일종의 도움인 바, 어떤 도움이든지 특히 하나님의 법이 그 분배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급한 필요와 책임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

한쪽에는 온갖 종류의 재정적인 책임과 의무를 짊어진 남자 상속자가 있고 또 다른 쪽에는 재정적인 책임이 전혀 없거나 고작해야 약간 밖에 없는 여자 상속자가 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상속시키기 위해 재분배해 줄 상당량의 재산과 도움이 있다. 만일 여자의 몫을 완전히 박탈해 버린다면, 여자가 고인과 친척이므로 이것은 여자에게 부당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언제나 여자에게 남자와 동등한 몫을 준다면 이번에는 남자에게 부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양쪽에 부당하게 하는 대신 이슬람은 남자가 자기 가족의 필요와 사회적 책임에 응할 수 있도록, 그에게 더 큰 몫의 상속 재산을 주고 있다. 이와 동시에 이슬람은 여자를 아주 무시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자신의 개인적인 필요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한 몫의 상속 재산을 주어 왔다. 사실, 이 점에 있어서 이슬람은 남자보다 여자에게 더 많은 친절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여자의 권리가 남자의 권리와 동일하지는 않지만, 동등하다고 하는 사실이다.(꾸란, 4:11-14, 176 참조)

9. 민사계약(民事契約)의 증인으로서 두 명의 남자 혹은 한 명의 남자와 두 명의 여자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 역시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함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계약 당사자들의 권리를 보증하기 위한 조처다. 여자는 대개 남자와는 달리 실생활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험부족 때문에 특정 계약의 당사자가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적어도 두 명의 여자가 한 명의 남자와 함께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법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증인인 한 여자가 잇은 게 있을 경우 다른 한 여자가 생각나게 해 줄 것이다. 혹은 한 여자가 경험이 없어 잘못을 범하면 다른 여자의 도움으로 그 잘못을 바로잡게 될 것이다. 이것은 사람들 사이에 정직하고 정당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보증하기 위한 예방조처다. 사실, 이러한 조처는 시민 생활에서 여자가 한 역할을 담당하게 하며 정의를 확립시키는데도 이바지한다. 아무튼 시민 생활의 경험이 부족하다고 해서 반드시

여자의 지위가 남자보다 열등한 것은 아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족한 게 있기 마련이지만 그렇다고 아무도 그 사람의 지위를 의심하지 않는다.(꾸란, 2:282)⁵

10. 여자는 남자에게 없는 특권을 누린다. 여자는 월경기간 중이거나 해산 후 자리에 누워 있을 때에는 예배, 단식 등의 종교상의 의무가 면제된다. 금요일의 집회에 참석할 의무가 면제되며, 모든 재정적 책임이 면제된다. 어머니로서의 여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욱 많은 인정을 받고 더 높은 명예를 누린다.(꾸란, 31:14-15, 46:15) 예언자는 낙원이 어머니들의 발 아래 있다고 선언하여 이러한 명예를 인정하였다. 여자는 아이들의 사랑과 친절의 사분의 삼을 누릴 권리가 있다. 나머지 사분의 일은 아버지 차지다. 아내로서의 여자는 남편이 될 사람에게 앞으로 자기 소유가 될 적정액의 결혼 지참금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남편의 완전한 준비와 온전한 부양을 받을 권리가 있다. 여자는 일하거나 가게비를 남편과 공동 부담할 필요가 없다. 여자는 결혼 후에도 결혼 전에 자기가 소유했던 것을 모두 보유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며 남편은 아내의 소유물에 대한 권리가 전혀 없다. 딸이나 누이로서의 여자는 제각기 아버지와 오빠(혹은 남동생)에게 안전의 보장과 (각종)준비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그것은 여자의 특권이다. 여자가 일하거나 자립하고 싶어한다든지 가족 부양의 책임을 함께 지고 싶어 할 경우에는 그녀의 성실성과 명예가 보호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자유가 있다.

11. 예배 중에 여자가 남자 뒤에 서는 것을 결코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여자는 전술한 바와 같이 남자에게는 의무로 되어 있는 집단(회중)예배에의 참석이 면제된다. 그러나 참석할 경우에는 미성년인 아이들이 따로 열을 지어 성인 남자들 뒤에 서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자들끼리만 따로 모여 있는 열에 가서 선다. 이것은 예배 중에 지켜야 할 계율을 규정한 것이지 신분의 중요성에 등급을 매긴 것이 아니다. 남자의 열에는 국가 원수가 빈민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선다. 사회에서 가장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도 예배 중에는 가장 지위가 낮은 사람들과 나란히 선다. 예배시의 열의 순서를 정해 놓은 것은 각자가 자기 명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무슬림의 예배는 찬송가나 노래를 부르는 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무슬림 예배는 여러 가지 동작과 몸짓, 경배, 부복 등을 수반한다. 그러므로 만약 남자와 여자가 같은 줄에 섞여 있다면 방해거리가 생기거나 주의가 산만해질 수 있다. 예배 이외의 엉뚱한 일에 정신이 팔려 명상의 깨끗한 길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눈이-금지된 것을 봄으로써-마음과

⁵ 여자의 증언이 어떤 문제에 있어서 배타적이고 여자의 전문적 의견이 결정적인 점이 흥미를 끈다. 남자의 증언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오직 한 명의 여자(증인)만이 요구된다. 더욱이 계약과 상거래의 증인이 되는 것은 특권이 아니다. 이행해야 할 의무다(꾸란, 2:282-283). 이러한 여자의 의무 부담이 반으로 경감되는 것을 가리켜 여자의 권리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것은 어느 편이나 하면, 호의이거나 면제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간음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무슬림은 남녀를 불문하고 예배 중에 이성(異性)의 몸에 접촉하는 것이 금지된다. 남자와 여자가 예배할 때 나란히 선다면 서로 접촉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더군다나 여자가 남자의 앞이나 옆에서 예배를 볼 때, 경배나 부복 동작을 한 후에 옷 속의 신체 부위가 노출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남자의 눈이 우연히 노출된 부위를 보게 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여자는 당황할 것이고 남자는 주의가 산만해지거나 아마 나쁜 생각이 고개를 쳐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당황하거나 주의를 산만하게 하지 않게 하고 명상과 순수한 생각에 전념하게 하며 예배자들 사이에 조화와 질서를 유지하고 예배의 진정한 목적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슬람은 남자들이 맨 앞 열에 서고 남자들의 뒤 열에 아이들이, 아이들의 뒤 열에 여자들 서도록 하는 열편성 방법을 규정하였다. 무슬림 예배의 본질과 목적을 어지간히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식으로 예배자들의 열을 편성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12. 무슬림 여자 얘기가 나오면 항상 “베일”로 알려진 오랜 전통이 연상된다. 여자가 명예, 품위, 정절, 순결 그리고 성실의 베일로서 자신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이슬람의 전통이다. 여자는 자기의 법적 남편을 제외한 다른 사람의 정욕을 자극하거나 자신의 도덕성에 대한 나쁜 의심을 조장할 수 있는 행위나 거동을 모두 삼가야 한다. 여자는 낯선 남자들 앞에서 자기의 매력을 과시하거나 요염한 자태를 드러내지 말라는 경고를 받고 있다. 여자가 써야 하는 베일은 영혼을 나약함에서, 정신을 방종에서, 눈을 음탕한 시선에서, 인격을 타락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슬람은 여자의 성실성에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여자의 도덕과 품기 그리고 개성과 인격의 보호에 매우 신경을 쓰고 있다.(비교, 꾸란, 24:30-31)

13. 지금쯤은 이미, 이슬람에서의 여자의 지위가 전혀 없이 높고, 그것이 여자의 본성에 현실적으로 적합하다는 것이 분명해졌을 것이다. 여자의 권리와 의무는 남자의 경우와 동등하지만 반드시 혹은 절대적으로 동일하지는 않다. 만일 어떤 면에서 한 가지를 여자가 못 가진다면, 다른 많은 면에서 더욱 많은 것으로 충분히 보상을 받는다. 여자가 여성(female sex)에 속한다는 사실은 여자의 인간으로서의 지위나 독립적인 인격과 하등의 관계도 없으며 여자에 대한 편견과 그 인격에 대한 불공평한 처사를 정당화시켜 주는 근거가 되는 것도 아니다. 이슬람은 여자에게 요구되는 만큼 여자에게 준다. 여자의 권리는 여자의 의무와 아름답게 어울린다. 권리와 의무 사이에 균형이 유지되어 한쪽이 다른 쪽에 압도되는 일이 없다. 여자의 전체적 지위는 꾸란 구절에 명시되어 있는 바, 이를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여자들도 공평하게 (남자들이)저들에 대해 갖는 권리와 같은 권리를 가질 것이니라. 그러나 남자가 (상속에 있어서의 경우처럼)여자보다 우월한 지위를 가지느니라(꾸란, 2:228)

이 지위는 여자에 대한 지배권이나 여자에 대한 지배의 허가가 아니다. 그것은 남자가 지는 가외(加外)의 책임에 상응하는 것이며 남자의 무한한 책임에 대해 상당한 보상을 해 주는 것이다. 전술한 책임은 항상 다른 구절에 비추어 해석한다.(꾸란, 4:34)⁶

몇 가지 경제적인 측면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지위를 갖게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가외의 책임이다. 그것은 인간적 혹은 인격적 측면에서 더 높은 지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한쪽의 다른 쪽에 대한 지배나 억압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성의 요구에 따라 하나님의 풍요함을 분배하는 것이다. 여자에게 무엇이 좋고 남자에게 무엇이 좋은지는 그 분이 가장 잘 아신다.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선언은 절대적인 진리다.

오! 인류여! 너희의 수호자이신 주를 숭배하라 그 분은 한 사람으로부터 너희를 창조하셨나니

비슷한 본성으로 저의 배우자를 창조하시라 저희들로부터 무수한 남녀들을 (씨처럼) 흩뿌리셨느니라.(꾸란, 4:1)

⁶ 전기의 “가족 생활”부분과 비교해 볼 것.

부록 I 꾸란과 그 지혜

꾸란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베푸는 최대의 선물이며 그 지혜는 독특한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이 성서의 목적은 앞서 내린 계시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를 회복하며 인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인간의 영혼에 활기를 불어넣으며, 인간의 양심을 일깨우고 인간의 정신을 계몽하는 것이다.

꾸란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 무함만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인 바, 그것은 상상하여 모방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다. 무함만과 같은 시대의 사람들은 아랍어의 최고 대가들로서 갈채를 받았으며, 꾸란에 필적할 만한 원전을 만들어 보겠다는 동기에 강하게 사로잡혀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꾸란의 내용이나 문체를 모방해 내지 못했다. 무함만은 공식 교육을 받지 못했으며 교육을 받은 사실을 숨긴 것도 아니었다. 배우지 못한 사람으로서 배우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나 인류 전체 곧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 다 같이 하나님의 진리의 메시지를 가르쳤다는 것이 그의 최대의 명예인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꾸란에 대한 첫 번째 사실이다.

이 유일무이한 성서에 대한 두 번째 사실은 그 내용과 순서의 의심할 여지 없는 신빙성이다. 이는 일찍이 그 어느 책도 가져 보지 못한 혹은 가질 것 같지 않은 특성이나 꾸란의 신빙성은 그 원문의 순수성, 독창성, 그리고 전체성에 대해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 무슬림과 비무슬림을 막론하고 진지한 학자들은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는 꾸란이 무함만을 가르치고 생활의 지표로 삼고 대략 14세기 전에 인류에게 남겨 준 바로 그 성서라고 확실하게 단정을 내렸다. 몇 가지 사실을 관찰함으로써 꾸란의 이러한 유례없는 신빙성을 설명할 수 있다.

1. 꾸란은 일부분씩 단편적으로 계시되었지만, 그렇다고 순서나 배열의 형식을 갖추지 않은 것을 결코 아니다. 꾸란이라는 명칭 자체가 그것이 애초부터 하나의 책이었음을 나타낸다.(꾸란, 2:2, 41:41-42) 꾸란의 배열과 꾸란 구절의 점차적인 계시는 하나님의 계시였으며 무함만과 그의 동료들이 따른 하나님의 뜻이었다.(꾸란, 25:32, 비교 75:17)

2. 아랍인들은 극히 세련된 문학적 취향으로 유명하였다. 이러한 문학적 취향이 있었기에 그들은 훌륭한 문학 작품을 음미하고 감상할 수 있었다. 꾸란은 그들의 취미에 맞는 가장 뛰어난 문학적 걸작품으로 갈채를 받았다. 그들은 꾸란의 어조에 감동되었으며 그 비범한 선(善)에 매료되었다. 그들은 그 속에서 가장 큰 만족과, 가장 깊은 기쁨을 발견하였으며 이 성서를 암송하고 암기하는 일에 착수했다. 그것은 모든 무슬림들과 많은 비무슬림에 의해 찬양 받고 인용되고 소중히 여겨졌다. 이것은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다.

3.남녀를 불문하고 예배를 보거나 야간에 불침번을 설 때 꾸란의 일부를 암송하는 것은 모든 무슬림에게 지워지는 의무다. 꾸란을 암송하는 것은 무슬림에게 있어 고상한 숭배 형식이며 일상 습관이다.

4.아랍인들은 대개 문맹자들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아주 좋아하는 시나 글귀를 보존하려면 오로지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빈틈없는 기억력으로 유명하였던 바 바로 이러한 기억력에다 자기들의 문학적인 유산을 저장하였던 것이다. 꾸란은 문학적 취향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 의해 모방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것을 지체없이 암기하되, 항상 가장 훌륭하고 공손하게 그렇게 한다.

5.무함만 생존시에는 계시를 받아쓰는 전문적인 서기들과 기록 담당자들이 있었다. 무함만이 한 구절을 받을 때마다 즉시 서기들에게 서기를 내려 자기 감독 하에 그것을 기록하게 하였다. 예언자가 친히 이들이 기록한 것을 전부 점검하고 인증(認證)하였다. 낱말 하나 하나가 재검토되었고, 구절 하나 하나가 제 순서대로 배열되었다.

6.계시가 완결되자 무슬림들은 완전한 꾸란 기록을 많이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꾸란 기록들은 온갖 일상적 목적을 위해 암송 암기되고 연구 사용되었다. 차이가 하나라도 생기면 문제가 원문에 관련된 것이든 의미나 억양에 관련된 것이든 항상 예언자에게 직접 그 문제의 해결이 위임되었다.

7.무함만 사후에는 꾸란이 이미 많은 무슬림들에게 기억되었고 수많은 기록 판에 적혔다. 그러나 제 1대 칼리프인 아브 바크르는 여기에만 만족할 수 없었다. 그는 꾸란 기억자들이 많이 전사하면 꾸란에 심각한 혼란이 야기되지 않을까 우려, 그래서 그는 일류 권위자들의 의견을 물은 다음, 계시를 받아 적은 무함만의 일등 서기 자이드 이븐 싸비트(Zeyd Ibn Thabit)에게 위임하여 무함만이 친히 인정한 순서대로 성서의 표준 완결판을 편찬하게 하였다. 자이드 이븐 싸비트는 예언자의 동료들의 감수와 도움을 받아 그 일을 해냈다. 이 최초 완결판이 무함만에게서 꾸란을 직접 듣고 그것을 기억하여 마음에 새긴 모든 무슬림들에 의해 점검 승인되었다. 이 일은 무함만이 사거(死去)한 지 2년이 채 못 되어서 이루어졌다. 계시는 서기와 기억자들과 기타 예언자의 동료 무슬림들의 마음속에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있었다.

8. 무함만이 사거한 지 약 15년 후, 우쓰만(Uthman)이 칼리프로 있을 때, 편찬된 꾸란 사본들이 이슬람에 처음으로 접촉하게 되는 지역에 널리 배포되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무함만을 보지도 그의 말을 듣지도 못했다. 지역적, 지리적 요인 때문에 그들은 꾸란을 읽는데 악센트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낭송과 억양에 차이가 생겨 무슬림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났다. 우쓰만은 기민하게 움직여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였다. 그는 모든 일류 권위자들과 서로 협의한 후에, 계시를 받아 적은 4인의 전임 서기들로 이루어진 위원회

를 구성하였다. 사용 중에 있는 모든 사본이 회수되어, 단권 준 사본으로 대체되었다. 이 표준 사본은 바로 무함만의 방언과 악센트였던 꾸라이쉬의 악센트와 방언에 따라 사용하게 되어 있었다. 그 방언이 표준어로 채택된 것은 그것이 모든 방언 중에서 가장 훌륭하였고 꾸란이 그 방언으로 계시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꾸란은 다시 그것을 받은 사람의 악센트나 방언에 한정되었다. 그 때 이후로, 똑같은 표준판이 낱말이나 순서에 있어서 심지어 구두점에 있어서조차 극히 사소한 변화도 없이 사용되어 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찰 결과로부터, 학자들은 지금 있는 꾸란은 처음에 받은 그대로이며 앞으로도 항상 그럴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꾸란에 첨가하는 일은 결코 없었으며 그 내용을 생략하거나 변조하는 일도 없었다. 그 역사는 대낮처럼 밝고, 그 신빙성은 확실하여 그 완전 무결한 보존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꾸란은 근원과 특성과 차원에 있어 그 유례를 볼 수 없는 지혜로 충만해 있다. 꾸란의 지혜는 그 저자의 지혜에서 연원하는 바, 하나님 이외의 그 누구도 꾸란의 저자가 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 지혜는 또한 모방이 불가능하고 모든 문학인들과 지식인들에게 도전을 제기하는 이 성서의 저항할 수 없는 힘에서 연원한다. 꾸란의 현실주의적 접근 방법, 그것이 제공하는 인간 문제에 대한 실제적인 해결책, 그리고 그것이 인간을 위해 정해 놓은 숭고한 목적을 꾸란의 지혜가 독특한 성격을 가지게 한다.

역동성(逆動性)

꾸란의 지혜가 가지는 주요 특성 중 하나는 그것이 정태적(情態的)이거나 무미건조한 형(型)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정신을 자극하고 마음에 활기를 불어 놓는 역동적인 지혜다. 이 지혜 속에는 사람을 고무하는 역동성과 꾸란 자체는 물론 역사적인 증거에 의해서 입증되는 운동력이 깃들여 있다. 무함만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리기 시작할 당시에 그가 가진 유일한 힘을 꾸란이었고 그가 가진 유일한 지혜는 꾸란의 지혜였다. 꾸란의 폐부를 찌르는 역동성은 실로 막강하여 저항이 불가능하다.

가장 다이내믹한 인물 가장 결정적인 입론(立論)이라 하더라도 꾸란의 다이내믹한 지혜에 미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례들은 많다. 하나님은 꾸란을 가리켜 루흐(Rooh) 혹은 영과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빛(꾸란, 42:52)이라고 말씀하신다. 그 분은 다시 이렇게 말씀하신다.

만약 우리가 이 꾸란을 산으로 내려보냈더라면, 진실로 너희는 그 산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움츠리고 산산이 갈라지는 것을 보았으리라, 이는 사람들을

반성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보이는 비유이니라.(꾸란, 59:21)

실천성

꾸란의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성은 그 실천성이다. 꾸란은 (현실성이 없는) 희망적 관측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그 가르침의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거나 도달하기 어려운 이상의 낙관적 흐름 위에 표류하는 것도 아니다. 꾸란은 인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자기 입장에서 될 가망이 있는 인물이 되라고 권고한다. 꾸란은 인간이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저주를 받고 태내(胎內)에서 무덤에 이를 때까지 죄에서 헤어날 수 없는 무력하고 가망 없는 존재라는 낙인을 찍는 것이 아니라 숭고하고 명예로우며 위엄 있는 존재로서 인간을 묘사한다. 꾸란의 가르침의 실천 가능성은 고금을 통하여 무함만과 무슬림들이 보인 모범에 의해서 입증된다. 꾸란의 독특한 접근 방법은 그 교훈이 인간의 전반적인 복지를 목표로 하고 인간의 힘이 미치는 한도 내의 가능성에 입각한다는 사실에 있다.

온건성

세 번째 특성은,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개인적인 것과 집단적인 것 등의 사이에 중용을 지키거나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꾸란은 삶의 모든 현실과 인간의 모든 필요에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며 인간을 도와 자신의 존재하는 숭고한 목적을 실현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러한 것들을 다룬다. 이와 같이 중용을 그 접근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꾸란은 무슬림들을 중앙의 민족(꾸란, 2:143)이라 일컫는 것이며 이와 같이 중앙에 있기에 그들은 일찍이 인류를 위해 발전된 가장 훌륭한 민족이라 일컬어지는 것이다. 그들은 의(義)를 명하고 불의와 싸우며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다.(꾸란, 3:110)

꾸란의 지혜는 3가지 주요한 차원 곧 내향적(內向的), 외향적, 상향적 차원에서 작용한다. 내향적으로 꾸란의 지혜는 마음 속 가장 깊은 곳으로 스며들며 정신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이른다. 그것은 개인을 내면으로부터 건전하게 교화시키는데 목표를 둔다. 이러한 내향적 침투는 여타의 법적 윤리적 제도의 그것과는 다르며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것이다. 꾸란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며 모든 문제를 그 분께 일임하기 때문이다.

꾸란의 외향적 작용은 각계 각층을 포괄하며 가장 사적(私的)인 문제로부터 복잡한 국제관계에 이르기까지 인간사의 전 분야에 대한 원칙을 망라한다. 꾸란은 어떤 세속법 제도나 윤리 규범에도 알려져 있지 않으며 어떤 인기

있는 종교 교리도 도달하기 어려운 분야에까지 이르고 있다. 이 점에 있어서 꾸란의 주목할 만한 점은 그것이 인간사를 다루되 거기에 하나님의 향기와 윤리적인 색채를 곁들인다고 하는 사실이다. 꾸란은 매사에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게 하며 그 분을 인도의 제일 원천, 만사의 궁극목표로서 인정한다. 그것은 인간의 영적 지침, 법제도, 윤리규범이며 무엇보다도 생활양식이다.

상향적 작용에 있어서 꾸란은 지고 유일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다.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만사는 우주에서의 하나님의 적극적인 유재(有在)인 이 초점에다 맞춰서 그것을 통하여 보아야 한다. 인간은 하나님의 광대한 영역에 있는 한 수탁자에 불과하며 인간을 창조한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을 숭배하는데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은둔이나 소극적인 현실 도피에 대한 핑계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뛰어난 성품을 이 지상에서 올바르게 구현하라는 인간에 대한 권유다. 꾸란이 위로 주의를 기울여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은 곧 인간 앞에 사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유례를 볼 수 없는 숭고한 윤리 기준으로 인도하는 것이며 평화와 선의 영원한 원천을 숙지시키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인간의 궁극 목표라고 깨닫는 것은 인간의 사교와 종교 교리의 대중적인 경향에 역행하는 하나의 혁명이다. 이 혁명의 목적은 마음을 의심에서, 영혼을 죄에서, 양심을 예속에서 해방시키는데 있다.

모든 차원에 있어서 꾸란의 지혜는 결정적인 것이나, 그것은 육체를 죄악시하거나 괴롭히지 않으며 영혼을 등한시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인간화”하거나 인간을 신격화하지도 않는다. 만사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 속에서 그것이 속해 있는 자리에 세심하게 놓여진다. 행위와 대가, 수단과 목적 사이에는 비례 관계가 있다. 꾸란의 지혜는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 그것은 요구하며 올바른 인식과 이해력을 가진 총복 같은 모든 사람들은 그 요구를 기꺼이 환영한다.

꾸란의 지혜는 사교에 있어서 진실성을, 행동에 있어서 경건성을, 목적에 있어서 통일성을, 의도에 있어서 선량함을 요구한다.

그것은 성서이니 그 속에 정녕코 확실한 인도가 들어 있느니라...(꾸란, 2:2)

이는 너희가 인류를 깊은 암흑에서 빛으로 인도케 하기 위해 우리가 너희에게 계시한 성서라...(꾸란, 14:1)

부록 II

마지막 예언자, 무함만

무함만이 하나님의 마지막 예언자라는 무슬림의 신념이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아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러한 신념은 결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비의 문을 닫아버리셨거나 물러나 앉으셨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러한 신념에 의해 위대한 종교 인물의 출세가 제한되지 않으며 위대한 정신적 지도자의 등장이 막히거나 위대한 신앙인들의 발전이 방해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무함만이 선택된 아랍인들에게만 도움이 된다거나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 분의 마지막 은총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특정 종족이나 연령 혹은 세대를 편애하시지 않으며 그 분의 자비의 문은 항상 열려 있어 그 분을 찾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이 자비의 문을 가까이 할 수 있다. 그 분은 인간에게 다음의 세 가지 방법 가운데 어느 한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신다:

(1) 영감에 의해, 영감은 하나님께서 경건한 사람들의 마음이나 정신 속에 주입시키는 암시와 생각의 형태를 나타낸다.

(2) 베일(휘장)의 배후로부터 베일은 자격 있는 수령자가 잠들어 있거나 황홀경의 상태에 있을 때 어떤 광경이나 환상의 형태로 나타난다.

(3) 하늘의 사자 가브리엘을 통하여 가브리엘은 선택된 인간 사도에게 전해 줄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온다.(꾸란, 42:51) 이 마지막 형태가 최고의 형태이자 꾸란의 무함만에게 내려온 형태에 해당한다. 그것은 무함만을 그 마지막이자 봉인으로 하는 예언자들에게만 국한되는 형태이다.

그러나 이 역시 하나님께서 당신이 주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다른 두 가지 형태로 영감을 주시고 계심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무함만은 예언자들의 봉인으로 선택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인간과 접촉하시지 않거나 인간에 대한 관심을 잃은 게 아니며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길이 막히거나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열망이 방해받아 온 것도 아니다. 이와는 달리 무함만은 예언자 지위의 정점, 꾸란을 계시의 완결판으로 선택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인간 사이의 의사소통의 영구적인 수단을 확정하셨으며 끊임없이 인도의 빛을 발하는 햇불을 올리셨다. 이러한 일반적인 관찰 결과 말고도 무함만이 하나님의 마지막 사도인 이유를 지적하는 특별한 논점들이 있다. 이 가운데 몇 가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1. 꾸란은 무함만이 천지의 통치권이 귀속하는 하나님의 사도로서 만민에게 보내졌다(꾸란, 7:158)고 언명한다. 꾸란은 또한 무함만이 다름이 아니라

인간과 비인간을 막론한 모든 피조물에 대한 자비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졌다(꾸란, 21:107)고 언명하며, 무함만은 하나님의 사도요, 예언자들의 봉인(꾸란, 33:40)이라고 언명한다. 꾸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것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모든 무슬림이 따르고 숙고하는 하나님의 진리다. 무함만의 메시지는 단순한 민족적 부흥이나 종족적 독점 혹은 굴레와 압제로부터의 일시적 해방이 아니다. 역사 방향의 갑작스러운 전환도 아니다. 무함만의 메시지는 세계적 부흥, 공통의 축복, 초국가적인 유산, 그리고 영원한 영적 해방이다. 그것은 이전의 메시지의 발전적 연속이며 앞서 내린 모든 계시의 균형 잡힌 통합이다. 그것은 인종, 연령, 피부색, 지방색의 모든 경계를 초월한다. 이 메시지는 모든 시대의 인간이 그 대상이며 바로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무슬림은 무함만이 마지막 사도라고 믿는다. 꾸란이 그것을 옳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며, 무함만의 메시지가 최고급의 실로 보편적이고 결정적인 믿음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2. 무함만이 직접 자신이 하나님의 사도라고 언명하였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무슬림이든 다른 누구든 이 언명의 진실성을 의문시할 수 없다. 생전의 무함만은 매우 진실하고 정직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알려졌다. 그의 성실성과 진실성은 무슬림들이 보기에, 뿐만 아니라 그를 가장 철저하게 반대한 자들이 생각하기에도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의 인품, 그의 영적 업적과 세속적 개혁은 인류의 전 역사상 그 유례가 없는 것이다. 역사가 무함만에 필적할 만한 인물을 탄생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는 시간이 흘러 보아야 알 수 있다. 그는 자신이 마지막 예언자인 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그러하기 때문이지, 자기가 사사로운 명예를 바라거나 사사로운 이득을 추구하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했다. 승리를 했지만 그는 우쭐해 하지 않았고 개선을 하고도 그의 빼어난 덕은 약해지지 않았다. 이득이나 명예에 대한 생각이 얼씬거리지는 일이 없었다. 그의 말은 지혜와 진리와 찬란한 빛을 발한다.

3. 무함만은 생전에 자기 사명을 완수하고 자기 사업을 매듭지은 유일한 예언자였다. 꾸란은 그가 운명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종교가 완성되었으며 믿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이었고, 계시의 진실성이 지켜졌으며 (앞으로도)안전하게 보존되리라(꾸란, 5:3과 10:9)고 언명하였다. 그가 운명했을 때 이슬람이라는 종교는 완성되었고 무슬림 신자들의 공동체는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다. 꾸란은 그의 생전에 기록되었으며 원래의 완결판으로 보존되었다. 이 모든 사실은 하나님의 종교가 적용에 있어서는 물론 개념에 있어서 무함만에 의해 완성되었으며 하나님의 왕국이 이 지상에 수립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함만의 사명, 본보기, 업적은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기 어려운 이상이거나 오직 내세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도 있는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였다. 하나님의 왕국은 무함만 시대에 존재하고 번영하였던

바, 진지한 신자들과 신앙인들이 있는 경우에는 어느 시대에서나 존재하고 번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언자 지위의 정점을 이루게 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무함만이 아니고 누구겠는가? 그리고 계시의 완결 판을 이루게 되어 있는 책이 있다면 그 책이 꾸란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지상에서의 무함만의 사명이 실제로 완수되었으며 그의 생전에 꾸란 전체가 신빙성 있게 기록되었다는 사실은 그가 마지막 예언자였다는 신념에 대해 그 누구에게나 일말의 의심도 남기지 않는다.

4. 무함만이 마지막 예언자라는 하나님의 정하심은 꾸란의 독창적이고 순수한 신빙성, 무함만의 결정적이고 독특한 업적, 이슬람의 보편성, 모든 상황, 모든 연령, 모든 사람에 대한 꾸란의 적용 가능성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이는 모든 국경을 초월하고 인종, 피부색, 연령, 재산 상태 혹은 위선의 모든 장벽을 훌쩍 뛰어 넘어 퍼지는 종교요,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과 형제애, 자유와 존엄, 평화와 명예, 인도와 구원을 보증하는 종교다. 이것이 하나님의 종교의 순수한 본질이며, 그 분이 역사의 시초부터 인간에게 베풀어 오신 류(類)의 도움이다. 무함만 그리고 꾸란과 더불어 종교의 발전은 그 절정에 달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역사가 끝났다거나 인간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온갖 하나님의 인도와 인간이 필요로 하는 실제적인 본보기들이 인간에게 충분히 마련된, 새로운 접근 방법의 시작, 신기원의 개시에 불과하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는 그분의 가장 믿을 만한, 불후의 계시인 꾸란 속에 들어 있으며 그 실제적인 본보기들은 무함만의 인격 속에서 발견된다. 만약 새로운 예언자나 새로운 계시서가 온다면 이것이 예언자의 지위의 특성이나 꾸란의 진리에 무엇을 보탬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거나 계시의 진리성을 지키는 것이라면 이 일은 꾸란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것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집행할 수 있다거나 하나님의 왕국을 지상에 수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라면 이 모든 일은 무함만이 이미 보여 주었다. 또 그것이 인간을 하나님과 올바른 인생길로 인도하는 것이라면 이 일은 꾸란과 무함만에 의해 이미 그 기초가 튼튼하게 잡혔다. 인간은 새로운 계시나 새로운 예언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깨어나는 것이요 정신을 개방하고 마음에 활기를 불어넣는 것이다. 인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이미 있는 계시와 자신의 현존 자원을 활용하고 앞서 내린 계시의 순수성을 구체화하고 보존 완성한 이슬람의 무진장한 보물을 캐내는 것이다.

5. 하나님께서는 무함만이 마지막 사도가 될 것으로 정하셨던 바, 무함만은 정해진 대로 정말 마지막 사도가 되었다. 무함만 이전의 어떤 예언자도 무함만 만큼의 업적을 이루거나 남기지 못했으며 무함만 이후에 예언자라고 자

처한 자들 가운데 그 누구도 그에게 필적할 만한 일을 해내지 못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포고는 그 뒤를 이은 위대한 역사적 사건을 예고하였다. 그 포고는 인간이 지적 성숙과 영적 극치의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고, 그 이후로부터는 무함만과 그의 전임자들에게서 발견되는 예언자직과 계시라는 풍부한 유산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예언자나 새로운 계시 없이 스스로 일을 해나가야 할 것이라는 희소식을 인간에게 전하였다. 그것은 세계의 여러 문화, 인종, 지역이 서로 점점 더 가까워질 것이며 인류가 하나의 보편 종교와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예견하였다. 이 하나의 보편 종교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정당한 지위를 차지하고 인류는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고등한 지식과 진지한 지적 사업이 인간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면에서 담당할 위대한 역할에 대한 엄숙한 증언이었다. 인간이 고등한 지식과 건전한 지적 잠재 능력에다 꾸란의 영적, 도덕적 가르침을 겸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법에 순응하게 된다는 것은 사실이다.

역사상 예언자직의 시대는 무함만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무함만은 인간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성숙할 수 있다는 증거를 보였고, 과학에 대해서는 제 기능을 발휘하여 하나님의 광대한 영역을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정신에 대해서는 숙고하고 통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 이슬람은 그 성질상 상당한 융통성과 실천성을 내포하고 어떤 상황이 생기더라도 이에 대처할 수 있을 정도로 적응력이 강하며 꾸란은 그 성질상 보편적이고 영원한 한편, 확실하고 의심할 여지없는 인도를 내포할 정도로 독특하며 무함만의 메시지는 그 성질상 모든 사람, 모든 세대를 그 대상으로 할 정도로 일반적이다. 무함만은 단순한 종족의 지도자, 민족의 해방자가 아니었다. 그는 역사적인 인물이었으며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가장 훌륭한 본보기였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모든 사람이 그에게서 배울만한 점과 따를 만한 선과 경건의 뛰어난 본을 발견할 수 있으며 모든 세대가 그에게서 잃어버린 희망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록 III

이슬람력

무슬림의 기원을 메카에서 메디나로의 히즈라 혹은 무함만과 그의 동료들의 메카에서 메디나로의 이주라는 대산건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사건을 무슬림 기원의 시작으로 채택한 것은 우마르 이븐 알-카타브-무함만 이후의 제

2대 칼리프-가 칼리프직에 있을 때였다. 지금은 히즈라후 1395년(1395 A. H)에 해당된다.

이슬람 역은 음력이어서 각 월은 달의 위상변화에 의해 결정된다. 일년에는 열두 달이 있으며, 한 달은 달의 위상에 따라 30일이 되기도 하고 29일이 되기도 한다. 각 월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무하르람, 싸파르, 라비알-아우왈, 라비알-싸니, 주마다 알-오올라, 주마다 알-싸니아, 라잡, 샤반, 라마단, 샤우왈, 줄-까다, 줄 히자.

주마다 잊지 않고 지켜야 할 특별한 날이 있다. 금요일이 이 날에 해당하는데 이 날의 의의는 참석이 가능한 모든 무슬림이 준행해야 할 정오 집단체에서 유래한다. 이 외에도 잊지 않고 특별히 지켜야 할 뜻깊은 날들이 있다.

1. 히즈라 ; 무하르람월, 초하룻날 전야에 해당한다.
2. 예언자 탄신일 ; 라비알 알 아우왈월 열 이튿날 전야에 해당한다.
3. 라마단 월 ; 단식하는 달로써 이 달에 꾸란이 계시되었다.
4. 까드르의 권능의 밤 ; 라마단의 23일이나 25일 혹은 27일에 이 날을 경축할 수 있다.
5. 이둘-피뜨르(라마단 월의 단식을 파하는 축제) ; 샤우왈월 초하룻날에 해당한다.
6. 이둘-아드하(희생의 축제) ; 줄-히자월 열흘날에 해당한다.